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6. 11.(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김태영
(덕문), 김창준,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정은우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4건		비 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공 개
2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해제>	
3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변경>	
4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 7~8, 9~10' 수량 및 명칭 변경	공 개
【검토사항】 12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5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6	지정조격 권1~12, 23~34	공 개
7	효경	공 개
8	김육 초상 일괄	공 개
9	남구만 초상 일괄	공 개
10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공 개
11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공 개
12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 개
13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 개
14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공 개
15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공 개
16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3-001

1.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가. 심의사항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부터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8.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8.19.) 및 과학조사(’20.2.12.~2.1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4.29.~5.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9호(1972.8.7.)
- 명 칭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長城 白羊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약수리 26) 백양사
- 수 량 : 불상 1구, 대좌 1점, 중수발원문 2점
- 규 격 : 불상 높이 208.2cm, 무릎 폭 150.9cm, 대좌 51.5×183.7×144.3cm
- 재 질 : 목조, 소조, 종이
-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불상 및 대좌), 1741년(영조 17) 개금, 1775년(영조 31) 개금

○ 제작자 : 현진, 휴일, 문습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정면/ 측면)

< 지정사유 >

- ◆ (역사적 가치)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의 작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른 불상으로 제작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례
- ◆ (예술적 가치) 목조와 소조기법을 병행해 신체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처리해 수준 높은 조각 기법과 조형성을 보여줌
- ◆ (학술적 가치) 1741년과 1775년에 이루어진 개금(改金) 중수 사실이 남아 있어 불상의 조성부터 중수내력과 참여 화원(畵員)들의 역할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고, 대좌(臺座) 역시 제작과 관련된 묵서명이 남아 있는 희귀한 사례이자 17세기 불상 대좌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불상 관련>

○ (지정 가치 있음)

1.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목조대좌 상대 밑쪽의 묵서를 통하여 조선시대 1607년에 현진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 묵서와 중수발원문에는 어떤 불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구품

연대를 뜻하는 “연대”가 확인되어 아미타여래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불상은 기존에 알려진 현진의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인 1612년명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불좌상보다 앞서 조성된 것으로서, 조각승 현진이 처음 활동했던 곳이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라는 것을 알려 주는 불상이기도 하다.
2. 일부 복장유물은 없어졌으나 불상의 연혁을 알려 주는 조성 묵서와 중수발원문이 남아 있어서 이 불상을 통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丁酉再亂 직후에 있었던 재건 불사(佛事)가 백양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목태소조 기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 지정된 불상을 근거로 볼 때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으로 명명하는 것이 관례에 맞다고 판단된다.
4. 비록 복장유물은 완전하지 않지만, 묵서의 1607년 조성이라는 기록과 같이 불상은 17세기 초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대좌의 일부분이 근년에 보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불상이 조성되던 17세기 초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조아미타여래좌상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좌상은 목조대좌 상판 밑면의 묵서명을 통해 1607년 현진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특히 이 불상은 높이 2m로 비교적 큰 상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3m 이상의 더 큰 거불상에서 사용되는 목태소조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표현 양식도 같은 현진의 작품들 중에서 1~2m 내외의 불상보다는 선운사와 귀신사의 소조불상과 같은 거불상의 표현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1600년대 조성된 대형불상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 양식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들 거불상들의 시원적 원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그 표현양식이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및 무염작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 양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유사하여 이들 불상양식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불상이다.
3. 묵서명에서는 ‘선왕선후조종열위’를 언급하고 있는 바, 이 불상이 조성된 선조 연간에 앞서는 선왕으로서 명종대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백양사 극락전불량계서(白羊寺極樂殿佛糧契序)>에는 문정왕후를 기리고 있어서 백양사의

주요 불사가 조선전기 잠시나마 불교중흥이 이루어졌던 명종(문정왕후) 시기를 기리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4.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성기로서 대좌의 묵서명, 두 차례의 중수원문이 복장에서 발견되어 불상의 조성과정과 중수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불상이 조성된 이후의 관리 상황을 연속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
5.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두 차례의 중수원문에서 모두 시왕상의 개채와 동시에 개금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이 아미타여래좌상과 시왕상이 한 조각에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1775년 후 불탱화 조성기는 두 번째 중수원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부전의 시왕상에도 동일한 내용의 중수문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상들도 있었을텐데 두 번에 걸쳐 동시에 아미타불과 시왕상이 함께 개채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서방정토신앙과 명부신앙을 서로 연관된 신앙으로 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만력(萬曆) 35년(1607) 11월에 돌아가신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비롯한 왕실의 조상들이 성불을 기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조각은 현진(玄眞) 등 3명의 조각승이 맡았다.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은 목조기법과 소조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불상으로 기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1610년 이전에 조성된 불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 불상이며, 이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전란이 끝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진행된 재건불사의 산물로 조성된 기념비적으로 조성된 불상임을 말해 준다. 비록 불사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좌 묵서에는 불상 제작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조각사 연구에 필수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7세기 불교조각사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불상을 제작한 현진은 17세기 전반기 가장 명성을 날린 조각승인데, 17세기 시작을 여는 불상답게 장대한 규모에 기백 넘치는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이 불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첫 작품이라는데 조각사적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은 그의 조각의 형성과 전개, 활동 범위 등을 연구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이외에도 1741년과 1775년에 이루어진 개금 중수 사실까지 남아 있어 불상의 조성부터 중수 과정까지의 내력과 중수 화원들의 역할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이 시기 대좌로서는 드물게 제작과 관련된 묵서명이 남아 있어,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와 마찬가지로 대좌 연구에 귀중한 학술 자료가 되므로 불상과 함께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白羊寺) 극락보전(極樂寶殿)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과 복장유물(腹藏遺物)은 2017년 10월에 발견된 목조 대좌 안쪽 상판의 묵서 내용을 통하여 선왕(先王)과 선왕후(先王后)를 비롯한 왕실 조상들의 성불(成佛)을 기원하면서 조선시대 1607년(만력萬曆 35) 11월에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찰의 전언에 따르면, 1970년대에 한 차례 개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때 지금의 복장유물이 수습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후령통이 없어지고 후령통 속에 있던 일부 복장물과 그것을 감싸던 봉함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복장유물들은 전체 수량이 아니라 일부분으로 추정된다. 비록 대좌의 묵서를 통하여 불상이 1607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불상 조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지 않고 중수발원문만 전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중수발원문에는 조선시대 1741년(영조英祖 1)에 불상이 개금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금만 했는지 아니면 일부 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불상은 근년에 많이 사용되던 카슈로 개금된 상태이며, 이는 사찰의 전언과 같이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 불상은 전체적인 형태를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소토(塑土)를 입혀 세부를 조각한 다음, 천으로 마감하고 개금하여 완성하였다. 그러나 소토가 불상 표면 전체에 다 입혀졌는지, 일부분만 입혀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불상의 무릎 위에서는 개금층 일부가 벗겨져 카슈의 붉은 색이 확인되며, 천으로 마감한 불상의 등 뒷부분에서는 천이 부분적으로 갈라진 채 소토층으로부터 살짝 떠 있는 현상도 확인된다.

한편 크기로 보아 불상과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대좌는 내부에 사용된 못이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1970년대에 개금할 때 일부분이 새로 보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백양사 극락보전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목태소조(木胎塑造) 기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목조불상, 소조불상, 목태소조불상, 목심소조불상 등 다양하게 명명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불상들 중 목태소조 기법으로 조성된 불상들은 모두 소조불상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이 불상도 소조불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듯하다. 비록 불상은 목서에서 특정한 붓다의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아미타극락정토의 구품연대(九品蓮臺)를 뜻하는 “연대(蓮臺)”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미타여래상으로 명명하는 것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백양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통견(通肩) 방식으로 법의(法衣)를 입고 가부좌(跏趺坐)하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살짝 내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아미타불의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다. 불상은 정상계주(頂上髻珠), 중앙계주, 육계(肉髻)가 표현된 두발(頭髮), 방형에 가까운 얼굴에 가늘고 긴 눈, 이마에서부터 완만한 선을 이루고 있는 콧등, 양감이 느껴지는 양 볼, 살짝 힘이 들어간 입술을 가지고 있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머리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상체가 길고, 다리의 두께는 얇은 편이다. 상체는 횡경막 아래 부분이 그 위의 가슴 부분보다 길고, 살이 쪼 상당히 두꺼운 편이다. 통견 방식으로 착용한 법의에서는 상체 정면의 길게 내려온 U자형 표현과 가슴 중앙에 일자형으로 가로 지른 3개의 띠 주름이 눈에 띈다. 법의 자락은 몸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처리되었는데, 간결하고 직선적으로 처리된 조밀한 법의 주름과 왼쪽 팔꿈치까지 늘어진 ‘Ω’ 모양의 법의 표현은 특징적이다.

백양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는 신체 비례와 법의 표현 방식 등 조형적인 특징들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직후인 17세기 초에 원오(元悟), 태진(太顛), 자향(慈香), 수연(守衍) 등의 조각승이 조성한 불상들에서도 볼 수 있다. 목서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수조각승(首彫刻僧) 현진(玄眞)이 휴일(休逸), 문습(文習)과 함께 1607년에 조성한 불상으로서, 현존하는 현진이 만든 불상 중에서는 가장 이른 예이다.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만든 불상으로는 1612년명 경상

남도 진주 월명암(月明庵) 목조아미타불좌상, 1612년명 경상남도 함양 상련대(上蓮臺) 목조관음보살좌상, 1612년명 전라남도 구례 지장암(地藏庵) 목조지장보살좌상, 1622년명 서울 자수사(慈壽寺)·인수사(仁壽寺) 목조불상들과 보살상 등 목조상들과 1626년명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法住寺) 소조삼신불좌상(塑造三身佛坐像) 등 목태소조 기법으로 만든 불상들이 있다. 다만 정상계주의 형태와 나발(螺髮)의 모습, 이마에서 완만하게 이어진 콧등, 두툼한 턱 등 얼굴의 일부분과 상체 정면에서 길게 내려와 있는 U자형의 법의 표현과 성글게 표현된 가로지른 3개의 띠 주름 등은 현진의 조각풍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1741년에 개금할 때 중수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휴일은 1651년에 전라남도 고흥 금탑사(金塔寺)에서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적이 있으며, 문습이 참여해서 만든 불상의 예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 대좌 목서

萬曆三十五年丁未中寒日造成之記

願我佛像造成之然故先王先后祖宗列位仙加方成佛道坐蓮臺

主上三殿壽萬歲 畫員秩 玄眞比丘休逸比丘文習比丘

持殿 暉正比丘 飯頭 惠員比丘 熟頭 應祥比丘 別座 宗道比丘

化主 雙願比丘



○ 복장 유물

1. 중수원문 1(1741년, 필사본)

(1) 크기 26.1×131.5cm

(2) 내용

乾隆六年辛酉六月日長城白羊山淨土寺佛像改金與十王重修下壇帝釋天龍幀施主與緣化畫員秩 大施主 李泰仁 兩主 性哲 比丘 嘉善大夫 林萬株 靈駕 就源 比丘 天照 比丘 泰雲 比丘 金命鐸 兩主 金遇秋 兩主 李氏黠德 保体 李枝元 兩主 通政大夫

車千軾 兩主 李順漢 兩主 鮮演 比丘 八覺 比丘 李自鏡 兩主 權常玄 兩主 爲〃施
 主等現增福壽當生極樂之願 緣化秩 證師 大禪師 喆關 比丘 持殿 敏瀨 比丘 畫員
 就性 比丘 師仁 比丘 戒岑 比丘 性淳 比丘 道還 比丘 戒初 比丘 供養主 印聖 比
 丘 ■閑 比丘 ■■■ 比丘 別座 体心比丘 化士 靈峰堂 大禪師 自澄比丘 本寺 住持
 六謙比丘 三綱 善澤 曉天 成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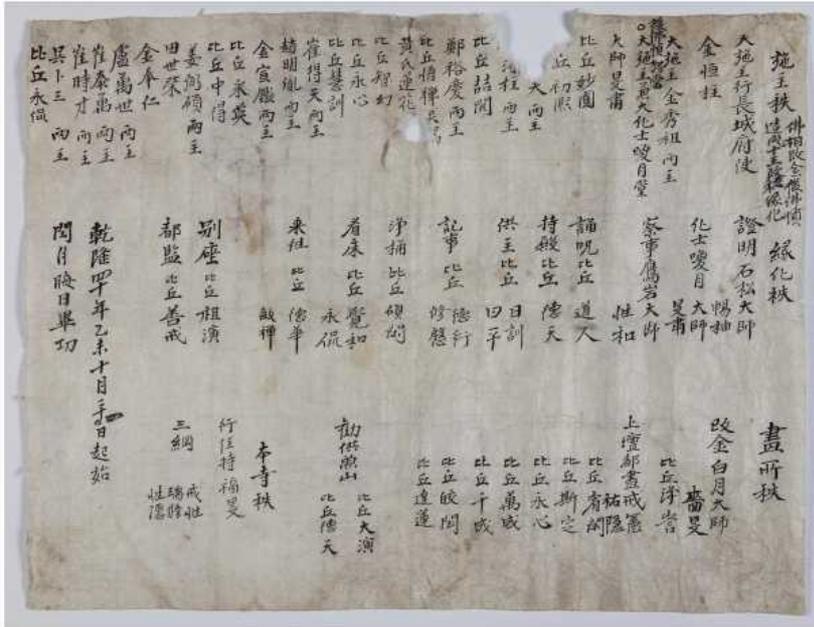
2. 중수원문 2(1775년, 필사본)

(1) 크기 45.2×59.6cm

(2) 내용

佛相改金後佛幀 造成十王改彩緣化 施主秩 大施主 行長城府使 金恒柱 大施主 金秀
 祖 兩主 後佛幀 獨當 大施主兼大化士 喚月堂 大師 旻肅 比丘 妙圓 比丘 初瀨 ■
 ■大 兩主 ■■■柱 兩主 比丘 喆關 鄭裕慶 兩主 比丘 悟禪 靈駕 黃氏 蓮花 比丘
 智幻 比丘 永心 比丘 慧訓 崔得天 兩主 趙明胤 兩主 金宣鑑 兩主 比丘 采英 比丘
 中得 姜弼碩 兩主 田世榮 金奉仁 盧萬世 兩主 崔泰萬 兩主 崔時才 兩主 吳卜三
 兩主 比丘 永侃 緣化秩 證明 石松大師 暢袖 化士 喚月大師 旻肅 察事 鷹岩大師
 性和 誦呪比丘 道人 持殿比丘 德天 供主比丘 日訓 日平 記事比丘 德衍 修慙 淨桶
 比丘 碩閑 看床比丘 覺和 永侃 來往比丘 德華 敏禪 別座比丘 祖演 都監比丘 善戒
 畫所秩 改金 白月大師 嗇旻 比丘淨豈 上壇都畫 戒憲 祐隱 比丘宥閑 比丘斯定 比丘
 永心 比丘萬成 比丘千成 比丘皎閏 比丘達蓮 勸供魚山 比丘大演 比丘德天 本寺秩 行
 住持 福旻 三綱 戒性 瑞修 性隱 乾隆四十年乙未十月二十四日起始閏月晦日畢功

2. 중수원문 2(1775년, 필사본)



3. 후령통 내 복장유물 일괄: 후령통 복장유물 봉합지 14.3×43.5cm



[사진 자료]

1. 백양사 극락보전 전경



2. 소조아미타여래좌상



3. 목조 대좌



4. 목태소조 기법(오른쪽 팔목 결합 부분)



5. 박락된 도금층 부분(카슈개금층) 6. 불두의 나발과 계주 7. U자형 법의 표현



□

○ 현 상

현재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白羊寺) 극락보전(極樂寶殿)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으며, 2008년 4월 11일 전남 유형문화재 제289호로 지정되었다. 조사대상인 본 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된 극락보전은 1574년(선조 7) 승려 환양(喚羊)이 백양사를 중건할 때 조성된 건축으로 전하며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법당이기도 하다. 백양사의 중심축선은 남북축선에 가깝운데, 이 극락보전은 서쪽에서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원래부터 서방극락정토의 방향성을 암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백양사는 원래 정토사로 불리고 있다가 환양선사 때부터 백양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므로, 정토사 시절에는 주불전으로 극락보전(무량수전), 주불로 아미타불을 봉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백양사에서 아미타 신앙은 중요한 위상을 오래전부터 지녀왔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조사대상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연대가 조선후기로 내려오지만, 그 이전부터 백양사에는 아미타여래가 주불로서 봉안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실린 <백양사극락전불량계서(白羊寺極樂殿佛糧契序)>에는 ‘문정왕후빈향축열서(文定王后賓香祝列書)’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아마도 중건 당시 문정왕후와 어떤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정왕후는 1565년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원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0월 이 불상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개금기록이 있는 중수원문 2건 및 대좌의 상판 안쪽에 새겨진 묵서명을 통해 만력35년, 즉 1607년(선조40)에 조성되어 1741년 및 1775년 두 차례에 걸쳐 개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좌 안쪽에 조성기를 묵서한 예는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에서도 볼 수 있어 보편적인 방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불상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라 대좌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1607년의 연대는 불상의 양식과 비교했을 시기적으로 부합하며, 또한 높이 2m 가량의 불상은 비교적 드문 편이어서 이에 맞는 대형불

상의 대좌라는 점에서 원래의 대좌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극락 보전과는 30여년 정도의 연대차이가 있어서 동시에 일괄로 조성된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정황상 문정왕후 생전에 백양사에 일정부분 지원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환영선사가 중건하면서 불량기문에 문정왕후를 추모하는 기사를 썼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후 문정왕후의 사망으로 조선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까지 일어나면서 미처 불상을 조성할 기회가 없었거나, 혹은 조성된 불상이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 도난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1607년에 이 아미타여래좌상이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좌 묵서명에 의하면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현진(玄眞)을 수조각승으로 하여 휴일(休逸), 문습(文習)이 함께 조성하였다. 현진의 작품으로서는 지금까지 그의 작품으로서 가장 이른 시기로 알려진 1612년작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원래 삼존일괄로 조성되었으나 분산소장된 것으로 보임)보다 5년 더 빠른 작품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조각승 휴일은 1651년에 전라남도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조성한 바 있으며, 조각승 문습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또한 대좌 묵서명에서는 특별히 “先王先后祖宗列位仙加方成佛道坐蓮臺”라고 하여 선대 왕후와 조상들이 깨달음을 얻어 연화대에 오르기를 기원하고 있다. 1607년이면 광해군이 대리청정을 하던 기간이었으므로 여기서의 ‘선왕’이 선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선왕이 승하한 이후 극락정토의 연화대에 오르기를 바라는 뜻이므로 1608년 사망한 선조가 아직 생존해 있었던 1607년의 발원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의 선왕은 명종 및 명종비 인순왕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양사 중건과 관련되어 있던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한편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에 의해 건륭6년(1741년, 영조17년)에 개금하고 이와 함께 시왕상을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75년에도 개금을 기록한 중수문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아미타여래좌상 뒤에 걸려있었던 후불탱화인 <장성 백양사 아미타회상도>는 현재 정보박물관에 걸려있으며, 1775년(건륭40년)에 그려진 것인데, 이 후불탱화의 화기는 두 번째 중수발원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참여자 명단은 축소되어 기록되었다.) 이에 의하면 당시 불상 개금 및 후불탱화 조성과 함께 시왕상 개채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복장중수발원문과 후불탱화 화기에서 동일하게 아미타불과 시왕상을 함께 다루고 있는 현상이 이들 존상들이 극락전 안에 함께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에도 지금처럼 명부전에 별도로 봉안되어 있었는데 기록만

함께 남긴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의 명부전은 1786년 건립된 것으로 전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만약 명부전이 없었다면, 극락보전 안에 아미타불과 시왕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명부전 존상들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1607년 조성 이후 개금 기록인 1741년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개금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불과 35년 뒤인 1775년에 재차 불상개금을 했던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잦은 개금이 만약 아미타여래좌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불상은 목태소조(木胎塑造)로서 얼굴과 같은 세부적인 조각적 마감은 소조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금이 이루어질 때 일부 변형이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의 개금은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 내용 및 특징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2m에 달하는 비교적 거구의 존상이다. 오른손은 시무외인으로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의 왼편에 올린 전형적인 조선시대 아미타불의 모습으로 통견 착의에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다.

우선 크기에 있어 대부분의 조선시대 목조불상은 1m 내외인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2m 내외의 상들은 비교적 그 사례가 드문 편이다. 물론 이보다 더 거대한 조선후기의 불상인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본존 비로자나불 높이 5.9m, 현진, 1626년),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높이 약 3m, 법해·무염, 1634년),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높이 3m 내외, 1620년대 중반),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불상(높이 5.2~5.5m, 청헌, 1641년),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5.2m, 현진, 1633년) 등에 비하면 작지만, 그 다음의 규모로서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대구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2.25m, 현진 추정),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석가여래좌상(2.4m, 청헌 1636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좌상(높이 1.9m, 1656년),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높이 2.2m, 1655년) 등 2m 내외의 불상 그룹에 속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불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는 2m 내외이지만, 그 양식은 같은 2m 내외의 불상들과 달리 오히려 선운사나 무량사의 높이 3~5m 불상의 양식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과 같이 현진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크기도 유사한 동화사 금당암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비교해보면 금당암 아미타상은 전체 불상의 높이에 대한 무릎 높이의 비례가 높은 편이고, 백양사 아미타상은 낮은 편이어서 상체가 더 길게 늘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비례는 선운사 소조불좌상이나 귀신사 소조불좌상처럼 더 큰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체가 길게 늘어진 비례에서 오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래 내의가 수평으로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그 위의 가슴이 노출된 부분의 면적이 더 넓게 열려있는 것도 대형소조불상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금당암 아미타불좌상은 일반적인 조선후기 불상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간 등이 굽은 듯한 움츠러든 자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대형소조불상들은 백양사 아미타불좌상처럼 꼳꼳하게 등을 편 모습이다. 금당암 아미타불좌상이나 그밖의 2m 내외 불상들은 목조로 알려져 있는데 유사한 크기의 백양사 불상은 목태소조여서 이러한 특징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당암 아미타불좌상이나 법주사 원통전 관음보살좌상 등의 제작기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듯하다. 만약 이들 상들이 순수한 목조로 조성된 상이라면, 백양사 불상은 같은 2m 내외에 속하는 불상이면서도 3m 이상의 불상에 사용되는 소조불상 기법을 사용한 특별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2m 내외의 불상들은 법주사 원통보전 관음보살좌상을 제외하면 3m 이상의 대형불상들처럼 삼세불, 삼신불, 삼존불 형식으로 조성된 사례가 많다. 원래 1m 내외의 불상들도 단독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삼세·삼신·삼존 형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불상들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대형의 불상들은 이동이 쉽지 않아 원래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2m 이상의 큰 규모에 속하는 불상들은 함께 만들어진 일괄불상들이 전하는 경우가 많고, 법주사 원통보전 관음보살입상은 원래부터 단독으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다.(그럼에도 법주사의 경우는 남해용왕과 남순동자가 협시로서 작지만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에 반해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은 단독으로 전한다. 이러한 현상이 원래 함께 조성된 다른 불상들이 있었으나 소실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단독으로 조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건의 중수원문이나 대좌 목서명을 보면 이 아미타여래좌상이 다른 불상과 함께 삼존불을 구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시왕상과 함께 일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아미타불과 시왕을 함께 봉안하는 사례는 알려진 바 없으므로 백양사 아미타불과 시왕상이 한 전각을 구성하는 일괄 도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으로, 즉, 대좌상판의 목서명에 밝힌 것처럼 돌아가신 선대 왕과 왕실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미타불을 조성하고, 또한 그 반대편인 명부에 있을 수도 있는 영가를 극락으로 옮겨가기 위해 지장시왕상을 함께 조성하여 별도의 공간에 봉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수원문에 기록된 개금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명부전에 문제가 있어 시왕상이 아미타불과 한 공간에 임시방편적으로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백양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은 목서에 의해 현진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불상양식에 있어서도 현진의 기존의 알려진 불상들의 양식과 다르지 않다. 다만 초대형 불상조성의 경험이 많았던 현진의 다른 작품들, 예를 들어 범주사나 무량사 소조불상보다는 정확한 조각승이 밝혀지지 않은 귀신사나 혹은 법해·무염의 작품으로 밝혀진 선운사 소조불상의 양식에 더 가까운 점이 특이하다. 특히 선운사 소조불상은 비록 무염파의 작품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무염의 다른 불상조각양식과 그 표현이 많이 달라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진의 작품으로 이번에 밝혀진 백양사 아미타여래좌상이 이들 귀신사, 선운사 불상들과 양식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무량사·범주사와는 유사하면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이들 귀신사·선운사 불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귀신사·선운사 불상의 조각가를 비정하고 그 양식적 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내용 및 특징

백양사(白羊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며, 백암산 상왕봉(741.2m)의 줄기가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 멈춘 백학봉(722m) 남쪽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백양사는 정도전(1337-1398)이 지은 『白巖山淨土寺橋樓記』에 “신라 때 어떤 異僧이 절을 짓고 살면서 白巖이라 하였고, 宋 景平年間(423)에 淨土禪寺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長城縣 佛宇條에는 ‘淨土寺’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750년에 제작된 『海東地圖』에는 ‘白羊寺’로 표기되어 있고, 이후에 제작된 지도에도 백양사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18세기 중반부터는 백양사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849년에 완성된 『백암산정토사사적』에는 ‘淨土寺’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까지 ‘淨土寺’와 ‘白羊寺’를 혼용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백양사 극락보전의 주불로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이다. 극락보전은 정면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지붕형식이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미타불상은 극락보전 高柱에 기대어 방형의 수미단을 제작하고, 수미단 위에 다시 팔각대좌를 올려놓고 그 위에 봉안하였다. 불상의 주재료는 나무이며, 부재료로 일부 흙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부분의 형체는 나무로 제작하고, 살집이나 일부 주름의 볼륨을 강조하기 위해 흙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높이는 2.08m로 비교적 큰 규모의 불상에 속하

며, 1620-30년대 4-5m에 달하는 대형불상 출현을 예고하는 불상이다. 무릎은 낮고 넓고, 허리는 길고 늘씬하여 장대한 형태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대한 형태미는 주로 17세기 1/4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2017년 10월 불상을 안치한 팔각대좌의 밑면에서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묵서명이 발견되었다. 묵서에는 제작시기, 발원내용, 소임자 순으로 매우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불상의 제작시기는 만력 35년 丁未(묵서명에는 丁米), 즉 1607이다. 불상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화주는 雙願, 조각승은 玄眞, 休逸, 文翬이 참여하였다.¹⁾ 이 묵서명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 불상은 조각승 현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대체로 대좌 등에 기록된 발원문은 지면의 제약 상 요약된 형태로 남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원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화승과 시주자가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묵서명이 발견되기 전까지 현진의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1612년에 제작한 진주 월명암 아미타불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이었으나, 이 묵서명의 발견으로 인하여 그의 활동 시기를 5년 이상 앞 당겨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작품은 삼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12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1614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원 자수사 인수사 봉안),²⁾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22년, 원 자수사인수사 봉안),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26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9년),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29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33년), 청도 적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6년),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불상(1637년, 현 영남대박물관) 등이다. 이외 1615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처럼 제작당시의 조성발원문이 없거나 조성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몇 점의 현진 추정 작품이 전하며, 1617년에 제작된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에는 시주자로도 참여하였다.

휴일은 이 불상 조성 이전 覺敏을 도와 1606년에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고, 1651년에는 고흥 금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기록이록이 있으나 같은 조각승인지 시기적 차이가 너무 커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

2005년 2월 발견된 복장유물 중에서는 1741년(영조 17) 명부전의 시왕상 중수와 함께 개금불사를 시행했다는 복장기(26×129cm)와 1775년 개금불사를 시행했다는

1) 이 묵서명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이 불상은 현진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손영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5(<http://encykorea.aks.ac.kr>)

2)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은 광해군의 왕비인 장열왕후(문성군부인 류씨)가 발원 조성한 11구의 불상 중 1구인데, 최근에 지정된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도 조성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발견된 중수발원문과 복장전적들을 통해 볼 때 지장암 비로자나불상과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불상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수기문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이 불상은 1607년에 조성된 이래 1741년과 1775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수기 이외에도 훼손이 심해 해체지경에 있는 후령통(오보병)과 많은 전적류가 확인되었다. 1741년 중수에는 철관스님의 증명으로 취성, 사인, 계잠, 성순, 도환, 계초 등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 이 중 계잠은 1780년에 장흥 보림사 천왕·금강·문수·보현상을 중창하였고, 1784년에는 수화승 有誠을 도와 김천 직지사 천불상 개금하였다. 1787년에는 고창 선운사 대법당 장육전 팔상전 개금중수에 참여하였다. 계초는 1754년 곡성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하였고, 1757년에는 구례 화엄사 목조삼존불상을 개금하였다. 이외의 조각승의 활동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개금중수인 1775년에는 색민, 정암 등이 참여 하였다. 두 번째 중수 화원 색민은 18세기대 최고의 畫僧 중 한명인 義謙의 화풍을 계승한 불화승으로, 그는 1741년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부터 1775년 <장성 백양사 아미타설법도>에 이르기까지 약 34년 동안 20여점의 작품을 남긴 화승이다.

우선, 불상의 머리는 반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이마의 발제선(髮際線)에서 정상계주까지의 높이가 낮은 편이고, 육계의 윤곽도 불분명하다. 17세기 후반의 불상에서 보이는 높은 반구형의 머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모양의 중간계주와 반구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둥근 이륜과 짧은 콧불을 가진 귀는 ‘?’형태를 보이며, 콧구멍은 열쇠구멍 형태를 띠며, 상하각(上下脚)의 연골은 쇠기모양으로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이마가 넓고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았다. 얼굴은 불이 평면적이고 양악(兩顎)이 발달하여 넘직한 방향을 띤다. 활처럼 휘어진 눈썹에서 이어진 삼각형의 큼직한 콧날은 다소 통명스럽고, 슬쩍 치켜 올린 눈초리는 사바세계를 향하게 하였다. 인중은 폭이 넓고 길이는 짧으며, 입술은 얇으며, 입가를 슬쩍 눌러 열은 미소를 머금었으나 전반적으로 엄숙하다. 짧은 목에는 삼도의 윤곽이 드러나 있고, 가슴의 쇠골선은 둔중하다.

착의형식은 上衣 위에 大衣를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오른 쪽 어깨 위에는 반달형으로 걸친 대의자락이 표현되었다. 못 깃은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뒤집어 주름 잡았는데, 이는 1612년작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14년 구례 천은사 관음보살좌상,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등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표현된 불의(佛衣)는 장대한 신체의 윤곽을 따라 다소 두텁게 입었으며, 수직의 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거침없이 뻗어내려 장대한 신체를 더욱 장대하게 보이게 한다. 왼쪽 측면으로 흘러내린 주름은 낙타등 모양으로 크게 M자형의 주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주름은 약간의 형태 변화는 있으나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뒤로 넘긴 대의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가슴은 볼륨 없이 밋밋하였으나 복부는 부풀려 佛身の

빈약함을 보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둘러 입은 군의(裙衣)가 표현되었고, 띠 자락과 매듭의 표현은 없으며 몇 가닥의 수평주름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하였다. 무릎은 허리에 비해 낮고 넓으며 길상좌를 앉았다.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린 왼발은 대의자락으로 덮어 윤곽만 드러나 있다. 무릎 앞쪽으로는 길고 좁은 나팔모양의 주름이 자리 잡았고, 이 주름을 중심으로 3-4단의 수평 주름이 양쪽 무릎 끝까지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무릎 주름은 1606년 覺敏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나 1612년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보살 및 대세지보살좌상(1614년), 1612년에 태전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해남 대홍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그리고 1619년에 수연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여러 조각승의 대표 작품에서 두루 표현되고 있는 등, 이른바 이 시기 유행한 시대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손은 따로 제작하여 둥글게 흠을 판 팔목에 끼웠다. 두 손은 둔중하지만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타고 있으며, 엄지와 중지는 정확히 맞대어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손바닥에는 ‘키’형의 손금을 간략하게 음각하였다. 엄지와 중지를 비껴대지 않고 정확히 맞댄 것도 현진의 手印에서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근엄한 상호, 시원스럽게 처리한 주름 표현, 늘씬하고 장대한 신체 비례 등은 현진의 1610년대 작품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16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에 조성된 현진의 후반기 작품은 대체로 전반기 작품에 비해 무릎은 좁고 높으며, 허리가 줄어들어 상·하체 모두 둔중한 경향을 보인다. 얼굴도 고요하고 엄숙한 모습에서 둥글 넓적하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팔각대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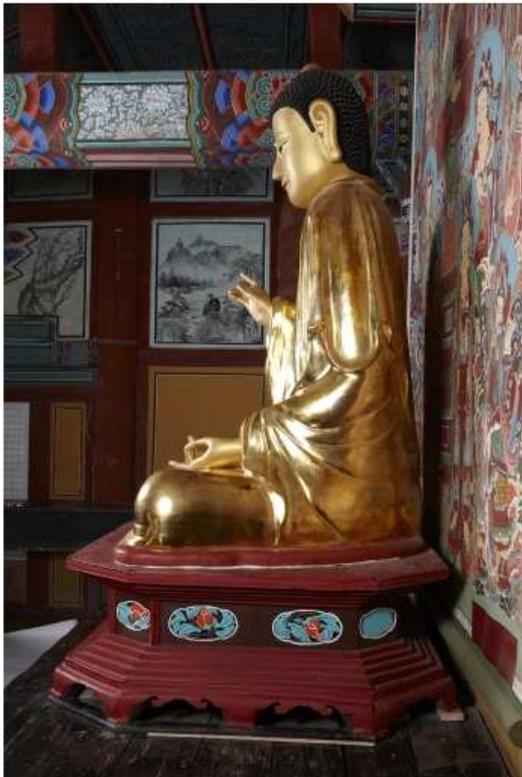
대좌는 사각형의 수미단 위에 놓여 있는데, 여러 개의 나무를 이어 붙여 만든 것이다. 밑면에 적힌 ‘後緬疊合’이라는 목서명을 통해 앞면과 뒷면을 접합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면은 부정팔각형을 띄고 있는데, 이는 사각형에 네 모퉁이의 모를 약간 죽인 형식이다. 구성은 상대, 중대, 하대로 되어 있다. 하대는 족대와 마대로 구성되어 있고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게 눈각을 초각하여 멧을 부렸다. 마대의 일부는 결실되었고 결실된 부분의 족대에는 괴임목을 받쳐 수평을 잡았다. 중대받침은 4단으로 구성하였다. 중대의 궁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마련하고 그 속에 꽃무늬를 조각하였다. 상대받침 역시 중대받침과 마찬가지로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의 윗면에는 난간을 설치했던 구멍이 남아 있으나 지금은 모두 결실된 상태이다. 대좌 밑면에 써져 있는 목서명에 따라 1607년에 제작된 대좌로 판단된다. 대좌의 최대 크기는 1837.96(하대정면)×1443.2(하대측면)×532.31(높이)cm이다.



도177. 정면



도178. 우측면



도178. 좌측면



도179.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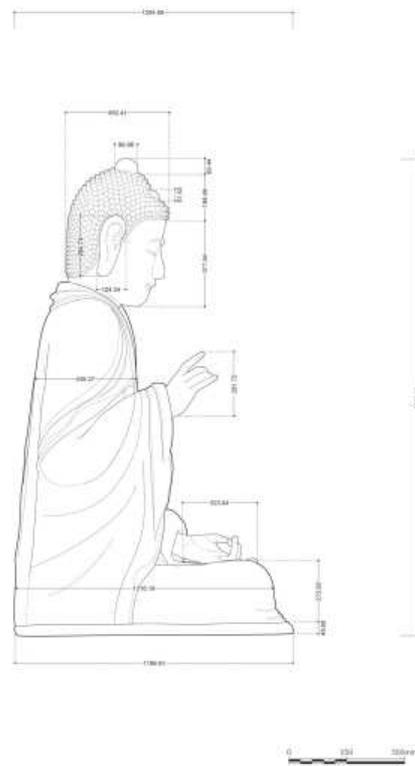
도179. 대좌 목서 부분1(조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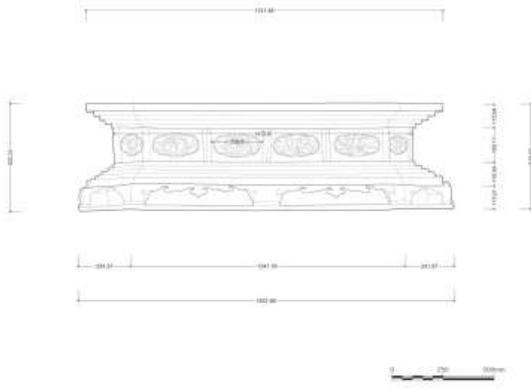
도180. 대좌 목서 부분2(조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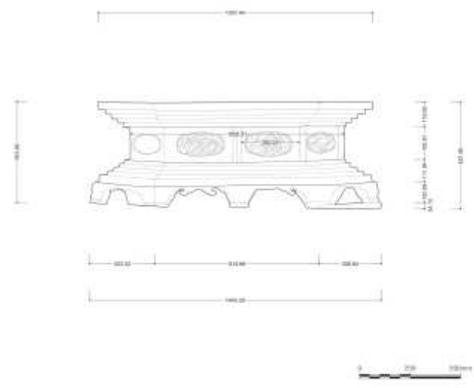
도180. 정면 실측도면



도181. 측면 실측도면



도181. 대좌 정면 실측도



도182. 대좌 우측면 실측도

□ 수조각승 현진 작품 현황

연번	작품명	시대	크기(본존)	지정현황
1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208cm	전남유형 제289호
2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12년	80cm	보물 제1686호 2010.12.21
3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	1612년	39.5cm	경남유형 제456호
4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	1614년	93.0cm	보물 제1889호 2016.2.22
5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17.5cm	보물 제1621호 2009.10.20
6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22년경	117.0cm	보물 제2004호 2018.10.30.
7	안동 선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22년	42.0cm	경북유형 제497호
8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509cm	보물 제1360호 2003.2.3
9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1629년	150cm	보물 제1730호 2011.11.23
10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25cm	보물 제1999호 2018.10.4
11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521cm	보물 제1565년 2008.6.27
12	청도 적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6년	141cm	경북유형 제529호
13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영남대 박물관 소장)	1637년	33.1cm	비지정

1. 대좌묵서

①

萬曆三十五年丁
米中寒日造成之記
願我佛像造成之
然故先王先后祖宗列
位仙加方成佛道坐
蓮臺
主上三殿壽萬歲

畫員秩	持殿
玄眞比丘	暉正比丘
休逸比丘	飯頭 惠賢比丘
文習比丘	熟頭 應祥比丘
	別座 宗道比丘

化主 双願比丘

②

後面疊合

2. 白羊寺 極樂寶殿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記文 I (1741) 26.1×131.5cm



乾隆六年辛酉六月日長城白羊山
淨土寺佛像改金與十王重修下壇帝
釋天龍幘施主與緣化畫員秩
大施主李泰仁兩主
 性哲 比丘

嘉善大夫林萬株靈駕

就源	比丘
天照	比丘
泰雲	比丘
金命鐸	兩主
金遇秋	兩主
李氏點德	保体
李枝元	兩主
通政大夫車千軾	兩主
李順漢	兩主
解演	比丘
八覺	比丘
寶瓊	比丘

李自鏡 兩主

權實玄 兩主

各各施主等現增福壽當

生極樂之願

緣化秩

證師大禪師喆關 比丘

持殿敏熙 比丘

畫員就性 比丘

師仁 比丘

戒岑 比丘

性淳 比丘

道還 比丘

戒初 比丘

供養主印聖 比丘

處閑 比丘

別座体心比丘

化士靈峰堂大禪師自澄比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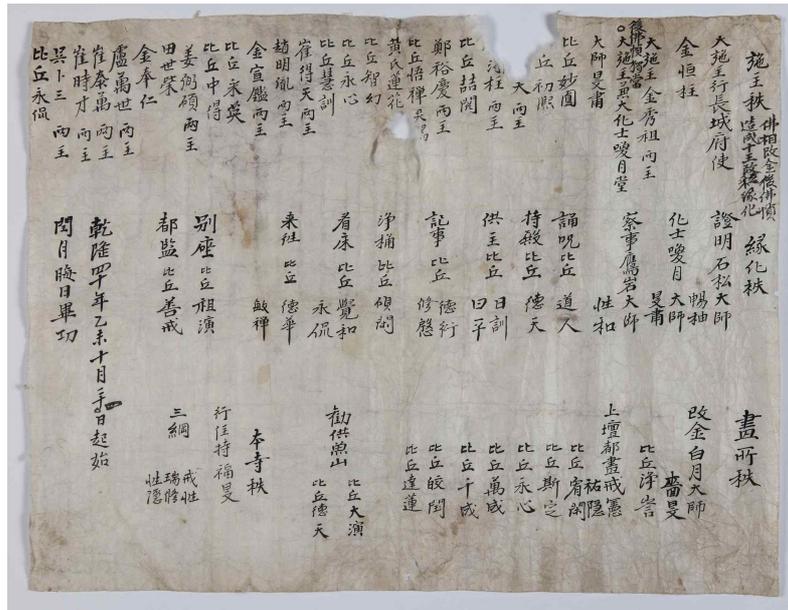
本寺住持六謙比丘

三綱 善澤

曉天

性贊

3. 白羊寺 極樂寶殿 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 記文 II (1775), 45.2×59.6cm



施主秩 佛像改金後佛幀 緣化秩
造成十王改彩緣化

大施主行長城府使	證明石松大師	畫所秩
金恒柱	暢袖	改金白月大師
大施主金秀祖兩主	化士喚月大師	齋旻
後佛幀獨當	旻肅	比丘淨嘗
。大施主兼大化士喚月堂	察事鷹岩大師	上壇都畫戒憲
大師旻肅	性和	祐隱
比丘妙圓	誦呪比丘道人	比丘宥閑
■ ■ 丘初熙	持殿比丘德天	比丘斯定
■ ■ ■ 天兩主	供主比丘	比丘永心
■ ■ □ 柱兩主	日訓	比丘萬成
比丘喆關	日平	比丘千成
鄭裕慶兩主	德衍	比丘皎閏
比丘悟禪灵駕	記事比丘	比丘達蓮
黃氏蓮花	修慤	
比丘智幻	淨桶比丘碩閑	
比丘永心		
比丘慧訓	看床比丘覺和	比丘大演
崔得天兩主	永侃	勸供魚山 比丘德天
趙明胤兩主	來往比丘德華	

金宣鑑兩主	敏禪	本寺秩
比丘采英		行住持福旻
比丘中得	別座比丘祖演	
姜弼碩兩主		
田世榮	都監比丘善戒	三綱 戒性
金奉仁		瑞修
盧萬世兩主		性隱
崔泰萬兩主		
崔時才兩主	乾隆四十年乙未十月二十四日起始	
吳卜三兩主	閏月晦畢功	
比丘永侃		

□ 참고문헌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9, 2007
- 송은석, 「17세기 조각승 현진파와 그 유파의 조상」, 『미술자료』 70·71, 2004
- 송은석, 「1622년 자수사·인수사의 장열왕후 발원 불사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불좌상」, 『석당논총』 67, 2017
- 송은석,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제작시기 및 조각승」, 『고불총림 백양사 정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2018
- 유홍준, 「비슬산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미술자료』 62, 1999

2.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5.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4.18.) 및 과학조사(’19.5.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2019년도 본 위원회 제6차 회의(’19.10.10.)에서 복장유물 등 추가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련 보완조사를 실시하고(’19.11.21.)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9.)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4.29~5.29.)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관음선원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남장1길 303 남장사
- 규 격 : 상 높이 93cm, 무릎 폭 57cm
- 수 량 : 1구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조선 전기(15세기), 1701년(숙종 27) · 1841년(현종 7) 개금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 지정사유 >

- ◆ (역사적 가치) 조선 초기 불상의 현존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해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작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 (예술적 가치) 안정된 신체비례,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 화려하면서 우아한 장식 표현 등 섬세한 기법이 돋보이며, 15세기 불상조각의 특징을 잘 반영해 예술성이 뛰어남
- ◆ (학술적 가치) 1701년 「重修觀音服藏發願文」과 1841년에 작성된 「佛像及後佛幘改金記」 등을 통해 불상의 제작 또는 중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이 불상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 역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남장사 관음선원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복장발원문이나 문헌기록이 적어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는 작품이다. 다만 <尙州路岳陰山觀音殿佛象及後佛木幘改金記>(1841년)에 고려 14세기에 조성된 내용이 있지만 사찰에 전해 오는 내용을 기록한 19세기의 기록인 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후보된 보관을 제외하면 비교적 손상된 부분이 없이 잘

보존되어 온 작품이다. 제작연대는 대의나 영락 표현, 보계 장식, 왼쪽 어깨와 팔꿈치에 접혀진 주름과 왼쪽 무릎에 늘어진 옷자락의 표현,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기법 등에서 조선 초기 15세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각의 주존불에 적절한 큰 규모에 당당한 자세와 균형잡힌 비례,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묘사에서 조형적으로 매우 우수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관음전과 그 주존불인 관음보살좌상이 함께 남아 있는 사례가 적은 점에서 조선후기 불교의 신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후보(後補)된 것으로 보이는 보관을 제외하고는 손상된 부위가 없이 잘 보존되어 있고, 조선 전기 불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율동적인 옷주름, 볼륨감 있는 신체 등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초창기록은 아니지만 중수기록을 통해 관음보살로 조성되어 신앙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고, 또렷한 이목구비의 표현, 둥글게 뒤로 말린 보계, 왼쪽 팔꿈치에 표현된 약화된 옹형 주름과 내의의 띠 매듭, 세 가닥으로 늘어진 목걸이와 불신에 표현된 영락 장식, 구멍을 크게 뚫은 컷불 등을 통해 고려 후기 불상양식을 계승하여 조선 초기(15세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불상의 유존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보살상은 조선 초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개금중수 과정에서 발견된 1701년 「중수관음존상복장발원문」과 1841년에 기록된 「불상 및 후불탱개금기」 등을 통해 불상의 제작 또는 중수와 관련된 역사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관음보살상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드문 사례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I. 현상 및 조사내용

관음선원은 상주 남장사에 속해 잇는 암자이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관음선원의 본존으로 봉안된 보살상으로 보관의 정면에 화불이 있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는 보물 923호인 1694년에 제작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후불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보살좌상의 밑면은 뚫려진 상태이며 2012년에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 현재는 다시 재복장된 상태라고 한다. 복장물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간행된 경전류이며 작은 후령통과 1701년의 <尙州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相伏[腹]藏願文>이 확인된 상태이다.

관음선원과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기록은 1841년 작성된 <尙州路岳陰山觀音殿佛象及後佛木幀改金記>와 앞서 언급한 1701년에 쓰여진 중수발원문인 <尙州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相伏[腹]藏願文>이다. 개금기의 내용은 불상과 후불목탱이 나옹선사가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며 1819년 天柱山 上蓮庵으로 이안했다는 것이다. 즉 관음전 불상이 고려후기 14세기에 조성되었음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중수복장원문은 康熙 40年(1701년)에 관음존상을 개금하고 복장했다는 내용이다. 보살상의 중수에 참여한 화원은 대화사 卓輝, 雪峯, 性澄, 如賢 등으로 1700년대 초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화를 그린 인물들이다. 그리고 개금은 淸允, 希日, 淨日, 一先이 참여하여 분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淸允은 1684년 영주 부석사 목조불좌상을 조성하고 1702년에는 상주 대승사 목조관음보살좌상(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중수에 참여하였으며 1710년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개금에 참여한 조각승이다. 이후 1716년 경주 왕룡사 소조석가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중수를 비롯하여 18세기초반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상의 기록외에도 관음전과 관련된 1797년(嘉慶二年丁巳)에 쓰여진 <觀音殿重修上梁文>과 <露陰山觀音殿重創記>가 전한다.

II. 내용 및 특징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거의 1m에 가까운 크기에 단정한 자세에 균형잡힌 신체 비례

를 보이는 보살상이다.

머리에 쓴 보관은 크고 화려한데 재료는 금속으로 후보된 것이며 중앙에는 화불이 있고 구름, 화염문, 꽃 등을 금속으로 만들어 끼웠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관대를 만들어 부착하여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보계는 동그랗게 말아 넘겼으며 정면에는 작은 띠장식을 새겼다. 머리카락은 귀 중간을 감으면서 흘러 내려 어깨 위에서 고리를 형성하면서 3가닥으로 나뉘어 표현하였다.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직선으로 뻗어 내려오는 콧날과 작은 입, 팽팽한 뺨이 특징으로 전체적으로 단정한 모습이다. 대의는 오른쪽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변형편단우견식으로 걸쳤는데 배 밑으로 서로 겹치면서 나타나는 옷자락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왼쪽 소매에서 늘어진 옷자락이 왼쪽 무릎에 마치 잎사귀 모양으로 흘러내렸다. 가슴 밑에는 수평의 승각기와 이를 묶은 띠매듭이 한쪽으로 묶어 내려뜨렸다. 이러한 대의 착의법과 옷주름 등은 고려후기부터 시작하여 조선초기로 계승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양 무릎에 흘러 내린 옷자락은 일률적인 주름을 형성하면서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는데 부드럽고 입체적이다. 가슴에는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를 걸쳤으며 같은 장신구가 양 무릎에도 표현하였는데 이를 옆으로 누어 표현한 모습이 독특하다. 무릎에 걸쳐진 영락은 일부분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를 통해 영락 장식은 따로 만들어 붙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는 1383년 은제관음보살좌상(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을 비롯한 14-15세기에 등장하는 특징이다.

□

○ 현 상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전의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후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 가사 위에 영락이 착용된 모습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성행한 방식으로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하체 폭보다 상체 길이가 약간 긴 비례를 갖고 있다.
- 양감: 가슴의 횡격막이 우묵하게 들어가 상하가 구분되며, 측면관은 가슴 앞 뒤 두께가 두껍다. 승기지 상단은 약간 굽은 곡선형이며, 승기지 상단을 묶은 끈과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 얼굴은 가름하다. 눈은 위 꺼풀이 아래 꺼풀을 누르듯이 각선이 이어져 있으며, 內眦에는 소위 몽고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콧날은 예리하며, 입은 코의

폭과 같은 정도로 길이로 짧다. 귀는 耳甲이 좁고 길며, 삼각와는 얇으며, 이 수에는 귀고리 용의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한 귀는 임진왜란 이후의 형태와 다른 조선 전기의 특징이다.

- 옷은 균의, 승기지, 부견의, 대의를 갖추어 입었으며, 대의 위에는 온몸을 감싸는 영락의 일부분이 드러나 있다. 승기지 상단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승기지 연결 장식도 없다. 복부에는 승기지를 묶은 끈이 매듭과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승기지 착용 방식은 조선 초기 15세기 불보살상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법이다. 왼쪽 어깨 아래로는 하단이 ‘Ω’처럼 주름진 대의 자락도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법이다.
- 이 보살상의 옷주름은 매우 입체적이고 율동적이며 세련된 모습이며, 조선 전기 불상 중에서도 매우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보인다.
- 장식은 경식과 흉식, 그리고 무릎의 영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릎의 영락은 전신을 덮은 영락의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장식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만들어진 전통성이 강한 보살상에서 많이 보이는 전신을 그물처럼 씌운 영락장식의 잔영이다. 1450년에 제작된 통도사박물관 금은제 아미타삼존상이나 15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하바드대학박물관 금은제삼존불좌상의 협시 보살상의 영락장식과 유사하다.
- 보관은 얇은 금속 관으로 되어 있으며, 보관 표면에는 化佛, 화염, 꽃, 새 등이 별도로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고, 보관 좌우에는 별도 제작된 관대도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관은 아래가 좁고 위로 넓게 벌어진 15세기 보살상의 원통형 보관과 다른 17세기 이후에 성행하는 보살상 보관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가름한 얼굴 표현, 가슴의 양감, 수평의 승기지 상단을 묶은 끈과 매듭, 왼쪽 어깨의 ‘Ω’형 주름, 전신을 덮은 영락 장식 등에서 15세기 보살상의 양식 특징이 나타나 있으므로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5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1701년 6월에 기록된 중수발원문에 따르면, 이 관음보살상은 남장사의 철조 비로자나불좌상과 함께 중수·도금되었으며, 1701년 하안거 동안에 완료되어 6월에 개안되었다고 한다.
- 중수·개금에 참여한 조각승은 淸允, 希日, 淨日, 一先 등 4인이다. 수조각승인 청윤은 1684년 榮州 浮石寺 木造佛坐像 造成, 1702년 尙州 大乘寺 木造觀音보살좌상(현 국립중앙박물관) 重修, 1710년 聞慶 鳳巖寺 木造阿彌陀佛坐像 改金, 1716년 慶州 王龍寺 塑造釋迦佛坐像·木造阿彌陀佛坐像 重修 등 18세기 초반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여러 불사에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706년에는 安城 七長寺 木造地藏菩薩坐像 및 十王像 造成에는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기도 한 조각승으로 확인된다.

○ 문헌자료

- 「尙州 南長寺 觀音禪院 木造觀音菩薩坐像 重修·改金發願文」³⁾ 1701년 6월, 白紙墨書, 보살상 복장에서 발견
尙州西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相伏[腹]藏願文
噫眞體無形法身無相不可以形相求佛也……於康熙庚辰……敬屬良匠大德清允等四人重修改金毘盧佛觀音大士二尊相畢功於辛巳一夏中焉……改金畫士清允 希日 淨日 一先……康熙四十年辛巳六月日誌



○ 조사내용

관음선원은 남장사의 속암으로 본절(남장사)에서 북편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건물로는 관음전과 요사채, 신축건물 등이 있으며, 이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逆‘ㄷ’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관음보살상은 관음선원의 주불로 신앙되고 있으며, 관음보살상의 뒤편으로는 보물 제923호로 지정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후불화로 봉안되어 있다.

관음보살상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1841년에 작성된 「尙州路岳山觀音殿佛像及後佛木幀改金記」와 2012년 개금 중수 때 발견된 「尙州西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像伏[腹]藏願文」 정도이다. 우선 1841년에 작성된 개금기에는 佛像과 後佛木幀을 나옹선사(1320-1376)가 발원하여 조성한 불상이라고 하며 嘉慶乙卯(1819년) 天柱山 想蓮庵으로부터 이안하였다고 한다. 관음존상중수복장발원문은 康熙庚辰年(1700)에 비로불과 관음대사 2존상을 중수하고 辛巳년에 일을 마치면서 기록한 복장중수발원문이다. 이 복장중수발원문에도 처음 만들어진 시기라든가 원래의 봉안처 등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수에 참여한 시주자, 중수화원(大畫士 卓輝 雪岑 性澄 處賢/改金畫士 清允 希日 淨日 一先) 등 개금 중수와 관련된 상황만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상과 같이 보살상과 관련된 여러 자료에서는 제작 당시의 기록을 정확하게 전하는 기록은 없다. 불상의 중수기가 제작당시의 발원문을 토대로 작성되거나 아니면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사적기와 신빙성 있는 口傳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주노악산관음전불상급불상급후불탱개금기」의 기록대로 불상의 제작시기를 나옹선사가 활약하던 고려 후기까지 소급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 기록에서의 문제점은 개금의 주체가 되는 불상을 관음보살이라고 하지 않

3) 2012년 촬영된 사본에 의함. 원본은 2012년 조사된 후 재복장되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복장을 열어 발원문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고 통상의 불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인데, 현재 관음전에 봉안된 관음보살을 지칭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불상이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에서 보살상을 포괄하고 있고, 또한 이 관음보살이 이미 오래전부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세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관음선원에 유존되고 있는 불상 중 역사성을 지닌 불상은 오직 이 관음보살상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금기의 불상은 지금의 관음보살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음보살상은 현재 인법당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음전의 중앙 벽면 쪽에 불단을 마련하고 그곳에 봉안하였다. 현재 불단에는 불상의 안전한 봉안을 위해 최근에 유리불장을 설치하였다. 보살상의 제작기법은 접목조로 제작되었는데, 앞면과 뒷면, 무릎 등에서 나비장과 격쇠를 이용하여 이어 붙였다. 불상의 내부는 속을 매끈하게 파내어 복장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개금불사 때 중수 발원문과 여러 권의 전적물이 복장유물로 발견된 바 있으나 개금이 끝나고 다시 복장하였다고 한다. 복장에서 발견된 유물은 「중수관음존상개금복장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禪宗永嘉集』,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蜜慶』⁴⁾, 『永嘉集』,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一,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卷三, 卷四, 卷五, 卷六,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⁵⁾ 등이다.

관음보살상은 가름한 얼굴에 양감이 적절하고, 이목구비는 뚜렷하여 단정한 모습을 보인다. 머리에는 동판으로 화염을 부착한 보관을 착용하였는데, 제작 당시의 것은 아니고 제작된 이후 어느 시점에 결실되어 후보된 것으로 보인다. 보관의 턱을 이루는 부분은 머릿결을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보관으로 가려지는 지발부의 머릿결은 대충 표현하였다. 넓고 반듯한 이마에는 수정제 백호를 돌출되게 박았다. 물결치듯 그윽한 눈매는 사바세계를 향했으며, 양 눈썹에서 이어진 삼각형의 오펝한 콧날이 인상적이다. 적당한 인중은 단정한 입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다소곳이 다물었다. 귀의 이륜은 타원형으로 처리하였고, 耳孔은 표주박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늘어진 귓불에는 물방울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다. 보관 아래의 보발은 좌우로 가지런히 빗질하여 넘겼고, 귀의 앞뒤에서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서 둥글게 엮어 모양을 내고, 이를 다시 4가닥으로 뽑아 짧게 드리웠다. 보계는 달팽이처럼 둥글게 말아 올린 것이 매우 특징적인데, 이와 같은 보계는 영국박물관 소장 宋代 목조관음보살상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광주 원효사 출토 소조보살상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관음보살상의 상호 표현은 고려 후기적인 요소도 보이지만, 삼각형의 날카롭고 큼직한 콧날과 이마에 표현된 백호, 표주박 모양의 이공과 타원형의 구멍을 뚫은 귓불은 1478년경 강진 무위사 목조관음보살

4) 刊記：崇禎八年乙亥(1635, 인조13)八月日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刊 幹善大化土性宗比丘

5) 刊記：崑萬曆十年壬午(1582, 선조15)三月日幹化熙准勸募諸緣開刊……益山郡龍華山上院寺開刊

상, 1502년작 천성산 목조 관음보살좌상(부산 원광사), 1514년 改造된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과 양식적으로 유사해 이들과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

정면에서 바라본 신체비례는 왜소한 어깨에 비해 넓은 무릎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조형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가슴은 두텁고 당당하게 표현되었지만 무릎 의 깊이는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러한 비례적 특징은 불상의 봉안 장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슴 근육이 표현된 당당한 가슴에는 화려한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목걸이는 대의 좌우측에 마련된 고사리형태의 고리에 건 형식인데, 중앙에는 큼직한 꽃무늬 장식 아래로 다시 작은 구슬과 수술을 연결하여 매단 모습이고, 그 좌우에는 같은 간격을 두고 작은 구슬과 큼직한 물방울 모양의 보석을 드리운 형태이다. 양쪽 무릎에도 꽃과 구슬로 구성된 장식이 남아 있는데, 왼쪽 무릎 쪽은 일부 결실되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세 가닥으로 구성된 목걸이 장식은 여말선초기 보살상의 장신구에서 유행한 형식인데, 고려후기의 장식성이 가미되어 화려하고 섬세한 모습에서 단순화가 진행되었지만, 또한 15세기말 16세기 초에 제작된 불상의 단순·형식화된 것보다는 사실성을 갖추고 있어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시대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팔목에는 양쪽 가장자리에 용기선을 돌린 넓은 띠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는데, 이 역시 영락장식과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적인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착의형식은 이중착의법이며, 가슴에는 내의를 외매듭으로 묶은 띠 자락이 표현되었다. 대개 이러한 띠 매듭은 17세기 이후 불상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주름은 변화가 적고 역량이 얇은 편이어서 신체의 굴곡과 볼륨이 잘 드러난다. 특히 칼날처럼 접어 드리운 왼쪽 목깃 주름과 왼쪽 팔꿈치에 형식화된 ‘Ω’형 주름, 그리고 무릎 앞으로 넓은 띠 주름을 겹쳐서 만들어낸 부채꼴 주름과 세 가닥으로 드리우진 목걸이 장식은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해인사 대적광전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상과도 비교할 수 있는 요소이다. 다만, 16세기 전반에 제작된 상들 보다 이목구비가 크고 시원하게 조성되었고, 장식도 단순화되지 않은 점에서 15세기 작품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7 관음전 전경



그림 18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목각아미타
여래설법상



그림 19 목조관음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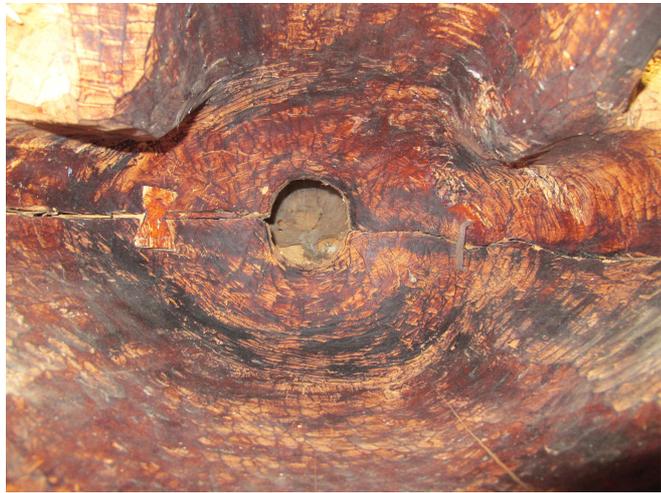


그림 20 내부모습(2012년 6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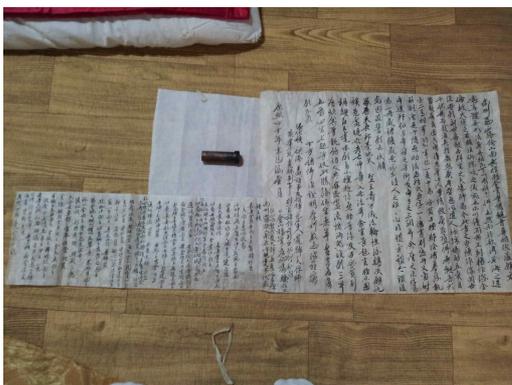


그림 21 尙州西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
尊像伏藏願文(재복장)



그림 22 尙州路岳山觀音殿佛像及後佛噴改金記,
1841년

<참고자료>

○ 상주노악산관음전불상 및 후불목탱개금기 현판, 42×110.4cm

尙州路岳山觀音殿佛像及後佛木幀改金記
夫斯庵卽羅代眞鑑國師卓錫之地 佛像及後佛
木幀乃麗朝懶翁禪師親成之佛幀也去嘉慶己卯自
天柱山上蓮庵移安于此歲旣久金彩漫漶墨山光水
聲因此而帶愁居人過客由斯而含悲道光庚子(1840)冬儀
松和尚自江左飛鳳山寂照蘭若邀請而來越明年(1841)春發
矢心鳩募緣方營改金之舉于斯時也衆議異同獨辦其
事夷險跋涉之勞手足拮据之苦人之所不能堪而万能
易之招工營始末滿一旬克就茲事金身煥然皎 〃 若奪
衆景之曜妙相端嚴嵬 〃 如落群峰之高尙非儀松
和尚忘軀信心之力則焉能及此 〃 乃六度門中第一
婆羅蜜功不下於創師之心矣儀松和尚法號聖政俗
姓朴氏密城人也余自湖西之西原落影山來證此事和
尙信心功德如彼其勤而恐惑泯沒於後世故不揆不才 〃
以數行文記顛末使後之覽者瞭然若今日之目都云
崇禎紀元後四重光赤奮若午月 日性波門人龍峰址篋謹誌

1단

大施主秩

尙州牧使 李德秀

尙州營將李觀熙

大施紀官徐秉時

大施折衝將南源

大施主李學成

同願 李承文

出身 李基泳

幼學 金渭聖

幼學 沈初漢

朴萬佑

鄭德春

崔斗鴻

1.5단 金小斤岳只」姜學先」崔永壽」沈守根」金得仁」李興龍」李相春」趙可憲」權應先」黃鶴進」鄭允伊」鄭南吉」尹秀洪」尹得日」金月星

皮錫兆

皮光琬

朴三千

朴汝石

朴用得

白石龍

白東獻

金聖寬

金載衡

李氏妙烈

李氏次蓮

金壽南

金禹鼎

金八大

金益組

徐哲運

2단

施主秩

儀松聖政

繼虛普演

景庵幸肅

西庵達佑

影峰印淳

俊庵華(?)恒

洛峰坦(?)一

景峰儀弘

清潭碩閑

蓮潭海鴻

景空子文

雪月斗天

商月富訓

賞善
福信
宇坦
大性
定雲
尙銀
尙順
尙訓
景希
雪鶴
道信
覺沾
普性
慧喆
普俊

3단

緣化秩

證師龍鳳祉籙

主事儀松聖政

都監繼虛普演

別座影峰印淳

誦呪頭陁趣奎

智閑

良工瑞庵達佑

永文

妙允

都畫雙雲熙元

金魚普寬

就幸

3.5단 童子」英順」萬億」致洪」哲伊」春成」時僧統」尙順」三綱」首僧永察」
書記壯惠」三寶幸旭

智善

宇珍

幻玉

淨雲
善律
奉齋善日
永欣
鍾頭性能
太元
茶角智洪
淨桶法一
來往慧喆
供養主戒有聖允
化主海月性贊覺沾
景希 雪鶴

4단

本庵秩
祖室儀松聖政
繼虛堂普演
景庵 幸肅
海月 性贊
瑞庵 達佑
影峰 印淳
比丘 永文
景希
雪鶴
法一
普輝
勝洪
幻玉
覺沾
普俊
慧喆
性能
有雲
壯律
士允

〇〇
德仁
一弘
義先
太元
聖允
快涓
林小成

보완조사보고서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19년 10월10일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중수발원문(1701년, 전체 43.3×103.0cm, 19.0×49.0cm, 43.3×52.5cm 크기의 종이 두 장을 이어 붙임)을 포함한 복장유물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다.

이에 2019년 11월21일 복장유물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완조사는 남장사 주지 성웅스님의 집전 하에 진행하였으며, 고불식, 복장구 개봉, 납입순서에 따라 복장 수습, 사진 촬영 및 기록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조사 후 사찰의 요구로 수습된 역순으로 재봉안하였다. 재봉안 후 봉합지를 바르고 보완 조사연월일을 기입한 후 조사를 마감하였다. 2012년의 복장유물과 비교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2년 개금시 일부 복장유물과 중수발원문(36.7×147.5cm)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장유물은 조사후 모두 재봉안 하였기 때문에 지정대상에 포함될 내용은 없다.

○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에서 확인된 전적류 유물은 1701년(康熙 40, 숙종 27) 기록된 발원문을 포함하여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대불정여래

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등 경전류 6종이 확인되었다.

복장에서 확인되는 경전류는 관음보살상의 개금이 있었던 1701년 이전의 자료로서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연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우선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번	명칭		규격(cm)	그 밖의 특징	
				시대	특징
1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언해본 권상 1책	30.0×18.7 21.5×15.2	1464년	8행 19자본 간경도감본
		상, 하 1책	28.5×18.8 18.4×14.1	1684년	11행 19자본 康熙二十三年甲子二月 日慶尙道蔚山雲興寺刊
2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권3~4 1책	31.2×19.2 21.0×13.0	1561년	10행 20자본 成化十三年丁酉二月成 達生跋 嘉靖四十年辛酉正月日 慶尙道豐基地小伯山池 叱方寺開板
		권4~5 1책			
		권6~7 1책			
		권5~7	31.6×20.5 21.4×15.8 33.2×22.0 21.8×16.2	-	10행 18자본
		권6 1책			
권4~5 1책					
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책	29.8×18.7 20.3×14.0	1582년	萬曆十年壬午三月日 … 益山郡龍華山上院 寺開刊
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 薩萬行首楞嚴經)	권1~5 1책	32.3×19.5 21.9×17.6	1672년	11행 22자본 康熙壬子暢月日 … 信 默謹跋 康熙十一年壬子十二月 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 興寺刊
		권6~10 1책			
5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권상 1책	36.0×23.02 8.0×19.8	1635년	9행 19자본 崇禎八年乙亥八月日全 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 寺開刊
		권하 1책	36.2×24.5 26.8×18.8	1679년	9행 19자본 康熙十八年己未十二月 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 興寺刊
		권상 1책	36.0×23.02 8.0×19.8	1681년	9행 19자본 康熙二十年辛酉四月日 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 寺刊 書背 부에서 자주색 包角織物
		권상 1책	36.2×24.5	-	

연번	명칭		규격(cm)	그 밖의 특징	
				시대	특징
6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날장	35.0×25.8 23.2×19.3	1611년	9행 21자본 皇宋康定二年辛巳歲杓 建鶉味月望日謹序
		권3 1책	35.4×25.8 22.0×19.8		9행 21자본
		권4 1책			
		권5 1책			
		권6 1책			

1)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당(唐) 영가 현각(永嘉玄覺)대사가 참선(參禪)하는 수행인의 자세와 수선(修禪)의 요결(要訣)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찬술(撰述)한 글에, 송(宋) 석벽 행정(石壁行靖)이 주(注)를 달고, 여기에 정원(淨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선종의 요결서로서 우리나라의 선림(禪林)에서 많이 이용해왔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판본이 간행되었다.

언해본으로는 조선 초기에 세조가 친히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信眉)와 효령대군 등이 번역하여 1464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판본이 있다. 또한 1495년(연산군 1)에 정현대비(貞顯大妃)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경도감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을 원각사(圓覺寺)로 가져와서 다시 찍어낸 후인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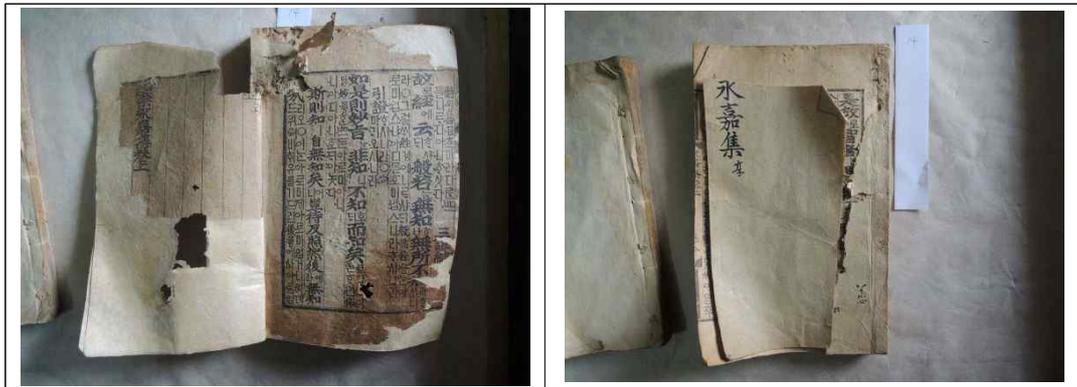
복장 유물로는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권상 및 1684년(康熙23, 숙종 10) 경상도 울산 운흥사(雲興寺)에서 간행된 『선종영가집』 권상, 하 등 2종이 확인되었다.

① 선종영가집 언해(禪宗永嘉集諺解)

1464년(세조 10) 간행

四周雙邊, 半郭 21.5×15.2cm, 有界, 半葉 8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30.0×18.7cm, 板心題 ; 永嘉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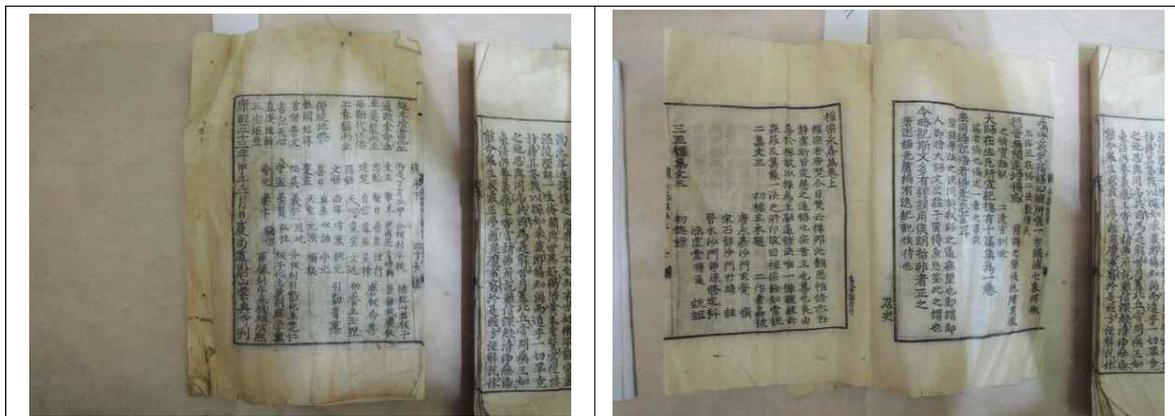
이 판본은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인출한 책으로 판단된다. 원표지는 결락되었으나, 표지에 기록된 ‘형(亨)’이라는 목서로 보아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구성된 4권 4책 가운데 1책으로 보인다. 1장부터 51장까지 결락되었고, 뒷부분 역시 약간의 결락이 보인다.



② 선종영가집

1684년(康熙23, 숙종10) 慶尙道 蔚山 雲興寺에서 간행

四周單邊, 半郭 18.4×14.1cm, 有界, 半葉 11行19字. 上下內向2葉黑魚尾, 板心題 ; 永嘉集, 28.5×18.8cm.



康熙二十三年甲子二月日慶尙道蔚山雲興寺刊

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 이래로 가장 많이 유통된 불교 경전이다.

복장 유물에서 확인된 법화경 판본은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해운(海雲)의 부탁을 받아 필사한 이후 간행한 것을 1561년에 경상도 풍기 소백산지 질방사에서 개판한 판본 등 세 유형이 있다.

① 묘법연화경 권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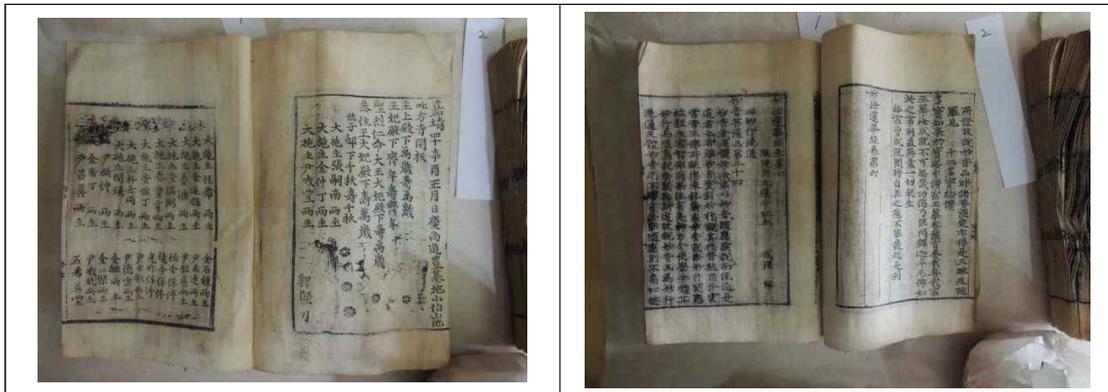
成化十三年丁酉二月成達生跋

嘉靖四十年(1561)辛酉正月日慶尚道豐基地小伯山池叱方寺開板

四周單邊 半郭 21.0x13.0cm. 無界, 10행 20자, 無魚尾

1561년(명종 16)에 간행된 목판본의 권6~7 2권 1책이다. 발문에는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해운(海雲)의 부탁을 받아 능엄경 필사를 하였고, 또 법화경 필사를 시작하였으나 함길도도제사가 되어 북방의 일을 하는 연유로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임효인(任孝仁)과 조절(曹棗)이 필사를 마친 후에 혜신(惠信) 등이 발문을 청하여서 그 시종(始終)을 밝힌다고 하였다.

발문은 1477년(成化 13, 성종 8)의 발문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고, 그 뒤에 1561년에 경상도 풍기 소백산지 절방사에서 개판한 사실을 적고 있다.



② 묘법연화경 권4~5

四周單邊 半郭 21.0x13.0cm. 無界, 10행 20자, 無魚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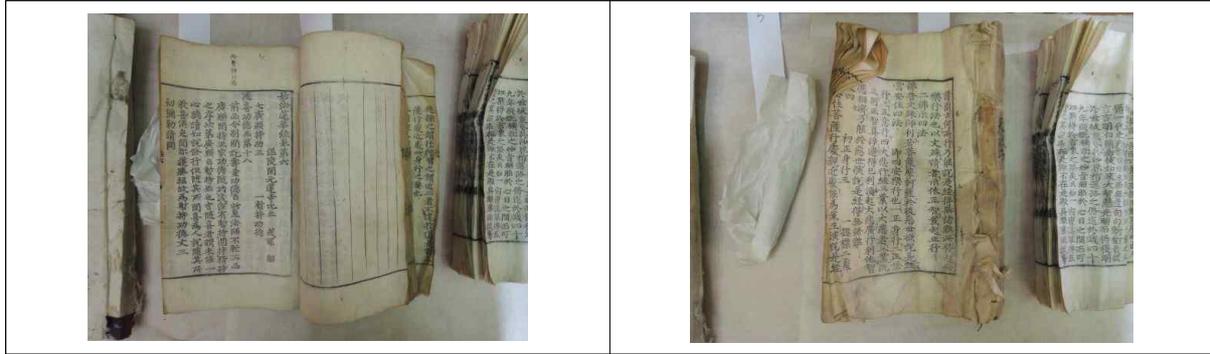
1561년(명종 16)에 간행된 목판본 가운데 권4~5의 2권 1책이다.



③ 묘법연화경 권5~7

四周單邊 半郭 21.0x13.0cm. 無界, 10행 20자, 無魚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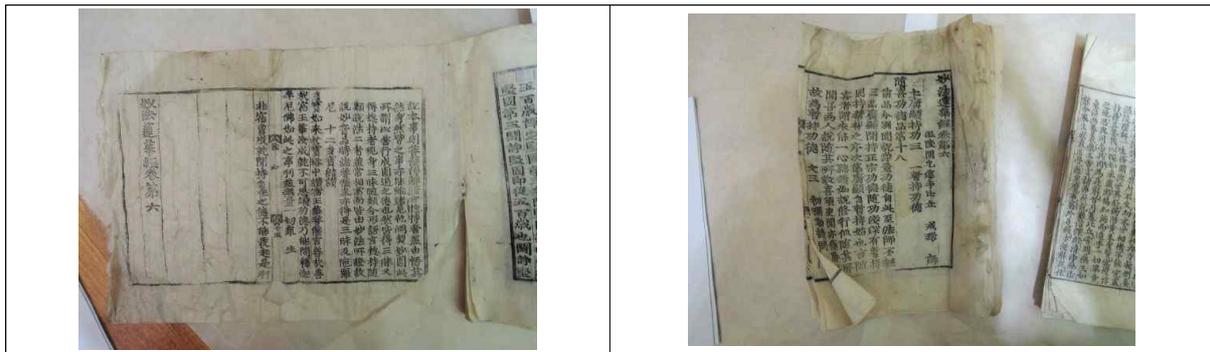
1561년(명종 16)에 간행된 목판본 가운데 권5~7의 3권 1책이다.



④ 묘법연화경 권6

四周單邊 半郭 21.4x15.8cm. 有界, 10행 18자, 上下下向花紋魚尾

10행 18자본으로 갑인자본의 번각본으로 판단된다. 권6 1책(65장)의 영본으로서 간행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⑤ 묘법연화경 권4~5

四周單邊 半郭 21.4x15.8cm. 有界, 10행 18자, 上下下向花紋魚尾

10행 18자본으로 갑인자본의 번각본으로 판단된다. 권4~5의 2권 2책본이다. 간행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⑥ 묘법연화경 권3~4

四周單邊 半郭 21.0x13.0cm. 無界, 10행 20자, 無魚尾

1561년(명종 16)에 간행된 목판본 가운데 권3~4의 2권 1책이다.



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萬曆十年(1582)壬午三月日 … 益山郡龍華山上院寺開刊

四周單邊, 半郭 20.3x14.0cm, 無界, 半葉 9行 19字, 上下內向黑魚尾, 大黑口

29.8x18.9cm

고려시대의 승려인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년)이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년)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린 '절요'(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삽입하여 펴낸 저술이다. 지눌의 선사상이 집약된 저술로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판본은 1582년(萬曆10, 선조15)에 익산 용화산(龍華山) 상원사(上院寺)에서 개관인출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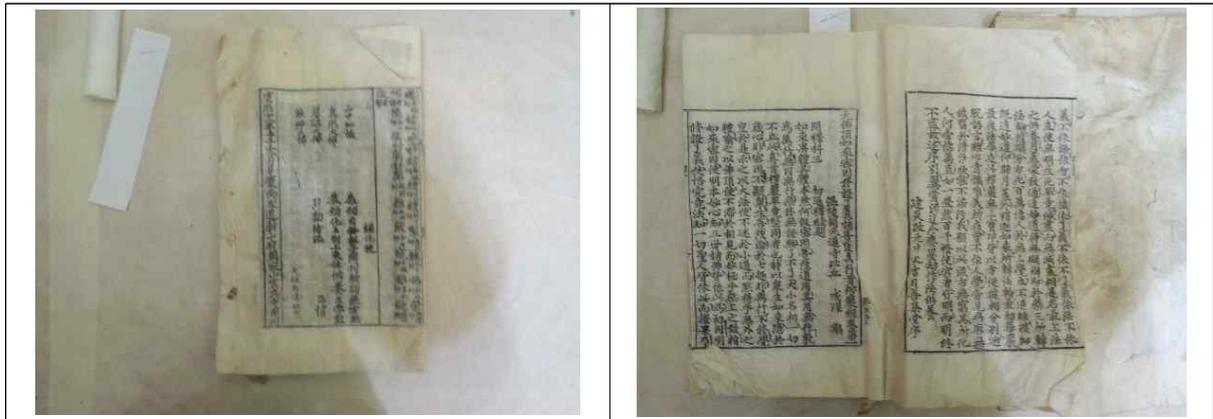
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이 경전은 한국불교 근본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수능엄경』이라고도 한다. 판본으로는 조선시대 태종 1년(1401)에 신충(信聰)이 정서하여 궁실에서 개관한 판본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 사찰본 중에 최고본으로는 1443년에 성달생(成達生)이 직접 판서하고 발문을 부쳐서 전라도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1457년에 원나라 유측의 능엄경 회해본을 을해자(乙亥字)로 궁중에서 간행한 판본과, 특히 1462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간행한 것이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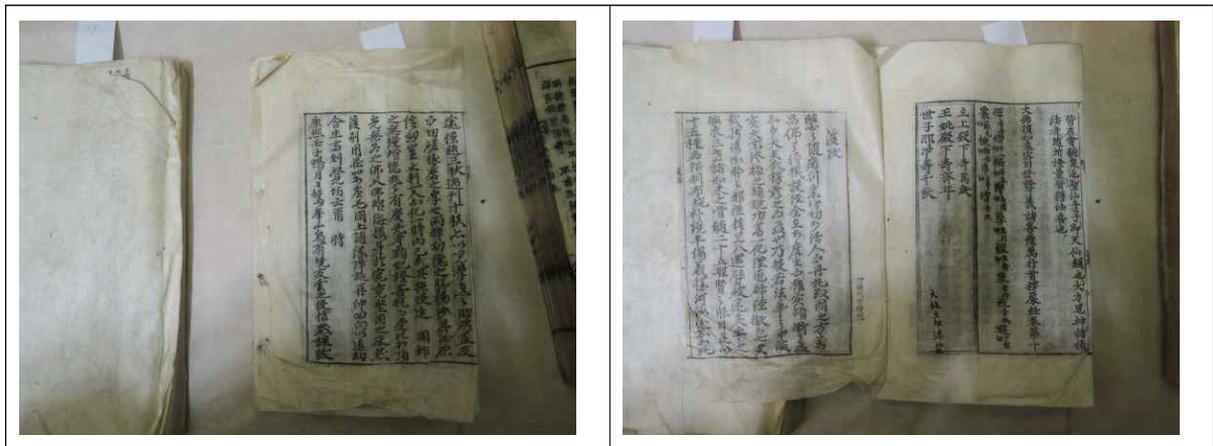
①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5
康熙十一年(1672)壬子十二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四周單邊, 半郭 20.7 × 14.4cm, 無界, 半葉 11行 22字, 無魚尾

이 판본은 1672년 운흥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권1~권5의 5권 1책이다. 이 판본의 권6~10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후발(後跋)의 변란 밖에 기록된 ‘공덕각자연희(功德刻字演熙)’는 각수(刻手)였던 연희(演熙)를 말하는 것으로, 운흥사판 『능엄경』 10권을 판각한 인물이다. 그는 운흥사에 머물며 1668년 『불설부모은중경』 판각을 시작으로 『묘법연화경』(1668), 『능엄경』(1672), 「근수정업왕생첩경」과 「관음보살도」(1678), 『금강경오가해』(1679), 『대승기신론』(1679) 등 다수의

경전을 판각한 인물이다.



②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康熙壬子(1672)暢月日鷲峯山烏有境友雲之役信默謹跋.
 四周單邊, 半郭 20.7 × 14.4cm, 無界, 半葉 11行 22字, 無魚尾
 1672년 운흥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권6~10의 5권 1책이다.



5)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신봉되었던 대표적인 불경 가운데 하나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이라고도 불린다. 경전의 범어 원본은 티베트·중국·한국·일본에 전하고 있으며, 한역본은 402년에 요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것 외에 7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불교유입 초기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중기에 지눌(知訥)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법(立法)을 위해서 만드시 이 경을 읽게 한 뒤부터 널리 유통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많은 주석서 가운데 중국 당(唐) 규봉 종밀(圭峰宗密)의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 당(唐) 육조 혜능(六祖慧能)의 『금강반야바라밀다경해의(金剛般若波羅蜜多經解義)』, 양(梁) 부대사(傅大士)의 『금강경송(金剛經頌)』, 송(宋) 야보 도천(冶父道川)의 『금강경주(金剛經註)』, 송(宋) 예장 종경(豫章宗鏡)의 『금강경제강(金剛經提綱)』을 모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가 성행되었다.

『금강경오가해』의 주요 판본으로는 1415년(태종 15)에 한문본(漢文本)이 간행된 이래로 함허 득통(涵虛得通)의 설의(說誼)가 편입된 「오가해설의(五家解說誼)」가 1442년(세종 24)에 처음으로 개판되었으며, 그 후 1457년(세조 3)에는 활자본 『오가해설의(五家解說誼)』가 인출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 복각 또는 재차 복각 간행하여 선교의 근본경전으로 삼았다.

복장 유물에서는 권말의 간기를 통하여 세 시기에 간행되었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금강반야바라밀경 권상

崇禎八年(1635)乙亥八月日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정읍시 산내면 매죽리)開刊
四周單邊, 半郭 36.0×23.0cm, 有界, 半葉 9行 19字, 注雙行, 上下向黑3葉花紋魚尾



崇禎八年(1635)乙亥八月日全羅道泰仁縣雲住山龍藏寺開刊

② 금강반야바라밀경 권하

康熙十八年(1679)己未十二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四周單邊, 半郭 26.6×18.8cm, 有界, 半葉 9行 19字, 注雙行, 上下向黑魚尾



康熙十八年(1679)己未十二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③ 금강반야바라밀경 권상

康熙二十年(1681)辛酉四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四周單邊, 半郭 26.6×18.8cm, 有界, 半葉 9行 19字, 注雙行, 上下向黑魚尾

이 판본은 1681년 경상도 울산 원적산(圓寂山) 운흥사(雲興寺)에 간행된 판본이다. 권상의 권말에 각수로서 연희(演熙)가 확인되는데, 그는 1668년부터 1690년까지 20여 년간 울산 운흥사에서 판각활동에 종사한 승려로 이해되고 있다. 1668년 『불설부모은중경』 판각을 시작으로 『묘법연화경』, 『능엄경』 (1672), 『금강경오가해』 (1679), 『대승기신론』 (1679) 등 다수의 경전을 판각한 인물이다. 특기할 사실은 이 권상에서는 표지는 없어졌으나, 서배부에서 포각(包角)으로 사용되었던 보라색 직물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불복장 봉안 이전 원소장처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康熙二十年(1681)辛酉四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④ 금강반야바라밀경 권상

9행 19자본이나 1635년 龍藏寺本과는 다른 판본이다. 변란의 시주명을 통하여 그 차이가 확인된다.



6)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教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었다.

우리에게는 693년 북인도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이 영향을 주었는데, 이 경은 고려의 지눌(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다.

조선 초기 함허 화상(涵虛和尚)이 『원각경소(圓覺經疏)』 3권을 짓고 유일(有一)과 의첨(義瞻)이 각각 사기(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판본으로는 고려대인 1380년(우왕 6) 이색(李穡)이 지은 발문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세조 연간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과 1464년(세조 10)의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 1465년 을유자(乙酉字)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있다. 이후 1570년(선조 3)에 간행한 전라도 안심사판(安心寺版)을 비롯하여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다.

복장 유물에서 확인되는 원각경은 세조 연간의 을해자본(乙亥字本)을 저본으로 하여, 1611년(광해군 3)에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새기고 쌍계사에서 장판한 경판(經板)으로 인출한 책으로 추정된다. 6권 6책 가운데 권3, 권4, 권5, 권6의 4책만 전한다.

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장, 대방광원각경약초 서(大方廣圓覺經略鈔序)

四周單邊, 半郭 23.2×19.3cm, 有界, 半葉 9行 21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5.0×25.8cm

皇宋康定2年辛巳歲(1041)…(思齊)序.



②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권3, 권6

四周單邊, 半郭 23.2×19.3cm, 有界, 半葉 9行 21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5.0×25.8cm



③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권4, 권5

四周單邊, 半郭 23.2×19.3cm, 有界, 半葉 9行 21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5.0×25.8cm



[참고]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증수발원문

※ 참고사항

- 원문은 발원문에서 보이는 대로 행을 나누어 입력하였음.
- 이체자·이형자는 대표자로 바꾸어 입력하였음.
- 지원이 안 되는 글자는 □{ }로 표기하고 { } 안에 글자를 조합하였음. 예) □{赤+因}

【원문】

尙州西露陰山南長禪利金堂重修觀音尊相伏藏願文
 噫眞體無形法身無相不可以形相求佛也然而將欲濟苦海之迷
 倫救火宅之苦類須假像設之儀式也所以優闡囉王刻梅作像金
 泥畫體永世尊敬爲群生之大導師焉今此寺之畫幀作像閱世
 千秋幾爲就滅矣於康熙庚辰普惠心道人袖疏鳩財且賣自
 畚敬屈良匠大德清允等四人重修改金毘盧佛與觀音大
 士二尊相畢功於辛巳一夏中焉畫員與檀那給侍募緣⁶⁾執
 務別座見聞隨喜助緣者姓氏名字一一備書別紙抑又當時
 本道伯伯與本府之芳銜及本寺之三綱并僉座之法字寫
 爲一冊藏諸腹藏垂示於後人之昭昭心目鑑古鑑今鑑後
 焉因發誓願云伏[腹]願
 鳳歷天長邦基地久聖主壽萬歲法輪恒流轉次願九
 族先靈現世先亡師尊父母法界含生等超生極樂國

6) 募緣 : '募緣'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 모연(募緣)은 '착한 인연을 맺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뜻으로, 절에서 불사를 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재물을 보시하도록 권하는 것을 이룸.

親觀白玉毫亦願多小檀越隨喜助緣等及與畫員別
 座炊供等執務諸人共游毘盧法性海然後願三界
 九有四生七趣等仗此勝緣俱生樂岸虛空有盡
 願不盡十方諸佛作證明摩訶般若波羅蜜
 緣化秩供給主典諸事及指揮色掌人覺麟大禪師
 能澤比丘克林判事別管諸務前判事弘衍和尚
 康熙四十年辛巳流金月日臺山晴峯老衲秀暎謹文
 住四心修六度大幹善惠心老德
 尙州露陰山南長寺觀音大士伏[腹]藏
 施主秩
 嘉善金德龍兩主靈駕願往生
 大化主惠心伏[腹]爲
 亡師信應靈駕生淨土出施自畚也
 供養後配紙兼大施主覺蓮比丘
 李氏貴分保體 嘉善曇日靈駕生淨土
 供養布施兼施主 金業伊兩主
 朱紅施主折衝將軍金孝行兩主
 伏[腹]藏施主成俊郭氏兩位生男之願
 供養施主朴信元兩主 通政瑞清比丘
 通政贊修比丘 黃金施主朴倫傑兩主
 烏金施主得香兩主 黃金施主千雲遠兩主
 彩色施主千後呂種兩主 供養施主禹從立兩主
 供養嘉善朴京信兩主 布施施主朴世達兩主
 布施施主法淨比丘 布施施主思登比丘
 通政暎侃比丘 供養太暎比丘
 朴世根伏[腹]爲亡父同知朴時俊靈駕生淨土
 三奇比丘 通政處彥比丘 施主覺麟比丘
 雙彥比丘 處性比丘 海允比丘 就瓊比丘
 克沈比丘 守仁比丘 守鑑比丘 弘運比丘
 靜玄比丘 省密比丘 敏心比丘 法律比丘
 崔一萬兩主 善圭比丘 普暎比丘
 孫命伊兩主 供養施主崔哲石兩主
 烏金施主權氏龜良單身 李好日兩主
 朴乙金兩主 金甘芑屎保體
 緣化秩 訂明⁷⁾秀暎 持殿三應
 大畫士卓輝 雪岑 性澄 處賢
 金匠[赤+因][赤+支]金兼施主 金太萬兩主
 金施主太石兩主 金施主韓明炫兩主

7) 訂明 : 일반적으로 17·18세기 경상도 지역 발원문의 緣化秩에는 불상을 조성할 때의 모든 의식과 법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승려를 證明 또는 證師로 표기한다. 이 발원문에서는 證明이 訂明으로 표기되어 있다.

改金畫士清允 希日 淨日 一先
本寺三綱 和尚暎侃 首僧義惠 三補
心濟 持殿楚淨 本寺秩 義澄 學文
海寬 楚軒 忠允
康熙四十年辛巳六月日誌

【丑】

尚州西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相伏[腹]藏願文
噫，眞體無形，法身無相，不可以形相求佛也。然而將欲濟苦海之迷倫，救火宅之苦類，須假像設之儀式也。所以優闔囑王，刻梅作像，金泥畫體，永世尊敬，爲群生之大導師焉。今此寺之畫幀作像，閱世千秋，幾爲就滅矣。於康熙庚辰，普惠心道人，袖疏鳩財，且賣自畚，敬屈·良匠·大德·清允等四人，重修改金毘盧佛與觀音大士二尊相，畢功於辛巳一夏中焉。畫員與檀那，給侍募緣，執務別座，見聞隨喜助緣者，姓氏名字，一一備書別紙。抑又當時本道邦伯，與本府之芳銜及本寺之三綱，并僉座之法字，寫爲一冊，藏諸腹藏，垂示於後人之昭昭心目，鑑古鑑今鑑後焉，因發誓願云。

伏[腹]願，鳳歷天長，邦基地久，聖主壽萬歲，法輪恒流轉。次願九族先靈，現世先亡師尊父母，法界含生等，超生極樂國，親觀白玉毫。亦願多小檀越，隨喜助緣等，及與畫員別座炊供等執務諸人，共游毘盧法性海。然後願三界九有四生七趣等，仗此勝緣，俱生樂岸虛空有盡願不盡，十方諸佛，作證明摩訶般若波羅蜜。

緣化秩
供給主典諸事及指揮色掌人 覺麟大禪師 能澤比丘 克林判事
別管諸務 前判事弘衍和尚

康熙四十年辛巳流金月日 臺山晴峯老衲秀暎 謹文

住四心 修六度 大幹善惠心老德

尚州露陰山南長寺觀音大士伏[腹]藏

施主秩
嘉善金德龍兩主 靈駕願往生
大化主惠心伏[腹]爲 亡師信應 靈駕生淨土 出施自畚也
供養後配紙兼大施主 覺蓮比丘
李氏貴分保體 嘉善曇日 靈駕生淨土
供養布施兼施主 金業伊兩主
朱紅施主 折衝將軍金孝行兩主
伏[腹]藏施主成俊郭氏兩位 生男之願

供養施主朴信元兩主 通政瑞淸比丘
通政贊修比丘 黃金施主朴倫傑兩主
烏金施主得香兩主 黃金施主千雲遠兩主
彩色施主千後呂種兩主 供養施主禹從立兩主
供養嘉善朴京信兩主 布施施主朴世達兩主
布施施主法淨比丘 布施施主思登比丘
通政嘆侃比丘 供養太暎比丘
朴世根伏[腹]爲 亡父同知朴時俊 靈駕生淨土
三奇比丘 通政處彥比丘 施主覺麟比丘
雙彥比丘 處性比丘 海允比丘 就瓊比丘
克沈比丘 守仁比丘 守鑑比丘 弘運比丘
靜玄比丘 省密比丘 敏心比丘 法律比丘
崔一萬兩主 善圭比丘 普暎比丘
孫命伊兩主 供養施主崔哲石兩主
烏金施主權氏龜良單身 李好日兩主
朴乙金兩主 金甘芑屎保體

緣化秩

訂明秀暎 持殿三應
大畫士 卓輝 雪岑 性澄 處賢
金匠[赤+因][赤+支] 金兼施主 金太萬兩主
金施主太石兩主 金施主韓明炫兩主
改金畫士 淸允 希日 淨日 一先
本寺三綱 和尚暎侃 首僧義惠 三補心濟 持殿楚淨

本寺秩

義澄 學文 海寬 楚軒 忠允

康熙四十年辛巳六月日誌

【번역】

상주 서노음산 남장선찰 금당 중수 관음존상 복장 원문
(尙州西露陰山南長禪刹金堂重修觀音尊相伏[腹]藏願文)

아, 진체(眞體)는 형상이 없고 법신(法身)도 형상이 없으니, 형상으로는 부처님께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장차 고히(苦海)의 미혹한 무리를 구제하고 화택(火宅)⁸⁾의 괴로운 무리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8) 화택(火宅) : 고통으로 가득한 속계를 불타는 집에 비유함. 『법화경(法華經)』 비유품(譬喩品)에 “편안치 못한 이

반드시 불상을 만드는 의식을 빌려야 한다. 이는 우전국왕(優闐國王)⁹⁾이 향나무를 조각하여 불상을 만들고 금니(金泥)로 몸을 그려 영세토록 존경하여 모든 중생들의 대도사(大導師)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절의 불상을 그린 탕화는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거의 민멸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강희(康熙) 경진(1700년, 숙종 26)에 보혜심(普惠心) 도인이 모연소(募緣疏)¹⁰⁾를 들고 다니며 재물을 모으고 자신의 전답을 팔아 경굴(敬屈)·양장(良匠)·대덕(大德)·청운(淸允) 등 네 명이 비로불(毘盧佛)과 관음대사(觀音大士) 두 존상(尊相)을 중수(重修)하고 개금(改金)하여 신사년(1701) 한여름에 공역을 마쳤다. 이에 화원(畫員), 단나(檀那)¹¹⁾, 급시(給侍)¹²⁾, 모연(募緣), 집무 별좌(執務別座)와 견문수희(見聞隨喜)¹³⁾하여 도움을 준 자들의 성씨와 이름을 별지(別紙)에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그리고 당시 본도(本道)의 방백(邦伯)과 본부(本府)의 방함(芳衡)¹⁴⁾ 및 본사(本寺)의 삼강(三綱)¹⁵⁾, 그리고 첨좌(僉座)의 법자(法字)를 기록해 한 책으로 만든 뒤 이를 복장(腹藏)에 넣어 후세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밝게 보여주어 옛날을 거울삼아 지금을 비취보고 훗날을 알게 하려 한다. 인하여 서원(誓願)을 다음과 같이 쓴다.

삼가 봉력(鳳歷)¹⁶⁾이 하늘처럼 오래가고 나라의 기틀이 땅처럼 영구하여 성주(聖主)께서 만세를 누리시고 법륜(法輪)이 항상 유전(流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족(九族)이신 선조의 영령과 현세(現世)의 먼저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와 법계(法界)의 모든 중생들이 극락국(極樂國)에 환생하여 직접 백옥호(白玉毫)¹⁷⁾를 보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단월(檀越)¹⁸⁾과 선행을 따라 기뻐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과 화원(畫員)과 별좌(別座)¹⁹⁾와 취공(炊供)²⁰⁾ 등 일을 맡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비로법성(毘盧法性)의 바다에서 노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삼계구유(三界九有)²¹⁾와 사생칠취(四生七趣)²²⁾ 등이 이 좋은 인연에 의지해 모두 끝은 있어도 소원은 다함이 없는 낙안(樂岸)과 허공(虛空)²³⁾의 세계에서 살도록 시방 제불(十方諸佛)이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蜜)²⁴⁾의

삼계, 불타는 집과 같도다[三界無安 猶如火宅].”라고 하였다.

9) 우전국왕(優闐國王): 우전국(優闐國)은 서역(西域)에 있는 우전국(優闐國)을 가리킴. 우전국왕이 석가를 사모하여 향나무에 석가의 상을 조각한 것이 불상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10) 모연소(募緣疏): 절에서 불사를 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疏)를 지어 여러 사람의 힘을 널리 구하는 글.

11) 단나(檀那): 보시하는 주인, 즉 시주(施主)라는 뜻으로 쓰임.

12) 급시(給侍): 시중드는 사람.

13) 견문수희(見聞隨喜): 불교 용어로, 불법(佛法)을 듣고 기뻐하여 이를 즐겁게 수행함을 이룸.

14) 방함(芳衡): 일종의 방명록.

15) 삼강(三綱): 사찰을 관리하고 불사를 운영하는 임무를 맡은 세 가지 승직.

16) 봉력(鳳歷): 봉력(鳳曆), 즉 기년(紀年)이나 역수(曆數)를 뜻함.

17) 백옥호(白玉毫): 부처의 미간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털. 부처를 가리킴.

18) 단월(檀越): 시주(施主).

19) 별좌(別座): 절의 사무를 주재하는 원주(院主)를 도와 후원의 살림살이를 맡아보거나 모든 시주물을 관리 감독하는 소임.

20) 취공(炊供): 절이나 불사에서 대중이 공양할 밥을 짓는 일.

21) 삼계구유(三界九有): 삼계구지(三界九地). 삼계(三界)는 불교 용어로, 일체 중생이 윤회한다는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가리킴. 구지(九地)는 깊은 땅속, 즉 구천을 뜻함.

22) 사생칠취(四生七趣):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뒤의 혼백을 뜻함. 사생(四生)은 일체의 생물이 태어나는 네 가지 형태, 즉 난생(卵生)·태생(胎生)·습생(濕生)·화생(化生)을 가리킴. 칠취(七趣)는 중생들이 죽은 뒤에 떠돌아다닌다는 일곱 가지 형태, 즉 지옥취(地獄趣)·아귀취(餓鬼趣)·축생취(畜生趣)·인취(人趣)·신선취(神仙趣)·천취(天趣)·아수라취(阿修羅趣)를 가리킴.

23) 허공(虛空): 불교 용어로, 결림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를 뜻함.

증명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화질(緣化秩)

여러 일을 공급하고 주관하고 지휘한 색장인(色掌人)²⁵⁾은 각린 대선사(覺麟大禪師), 능택 비구(能澤比丘), 극림 판사(克林判事)이다.

여러 업무를 별도로 관리한 사람은 전 판사(前判事) 홍연 화상(弘衍和尚)이다.

강희(康熙) 40년(1701, 숙종 27) 신사(辛巳) 유금(流金)²⁶⁾ 월일(月日)에 대산(臺山) 청봉(晴峯)의 노승 수영(秀映)이 삼가 글을 지음.

사심(四心)²⁷⁾에 머물고, 육도(六度)²⁸⁾를 닦는다. 대간선(大幹善)²⁹⁾ 혜심(惠心) 노덕(老德)³⁰⁾.

상주 노음산 남장사 관음대사 복장(尙州露陰山南長寺觀音大士伏[腹]藏)

시주질(施主秩)

가선(嘉善) 김덕룡(金德龍) 부부가 영가(靈駕)의 극락왕생을 기원함

대화주(大化主) 혜심(惠心) 복위(伏爲)³¹⁾ 망사(亡師) 신응(信應)의 영가가 정토(淨土)에 태어나길 기원하며 자신의 전답을 시주함

공양 후배지(供養後配紙) 겸 대시주(大施主) 각연(覺蓮) 비구(比丘)

이귀분씨(李貴分氏) 보체(保體)³²⁾

가선(嘉善) 담일(曇日)의 영가가 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함

공양 시주(供養布施) 겸 시주 김업이(金業伊) 부부

주홍 시주(朱紅施主) 절충장군(折衝將軍) 김효행(金孝行) 부부

복장 시주(伏藏施主) 성준 곽씨(成俊郭氏) 양위(兩位)가 아들 낳기를 기원함

공양 시주 박신원(朴信元) 부부

통정(通政) 서청(瑞淸) 비구

통정 찬수(贊修) 비구

황금 시주(黃金施主) 박윤걸(朴倫傑) 부부

오금 시주(烏金施主) 득향(得香) 부부

황금 시주 천운원(千雲遠) 부부

채색 시주(彩色施主) 천후읍종(千後邑種) 부부

24)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蜜): 불교 용어로, 분별과 집착을 떠난 위대한 지혜의 완성을 뜻함.

25) 색장인(色掌人): 각 소임을 맡은 담당자.

26) 유금(流金): 쇠를 녹일 정도로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 철을 뜻함.

27) 사심(四心): 『금강경(金剛經)』의 용어로,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널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네 가지 마음. 광대심(廣大心), 제일심(第一心), 상심(常心), 부전도심(不顛倒心)을 가리킴.

28) 육도(六度):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실천 수행.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가리킴.

29) 대간선(大幹善): 간선(幹善)은 주도한다는 뜻으로, 불사 또는 불서 간행을 주도하는 소임을 맡은 승려를 간선이라 칭함. 여기서는 대화주의 역할을 맡아 불사를 주도했던 승 혜심(惠心)을 지칭.

30) 노덕(老德): 나이 많은 스님을 높여 이르는 말.

31) 복위(伏爲):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할 때 부르는 소리.

32) 보체(保體): 몸이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발원문의 시주(施主) 이름 밑에 쓰는 말.

공양 시주 우종립(禹從立) 부부
 공양 가선 박경신(朴京信) 부부
 보시 시주(布施施主) 박세달(朴世達) 부부
 보시 시주 법정(法淨) 비구
 보시 시주 사등(思登) 비구
 통정 영간(暎侃) 비구
 공양 태영(太暎) 비구
 박세근(朴世根) 복위(伏爲) 망부(亡父) 동지(同知) 박시준(朴時俊)의 영가가 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함
 삼기(三奇) 비구
 통정 처언(處彦) 비구
 시주 각린(覺麟) 비구
 쌍언(雙彦) 비구
 처성(處性) 비구
 해운(海允) 비구
 취경(就瓊) 비구
 극심(克沈) 비구
 수인(守仁) 비구
 수감(守鑑) 비구
 홍운(弘運) 비구
 정현(靜玄) 비구
 성밀(省密) 비구
 민심(敏心) 비구
 법률(法律) 비구
 최일만(崔一萬) 부부
 선규(善圭) 비구
 보영(普暎) 비구
 손명이(孫命伊) 부부
 공양 시주 최철석(崔哲石) 부부
 오금 시주 권씨량씨(權龔良氏) 단신(單身)³³⁾
 이호일(李好日) 부부
 박을금(朴乙金) 부부
 김감돌시(金甘芻屎) 보체(保體)

연화질(緣化秩)
 정명(訂明) 수영(秀暎)
 지전(持殿) 삼응(三應)
 대화사(大畫士) 탁휘(卓輝) 설잠(雪岑) 성징(性澄) 처현(處賢)
 금장(金匠) ■{赤+ 囚}■{赤+ 支}

33) 단신(單身): 시주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표기함.

금 겸시주(金兼施主) 김태만(金太萬) 부부

금 시주(金施主) 태석(太石) 부부

금 시주 한명현(韓明炫) 부부

개금 화사(改金畫士) 청윤(淸允) 희일(希日) 정일(淨日) 일선(一先)

본사 삼강(三綱) 화상(和尚) 영간(映侃) 수승(首僧) 의혜(義惠) 삼보(三補) 심제(心濟)

지전(持殿)³⁴⁾ 초정(楚淨)

본사질(本寺秩)

의징(義澄) 학문(學文) 해관(海寬) 초헌(楚軒) 충윤(忠允)

강희(康熙) 40년(1701, 숙종 27) 신사(辛巳) 6월 일에 기록함

34) 지전(持殿): 불상을 조성할 때 의식을 집전하는 소임자. 또는 불전 및 선방의 관리와 청소와 향을 담당하는 소임자.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해제

안건번호 동산 2020-03-003

3.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白磁 銅畫梅菊文 瓶)

가. 심의사항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의 국보 지정 해제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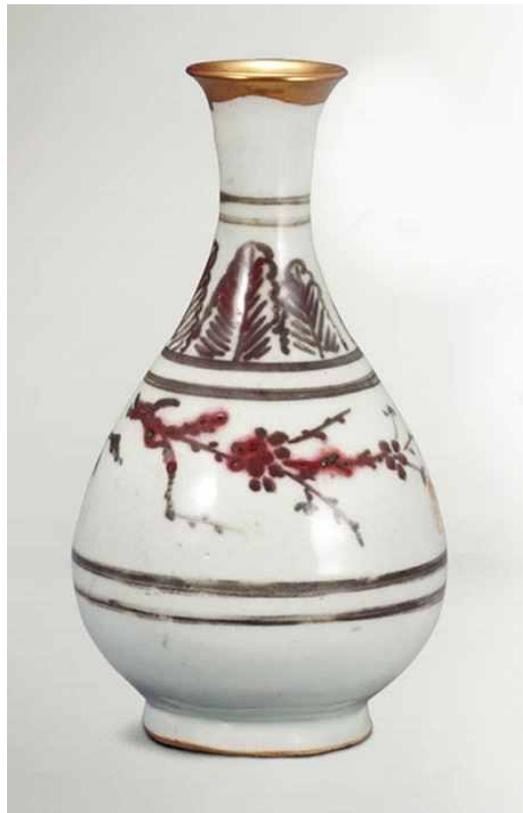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의 가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으로부터 의견이 제기되어(‘18.12.21.) 소장처 의견수렴(‘18.12.21.)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9.10.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검토사안으로 부의하였으나, 중국도자사 전문가 보완조사 및 과학조사 필요 사유로 보류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보완조사(‘20.2.19.) 및 과학적 조사(‘20.1.20.)를 실시하고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9)에서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30일간 해제 예고(‘20.4.29.~5.29.)하고, 국보 해제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보 제168호(1974.7.9.)
- 명 칭 : 백자 동화매국문 병(白磁 銅畫梅菊文 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장경위 : 일본인 수집가 아마츠 모타로(天池茂太郎)로부터 1936년에 300엔에 구입
* 아마츠 모타로는 명동에서 天池상회를 운영한 수집가이자 골동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1.4cm, 입지름 4.9cm, 밑지름 7.2cm
- 재 질 : 도자

- 제작시기 : 지정 당시에는 조선 15세기로 추정했으나, 현재는 중국 원대(元代) 14세기 제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정사유 : 진사(辰砂)를 사용한 조선 초기의 보기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기형(器形)이 돋보이는 작품



라. 관련경과

- 1974.07.09. 국보 제168호 지정 *(1974.6.21) 제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18.12.11. ‘국보 제168호’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원나라’ 제작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박물관 측에 사실 확인 요청
- 2018.12.21. 관련 언론보도(이중 국적 백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18. 12.21. 국립박물관 의견 회신(원나라 작품으로 추정되며, 가치 재평가 필요)
- 2019. 10.07.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 조치 필요성 제기
- 2019. 10.22. 가치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제7차 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중국도자사 전문가 의견 보충 및 과학조사 필요)**
- 2020. 01.20./02.19. 과학조사 및 관계전문가 보완조사 ※과학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2020. 04.09. 제2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검토 및 해제 예고('20.4.29.~5.29.)

< 해제사유 >

- ◆ 1974년 당시 진사(동화)를 사용한 조선 전기의 매우 유례가 드문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어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 ◆ 그동안 학계의 발굴·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동 문화재는 14세기 중국 원(元) 경덕진요(景德鎮窯)에서 다량 제작된 도자기인 유리홍(釉裏紅)으로 인식 되어왔음
- ◆ 외래품의 국보·보물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사에 끼친 영향이 크고 의미가 중요한 대상이어야 하나(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백자 동화 매국문 병’은 중국에서 다수 전해지는 유형이자 작품의 수준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 도자사에 끼친 영향이 미비해 국보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해제)

1. 이 백자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언제 어디에서 제작했는가 하는 시기와 국적문제임. 산화동의 안료 활용 사례를 보면 고려의 경우 13~14세기 경 일부 유물에서 문양으로 쓰인 예가 확인되며, 그 이후 보이지 않다가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인 18~20세기 초반의 백자에 표현되고 있음. 1974년 국보 지정 당시에는 조선 초기 백자병의 형태에 동화로 장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음. 그러나 최근까지 확인된 유물과 연구성과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백자에 동화로 장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2. <백자동화매국문병>과 유사한 중국의 제작 사례 중 동화를 사용한 근거자료는 1323년 하카다[博多]로 향하다 신안 해저에서 침몰된 후 출수된 <백자유리홍 詩文접시>를 들 수 있음(사진 1). 형태상 동일한 기형으로는 원대의 <백자청화유연수초문병>과 <백자유리홍화훼문병> 등이 있음(사진 2, 3, 4). 또 보조문양의 파초문과 중심문양인 화훼문, 꽃의 표현방식 등은 원말기의 유리홍백자들과 유사함(사진 3, 4, 5). 당시 이러한 안료와 문양표현방식을 활용한 가마는 중국 강서성 소재의 경덕진요임.
3. 이러한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동화매국문병>의 제작지는 중국 경덕진요이며, 제작 시기는 14세기일 가능성이 높음.



사진 1. 백자유리홍시문접시(신안 출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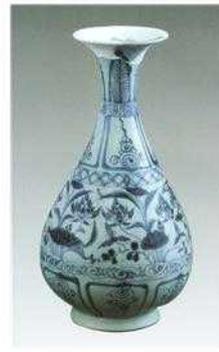


사진 2. 백자청화유연수초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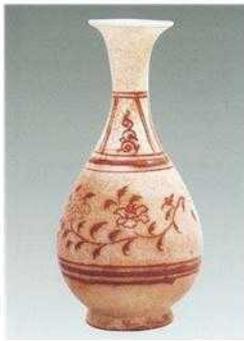


사진 3. 백자유리홍화훼문병



사진 4. 백자유리홍화훼문병



사진 5. 백자유리홍화훼문고족배

4. 현재 국보 168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자동화매국문병>은 유사 사례가 중국에 여러 점 존재하며, 구연부가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고, 문양시문이 뛰어나다고 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희소성, 완전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 등에서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해외문화재의 경우라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예가 있음. 그러나 <백자동화매국문병>은 여러 면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지정 해제)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1936년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했고, 1974년 7월 9일 조선 15세기 백자 중 동화[진사] 사용이 유일한 사례로 간주되어 국보 제168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본 작품은 중국 원대 말~명대 초기 14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태토에 미세한 이물질이 있고 유층은 기포가 많아 최상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문양은 동화의 발색이 일정하지 않고 매화와 국화문의 필치도 느슨하여 생동감이 떨어진다. 굽 접지면의 처리도 섬세하지 못하며 특히 구연부가 결손 수리되었다. 본 작품은 중국 도자기로 유일한 예가 아니며, 작품성은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해제)

국보 168호 백자동화매국문병은 형태와 문양, 기형, 제작기법 등에서 14세기 원대 경덕진 청백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 유물이 국내의 뚜렷한 편년가능한 왕릉이나 유적에서 고려자기등과 함께 출토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동반품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일괄품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었다면 외국도자기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외국산 도자기의 경우에도 해당 유적의 중요도나 동반유물의 연관성 등에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인각사지 출토 일괄품 중 중국 월주요 다완들이나 광재우장군 유물 중 외국자기처럼). 그러나 당초 이 병의 지정 당시 조선 15세기 백자로 판단하였고, 진사[동화]를 사용한 점이 희귀한 것이라는 기준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같은 기준은 그간 국내 백자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 및 중국 도자기에 대한 정보의 축적에 의거 아래에 제시한 것처럼 비교 자료들이 확보되고 있으므로 제작지와 제작시기 등에 대해 재고를 요한다. 따라서 동 유물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 보완조사자 의견

○ (지정 해제)

- 국보 제168호 <백자동화 국화문 병>은 원대 14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중국 도자기로서 당시 관요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이 낮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여러 점 알려져 있는데 이들과 비교하여도 대표성을 지닌 유물이라 할 수 없다.
- 구연부가 결손된 것을 복원하였는데 이 또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936년 일본인 아마츠 모타로(天池茂太郎)로부터 구입경위는 알려져 있으나 이 유물이 언제, 어떻게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 따라서 <백자동화 국화문 병>은 우리나라 문화재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정 해제)

이 작품이 중국 원대 도자기라 해도 명문이 있거나 유적의 성격이 확인되는 증거 자료가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국보로 남겨 둘 수 있지만, 해당 문화재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보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지정 해제)

- <백자동화매국문병>은 구연부가 결실되어 보존이 완전하지 못하며, 유적 출토품이나 편년 자료가 아닌 내력 미상의 구입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
- 현전하는 기타 유물들과 비교해 볼 때, 도자기술사 또는 학술적 위상이나 미학적 수준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해외 경매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유사품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수준 높은 기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 <백자동화매국문병>은 ‘국보’의 수준에 부합하는 역사성, 제작기술의 독창성, 희소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 해제

조사보고서



○ 형태와 성형

나팔처럼 벌어진 입술과 동체 중앙부로 갈수록 통통한 몸체, 아랫부분이 급격하게 오므라드는 일명 ‘옥호춘병(玉壺春瓶)’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형은 중국의 원말, 명초 시기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후반~조선 전반기의 도자기 병에서 많이 나타난다. 물레성형을 하였으며 구연부 안쪽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비칠 만큼 기벽이 얇다(사진 6).

○ 굽처리

굽다리는 ‘ㄷ’ 자를 땅에 닿도록 세운 것처럼 접지부가 넓으며 굽 안바닥은 태도가 젖어 있었을 때 마감하면서 손을 문댄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을 깎은 흔적으로 볼 때 정형과정에서 물레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깎은 것으로 보인다(사진 7). 접지면 너비는 0.4~0.6cm.

○ 문양 시문기법과 소재

문양은 산화동(CuO) 안료로 상·중·하단에 두 줄씩의 황선대를 둘러 전체를 4분할

하고, 그 중 문양을 넣을 수 있는 2단부에는 파초잎을 다섯 곳에 그렸으며, 3단부 양면에는 국화와 매화절지를 옆으로 뉘어 그렸다. 문양은 꽃을 먼저 그리고 가지와 이파리를 그려 넣었다. 안료에는 불순물이 많았던 듯 전체적인 문양의 색조는 검붉은 색조를 띠며, 꽃이나 일부 이파리의 산화동 안료 농도가 강한 부분은 붉은 색이 번지면서 탄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안료가 탄 부분은 표면이 움푹 패어 있다(사진 8, 9, 10, 11).

○ 태토와 유약, 시유상태

태토는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며 백도(白度)가 높은 편은 아니다. 유약은 백유를 전면 시유했으며, 굽다리 부분만 유약을 살짝 깎아냈다. 유색은 미세하게 푸른색을 띠고 있어 중국 경덕진요 생산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백자(靑白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경덕진요의 푸른 유색보다는 흰 편이다.

유약 면은 육안 관찰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루페로 볼 경우 미세한 기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 번조상태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사진 12) 전체적인 자화도(磁化度)는 매우 높아 경도가 강하다. 동체부의 하단 한쪽에 번조과정에서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타 기물(혹은 갑발)의 파편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보수상태

구연부는 일부가 파손, 망실되어 금채 보수를 하였다. 일반적인 금채보수는 내면을 석고로 메운 경우가 많으며 1970년대까지 많이 쓰던 기법이었다(사진 13). 동체 하단의 타 기물이 붙은 흔적은 그라인더로 유약면을 갈아내어 태토가 살짝 노출된 상태를 보여준다(사진 14). 그 외의 보수흔적은 없다.

□ 백자동화매국문병 현상 사진



사진 6. 백자동화매국문병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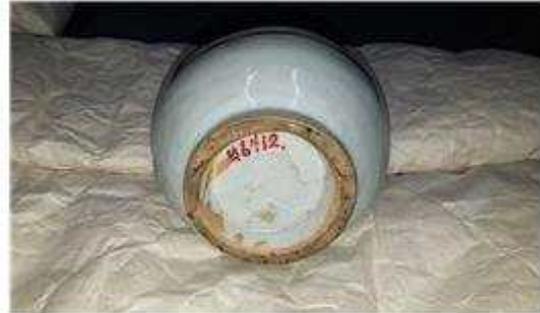


사진 7. 병의 굽 조성상태



사진 8. 병 상부의 파초문



사진 9. 병 중심문양 중 국화문



사진 10. 병 중심문양 중 매화문



사진 11. 동화안료의 번조상태



사진 12. 접지면의 모래받침 흔적



사진 13. 병 상부의 금채 보수흔



사진 14. 병 하단의 이물질 제거 흔

※ 기타 : 명칭 관련

한때 공식 명칭에 대하여 각 청간의 홈페이지 표기방식에 차이가 있어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의 공식명칭은 연구자들의 검토결과 <백자동화매국문병(白磁銅畫梅菊文瓶)>으로 통일을 보았음. 이 명칭은 동일 유형 문화재의 명명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작업의 결과로 향후에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전시를 하는 경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명칭은 <백자 동화 매화 국화문 병>과 같은 표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함.

□

○ 현 상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태토는 경질로 청색을 약간 보이는 백색이고 유약은 기포가 많은 투명유이다. 문양은 산화동 안료를 이용해 동부에 매화와 국화문, 견부에 파초문을 시문했다. 굽은 다리굽으로 굽 안에 시유했고 구연부는 보수되었다. 높이 21.4cm, 입지름 4.9cm, 몸통지름 11.8cm, 굽지름 7.2cm, 굽접지면폭 0.4~0.6cm

- 태토는 경질 고풍토로 청색을 약간 머금은 백색이고 까만 작은 점이 보여 최상급은 아니다. 유약은 기포가 많은 투명유이고 유약이 벗겨진 부분이 있다.
- 기형은 옥호춘 병과 같이 목이 긴 비교적 유려한 형태로 안정감이 있고 구연부는 결손 수리했다.
- 문양은 산화동의 안료를 사용했다. 문양의 배치는 두 줄의 횡선을 그어 4단 구성을 했는데, 최상단과 하단은 문양이 없고 3단의 동체에는 주문양인 매화 가지와 국화가지를 옆으로 누어 앞뒤로 포치시켰다. 매화와 국화의 필치는 전체적으로 느슨하여 필력이 생생하지 않다. 2단의 어깨 부분에는 14세기 후반에 원대 청화백자와 명대 초반의 청화백자에서 유행한 파초잎 5개를 일렬 횡대로 배치했다. 산화동

사용은 까다롭다고 하나 문쳐서 군데군데 진하게 발색한 곳이 있어 문양의 선명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

- 굽은 다리굽에 안정감이 있다. 굽 안은 시유했고 굽접지면은 유약을 훑어 내 무유이나 그 처리는 정연하지 못하다.

<관련 사진>



□

○ 현 상

입이 나팔처럼 벌어지고 동체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이른바 ‘옥호춘(玉壺春)’병이다(그림 1). 유약을 입히기전 그려 넣은 안료가 붉게 발색되어 유리홍(釉裏紅)자기라고도 한다. 유리홍은 유약을 입히기 전 산화동 안료로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인데, 번조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산화동 안료가 환원되면서 붉게 발색하게 되며 ‘동화백자’라고도 한다. 구리는 고온에서 상부로 떠오르고 휘산하여 안정감이 떨어져 도자기 문양의 재료로는 다루기 어려운 소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청자문양 재료로 사용된 바 있으며, 국내에는 신안선에서 출수된 원대 경덕진산 <靑白磁銅彩詩銘전접시>가 있다(그림2).

이 병의 태도는 대체로 치밀하고 유면에 열게 푸른 빛이 감돌아 소위 청백자라고 할 수있다. 루페로 관찰하면 유면에 기포가 가득차있고, 문양 위로도 미세한 기포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뽀얗고 치밀한 느낌을 준다. 2중 선문의 가로 횡대를 목, 어깨 상부, 동체하부 등 3부분에 각각 둘러 동체를 4등분했다. 목 아래에는 파초(芭蕉)잎 무늬를 5개 돌렸고, 몸체 중앙부에는 가로로 뺨은 형식으로 매화와 국화무늬를 잇달아 그려 넣었다. 목 부위 파초문과 매화문이 있는 부위에는 안료가 붉은색으로 발색되었다(그림 3). 구연부는 가장자리 전체에 금으로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그림 4), 그 외에는 별다른 파손이나 수리 흔적은 없다. 굽은 직경이

7.0~7.1cm이며 오뚝한 다리굽으로 동체와 굽의 경계부위에는 다듬어 깎은 흔적이 있다. 굽 안바닥면은 대칼로 돌려 깎았고 굽은 유약을 입힌후 접지면을 거칠게 깎아낸 후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는데 (그림 5) 굽형식과 깎음, 유약처리 등에서 조선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관련 사진>



이 병은 원대 중국백자 가운데 동화기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보존상태가 좋은편으로 원대 후반 자기기술과 유하회(釉下繪)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화[유리홍] 백자는 원대 경덕진(景德鎮)에서 본격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전 사례는 많지 않다. 이 병은 경덕진요(景德鎮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덕진에서 동화나 동채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량 1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강서성 길안지역 1338년 분묘출토 백자개관(蓋罐)은 칩화로 장식한 항아리 전면에 동화 안료로 덧바른 것으로서 이른 시기 편년자료로 알려져 있다(그림 6).

이 병과 기형, 문양구성, 안료 등에서 유사한 사례로는 British Museum 소장 백자유리홍 화문병(그림 7)이 있는데, 굽의 형태와 접지면 깎음 상태도 매우 흡사하다. 또 Metropolitan Museum of Art 소장 백자연화문 병(그림 8), 山東省齊南市大觀園 출토 유리홍화훼문옥호춘병(그림 9), 그리고 산동성 嘉祥縣 疇里鎮疇里村 출토 유리홍 산수인물문 옥호춘병(그림 10) 등이 있다. 유사한 병들의 사례로 보면 국보168호의 구연부는 수리과정에서 좀 더 좁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사진>

		
<p><그림6> 백자개관(蓋罐), 강서성 길안지역 1338년묘출토</p>	<p><그림7> 백자유리홍화문병, British Museum소장, 높이23.5cm</p>	
		
<p><그림8> 백자연화문 병, Metropolitan Museum of Art, 높이24.1cm</p>	<p><그림9> 釉裏紅花卉文玉壺春 瓶.山東省齊南市大觀園 출토, 높이 23.4cm</p>	<p><그림10> 釉裏紅山水人物文 玉壺春瓶, 높이22cm</p>

이 병의 문양은 매화와 국화의 가지에 꽃이 달린 형태로 가로로 뻗어나가도록 그렸는데 이 같은 표현은 위 다른 병들에 보이는 연화 등의 화문에서도 비슷하다. 또 약간 이른 시기 제작품으로 추정되는 신안선 출토 획화문(음각) 병과는 목 부분 파초문이 거의 흡사하다(그림 11). 유리홍 자기 가운데 다른 기종, 예를 들어 고족배 등에서도 꽃과 잎이 가로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으며(그림 12) 원대 청화 백자에서도 그 유사함을 볼 수 있다(그림 13).



※ 기타 : 명칭 관련

현행 “백자동화매국문병[靑白磁銅畫菊唐草文瓶]” 이라는 지정명칭은 국문과 한자 표기가 다르다. 실제 문양에는 당초문이 없고 국화와 매화가 그려진 점에 근거 -->국문과 한자표기를 일치시켜 “백자동화매국문병(白磁銅畫梅菊文瓶)”으로 정정이 요망된다.

보완조사보고서



○ 현 상

상기 문화재는 표면에 동화(銅畵) 문양이 시문된 백자 주병이다(사진 1). 미세한 철분이 섞인 백토를 사용하여 물레성형 하였는데 비파괴조사 결과(X선 및 CT 촬영 사진)를 참고하면 기벽의 두께가 매우 얇으며 저부와 상부, 목과 구연 등 4개의 부분을 따로 성형하여 접합한 것 [接胴法] 으로 보인다(사진 2). 형태는 저부가 둥근 옥호춘(玉壺春) 형식으로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으며 굽 또한 밖으로 살짝 벌어져 있다. 대체로 키가 작고 목이 가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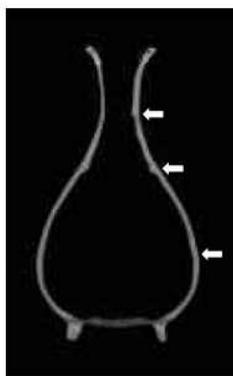
외면에는 동화안료로 목과 어깨, 몸통에 2줄씩 황선문대를 두르고 그 사이로 하단에는 매화와 국화를 그리고 상단에는 파초문을 보조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동화의 발색은 대체로 검은색에 가까우나 매화꽃잎과 국화잎이 부분적으로 붉게 번져있다. 표면에는 회청색이 도는 투명유를 얇게 있었는데 굽 바깥쪽 몸체와 굽 안바닥을 나누어 따로 시유하였다(사진 3). 유면에는 빙열이 없고 광택이 은은하다. 굽 안바닥에는 거칠게 깎았거나 흙물을 덧바른 듯 한 흔적이 있으며 유약이 입혀지지 않는 굽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 보존상태

유면은 대체로 깨끗한 편이나 몸체 한쪽에 번조 시 이물질이 붙었던 것을 갈아낸 흔적이 직경 1.5cm 가량 둥글게 남아 있다(사진 1의 화살표). 특히, 구연부분은 전체가 결손된 것을 복원하고 금수리하여 본래 구연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진 1)
백자동화매국문병
전면



(사진 2)
백자동화매국문병
접합추정부위



(사진 3)
백자동화매국문병
굽접지면 및 안쪽 시유상태

○ 내용 및 특징

상기 병은 알려진 조선전기 백자 주병들(사진 4, 5, 6 참고)과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높고 목이 길며 굽이 벌어져 있어 형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몸체를 나누어 붙이는 접동법은 중국에서 원대(元代)에 등장하지만 조선에서는 17세기부터 사용되는 기법이다. 더불어 굽 안바닥의 정면(整面)수법이나 시유법은 조선백자에서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사진 4)
백자철화 끈무늬 병
조선전기, 보물제106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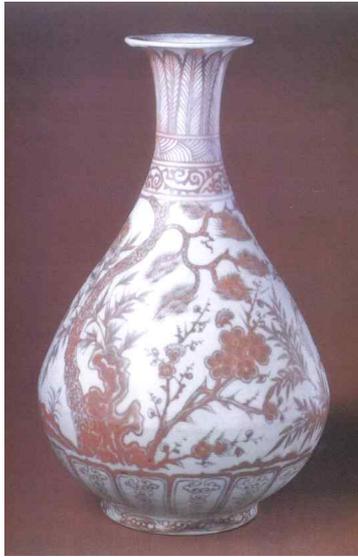


(사진 5)
백자철화 끈무늬 병의 굽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6)
백자상감 넝쿨무늬 병
조선전기,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168호 <백자동화 매국문 병>은 형태와 문양, 제작기법으로 보아 양식적으로 원대 경덕진에서 생산된 유물로 판단되는데 이와 유사한 유물이 여러 점 알려져 있다. 원말 관요 제품인 <송죽문 병>(사진 7)과 비교하면 몸체의 양감이 적고 유태(釉胎)의 품질이나 문양표현은 떨어지나 매화와 파초문 같은 문양 소재는 공통점이 있다. 보다 유사한 유물인 14세기 중반의 <화문 병>(사진 8)이나 <연화문 병>(사진 9)과 비교하면 <백자동화 매국문 병>의 몸체가 좀 더 둥글고 무게 중심이 낮다. 그리고 상·하단으로 배치한 문양의 구성은 같으나 필선이 두껍고 동화의 발색이 어둡다. 구연부는 복원되어 원형을 알 수 없으나 원대 유물들과 비교하면 현재보다 더 나팔처럼 넓게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원말 14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유물로 당대(當代) 관요제품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7)
백자유리홍 송죽매문 병
원(14세기 후반)
북경고궁박물관



(사진 8)
백자유리홍 화문 병
원(1320~1368)
대영박물관



(사진 9)
백자유리홍 연화문 병
원(14세기 중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

○ 현황

1974년 국보 제168호로 지정된 백자 동화매국문 병(덕수 6412)은 동화(유리홍)로 장식된 병으로 기벽이 얇고, 몸체를 3등분 나누어 제작하고 접합하였으며, 진사 안료의 순도가 높지 않아 작은 반점들이 확인되며, 목과 어깨 사이에 장식된 파초 문양은 한국에는 드물게 보이는 장식기법이다. 유면에는 작은 굴피모양의 기공이 확인되며 굽 접지면이 갈변현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경덕진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병의 복부의 불룩한 정도를 보면 신안선(1323년)에서 발견된 청백자 옥호춘병과 명대 초기 옥호춘병의 중간 형태로 14세기 중반 정도로 사료된다.

□

○ 현황

- 기종과 품종

- <백자동화매국문병>은 유색에 따르면 청백자(유)에 속하나, 중국 학계에서는 대개 붉은 그림을 특징으로 보아 '유리홍(釉里紅)'이라 칭한다. 기종은 주기(酒器)의 하나인 '병(瓶)'이다.
- <백자동화매국문병>은 흔히 '옥호춘병'이라 불리는 기종으로 '玉壺'는 옥 또는 청자로 만든 호, '春'은 술을 은유하여 곧 술병을 의미하는 명칭이다. 본

래는 구연부가 나팔모양으로 크게 외반되고 긴 목에서 풍만한 동체로 이어지며 하복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좁아들며 굽과 만나는 형태이나, 현재 구경이 비교적 좁아 후대에 결실된 구연부를 수리하면서 원형보다 작게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 제작(성형)

- 육안 및 촉각으로 하복부의 돌출선이 관찰되는데, 엑스선 및 컴퓨터단층 사진에서 목과 하복부에 2개의 접합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총 3개 부분으로 분리성형하여 접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체에 가마 내 결손된 흔적도 보인다.(표 2.1)
- 굽 접지면에 약간의 굽힘이 있으나 마모정도가 약하고, 내외면에서도 사용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굽[圈足]의 모양과 깎음새는 원대 경덕진요에서 제작된 병류와 일치한다.(표 1)

[표 1]



1. 국보 제168호 저부

2. 고궁박물관 저부

3. 집영로 저부

- 태토와 유약

- 태토는 치밀질의 백토를 사용하였고, 약간의 잡물이 표면에서 관찰된다. 굽 접지면을 제외한 기물 전체에 푸른빛을 머금은 청백유(靑白釉)를 시유하였고 광택이 높은 편이다.

- 문양기법

- 문양은 이중 횡선으로 구획하여 4개의 화면을 구획하였는데, 동체 중앙부에 절지국화문과 절지매화문을 주문양으로 시문하고, 목부분에 5개의 파초문으로 문양대를 포치하였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다. 구연부와 동체 하단부에는 보조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문양은 필력이 부족하고 치졸한 편이다.
- 시문기법은 산화동(CuO)을 개어 붓으로 기물에 문양을 시문하고 청백유(투명유)를 시유하여 소성한 유하채(釉下彩: 유약층 아래에 문양이 있음)의 일종인 ‘홍채(紅彩)’로 국내에서는 진사(辰砂), 동화(銅畵)로 불리는 기법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품종을 전통적으로 유리홍(釉里紅)’이라고 통칭한다.
- 동 안료의 색조는 전체적으로 흑회색을 띠고, 매화문·국화문·파초문의 안료가 응집된 부분에만 검붉은 발색되었는데 안료의 흩어짐[暈散]과 곰보자국

같은 반점(斑點) 현상이 현저하다. 이는 원대 유리홍자기에 흔히 보이는 특징으로 안료의 불균일성과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1250도 전후)에서 기술적인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



(1)가마 내 결손부위

(2)흠어짐과 반점(斑點)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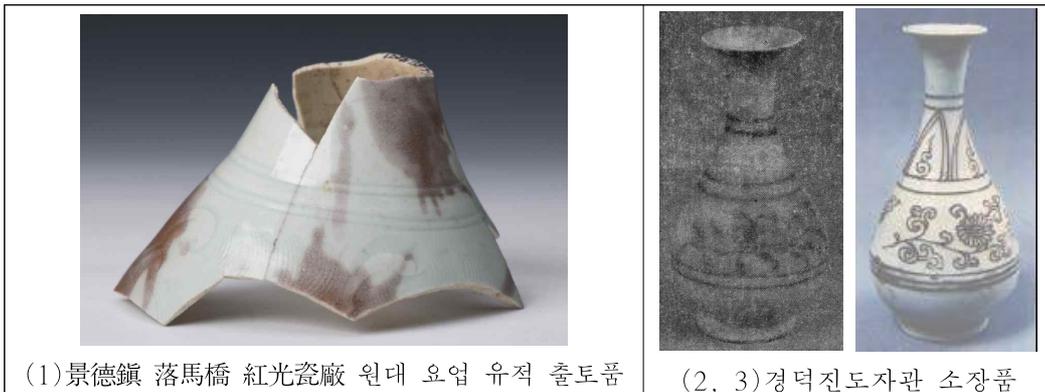
(3)고안 교장 출토 고족배

○ 검토의견

- 생산지

- <백자동화매국문병>은 중국 원대시기 경덕진요에서 생산된 동일 유형의 기물과 태토·유약, 조형적인 특징 및 분리성형 방식과 시문방식 등도 완전히 부합된다.(표 5, 6) 비교 사례는 고궁박물관,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소장품 등의 전세품과 강서성 고안 교장, 경덕진 원대 요업 유적, 케냐 유적 등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표 5, 표 6)
- 따라서 이 기물의 생산지는 중국 경덕진 요장으로 특정된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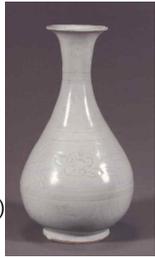
(1)景德鎮 落馬橋 紅光瓷廠 원대 요업 유적 출토품

(2, 3)경덕진도자관 소장품

- 제작시기

- 현재 유리홍백자 가운데 가장 편년이 이른 기물은 1323년 신안선 출수의 <시명 접시>(표4.2)이며, 至元四年(1338년) 편년의 강서성 풍성현 유적 출토품이 있다. (표 4.3)

[표 4]

<p>(1)</p> 	<p>(2)</p> 	<p>(3)</p>  <p>青花釉里紅 堆塑四灵塔式盖罐</p>	<p>(4)</p> 
<p>높 이 20.2cm</p>	<p>시명 접시</p>	<p>전체높이 22.5cm 입지름 7.7cm 굽지름 6.6cm</p>	<p>높 이 24.0cm 입지름 13.2cm 굽지름 15.4cm</p>
<p>1323년 신안선 출수</p>		<p>江西 丰城縣 出土 后至元四年(1338) 江西省博物館藏</p>	<p>江西省 高安 窖藏 (1321년~1352년)</p>

- <백자동화매국문병>의 문양 구성은 동시기 청백자(표4.1)와 청화백자 등의 품종에서도 활용되는 조합이며, 유리홍의 기술적 수준은 수도박물관 소장품(표 5.2)과 자카르타박물관 소장품(표5.3)과 대체로 유사하다. 수도박물관 소장품(표 5-2)은 절지화훼문을 음각한 위에 동 안료로 따라 그렸는데, 동 안료를 다루는 솜씨는 <백자동화매국문병> 보다 더 둔탁하다.
- 한편, 고궁박물관의 두 점의 소장품은(표 5.4, 5.5) 주문양을 음각하고 바탕을 동 안료로 덧칠하여 주문양을 부각하는 바탕문[地紋]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산화동의 안정성이 떨어져 흠어짐 현상이 현저하며, 이는 유리홍의 초기 단계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p>(1)</p> 	<p>(2)</p> 	<p>(3)</p> 	<p>(4)</p> 	<p>(5)</p> 
<p>높 이 21.4cm 입지름 4.9cm 굽지름 7.2cm</p>	<p>높 이 31.4cm 입지름 8.4cm 굽지름 10.0cm</p>	<p>미상</p>	<p>높 이 20.5cm 입지름 6.3cm 굽지름 6.8cm</p>	<p>높 이 28.6cm 입지름 7.8cm 굽지름 9.8cm</p>
<p>국립중앙박물관</p>	<p>北京市 丰台区 瓦窯1號塔基 出土 首都博物館</p>	<p>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p>	<p>故宮博物院</p>	<p>故宮博物院</p>

[표 6]

 <p>(1)</p>	 <p>(2)</p>	 <p>(3)</p>	 <p>(4)</p>	 <p>(5)</p>
<p>높 이 21.5cm 입지름 6.5cm 굽지름 6.8cm</p>	<p>높 이 23.4cm 입지름 6.5cm 굽지름 7.0cm</p>	<p>높 이 23.8cm 입지름 6.6cm 굽지름 7.2cm</p>	<p>높 이 26.2cm 입지름 7.5cm 굽지름 9.3cm</p>	<p>높 이 32.5cm 입지름 8.5cm 굽지름 11.5cm</p>
<p>內蒙古 集宁路 窖藏 出土</p>	<p>1980年 江西省 樂平縣 收集 江西省博物館</p>		<p>케냐 Gedi古城 출토 원말-명초</p>	<p>明 洪武(1368~1398) 故宮博物院</p>

- 이밖에 유리홍 백자가 출토된 원대 주요 유적으로 강서성 고안 교장(1321년~1352년), 내몽고 집영로 교장(표 6.1) 등이 있는데, 신안선과 달리 원숙한 청화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유리홍의 흠어짐과 반점이 거의 없고, 선명한 붉은 색조를 띠고(표 6.1) 청화백자와 필적하는 회화적 원숙미도 돋보인다.(표 2.3, 4.4)
- 원~명대 경덕진 백자의 발전 계보에서 선후 또는 동반관계를 보이는 청백유 - 난백유(추부백자) - 유리홍백자, 청화백자의 각 품종들의 동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시문기법으로서 유리홍은 크게 가채(加彩) 또는 점채(點彩)의 면적인 표현에서 선묘 회화로 발전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백자동화매국문병>의 제작시기는 동 안료를 다루는 숙련도와 소성기술 등에서 고안 교장(1331~1352년)과 다소 편차가 크다고 생각되어, 아직은 시험단계인 1323년(신안선) 이후 1330년 ~ 1340년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 타

- 비록 <백자동화매국문병>이 역사적·미학적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교류에 대한 정보 및 신안해저 출수 도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임에는 분명하다.
- 현재까지 국내에는 신안선 유물 이외의 유적 출토 및 전세의 원대 중국도자기가 빈약한 상황이므로, <백자동화매국문병>에 대한 고고학적 고증을 거쳐 결손된 구연부를 원형을 맞게 재복원하여 연구 및 전시참고품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만약 실물에 대한 재수리가 어렵다면 디지털 복원이나 도면복원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변경

안건번호 동산 2020-03-004

4.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七~八, 九~十] 수량 및 명칭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에 대한 수량 및 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에 대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수량 및 지정정보 변경에 대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9.)에 검토사안으로 부의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예고('20.4.29~5.29.)하고,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현황	사진 (보존처리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7~8,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사항 : 보물 제763호(1984.5.30.지정) ○ 간행연대 : 1461년(세조 7)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관 ○ 판 중 : 금속활자본(을해자) ○ 지정사유 : 세조연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을해자본으로 현존사례가 희소함 	

라.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지정수량	4권 2책	4권 4책	가철(假綴)로 원형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복원함으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 제고
지정명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권7~8, 9~10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 권7, 8, 9, 10	분책(分冊)에 따른 권차수를 명칭에 반영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V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3-005

5.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五)

가. 검토사항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18.10.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 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419-3호(2002.10.19. 지정)
- 명 칭 :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卷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범어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정보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33.5×21.2 cm
- 재 질 : 고정지(蒙精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94(조선 태조 3) 판각, 조선 초기 인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표지, 권수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고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이다. 범어사 소장의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 권4~5는 현전하는 『삼국유사』 중에서 간행시기가 가장 앞선 판본이다. 그 가치는 학술적인 점에 한정되지 않고, 민족의 역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언어 연구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유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유물은 민족 문화유산의 결집체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고간본으로 다른 소장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보로 승격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삼국유사』의 경우, 기 부여된 국가문화재 지정번호는 유물명(서명)을 기준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국보 제306-1호와 국보 제306-3호는 태조 3년(1394) 간본이고, 국보 제306-2호는 중종 7년(1512) 간본이다. 또한 보물 제419-2호는 태조 3년(1394) 간본이고, 보물 제419-4호는 중종 7년(1512) 간본이다. 이러한 지정 방식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판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물명(서명)으로 부제(가지번호)를 부여하기 보다는 판본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조선조 초기의 인본으로 권4에는 「義解第五」가 수록되고 권5에는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1) 조선조 초기의 原板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고 (2) 壬申本(正德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3) 壬申本의 翻刻系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고 (4) 口訣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梵魚寺 所藏의 寶物 제419-3호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이미 國寶로 지정된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과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과 동일한 판본일 뿐만 아니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의 壬申本보다 시대가 앞선 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國益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근거>

이미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지정된 『三國遺事』의 版本은 다음과 같다.

-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

<表 1> 『三國遺事』의 現傳本과 文化財 指定의 現況

版本	[名稱]	現存本		文化財指定	所藏處	傳來歷	備考
		卷次	缺張				
A本 太祖 3(1394, 甲戌)年頃 (朝鮮初期本)	파른本	「王曆」卷1~2 (2卷1冊)	-	國寶 제306-3호	延世大學校 博物館	파른 孫寶基 教授 遺族 寄贈	
	石南本	「王曆」卷1	缺張:	-	不明	石南 宋錫夏 舊藏	
	鶴山本	卷3~5 (3卷1冊)	卷3: 張1~6 卷5: 張27~30. 「跋文」	國寶 제306호	郭永大 (松隱의 養孫)	鶴山 李仁榮 教授 舊藏 松隱 李秉直 畫家 舊藏	
	泥山本	「王曆」卷1	不明	-	個人	泥山南氏 舊藏	
		卷2 (1卷1冊)	卷2: 張17~20	寶物 제419-2호	誠庵古書博物館 (조동기·조성은·조영 기·조왕기 外)	泥山南氏 舊藏	
	趙種業本	卷2 (1卷1冊)	卷2: 張9, 49B	-	趙種業 遺族		
梵魚寺本	卷4~5 (2卷1冊)	卷5: 張26~27	寶物 제419-3호	梵魚寺 聖寶博物館	1907年 釋 吳惺月 寄贈	口訣 懸吐	
B本 中宗 7(1512, 壬申, 正德 7)年 (壬申本·正德本)	順菴手澤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	-	(日本) 天理大 圖書館	順菴 安鼎福 舊藏 今西龍 入手	
	서울대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	國寶 제306-2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黃義敦 舊藏 全鏊弼 舊藏	
	晚松文庫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卷2: 張49 卷3: 張1~2A	-	高麗大學校 晚松文庫	晚松 金完燮 寄贈	
	六堂文庫本	卷3~5 (3卷1冊)	卷3: 張1~10 卷5: 張18B~30 「跋文」	寶物 제419-4호	高麗大學校 六堂文庫	朝鮮廣文會 舊藏 (六堂 崔南善)	口訣 懸吐
**	* 壬申本(正德本)의 後刷本 및 筆寫本 除外						

○ (지정 가치 있음)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는 전체 5권 가운데 권4~5만 남아 있는 책이다. 그러나 조선초기본으로서 이미 지정된 국보 제306호 학산본(鶴山本) 권3~5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권1~5의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학산본에 없는 권5의 제27~30장 가운데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선초기본의 복원은 물론 조선 중종대 간행된 임신본(壬申本)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비교 검토하고, 현전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국보 제306호 광영대 소장본과 제306-3호 연세대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조 초기에 인출된 임신본 이전의 『삼국유사』 인본은 아래 <표 1>과 같이 파른본·松隱本·泥山本·梵魚寺本·趙種業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선초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은 <표 2>와 같이 孫晉泰가 石南 宋錫夏 수장의 선초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石南本, 자신의 수장본을 필사한 鶴山本이 있다. 이후 중종 1(1512)년 판각의 임신본은 順菴手澤本·奎章閣本·晚松文庫本·六堂文庫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의 인본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조선조 초기 인본 5종과 임신본 4종 정도 확인되고 있으나, 특히 선초본의 경우에는 완질이 아닌 잔권의 형태로 전래되고 있다.

〈표 1〉 삼국유사 선초본 전래 현황							
文化財		문화재명	卷次	缺張	名稱	收藏處	舊藏者
국보306-3호	2018.02.22.	三國遺事	王曆,1,2	完本	파른本	연세대 박물관	파른 孫寶基
국보306호	2003.02.03.	三國遺事	3-5	3(1-6), 5(27-30),跋文	松隱本 (鶴山本)	郭永大	鶴山 李仁榮 松隱 李秉直
		三國遺事	王曆,1	??	泥山本	개인	泥山南氏
보물419-2호	2002.10.19.	三國遺事	2	17-20		誠庵舊藏	
보물419-3호	2002.10.19.	三國遺事	4,5	5(26-27)	梵魚寺本	梵魚寺성보박물관	吳惺月
			2	9,49	趙種業本	도난	寧越嚴氏
〈표 2〉 선초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							
		三國遺事	王曆,1	王曆(10,11)	石南本	고려대 도서관	石南 宋錫夏 孫晉泰 筆寫
		三國遺事	3-5	3(1-6) 5(4장)	鶴山本	고려대 도서관	鶴山 李仁榮 筆寫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선초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은 5종이며, 선초본을 저본

으로 필사한 사본은 2종이다. 사료적 관점에서 서적은 인출연대가 빠를수록 오식이 적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 『삼국유사』 고려본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선초본의 인출연대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선초본은 임신본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나 선초본은 완질이 없으며, 잔본으로만 전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2015-2017년 경상북도와 군위군에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해 『삼국유사』 판각사업을 수행할 때 왕력과 권1-2는 파른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권4-5는 범어사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였다. 松隱本(鶴山本)에 권3-5가 있지만 수장자가 끝내 공개를 거부하여, 권3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수장의 鶴山 李仁榮이 자신의 선초본을 임시한 鶴山本으로 판각하였다.

지정신청본인 범어사본 권4-5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다.

첫째, 지정신청본은 선초본인 송은본과 상호보완 관계로서 선초의 『삼국유사』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이란 점이다. 이 송은본 권5는 장27-30이 꺾장인데, 범어사본은 장26-27이 꺾장이므로 합하면 전체적으로 장26만 꺾장이다.

둘째로 서적은 인출연대가 빠를수록 저자의 원문에 가깝고, 거듭 인출될수록 오식이 늘어난다. 따라서 선초본은 통행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삼국유사』를 판각할 때 선초본, 임신본과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교감한 이유이다. 선초본의 권4-5는 송은본과 범어사본만 확인된 상태이다.

셋째로 서체, 규격, 行款 등에 있어 임신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임신본은 선초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는 판본이다. 자형에 있어서도 범어사본은 일관된 반면에 임신본은 여러 명의 각수가 분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는 묵서된 音讀口訣과 한글현토가 있어 구결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란 점이다. 범어사본에는 선초본 가운데 유일하게 권4 ‘圓光西學’·‘二惠同塵’·‘慈藏定律’·‘元曉不羈’·‘義湘傳教’에는 묵서된 구결이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는 檀君神話를 비롯하여 鄉札로 쓰인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어, 국어국문학 연구에도 귀중한 문헌이다.

범어사본은 『삼국유사』 현존본 가운데 가장 빠른 간본인 동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초기본의 훼손된 부분과 결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정덕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서적이다. 충렬왕 7(1281)년경 편찬된 『삼국유사』는 한국학의 고전이며, 우리 고대의 종교·역사·지리·문학·언어·민속·사상·미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사료의 보고이다. 따라서 지정 신청된 『삼국유사』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시킬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00 국보 제306-3호. 파른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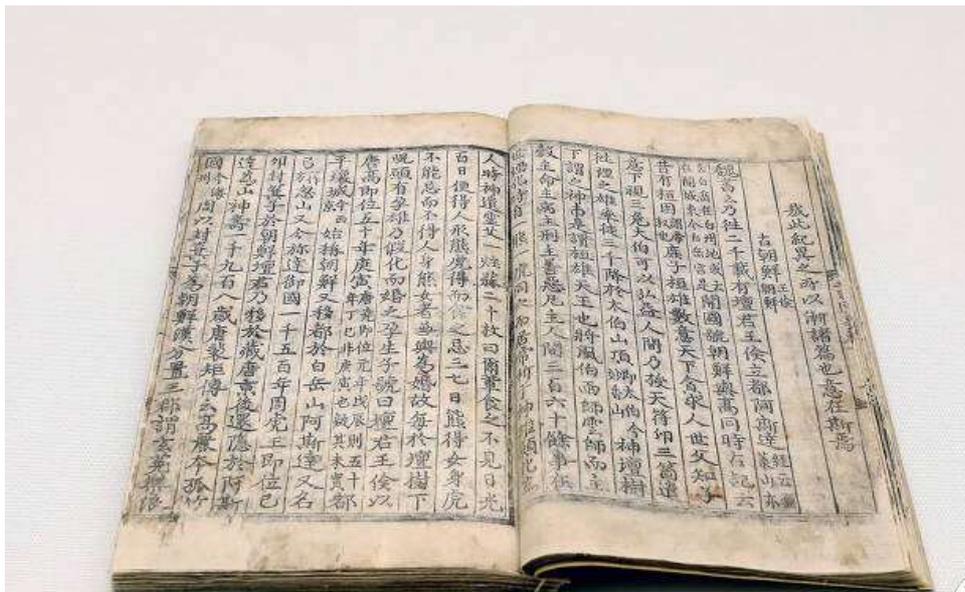


그림 101 국보 제306-3호. 파른본.



그림 102 국보 제306호. 松隱本.



그림 103 보물419-3호. 梵魚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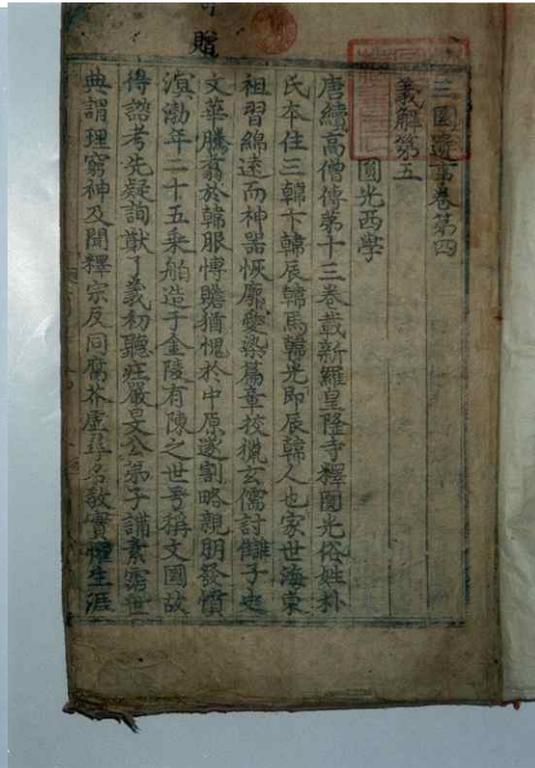


그림 104 보물419-3호. 梵魚寺本.



그림 105 보물419-2호. 泥山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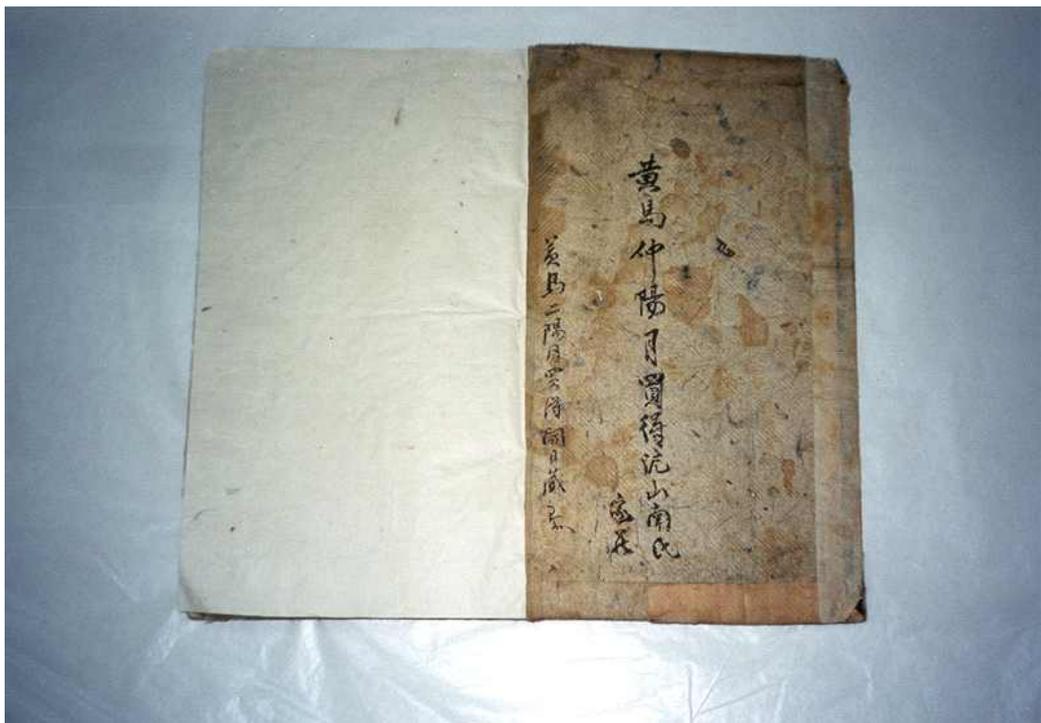


그림 106 보물419-2호. 泥山本.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개장, 전장 배접(권5의 제26-27장은 결락)

○ 내용 및 특징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정사(正史)에 없는 유문(遺文)과 일사(逸事)를 바탕으로 찬술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편은 왕력(王歷)·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이다.

『삼국유사』를 처음 간행한 시기나 간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곧 일연 입적 전의 간행설, 충숙왕 10년(1310)경의 무극(無極) 간행설 그리고 태조 3년(1394)경 경주부사 김거두(金居斗)가 『삼국사기』를 중간하면서 함께 간행하였다는 설 등이 있는 것이다. 현전하는 가장 앞서는 것으로는 바로 태조 3년(1394) 경의 판본이다. 학계에서는 이 판본들을 소장자나 기관의 명칭을 붙여 학산본(鶴山本), 파른본, 이산본(泥山本), 조종업본(趙種業本), 범어사본(梵魚寺本), 석남본(石南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석남본과 이산본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현재 국내소재가 확인되는 태조 3년(1394) 간본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국내소재가 확인되는 태조 3년(1394) 간본과 지정 현황³⁵⁾

구분	권수(책수)	지정명칭	지정번호	지정시기	
1	학산본	권3~5(1책)	삼국유사 권3~5	국보 제306-1호	2003.02.03
2	파른본	권1~2(1책)	삼국유사 권1~2	국보 제306-3호	2018.02.22
3	이산본	권2(1책)	삼국유사 권2	보물 제419-2호	2002.10.19
4	조종업본	권2(1책)	×	×	미지정 가내 소장(추정)
5	범어사본	권4~5(1책)	삼국유사 권4~5	보물 제419-3호	2002.10.19

이에 비해 현재 유통되는 국역본의 저본은 중종 7년(1512)에 경주부윤 이계복(李繼福, 1608~?)이 경주부에서 중간한 판본이다. 이 판본을 임신본 또는 정덕본(正德本)이라고 일컫는다. 순암수택본(日本 天理大 소장), 규장각본, 만송문고본·육당문고본 등 몇 종이 전하는데,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중종 7년(1512) 간본의 지정현황

구분	권수(책수)	지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1	서울대본	완질(5권2책)	삼국유사	국보 제306-2호	2003.04.14
2	육당문고본	권3~5(1책)	삼국유사 권3~5	보물 제419-4호	2002.10.19

부산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1책)는 태조 3년(1394) 경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인쇄상태로 보아 초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권4는 「의해 제오」, 권5는 「신주 제육」·「감통 제칠」·「피은 제팔」·「호선 제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개장된 앞표지에는 “『三國遺事』 第五”라는 서명과 권차 표시 그리고 「梵魚寺留鎮」, 「梵魚寺圖書館」이라는 목서가 있다.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현토가 보인다. 앞표지 이면(裏面)에는 “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來於」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과 같이 “광무 11년 정미(1907) 여름에 동래 금정산 내원선장에서 구해왔다.”는 목서가 있다. 이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수록된 당나라 시인 나은(羅隱, 833~909)의 “採得百花成蜜後, 不知 / 辛苦爲誰話, 鴻飛天末 / 跡留沙, 人去黃泉名在家”를 옮겨 놓았다. 뒤표지 이면에도 『선가귀감』의 마지막에 수록된 시(“孤輪獨照江山靜, 自笑一」聲天地驚, 如是舉唱明」宗旨, 笑殺西來碧眼僧”)를 옮겨 놓았고, 뒤표지에는 『천슈경』이라는 목서가 있다.

35) 이 중에서 파른본을 제외한 소장본들은 결락장이 있다. 곧 학산본은 권3의 제1-6장, 권5의 제27-30장, 발문, 이산본은 제17-20장, 조종업본은 제9장, 제49장(후반엽), 범어사본은 제26-27장이 결락되어 있다.



<사진1> 『삼국유사』 권4~5의 표지와 권4의 권수제면

한편 권4의 권수제면 서미(書眉) 가운데 부분에는 「吳惺月藏書/惺月」이라는 작은 원형의 장서인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寄贈」이라는 목서가 있으므로 소장기관에서는 “1907년 범어사 오성월에 의해 소장 보관”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의 학술적인 가치는 구결연구, 타 소장본의 결락 보완, 중간본인 임신본의 오탈자 및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는 야사이기는 하나 삼국시대의 역사서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 고간본 유물이라는 점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채상식, “『삼국유사』 해제.”, 2010.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하일식, “일연과 『삼국유사』, 파른본의 특징”,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해제, 연세대학교박물관, 2016.
- 부산광역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8. 9.

범어사, “문화재승격 신청서”. 부산 : 범어사정보박물관, 2018. 8.

『삼국유사』:범어사 소장 국가지정 전적 영인본. 문화재청·금정구청, 201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 書誌記述 및 現狀

梵魚寺 所藏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의 書誌記述과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記述

三國遺事. 卷4~5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 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17.0cm, 界線, 半葉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5×21.2cm. 韓紙(藁精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版心題: 三國遺事

卷尾題: 三國遺事

表 紙: 後代改裝.

狀 態: 거의 全張이 裱接되어 있으며, 卷5의 第26~27張은 缺落된 상태이고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傳來歷: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僧侶知識人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 梵魚寺 聖寶博物館에 현재까지 소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고 그 후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保存處理: 2009~2010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保存處理가 실시되었다.

評 述: 중종 7(1512, 壬申)년보다 앞선 조선 초기의 印出本으로 추정되며, 壬申本에서 判讀이 어려운 글자의 判讀이 가능하고 口訣研究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既指定: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 博物館 所藏.

□ 現 狀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日帝强占期에 佛教改革運動과 抗日運動 및 教育活動을 활발히 전개하고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僧侶知識人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까지 梵魚寺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그 후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

되고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2009~2010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保存處理가 실시되어 거의 全張이 裱接되어 있으며, 卷5의 第26~27張은 缺落된 상태이고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 指定申請本の 內容 및 特徵

『三國遺事』는 肅宗왕 7(1281)년경에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三國時代의 史書로 韓國學의 古本이며, 한국 古代의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教美術・考古學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史料의 寶庫이다. 그러나 構成과 體裁의 昏亂, 神異한 說話 그리고 誤字와 脫字 등의 종합적인 研究와 精確한 校勘이 必要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三國遺事』는 道合 5권 9편 144항목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9편은 卷頭의 「王曆第一」, 권1~2의 「紀異第一・第二」, 권3의 「興法第三」・「塔像第四」, 권4의 「義解第五」, 권5의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다. 卷頭의 「王曆第一」에는 三國과 駕洛 및 後三國의 王代와 年表가 수록되어 있고 권2의 「紀異第二」에는 古朝鮮 이하 三韓・扶餘・高句麗・百濟와 통일 이전의 新羅 등 역대 여러 나라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紀異第三」에는 新羅 文武王 이후의 통일신라를 비롯한 百濟・後百濟・駕洛國記 등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의 「興法第三」에는 불교 전래의 역사가 신라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고 「塔像第四」에는 불교 신앙의 대상인 石塔・梵鐘・佛像・寺刹 등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의 「義解第五」에는 신라의 學僧과 律師의 傳記가 수록되어 있다. 권5의 「神呪第六」에는 密敎와 神僧의 사적, 「感通第七」에는 감동을 주는 古傳, 「避隱第八」에는 行적을 감춘 高僧들의 傳記, 「孝善第九」에는 孝行과 報恩에 관한 美談이 수록되어 있다.

『三國遺事』는 고려조 肅宗왕(1309~1313) 肅宗왕(1314~1329) 연간의 1310년대 무렵과 조선조 태조 3(1394, 갑술)년경 그리고 중종 7(1512, 임신)년에 겨울에 慶州府尹 李繼福(1608~?) 등에 의하여 慶州府에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普覺國尊의 제자인 無極(?-?)에 의하여 1310년대에 간행된 것이 初刊인지 重刊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 고려조의 판본은 傳來되는 것이 없으며, 태조 3(1394, 갑술)년 무렵에 판각되어 조선조 초기에 인출된 壬申本 以前の 印本으로는 枋本・石南本・鶴山本・泥山本・趙種業本・梵魚寺本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중종 7(1512, 壬申, 正德

7)년에 판각되어 인출된 壬申本(正徳本)으로는 順菴手澤本·奎章閣本·晩松文庫本·六堂文庫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表 1> 『三國遺事』의 現傳本과 文化財 指定의 現況 參看]

<表 1>에서 나타나듯이, 『三國遺事』의 印本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朝鮮朝 初期印本 6종과 壬申本 4종 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나, 특히 朝鮮朝 初期印本의 경우에는 完帙本이 아닌 殘卷의 형태로 각각 소장되고 있다.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朝鮮朝 初期印本으로 권4에는 「義解第五」가 수록되고 권5에는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서지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指定申請本은 조선조 초기의 『三國遺事』의 原板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다. 指定申請本 권3~5는 鶴山本 권3~5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권1~5의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鶴山本에서 闕張된 권5의 제27~30장 가운데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둘째로, 指定申請本은 壬申本(正徳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자료이다. 권4 제14장 제9A행 제14자(0414A0914)의 ‘幡’은 壬申本인 서울대本이나 晩松文庫本에는 漏落되고 권4 제20B장 제4행 제20자(20B0420)의 ‘上’은 서울대本이나 晩松文庫本에서 ‘工’으로 잘못 板刻되어 있어, 壬申本의 誤脫字 및 誤謬를 보완하거나 校正할 수 있는 자료이다.

셋째로, 指定申請本은 書誌的 特性 및 書體 등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壬申本이 조선조 初期印本을 底本으로 翻刻한 系統의 版本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넷째로, 指定申請本은 口訣研究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권4에 수록된 「義解」의 편목 가운데 <圓光西學>·<二惠同塵>·<慈藏定律>·<元曉不羈>·<義湘傳教> 등의 항목에는 墨書된 구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구결 가운데는 고려말~조선조 초기에 사용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지정된 『三國遺事』는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壬申(1512)本, 5卷2冊(完帙)> 및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과른本>에 지나지 않는다.

梵魚寺 所藏의 寶物 제419-3호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과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과 동일한 판본일 뿐만

아니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의 壬申本보다 시대가 앞선 판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梵魚寺 所藏의 보물 제419-3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昇格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指定事例

-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 博物館 所藏.

○ 文獻資料

- 一然 著, 『三國遺事』. 木板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卷4~5. 梵魚寺 所藏本.
- 一然 著, 『三國遺事』 卷4~5. 影印本. 부산 : 문화재청 · 김정구청, 2010.
- 채상식, “『三國遺事』 해제” <『三國遺事』 卷4~5. 影印本. pp.6~18 所載>.
- 채상식,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의 자료적 가치”, 『지역과 역사』 제27집(부경역사연구소, 2010년)
- 부산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부산 : 부산광역시, 2018 09.
- 범어사, <문화재승격 신청서>. 부산 : 범어사정보박물관, 2018. 08.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의견서>. 부산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2018. 08.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其 他 (소장 경위 등)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일제강점기에 佛敎改革과 抗日運動 및 敎育活動을 전개하고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까지 梵魚寺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指定申請本の 卷頭に 있는 “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耒於/ 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 採得百花成蜜後不知/ 辛苦爲誰話鴻飛天末/ 跡留人黃泉名在家”와 권말에 있는 “孤輪獨照江山靜自笑一/ 聲天地驚如是學唱明/ 宗旨笑殺西未碧眼僧”의 墨書된 識記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그 후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고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書誌事項

三國遺事. 卷4~5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 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24.0×17.0cm, 界線, 半葉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5×21.2cm. 韓紙(藁精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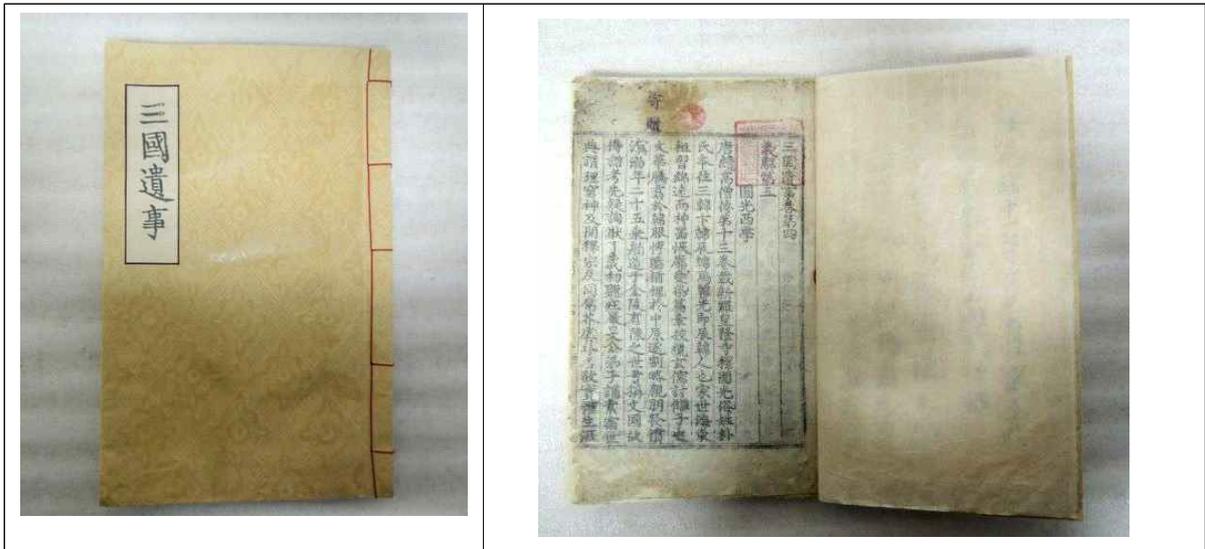
卷頭題: 三國遺事

版心題: 三國遺事

卷尾題: 三國遺事

○ 현 상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5는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서 1907년경 기증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의 전체가 배접되었으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상태이다. 권5의 제26~27장은 결락된 상태이나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삼국유사(三國遺事)』는 1281년(충렬왕 7)에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사서로 한국학의 고전이며, 한국 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민속·사상·불교미술·고고학 등에 대한 사료의 보고이다. 그러나 구성과 체재의 혼란, 신이한 설화 그리고 오자와 탈자 등은 종합적인 연구와 정밀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내용은 「王曆」(권1)·「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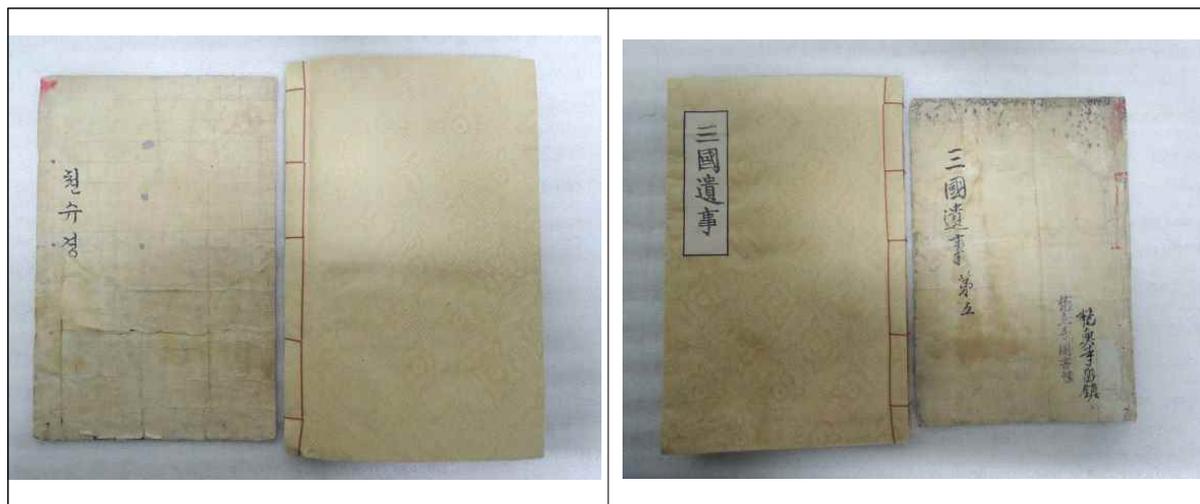
『삼국유사』 판본은 초간본의 간행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310년대와 1394년(태조 3)경, 1512년(중종 7, 正德壬申)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 『삼국유사』 권4~5는 1394년(태조 3)년 무렵에 인출된 책으로 판단된다. 권4에는 「의해(義解)」, 권5에는 「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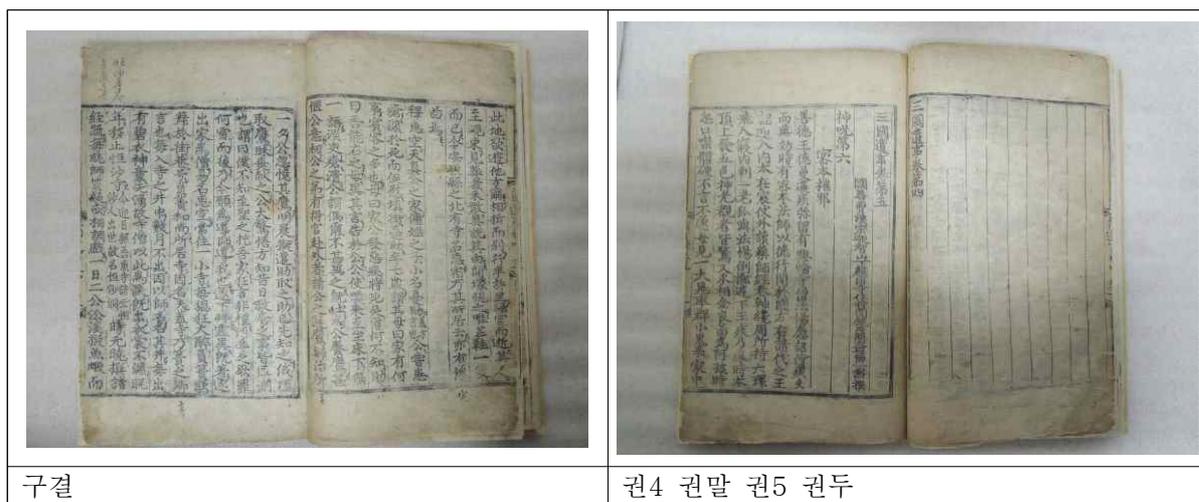
표지는 개장된 상태이다. 본래의 표지 역시 개장되었던 것으로 앞표지에는 ‘三國遺事 第五’라는 표제와 함께 ‘梵魚寺留鎖’과 ‘梵魚寺圖書館’이란 목서가 쓰여 있고, 뒤표지에는 ‘천슈경’이라는 한글 목서가 있다. 앞표지 이면(裏面)에는 “광무 11년 정미(1907) 여름에 동래 금정산 내원선장에서 구해왔다(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來於) 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이라 하여 전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수록된 당나라 시인 나은(羅隱, 833~909)의 “採得百花成蜜後, 不知 / 辛苦爲誰恬, 鴻飛天末 / 跡留沙, 人去黃泉名在家”를 옮겨 놓았다.

권4의 권수제면 서미(書眉) 가운데 부분에는 ‘吳惺月藏書/惺月’이라는 작은 원

형의 장서인과 ‘寄贈’이라는 목서가 있어 이 책이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이었으며 이후 기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본은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의 인출 상태 등으로 볼 때 1394년(태조 3) 경에 간행된 판본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 현토가 목서되어 있고, 일부 장의 두주(頭註)에 훼손된 글자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구결

권4 권말 권5 권두

○ 지정사례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곽영대/松隱本)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 (연세대 박물관/파른본)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성암고서박물관/泥山本)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문헌자료

김상현, 「『三國遺事』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남권희, 「파른본 『三國遺事』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하일식, 「『三國遺事』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채상식, 「부산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 『三國遺事』(범어사 소장 국가지정(보물) 전적 영인본), 2010.



○ 현 상

조사대상 『三國遺事』는 고려 충렬왕 7(1281)년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불교서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적이다. 이 『삼국유사』 권4/5는 조선 태조 3(1394)년 慶州府使 金居斗가 『三國史記』를 중간할 때 함께 판각한 판목에서 그 가까운 시기에 인출한 선초본의 일부로 추정된다. 본서는 일제강점기 불교개혁운동, 항일운동, 교육활동을 전개한 승려지식인 吳惺月(1865-1943)이 주지로 있던 범어사에 기증한 서적이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었다.

<서지사항>

三國遺事, 권4/5 / 一然(高麗) 撰.

木版本. [太祖 3(1394)年頃] 33.5 × 21.2cm.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4.0 × 17.0cm. 有界, 10行21字. 細黑口, 內向黑魚尾.

印 : 吳惺月藏書, 寄贈, 梵魚寺圖書館藏書印.

○ 내용 및 특징

『三國遺事』는 고려 충렬왕 7(1281)년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불교서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적이다. 일연은 경주의 속현이었던 章山郡(경산) 출신이다. 자는 '晦然'이었으나, 나중에 '一然'으로 바꾸었고, 호는 無極과 睦庵을 썼다. 대표적인 제자는 混丘와 竹虛를 들 수 있다.

고종 6(1219)년 14살로 설악산 陳田寺로 출가하여 大雄長老의 제자가 되어 具足戒를 받았고, 고종 14(1227)년 승과의 選佛場에 응시하여 장원에 급제하였다. 그 뒤 琵琶山の 寶幢庵에서 수년 동안 참선에 몰두하였고, 고종 23(1236)년 10월 몽고가 침입하자, 보당암의 북쪽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깨달음을 얻었다. 이 해에

三重大師의 僧階를 받았고, 고종 33(1246)년 禪師의 法界를 받았다. 知訥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최씨 무인정권과 밀접한 유대가 있던 鄭晏의 초청으로 고종 36(1249)년 남해의 定林寺에 머물면서 分司大藏都監의 작업에 약 3년 동안 참여하였다. 고종 43(1256)년 輪山의 吉祥庵에 머물면서 『重編曹洞五位』 2권을 지었고, 고종 46(1259)년 大禪師의 승계를 제수 받았다. 원종 2(1261)년 원종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강화의 禪月寺 주지가 되었고, 중앙정계와 관련을 맺은 후 이를 배경으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썼다. 원종 5(1264)년 영일군 雲梯山의 呑魚寺로 옮겼으며, 원종 9(1268)년에는 조정에서 베푼 雲海寺의 大藏落成廻向法會를 주관하였다. 비슬산 仁弘寺(1274년 仁興寺로 개칭)의 주지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원종 15(1274)년 비슬산 동쪽 기슭의 湧泉寺를 중창하고 佛日寺로 고친 뒤, 「佛日結社文」을 지었다. 충렬왕 3(1277)년 왕명으로 청도 雲門寺의 주지에 취임하여 충렬왕 7(1281)년까지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이 때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렬왕 8(1282)년 왕에게 禪을 설하고 개경의 廣明寺 머물렀다. 충렬왕 9(1283)년 國尊으로 추대되어 圓鏡冲照라는 호를 받았다.

충렬왕 10(1284)년 조정에서는 토지 100여 頃을 주어 경상도 軍威의 麟角寺를 수리하고 주재하게 하였다. 이후 궁궐에 들어가서 九山門都會를 두 번 개최하였는데, 이는 가지산문이 일연을 중심으로 고려 불교계의 전 교권을 장악한 것을 뜻한다. 충렬왕 15(1289)년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입적하였다. 입적하던 해에 인각사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으며, 시호는 普覺이고 塔號는 靜照이다.

특정 신앙이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선교를 막론하고 많은 불교 서적을 편수했다. 그러나 선종 계통과 事典의 성격을 지닌 저작이 많다. 저서로는 『話錄』 2권, 『偈頌雜著』 3권, 『重編曹洞五位』 2권, 『祖派圖』 2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祖庭事苑』 30권, 『禪門拈頌事苑』 30권, 『三國遺事』 5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重編曹洞五位』는 초기 성리학적 분위기와 서로 맥락이 닿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가 처음 간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일연이 입적하기 전에 간행하였다는 견해, 일연의 제자인 寶鑑國師 無極이 충숙왕 10(1310)년경 초간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 선초 태조 3(1394)년경 慶州府使 金居斗가 『三國史記』를 중간할 때 함께 처음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선초본은 잔본으로나마 전래되어, 합치면 완질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통행본의 저본은 중종 7(1512)년에 慶州府尹 李繼福(1608-?)이 경주부에서 간행한 이른바 壬申本(正德本)이다.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어서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내용은 5권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의 王曆과 권1~권2에는 紀異, 권3에는 興法과 塔像, 권4에는 義解, 권5에는 神呪, 感通, 避隱, 孝善이 수록되어 있다. 왕력에는 삼국,

가락국과 후삼국의 왕대와 연표가 수록되어 있고, 紀異에는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국가의 흥폐·신화·전설·신앙 등과 신라 최후의 敬順王까지의 신라와 백제·후백제·가락국과 관계되는 역사 등 62편이 수록되어 있다. 興法에는 37편의 신라 중심의 불교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고, 塔像에는 불교 신앙의 대상인 石塔·梵鐘·佛像·寺刹 등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義解는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설화와 전기 13편이다. 神呪에는 密敎의 승려들에 대한 행적 3편, 感通에는 부처와의 영적 감응을 이룬 일반 신자들의 설화, 避隱에는 깊은 학문과 엄격한 도덕률을 지닌 고승들의 異蹟에 대한 10편의 설화, 孝善에는 뛰어나게 효행을 한 5사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삼국유사』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조선조 초기인 본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선장본으로 장책되어 있었다. 2009-2010년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를 하여 거의 전체 책장이 배접되어 있다. 근래 새로운 표지를 덧댄 상태이며, 권5의 26-27장은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에 梵魚寺留鎮이란 목서가 있다. 내용은 권4는 義解이며, 권5는 神呪이다. 권5에만 서명 다음 행에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수록되어 있다. 본문 내용에는 音讀口訣과 한글현토가 소자로 목서되어 있다. 서미에는 頭註로서 훼손된 글자나 본문 내용 등이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 문헌자료

경상북도, 三國遺事 판각사업 완료 및 경상북도 교감본 추진상황 보고서. [2017]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東方學志 162 (2013.06) 3-27.
南權熙, 『三國遺事』 諸版本의 서지적 분석.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09) 203-246.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제5·6집 (1990.06) 205-234.
채상식, 부산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 『三國遺事』(범어사 소장 국가지정(보물) 전적 영인본) (금정구청, 2010)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162 (2013.06)

○ 기 타

주지를 역임한 바 있는 吳惺月 스님이 범어사에 기증한 서적이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었다.

○ 지정사례

국보 제306호. 『三國遺事』 권3/5. 광영대. (2003.02.) 선초본. 松隱本.
국보 제306-3호. 『三國遺事』 권1/2. 연세대 박물관. (2018.02.) 선초본. 파른本.
보물 제419-2호. 『三國遺事』 권2. 조동기. (2002.10.) 선초본. 泥山本.
보물 제419-3호. 『三國遺事』 권4/5. 범어사. (2002.10.) 선초본. 梵魚寺本.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통산 2020-03-006

6. 지정조격 권1~12, 23~34 (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가. 검토사항

‘지정조격 권1~12, 23~34’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지정조격 권1~12, 23~34’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지정조격 권1~12, 23~34(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 소유자(관리자) : 손성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2책
- 규 격 : 24.0 × 15.6cm
- 재 질 : 죽지(竹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46년(元 順帝 6/ 고려 충목왕 2년)



『지정조격 권1~12, 23~34』 - 권수제, 내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元 順帝, 至正6)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중국에서는 물론 고려와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자료이다. 조격(條格)과 단례(斷例)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산일되어 서명과 목록만이 『흙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례(斷例)의 표현형식이 율(律)과 다르지만, 편목(篇目)과 조목(條目)은 앞뒤 시대의 율전(律典)과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정조격』이 동아시아 고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조격』의 영향력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세종대 원 간본을 토대로 50부가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문신들에게 반사하여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은 그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조사본 『지정조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100년간 고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 되었다. 더욱이 이 책은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 간본(原刊本)이며,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조사본 『지정조격』은 현존하는 유일본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조격』이 우리나라 저작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물 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겠으나, 이 책이 중국에조차 완질이 전하지 않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의 반출 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至正條格』은 중국에서도 역사적·사회사적·법제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법전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쳐 중시할 법전이다. 중국에서는 고대 법전을 집대성한 『唐律』, 송초 『唐律』의 重詳定刑統을 반포한 외에는 정규로 반포한 형률이 없었다. 金에 이르러 『泰和律』을 반포하였는데, 『唐律』의 편목을 준수하고 조문만 소규모로 변경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망실되었다. 그 다음의 형률이 『大明律』이다. 『唐律』의 12篇에 비해 『大明律』은 七篇三十門으로 개편되었고, 조문에도 많은 증산이 있어 크게 달라졌다. 『至正條格』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두 법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러던 차 『至正條格』이 발견되면서 『至正條格』이 두 법전의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斷例의 표현형식이 律과 다르지만, 篇目·條目は 앞뒤 시대의 律典과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至正條格』이 『大明律』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났다. 잔본 『至正條格』은 원의 말기 역사와 중국고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 중요성의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술적인 가치로 보면 기존에 알려진 『通制條格』과 간행연도에 있어 10년의 시차로 간행되어 내용상 크게 차이나지 않을 듯하다. 또한 『至正條格』 4권 중에 2권 정도만 전래되고, 그나마 한 권은 훼손이 심해 내용의 연결에 한계가 있다. 유물로서 고고학적 가치는 높지만,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通制條格』과 『元典章』에 수록된 문서는 수량이 많고 광범위하지만, 각각 인종 연우 3(1316)년과 영종 지치 2(1322)년이 하한선이란 점이다. 그러나 『至正條格』에는 지치 4(1344)년까지 수록되었고, 그 40%는 지치 2년 이후 大都에서 제정한 마지막 단계의 문서이다. 또한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등 여러 방면에 미치는 문서 대다수가 새로운 자료란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② 『通制條格』 및 『元典章』과 수록내용상 시기적으로 상당부분 중복된다. 그렇지만 두 법전은 물론 다른 역사서에도 수록되지 않거나 수록되어도 소략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 殘本 『至正條格』에는 보다 자세하게 수록된 경

우도 있어서 『至正條格』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이다.

③ 법제사의 시각에서 잔본 『至正條格』의 내용, 특히 斷例는 중국고대 율령식 법전의 발전과정상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④ 순제는 지정 28(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밀려 大都를 버리고 만리장성 북쪽의 上都로 패주한 후, 뒤를 이어 중원을 호령한 明은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했으므로, 『至正條格』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용도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인멸되어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중국이나 몽고에도 전래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2002년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되었으니, 요행히 원말 인쇄술로 제작된 『至正條格』의 유일본이란 점이다. 유일하게 전래하는 古本으로 서지학 연구에도 가치가 높다.

⑤ 『至正條格』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100년간 고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전이고, 또한 조선의 법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고려는 제4대 광종년간에서 제6대 성종년간 사이에 관제와 율령을 제정하였다. 고려의 형법은 唐律 502조를 고려실정에 맞게 가려서 엮은 71조의 성문법이었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名例律, 職制律, 戶婚律, 奴婢律, 詐僞律, 盜賊律, 雜律이다. 名例律은 오늘날의 刑法總則에 해당하며, 職制律은 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戶婚律은 백성의 탈세, 호적, 혼인에 관한 범죄, 奴婢律은 노비와 관련된 범죄, 詐僞律은 관과 민간의 문서나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 도용 등의 범죄, 盜賊律은 모반, 모살, 유괴, 독살, 저주, 강도와 절도, 공갈 등의 범죄, 雜律은 오늘날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고려의 법령은 몽고의 고려 침입이후 100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至正條格』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목민인 몽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농경민인 고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많이 달라 법적용에 난관이 없을 수 없었다. 특히 고려는 長男子先·賤者隨母法의 법체계였지만, 몽고는 末子先·一良一賤從良의 법체계는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은 양국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정부분 양해하게 되었다.

이후 원이 중원의 문제에 골몰하게 되기에 이르자, 고려는 공민왕 5(1356)년에야 비로소 원의 내정간섭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 말기는 권문세족·불교 승려·외척 등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공양왕 3(1391)년 정몽주는 고려 전래의 법령·『至正條格』·『朱子家禮』·『大明律』 등을 참작해 新律을 만들어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힘썼다.

『至正條格』은 조선에 적합한 신법을 제정하던 조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至正條格』은 세종 연간에도 중국 제도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세종 5(1423)년 10월 3일 承文院에서 『至正條格』 10부와 『史學指南』 15부와 『御製大誥』 15부

를 인쇄하기를 청하자, "각각 50부씩 인쇄하라"로 명한 바 있다. 세종 8(1426)년 10월 27일 律文은 漢文과 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읍을 배우는 생도는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문신 중에 訓導官을 선발해 『至正條格』·『唐律疏義』·『大明律』을 강습하게 하였다. 세종 12(1430)년 3월 18일 詳定所에서 여러 분야의 取才에 있어 경서와 여러 기예의 수목에 대하여 아뢰는 내용에 漢吏學 가운데도 『至正條格』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 외에도 성종 24(1493)년 12월까지 간간이 『至正條格』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經國大典』 반포 이전에는 여전히 참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至正條格』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영향을 큰 미쳤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의 역사·제도·어학·법제사·사회제도·풍습·서지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至正條格』은 현재 중국이나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지 않는 逸書가 되었다. 비록 조사 대상본은 완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전이고, 더 이상 완본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書誌事項

至正條格 / 順帝(元) 命編.

木版本. [順帝 至正 6(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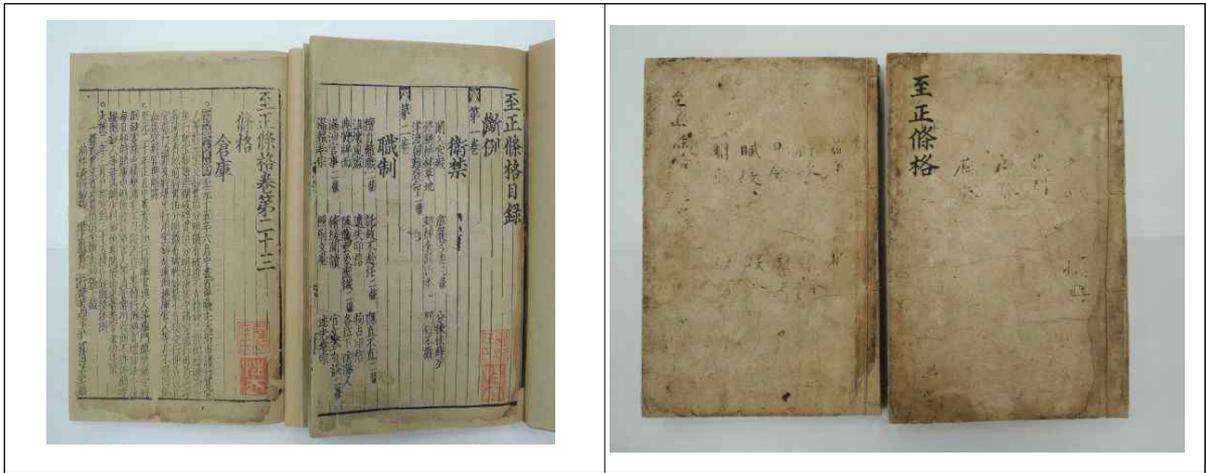
2冊(卷一~十二, 卷二十三~三十四). 四周單邊. 半郭 19.1 x 12.8 cm. 有界. 19~20行 26~28字.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4.0 × 15.6 cm.

藏書印 : 蜀河任氏, 性夫.

○ 현 상

조사본은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팀이 경주시 양동마을 경주손씨 서백당 종가에서 발견한 이후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원 표지는 개장되었고 책 전체가 배접된 상태이다. 중국식의 사침안(四針眼) 장정으로 묶여진 책은 일부 결락된 부분과 오염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조사본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종이는 죽지이므로 남아있는 잔편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처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元 順帝, 至正6)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원나라는 두 차례 법전을 반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번째는 1323년(元 英宗, 至治3)년에 반포한 것으로 많은 단행 법령 및 판례를 모은 『대원통제(大元通制)』이다. 이 법률은 제조(制詔)·조격(條格)·단례(斷例)·별류(別類)의 4부로 나누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조격 653조만 전래되어 후에 『통제조격(通制條格)』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두 번째는 1345년 완성한 『지정통제(至正通制)』로서 조격(條格)과 단례(斷例) 부분만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지정조격』이라 한다.

이 책은 명나라 초기에 산일되어 서명과 목록만이 『흙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있을 뿐 전체는 전해지지 않았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행되어가는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법률도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되면서 산일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조격』과 관련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① 문하부(門下府)에서 봉사 소경(奉常少卿) 김첨(金瞻)을 탄핵하였다. 김첨이 건의하였었다.

"본조(本朝) 국학(國學)에서 봄·가을 두 정일(丁日)을 당하여 문선왕(文宣王)을 제사하는 데에 참람하게 대뢰(大牢)008) 를 쓰니, 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지정조격(至正條格)』 제군현(諸郡縣)의 품식(品式)에 의하여 양(羊) 셋만 쓰소서."

그러나 본조에서 대뢰(大牢)를 쓴 지가 오래인데, 김첨이 경솔히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탄핵한 것이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1400 1월 24일 기축)

② 승문원(承文院)에서 계하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 10부와 『이학지남(吏學指南)』 15부와 『어제대고(御製大誥)』 15부를 인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각각 50부씩 인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1423 10월 3일 경술)

③ 임금이 말하기를,

"인법(人法)은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0월 27일 정해)

④ 『지정조격(至正條格)』을 문신(文臣)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1434 12월 28일 신미)

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한(漢)나라 때에는 입춘(立春)에 관대한 조칙(詔勅)을 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의 정사(政事)는 사시(四時)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나 봄 기운은 만물을 발양(發揚)하게 하니, 내가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가벼운 죄에 관계된 사람들을 풀어 주고자 한다. 그것을 오늘의 경연 재상(經筵宰相)에게 물어 보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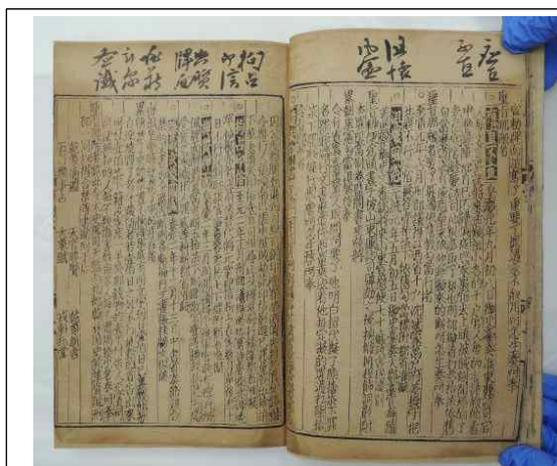
하라.”

하니, 윤필상(尹弼商)·채수(蔡壽)·허계(許誠)가 아뢰기를, “이 일은 『한사(漢史)』, 『월령(月令)』에 모두 실려 있고, 『지정조격(至正條格)』에도 실려 있습니다. 입춘(立春)에 행춘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어 억울한 옥사[冤獄]를 심리(審理)하게 해서 시행함이 편하겠습니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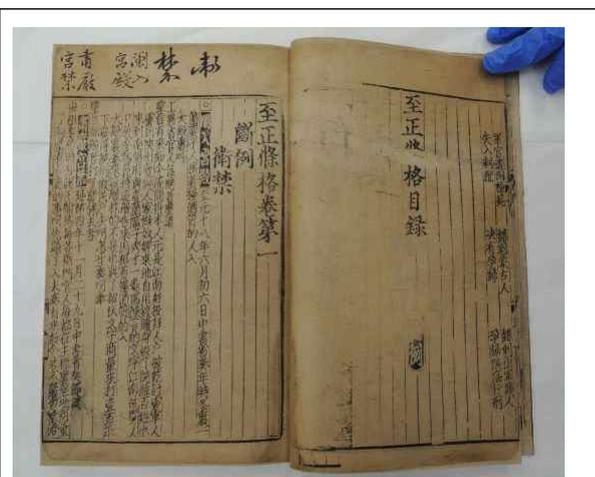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1493 12월 22일 임오)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15세기 말까지도 모든 율령의 적용에서 『지정조격』을 상고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423년 원간본을 토대로 50부가 인쇄되었고, 1434년에는 인쇄된 책을 문신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명률(大明律)』 뿐만이 아니라 『당률소의(唐律疏義)』나 『지정조격』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본 『지정조격』은 원간본 4책 가운데 잔본 2책이다. 조사본 가운데 1책은 단례(斷例)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1권 위금(衛禁)으로부터 제12권 구고(廐庫) 가운데 철과(鐵課)까지 남아 있고 이하는 결락되었다. 단례 부분은 앞부분 목록을 통하여 제1권 위금(衛禁), 제2권~제6권 직제(職制), 제7권~제8권 호혼(戶婚), 제9권~제12권 구고(廐庫), 제13권 천흥(擅興), 제14권~제19권 도적(盜賊), 제20권~제22권 투송(鬪訟), 제23권~제24권 사위(詐僞), 제25권~제27권 잡율(雜律), 제28권 포망(捕亡), 제30권 단옥(斷獄) 등 11문(門)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것은 衛禁, 職制, 戶婚에 대한 내용과 廐庫 4편 가운데 3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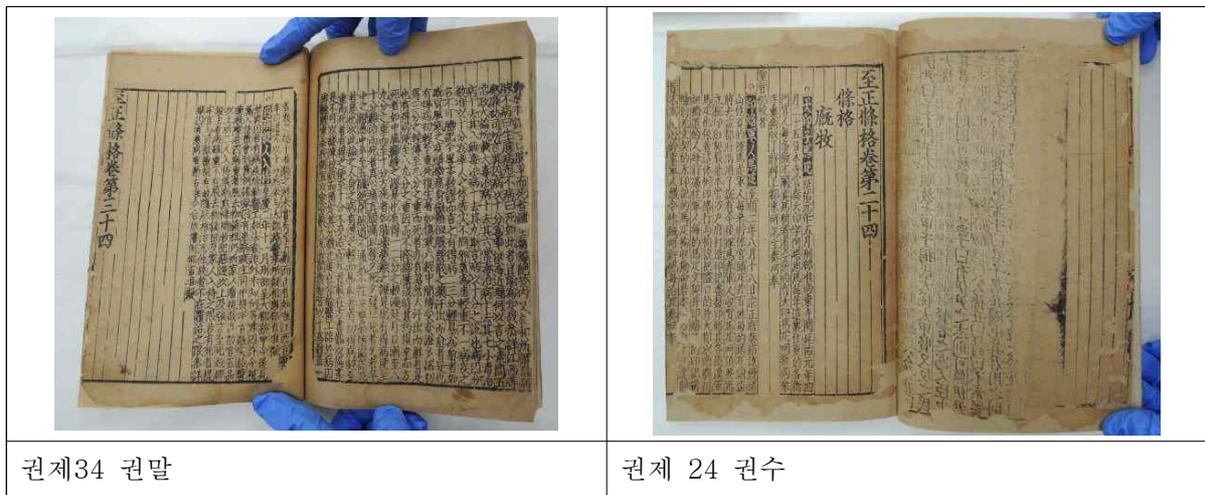
단례 / 본문



권제1 권수

조사본 가운데 다른 1책은 조격(條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23권 창고(倉庫)로

부터 제34권 옥관(獄官)까지 12권만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3권 창고(倉庫), 제24권 구목(廐牧), 제25권~제26권 전령(田令), 제27권 부역(賦役), 제28권 관시(關市), 제29권 포망(捕亡), 제30권 상령(賞令), 제31권 의약(醫藥), 제32권 가령(假寧), 제33권~제34권 옥관(獄官)까지의 10문(門)만이 남아 있다. 조격 부분은 목차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2책의 구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40권에서 5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본은 죽지(竹紙)를 사용했으며, 판식과 글자 모양은 전형적인 원대의 민간방각본으로 판단된다. 두 책 모두 선장(線裝)으로 중국식의 四針眼 장본이며 표지는 개장한 것이다. 표지에는 ‘至正條格’이란 표제와 함께 책에 수록된 내용을 세필로 적어 놓았다. 책의 크기는 24.0×15.6cm, 반곽 19.1×12.8cm 내외이다. 행자수는 반엽 19행~20행의 26자~28자 구성을 갖고 있다. 권수제와 권미제는 2행에 걸쳐 큰 글씨로 ‘至正條格 卷第○’의 형식으로 하였고, 판심제는 ‘斷例○’ 및 ‘條格○’을 기본으로 하였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좌우쌍변(左右雙邊)에 유계(有界)이며 어미는 상하세흑구(上下細黑口)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의 형식이다.

한편 표지 이면에는 중국 당(唐)의 문인이었던 저광희(儲光羲, 707~763 추정)가 지은 「長安道」란 시가 필사되어 있다. 즉 “西行一千里 暝色生寒樹 暗聞歌吹聲 如是長安道”이다.



한편 『지정조격-단례』의 목록과 『지정조격-조격』의 제23권 권두에 주문방인의 ‘鬲河任氏’와 백문장방인의 ‘性夫’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본래 책이 발견된 양동(良洞)마을의 경주손씨종가(慶州孫氏宗家)는 선초에 사헌부 감찰로 입신한 손등(孫登)의 후손가이다. 손등의 아들인 손사성(孫士晟, 1396~1477)은 세종 5년인 14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박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주로 외교문서인 이문(吏文)을 전담하였던 관리로 평가된다. 손사성의 장자인 손욱(孫旭)의 후손은 영천에 터전을 마련하였고, 차자 손소(孫昭, 1433~1484)의 후손들은 본향인 경주로 돌아와 양동에 정착하였다.

책에 보이는 ‘서하임씨(西河任氏)’와 ‘성부(性夫)’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서하(西河)’는 ‘풍천(豐川)’의 옛이름으로서 고려 충숙왕대 삼사판사를 역임하였던 임자송(任子松)과 그의 후손으로서 세종대 우찬성을 지낸 임원준(任元濬, 1423~1500)과 그의 아들 임사홍(任士洪; ?~1506)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소장 가문의 손사성과 손소 부자는 임원준 부자와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책에서 모두 대두(擡頭)의 형식이 확인된다. ‘단례’에서는 성지(聖旨), 황제(皇帝), 상위(上位), 누조(累朝), 조서(詔書) 등에서 1자 대두하고 있고, ‘조격’에서는 2자 내지는 1자 대두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문헌자료

- 김문경, 「원간본 『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고찰」,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 김인호,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고려시대 형법과 형정』,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호동, 「『至正條格』의 편찬과 원말의 정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 朴秉濠, 「麗末鮮初, 元의 刑事法, 특히 『至正條格』의 影響」,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세미나, 2013.
- 安承俊, 「至正條格의 所藏 및 保存 經위에 대한 考察」,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延正悅, 「고려와 至正條格에 관한 일 연구」, 『한성대학교논문집』 18-1, 1994.
이개석, 「元朝中期 法典編纂 研究와 『至正條格』의 發見」, 『東洋史學研究』 83, 東洋史學會, 2003.

이개석, 「『至正條格』의 편찬과 법제사상의 의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張帆, 「重現于世的元代法律典籍:殘本《至正條格》」, 『文史知識』 320, 2008.2期.

정금식, 「지정조격과 세종의 국가경영」, 『法律文化研究』 6, 2010.

趙 晶, 「至正條格 研究 管窺」, 『法律文化研究』 6,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지정조격』 (교주본·영인본), 2007.

○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음.

□

○ 현 상

『지정조격』은 條格과 斷例로 각 2책, 총 4책으로 구성되었다. 본 신청본은 斷例와 條格 각 1책씩 2책만 남아 있으며, 條格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은 고려와 조선의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친 법전이지만 원나라가 멸망한 후 한중 양국에서 모두 주목하지 않게 되어 현재 중국에는 책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없다.

청대에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에 이미 이 책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永樂大典』의 『至正條格』 조격 23卷을 참고하여 목록을 수록하였다고 전한다. 1983년에서 1984년 사이에 內蒙古文物考古所 등이 진행한 額濟納旗黑城遺址(어지나기 흑성 유적) 발굴 작업에서 宣紙와 麻紙로 된 『지정조격』 낱장 8매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본서는 비록 2권의 낙질이긴 하지만 條格과 斷例 각 1권이 있어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법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중국 측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곳에서 영인본도 간행하였다.

○ 문헌자료

宋國華, 『元代法制變遷研究: 以『通制條格』和『至正條格』爲比較的考察』,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17. 311面.

劉曉, 「元代非皇帝怯薛輪值的日次問題-兼談『元典章』與『至正條格』的一則怯薛輪值

史料」, 『隋唐遼宋金元史論叢』 第一, 2011.

○ 기 타

이 책은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책으로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斷例 제1권 권수 하단에 ‘鬲河任氏(서하임씨)’와 ‘性夫(성부)’라는 소장인이 있다.



○ 현 상

『至正條格』은 원나라 순제 지정 6(1346)년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고려의 법령은 몽고의 고려 침입이후 100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였고, 원의 법률인 『至正條格』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의 세력이 몰려간 후이지만 『至正條格』은 조선의 법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명에서는 이민족의 법률체계를 버리고 『大明律』을 제정하였고, 조선도 『大明律』의 영향을 많이 받은 『經國大典』을 기본법전으로 제정하였다. 이로서 『至正條格』은 현재 중국이나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지 않는 逸書가 되었다. 약 600년이 지난 2002년 경주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된 것이다.

<서지사항>

至正條格 / 順帝(元) 命編.

木版本. [順帝 至正 6(1346)]

2冊. 四周單邊. 半郭 19.1 x 12.8 cm. 有界. 19-20行26-28字.

黑口,上下下向黑魚尾 ; 24.0 × 15.6 cm.

藏書印 : 鬲河任氏, 性夫.

○ 내용 및 특징

『至正條格』은 원나라 순제 지정 6(1346)년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원은 2차례 법전을 편찬하였다. 1차는 영종 지치 3(1323)년에 반포한 『大元通制』인데, 그 내용은 制詔 94조 · 條格 1,151조 · 斷例 717조 · 別類 577조, 모두 2,539조이다. 이 가운데 條格 653조만 전래되는데, 흔히 『通制條格』이라 한다. 2차는 순제 지정 5(1345)년 완성한 至正通制라 할 수 있는데, 條格과 斷例 부분만 발견되면서

일반적으로 『至正條格』이라 한다. 그 내용은 制詔 150조·條格 1,700조·斷例 1,059조, 모두 2,909조이다. 制詔는 3복본을 제작하여, 聖覽用은 宣文閣에 비치하고, 2복본은 中書와 國史院에 수장하였다. 條格과 斷例는 判각하여 다음해 지정 6(1346)년 반포하였다.

순제는 지정 28(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밀려 大都를 버리고 만리장성 북쪽 몽고 초원지대 上都로 패주했다. 上都로 돌아간 이후의 원나라를 北元(1368-1635)이라 부른다. 원의 뒤를 이어 중원을 호령한 明은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했으므로, 至正通制 즉 『至正條格』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용도가 없게 되어 산일되었다.

청대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永樂大全』에서 『至正條格』의 條格 23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四庫全書』에는 存目에만 수록하였으므로 다시 산일되었다. 이후 蒙古族 출신으로 雲南師範大學 歷史系 교수를 지낸 方齡貴(1918-2011)가 內蒙古 額濟納旗 達來呼布鎮의 카라코토[黑(水)城]에서 잔편을 발견했을 뿐이다.

대체로 『至正條格』의 斷例는 唐과 金의 律에 해당하고, 條格은 唐과 金의 劄에 해당된다. 원대의 법률체계는 篇目과 순서에 있어서는 唐律 및 金律과 완전히 일치된다. 그러나 조문의 구체적 표현과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至正條格』은 구체적인 判例와 指劄을 모두 모아 편찬한 것이지만, 공문 원본을 수록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축약해 요지만 남기고 指劄은 삭제한 것이다. 원대 공문서를 망라하여 권질이 가장 방대한 『元典章』에 수록된 공문은 비교적 원본을 전재한 형태이다. 『元典章』과 『至正條格』 두 법전에 수록된 문서를 비교하면 상략의 차이가 분명하다. 관부에서 법령을 망라해 편성한 『通制條格』과 『至正條格』은 대체로 비슷한데, 생략된 곳이 많다.

2002년 경주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되었다. 확인된 부분은 條格 12권 374조·斷例 13권 426조·모두 800조이며, 전체의 22%만 남은 것이다. 일반 법률인 條格과 형사법인 斷例로 각각 2책씩 전질 4책이 완질이지만, 斷例와 條格 각 1책씩 2책만 발견되었다. 條格의 일부는 훼손되었다.

2007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주와 연구를 첨가해 영인본을 편찬하였다. 아울러 본문에 점교와 동시에 判關자료, 조문연대색인, 『通制條格』과 『至正條格』의 조문 대조 3종의 부록을 추가하였다.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는 선초에 사헌부 감찰로 입신한 孫登의 후손가이다. 孫登의 아들인 孫士晟(1396-1477)이 문과에 합격하여 兵曹參議를 지내면서 가문의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다. 손사성의 장자 孫旭 계열은 적자 혈손은 없었지만 영천에 터전을 마련하였고, 차자 孫昭(1433-1484)의 후손들은 본향인 경주로 돌아와

양동에 정착하였다. 손소 계열은 양동에 입향한 15세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여년 세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본의 장정은 중국식의 四針眼 장본이다. 면지에는 儲光羲가 지은 「長安道」란 시가 필사되어 있다. 즉 西行一千里 暝色生寒樹 暗聞歌吹聲 如是長安路이다.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발견되었으나, 鬲河任氏와 性夫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집안의 장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金文京, 元刊本 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考察. 414-430.

安承俊, 至正條格의 所藏 및 保存 經위에 대한 考察. 431-445.

張帆, 重現于世的元代法律典籍 ; 殘本 《至正條格》 文史知識 320 (2008.2期) 31-38.

延正悅, 고려와 至正條格에 관한 일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1 (1994) 51-74.

趙晶, 至正條格 研究 管窺. 法律文化研究 6 (2010) 404-417.

한국학중앙연구원, 至正條格 校註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기 타

慶州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 전승되어온 서책이다.

○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음.

[참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외국문화재 지정 현황

※ 관련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보·보물 지정기준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제작국	소재지	지정일자	비고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일괄	페르 시아	국립중앙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	1구	중국	전등사	1963.09.02 해방 전후 반입 추정	단독
보물	제568-2호	윤봉길 유품-중국화폐	10점	중국	윤봉길의사 기념관	1972.08.16	일괄
보물	제624호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	1점	서유럽	국립중앙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1병	중앙 아시아	국립경주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669-2호	정기룡유물-신패	1개	중국	상주박물관	1980.08.23	일괄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1개	그리스	국립중앙 박물관	1987.03.07	단독
보물	제1376호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1매	중국	송광사	2003.06.26	단독
보물	제1470호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20매	중국	불갑사	2006.04.28	단독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6점	중국	수국사	2008.12.22	일괄
합계		10건	42점				

7. 효경(孝經)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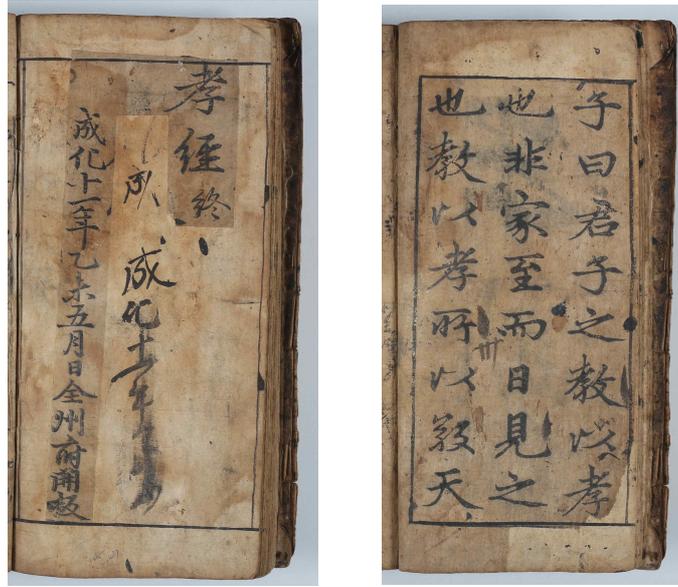
‘효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효경(孝經)’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효경(孝經)
- 소유자(관리자) : 이창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1책
- 규 격 : 30.0×16.0cm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재 질 : 저지(楮紙)
- 조성연대 : 간행연대 미상



『효경』-본문, 마지막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효경』은 권말에 있는 ‘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刊’이란 간기를 통하여 전주판본 계열의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표지는 개장되었고, 본문 역시 새롭게 편집하는 과정에 권두의 일부가 결락되고, 본래 반엽 4행의 형식에서 1행이 없는 3행 8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의 인출 상태는 좋지 않다. 여러 곳에서 내용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멸된 부분이 많아 보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본은 조선 전기의 판본 원형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훼손된 정도가 너무 심하여 원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본 『효경』은 원래 4행 자본인 전주본 계열이나 훼손이 심한 각 장의 첫 행을 잘라내고 3행만을 다시 배접하여 장책한 것이다. 권말에 전주부의 간기가 있기는 하나 그 뒤의 전주부윤 윤효손 발문의 뒷부분이 탈락되어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전주본 계열의 다른 판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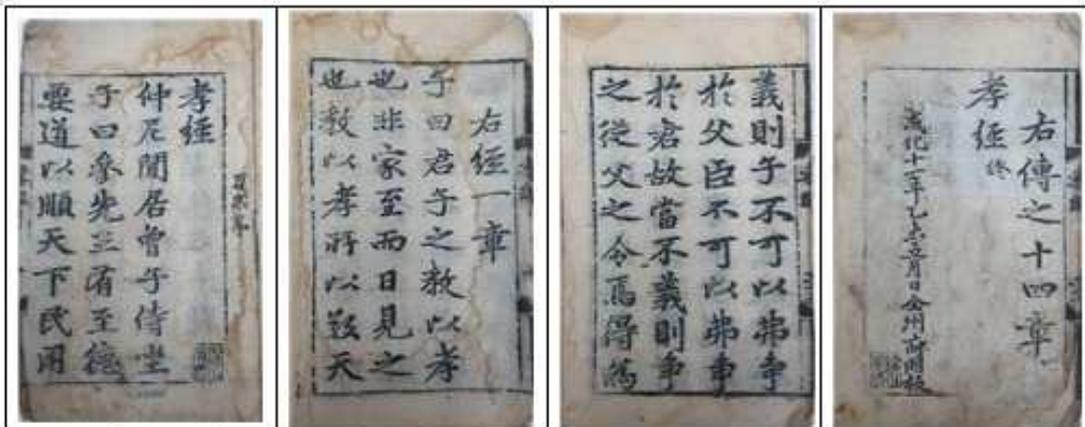
○ (지정 가치 미흡)

본 『孝經』 표지는 많은 낙서로 검정색으로 변해 표지서명을 관독하기 어렵다. 겨우 볼 수 있는 부분의 배접지는 시호만료된 호구단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 호주의 성명, 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기를 고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구단자 위에 邵康節의 「清夜吟」의 구절 일부 “月到天心處 風來水面”시가 필사되어 있다. 한 쪽에는 蘇軾의 「後赤壁賦」 가운데 “霜露豈降木”葉盡脫의 일부 등등이 낙서되어 있다.

권두의 약 4장 정도 탈락된 상태이다. 4행8자본인데, 많이 마멸되자 배접하면서 장마다 1행은 제거해서 3행8자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내용 가운데 3/1 내지 4/1이 제거된 것이다. 동시에 반엽광곽의 크기, 서구와 어미의 형태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배접하면서 책장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내용이 들락날락하여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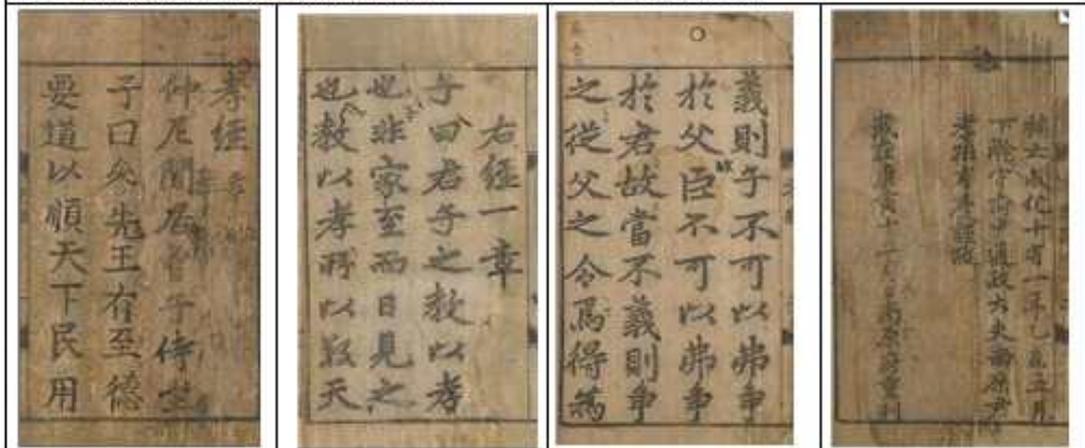
지금 전래되고 있는 4행8자본 간본의 인면을 상호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p><표 1> 4행8자본 『孝經』 판본 비교</p>			
<p>[刊年未詳] 無界, 版心 未詳.</p>		<p>臨清閣</p>	
<p>탈락</p>			
	<p>[刊年未詳] 黑口, 上下內向一葉花紋 魚尾.</p>		
			
<p>全州府, 成宗 6(1475) 4行8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刊記: 成化十一年乙未(1475) 全州府開板</p>			<p>계명대 고180.79 표 1</p>



南原府. [刊年未詳] 上下內向黑魚尾.
 跋: 成化十有一年乙未(1475)五月下辭守府尹通政大夫南原尹孝孫有慶謹跋
 疏刊記: 成化十一年乙未(1475)五月日全州府開板
 刊記: 歲在庚寅(1530)十二月日南原府重刊

국립고123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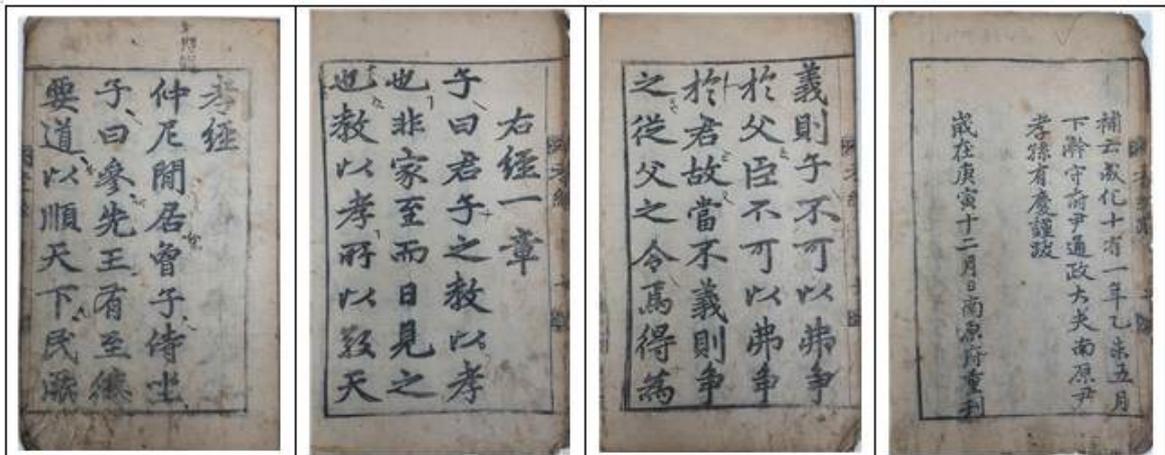
南原府. [刊年未詳]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刊記: 歲在庚寅(1530?1590)十二月日南原府重刊
 疏刊記: 成化十一年乙未(1475)五月日全州府開板
 跋: 成化十有一年乙未(1475)南原尹孝孫有慶謹跋

한중연 A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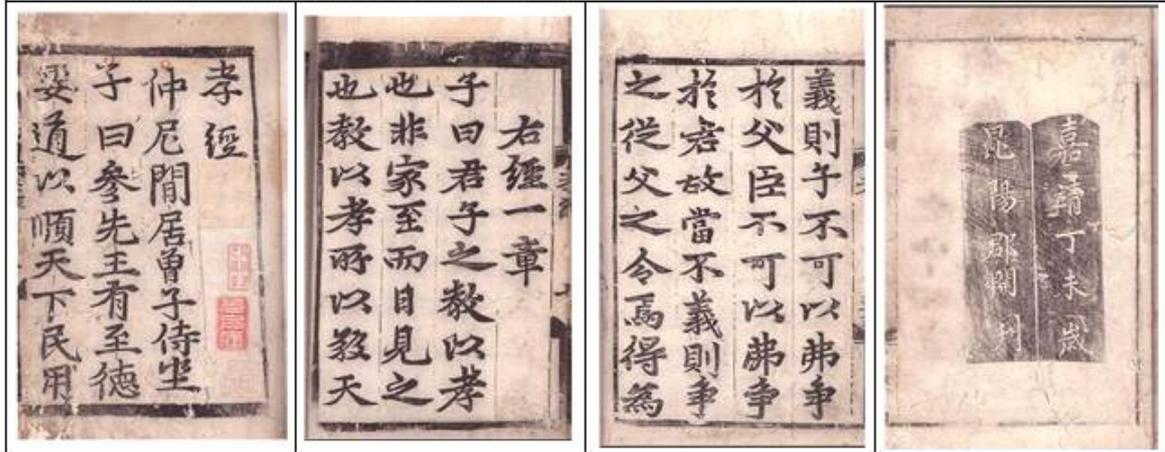
南原府. [中宗 25(1530)] 4行8字.
 刊記: 歲在庚寅(1530)十二月日南原府重刊
 底本刊記: 成化十一年乙未(1475)五月日全州府開板
 跋: 成化十有一年乙未(1475)尹孝孫

계대 고180.79 효경 1



[刊年未詳] 黑口, 上下內向一葉花紋 魚尾.
 刊記: 嘉靖丁未(明宗 2, 1547)歲昆陽郡開刊.
 座目: 郡守通訓大夫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閔興

귀원사



지금 전래되고 있는 4행8자본을 보면 성종 6(1475)년全州府 간본 계통이다. 전주부 간본을 저본으로 선산, 남원, 곤양 등에서 중간한 것이다. 전래하는 이들 판본은 임청각, 국립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천박물관, 귀원사, 계명대학교에 2종, 모두 6책이다. 가천박물관본은 의도적으로 전주부 또는 남원부의 간기를 삭제한 판본이며, 계선도 삽입되어 있다. 한편 계명대학교 판본에는 전주부의 간기는 있으나 중각한 판본인데, 간행기록이 없는 후쇄본이다. 국립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남원부 중간본 계통이다. 따라서 중종 25(1530)년이나 선조 23(1590)년 이후에 간행된 판본이다. 귀원사 소장본은 '嘉靖丁未(明宗 2, 1547)歲昆陽郡開刊'이란 간기가 있으나, 저본이 된 전주판 또는 남원판의 간기는 수록되지 않았다. 계선이 삽입되었으며, 후쇄본으로 목리가 군데군데 보인다.

조사 대상인 임청각본은 권두의 일부가 탈락되고, 4행8자본인데, 많이 마멸되어 열람에 불편하여 배접하면서 장마다 1행을 제거해서 3행8자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내용 가운데 3/1 내지 4/1이 제거된 상태이다. 따라서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정도이다. 권말에는 ‘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刊’이란 간기가 있다. 이어 전주부윤 윤효손의 성종 6(1475)년 발문의 절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삭제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종 25(1530)년 남원부 중간 간기는 전주부윤 尹孝孫의 발문에서 한 행의 공간을 두고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본은 윤효손의 발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판 또는 남원판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훼손된 정도가 너무 심하여 원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본 『효경(孝經)』은 경북 안동시 법흥리에 소재한 고성이씨 대종택인 임청각(臨淸閣)에 대대로 전해져오던 자료로 지난 200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은 1475년(성종 6) 전주부에서 간행된 판본 계열이다. 권두의 일부가 결락된 상태이며, 본문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마멸되어 인출 상태가 좋지 않다. 권말의 간기와 발문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오염에 의한 손상이 심해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유물이다.



서지사항

孝經 / 朱熹(南宋) 註釋.

木版本. [刊地未詳], [刊年未詳]

1冊(24張): 四周單邊. 半葉匡廓. 無界, 3行8字. 書口,魚尾는 未詳. 30.0×16.0(cm).

刊記: 成化十一乙未(1475)五月 日全州府開板.

○ 내용 및 특징

『효경(孝經)』은 유교 사상의 핵심적 도덕 규범인 ‘효(孝)’에 대한 원칙과 규범을 수록한 유교 경전이다. 공자의 고택에서 발견된 과두문자(蝌蚪文字)로 된 책을 『고문효경(古文孝經)』이라 하는데, 이 책은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있었을 때에 안지(顔芝)가 잘 보관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이후 안지의 아들 정(貞)이 다시 써서 전한 책은 『금문효경(今文孝經)』이라 한다. 전한(前漢) 시기의 학자로서 공자의 11대손인 공안국(孔安國)이 『고문효경』을 『금문효경』과 대조하여 고증하며 주석을 달았고, 이후 당(唐)대에는 『어주효경(御注孝經)』이, 송(宋)대에는 『효경정의(孝經正義)』가 나왔다. 특히 주희(朱熹)는 고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로 경문(經文) 1장과 전문(傳文) 14장으로 체계를 잡았다.

『효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태학에서 『효경』을 교육했다는 기록을 통하여 삼국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에서도 국학에서 이를 가르쳤고, 조선시대 내내 학문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배우는 필수적인 책으로 이해되었다.

『효경』으로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책은 1373년(공민왕 22)년의 발문이 있는 『효경찬주(孝經纂註)』가 있으나, 원본이 아닌 영인본 자료만이 있다. 洪武 6(1373)년의 발문이 있는 목판본으로, 당시 팔계(八溪;草溪) 군수인 백초(白瑄)가 『효경』 13장까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령(前副令) 김거기(金居琪)에게서 나머지 5장을 얻고, 좌랑 남영신(南永伸)의 제식(祭式)을 부록으로 붙여 간행한 것이다.

1423년(세종 5)에는 서적의 수가 적어 필사해서 사람들이 열독하고 있으므로 주자소에서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 『직해효경(直解孝經)』 등을 인출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사역원(司譯院)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노걸대』, 『박통사』, 『전한서』, 『후한서』, 『직해효경』 등의 서적이, 판본(版本)이 없으므로 인하여 배우는 자가 전사(傳寫)하여 송습(誦習)하게 되니, 주자소(鑄字所)에 명하여 인출(印出)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6월 23일 임신)

또한 1429년(세종 11)년 3월에는 판부사 허조(許稠)의 계청으로 경연 수장의 『구

『해효경(句解孝經)』을 저본으로 주자소에서 250질을 인쇄했다.

판부사 허조가 계하기를,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은 모두 처음 배우는 자가 마땅히 먼저 습득할 책이오나, 다만 이 『소학』을 과거볼 때에 강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모두 마치 못하여 이를 읽사옵고, 『효경』은 세상의 초학(初學)들이 전혀 읽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경연에서 자귀(字句)를 풀이한 『효경』을 내다가 이를 간행하여 초학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좌대언 허성(許誠)에게 명하기를, “주자소로 하여금 2백 50질을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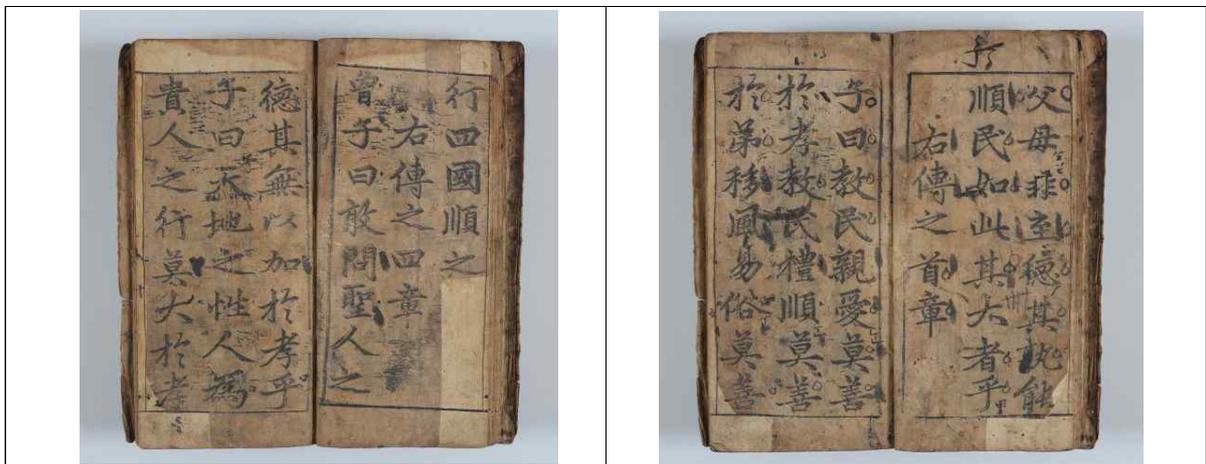
(세종실록43권, 세종 11년 3월 22일 무진)

당시 주자소에서 간행한 책은 1420년(세종 2)년 주조해 1434년(세종 16)년까지 사용한 경자자로 인출된 책으로서 현재 전하는 책을 확인할 수 있다. 경자자본 이후 『효경』은 학문의 기본서라는 인식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책판을 만들고 인출하였다.

조사본 『효경』은 본문을 대자로 판각한 판본 계통으로 책의 끝부분에 있는 ‘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刊’이란 간기를 통하여 1475년(성종 6)년 전주부윤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이 전주부에서 간행한 판본계열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발문이 완전하지 않아 남원에서 중간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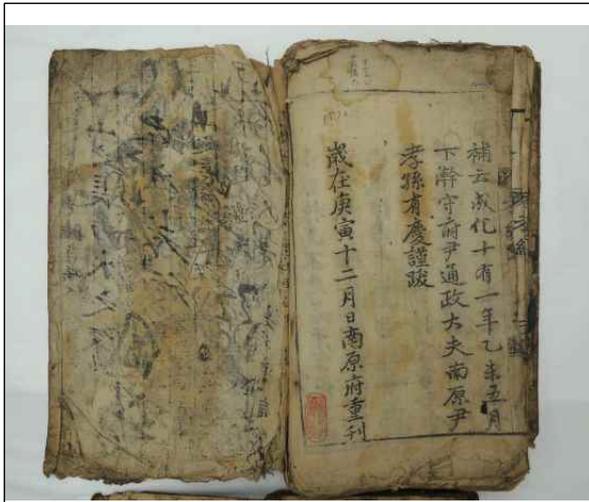
표지는 개장되었고 현재 오염과 낙서로 인해 표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면지는 오래된 문서를 재사용하였는데, 그 위에 소강절(邵康節)의 「청야음(淸夜吟)」의 구절 일부 “月到天心處 風來水面”와 소식(蘇軾)의 「후적벽부(後赤壁賦)」 가운데 “霜露豈降木”등 일부 내용이 묵서되어 있다.

본래 반엽 4행 8자본의 형식에서 벗어나 배접하면서 반엽 3행의 형식으로 바꾸었다. 본문의 앞부분 4장 정도가 결락된 상태로 전체 내용 가운데 3/4 정도만이 남아 있다. 광곽의 형식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문은 25.0×14.5(cm)의 사주단변을 그려넣고 그 안에 3행의 본문을 배치하였다. 새롭게 책을 꾸미면서 곳곳에 잘라낸 흔적과 보사 흔적이 역력한데 본문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곳도 확인된다.

책의 끝부분에 있는 전주부윤 윤효손의 발문은 절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삭제되었다. 일반적으로 1530년(중종 25) 남원부에서 중간하였다라는 내용은 전주판본에 있는 윤효손의 발문에서 한 행의 공간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조사본은 전주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원부 중간 간기



조사본 간기

○ 문헌자료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1호, 2012.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1호, 2012.

이재영, 「조선시대 효경의 간행과 그 간본」, 『서지학연구』 제38집, 2007.

○ 지정사례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 내용 및 특징

『효경』은 조선시대에는 빈번하게 간행된 서적으로 많은 판본이 전한다. 본 신청본은 성종 6년의 간기가 있는 목판본이지만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간행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다.

○ 문헌자료

옥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1호 (2012.3), pp. 59-84.

○ 기 타

경북 안동시 법흥리 20번지 고성이씨 대종택인 臨淸閣 소장, 국학중앙연구원 기탁.



○ 현 상

『孝經』은 개인의 수양에서 천하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도덕의 근원이 되는 ‘孝’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한 서적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서적으로 많이 열독되었으므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조사 대상본은 성종 6(1475)년 전주부윤 尹孝孫이 전주부에서 간행한 판본 계열이다. 권두의 일부가 탈락되고, 많이 마멸되어 전체 내용 가운데 3/1 내지 4/1이 제거된 상태이다. 따라서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정도이다. 권말에는 全州府의 간기는 있으나, 전주부윤 윤효손의 발문은 절반만 남아 있다.

<서지사항>

孝經 / 朱熹(南宋) 註釋.

木版本. [刊地未詳], [刊年未詳]

1冊(24張): 四周單邊. 半葉匡廓 : 未詳. 無界, 3行8字. 書口,魚尾는 未詳. 30.0 × 16.0cm.

刊記 : 成化十一乙未(1475)五月 日全州府開板.

○ 내용 및 특징

『孝經』은 개인의 수양에서 천하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도덕의 근원이 되는 ‘孝’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한 서적이다. 진시황 분서 때 공자고택 벽에서 나온 『古文孝經』을 顔芝가 保藏하여 전하였고, 그 아들 貞이 다시 쓴 것이 『今文孝經』이다. 주희는 古文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로 經文 1章과 傳文 14章으로 체계를 잡았다. 이후 주희의 『孝經』은 민간의 아동으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효는 전통사회 윤리관의 中核思想이 되었다.

『孝經』은 처음부터 서명에 ‘經’자가 첨가되었다. 三經은 처음에는 詩·書·易이

었는데, 공자가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여 후대에 중시하여 ‘經’자를 붙인 것이다. 四書는 서명에 경자가 첨가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다.

『孝經』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와 경로는 구체적이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에 이미 태학에서 『孝經』을 필수로 교육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도 국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孝經』은 공민왕 22(1373)년의 발문이 있는 『孝經纂註』로 증명할 수 있는데,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복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洪武 6(1373)년의 발문이 있는 목판본인데, 현전 최고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八溪(草溪)郡守인 白珪가 『孝經』 13장까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前副令 金居琪에게서 나머지 5장을 얻고, 좌랑 南永伸의 祭式을 부록으로 붙여 간행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미 이전에도 간행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 22(1373)년본의 권수제는 孝經, 권말제는 孝經纂註이다. 권두에는 연우 3(1216)년 林莘甫의 자서, 연우 4(1217)년 曹氏進德齋의 서문과 당 현종의 서문이 있다. 또 공자에서부터 현종에 이르는 효경류의 저자 계통을 보이는 도표도 있다. 이어 今文孝經을 중심으로 한 여러 주석서의 저자와 서명을 수록하고, 古文孝經과 今文孝經 구성상의 차이도 비교하였다. 판식은 사주단변, 반엽광곽:18.4 12.3cm. 무게, 11행22자, 주쌍행, 대흑구, 상하하향흑어미이다. 마멸이 많이 보이고, 이지러진 부분이 많이 보여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문은 각 장의 제목 다음에 그 장에 해당하는 孝經正義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孝經』 각 구절을 수록한 다음에 작은 글씨로 두 줄의 註가 있다. 이어 伊川先生葬說并圖와 韓魏公參用古今家祭式이 합철되어 있다. 권말에는 당시 寧海郡守 韓冲浩가 공민왕 22(1373)년에 쓴 발문에 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다. 발문 말미는 ‘中正大夫寧海府使韓冲浩誌 洪武六年癸丑秋八月望一日題라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후대 조선본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孝經』은 조선시대에도 초학자의 필수적인 학습교재가 되었다. 세종 5(1423)년 서적의 수가 적어 필사해서 사람들이 열독하고 있으므로 주자소에서 『노걸대』, 『박통사』, 『전후한서』, 『직해효경』 등을 인출하게 하였었다. 세종 11(1429)년 3월에는 判府事 許稠의 계청으로 경연 수장의 『句解孝經』을 저본으로 주자소에서 250질을 인쇄했다. 5월에 집현전의 응교 이상의 문신과 僉摠制 이상의 무관에게 반사하였다. 이 책은 얼마 전까지도 전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구미의 개인이 주장하고 있음이 최근 확인되었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 인본을 통해 보면 세종 2(1420)년 주조해 세종 16(1434)년까지 사용한 경자자로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자자본 『孝經』은 세종 11(1429)년초에 간행된 것이다. 昌山 曹夏彦美伯印이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小學』의 실천에 골몰했던 조광조 이후 『小學』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동시에 『孝經』도 겸해서 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정착되고 심화

되면서, ‘충’과 ‘효’는 매우 강조되었다. 효는 단순하게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개인윤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충효절의와 같이 충의 기반을 이루어 국가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효의 이념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孝經』을 『小學』과 짝을 지어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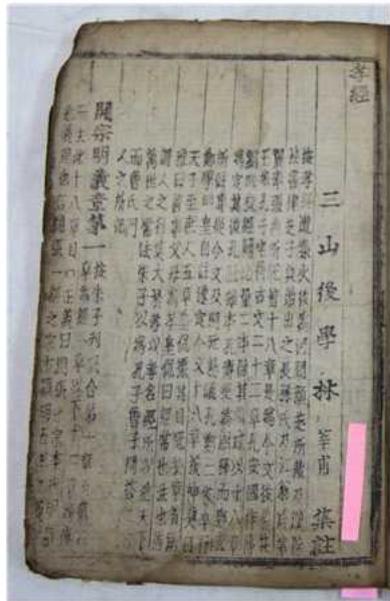


그림 192 경자자본 『孝經』 권두.



그림 191 경자자본 『孝經』 간기.

조선 전기에 주로 간행한 『孝經』은 곧 『孝經刊誤』이다. 『孝經刊誤』는 주희가 금문과 고문을 산삭하고 정리해서 편찬한 『孝經』인데, 조선에서는 16세기말까지 주로 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孝經刊誤』에 원대 학자 董鼎이 주석을 붙인 『孝經大義』가 주류가 되면서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된다. 『孝經大義』는 본문 글자 크기에 따라 대자와 중자로 나눌 수 있다. 활자본은 海鏡大字本, 訓練都監字本, 丁酉字本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경자자본을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孝經』의 이른 판본은 『孝經刊誤』이며, 성종 6(1475)년 전주부윤 尹孝孫이 전주부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成化十一年乙未五月日全州府開刊’이란 간기로서 증명된다. 판목이 마모되어 송설체 『證道歌』를 바탕으로 필사해 판각했다고 하였다. 이로서 이전에도 목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尹孝孫은 성종 8(1477)년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전주부 간본을 저본으로 선산도호부사 김중직에게 다시 판각하게 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몇 차례 각 지방관청에 공문을 보내 보유하고 있는 책판을 보고한 기록에 『孝經』의 판각 기록도 있다. 선조 9(1576)년에는 황해도 遂安, 강원도 淮陽·三陟, 전라도 錦山·全州·井邑·寶城·南原, 경상도 安東·善山·慶州, 함경도 會寧에 『孝經』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선조 18(1585)년에는 선조 9(1576)년의 기록에 전라도 玉果·羅州·綾城·巨濟, 경상도 盈德·昆陽

과 평안도 平壤이 추가되어 있다. 가히 전국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필수의 서적으로 집집마다 다 구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집중적으로 판각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래하는 4行8字本 판본은 전주판의 후쇄본이거나 복각본이다. 그러므로 전주본 판각의 상한선은 성종 6(1475)년이다.

전주 간본은 다시 남원부에서 중간하면서 ‘歲在庚寅(1530)十二月日南原府重刊’이란 간기를 넣고, 저본의 윤희손 발문과 간기도 함께 판각하였다. 김종직이 전주판을 선산에서 복각한 판본은 선조 36(1603)년 흥해에서 중간된다. 흥해간본의 간기는 ‘萬曆三十一年癸卯(1603)七月日興海郡開刊’이고, 선산 간행의 김종직 발문이 있다.

○ 문헌자료

강문식, 조선전기의 효경 이해.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1호 (2012.3) 7-34.
육영정, 효경간오, 효경대의, 효경언해의 간행본과 그 계통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1호 (2012.3) 59-84.
이재영, 조선시대 효경의 간행과 그 간본. 서지학연구 제38집 (2007.12) 323-346.
정호훈, 朱子 孝經刊誤와 그 성격. 동방학지 116. (2002) 80-81.

○ 기 타

경북 안동시 법흥리 20번지 고성이씨 대종택인 臨淸閣에 대대로 전승되어온 책.

○ 지정사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4호. 가천박물관. 간행지 미상. 2012.07.26.지정
세종 11(1429)년 경자자 간본 효경은 ‘金泉 曹昌鉉 所藏 典籍’으로 2019.10.21.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8. 김육 초상 일괄(金堉 肖像 一括)

가. 검토사항

‘김육 초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부터 ‘김육 초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16.7.20) 관계 전문가 조사(’18.9.20.) 및 과학조사(’19.1.15.~1.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2019년도 본 위원회 제5차 회의 (8.8.)에서 중국 및 우리나라 초상화와 비교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20.5.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검토사안으로 재부의함.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육 초상 일괄(金堉 肖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실학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 길 16 실학박물관
- 수 량 : 초상화 3점(전신좌상본 1, 와룡관본 2, 화첩본 3)
- 규 격 : ①전신좌상본: 화면 174.1×99.8cm, 전체 269.2×128.8cm,
②와룡관본: 화면 118.6×50.0cm, 전체 171.7×65.4cm
③화첩본: 화면 26.3×17.4cm, 전체 34.5×23.1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①전신좌상본: 족자, ②와룡관본: 족자, ③화첩본 : 첩
- 조성연대 : ①전신좌상본: 1637년 경, ②와룡관본: 1637년 경, ③화첩본: 1644년 경
- 제작자 : ①전신좌상본·와룡관본: 호병(胡炳), ②화첩본: 맹영광(孟英光)



그림 136. 전신좌상본



그림 137. 와룡관본



그림 138. 화첩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육 초상화 일괄 유물은 역사적, 회화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물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김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조선 실학의 선구자로서 평가받고 있고, 대동법의 시행과 새로운 역법의 실현 등 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또한 숙종의 외증조부로 왕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본 유물에도 숙종, 영조, 정조의 화상찬이 수록되는 등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주목되는 인물이고 유물이다.
2.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중국인 화가에 의한 작품이고, 제작 동기와 시기, 화가가 여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국 명대의 화가 호병 및 청대의 화가 맹영광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이를 통해서 한중 회화 교류의 상황을 밝힐 수 있고, 조선 초상화에 미친 중국 초상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유물이다.
3. 전신교의좌상본과 화첩본은 모두 정면상으로 그려졌고, 교의에 표피가 나타나며, 의복을 표현하는데 서양화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수법인 사실적인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18세기 조선 초상화에 수용되어 조선 초상화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로서 회화사적 의의가 주목된다. 또한 '와룡관본(학창의본)'은 야외에서 거니는 모습의 소상으로서 조선 초상화에서는 없었던 형식으로 최근 전시된 바 있는 18세기에 제작된 <조문명 초상>과 같은 야외 초상화의 등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지정 가치 있음)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과 보관상자 등 일괄유물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첫째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중국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로서 明, 淸 교체기 한중 문화교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임. 이들 초상화는 당시 조선의 문화계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正面像이나 野外 燕居服 초상화가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이들 초상화는 제작과 그 이후 감상과 관련한 많은 문헌자료가 있어 초상화와 관련한 문화적 맥락의 이해에 아주 중요하며, 추후의 연구도 필요함.

둘째, 김육은 우리나라 실학의 원조라 불리는 인물로, 대동법 시행 등 民生과 관련해 많은 업적은 남겼음. 또한 왕실과 인척을 맺어 숙종에게는 외증조부가 됨으로써, 숙종은 물론 영조, 정조의 畫像讚이 수차 작성되어 일부는 작품에 직접 적혀

있음. 왕실과 조선후기 문화사상으로도 중요한 자료임.

셋째, 김육 초상화 3점은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초상화의 제작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중국 초상화의 구체적 제작 사례로서 조선시대 초상화와 비교연구, 장황의 방식에 대한 이해, 보관상자 제작방식 등 장래 연구가 필요함.

○ (지정 가치 있음)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과 일괄유물은 다음 3가지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김육 초상화는 17세기 한중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김육이 사행을 가서 중국화가들에게 주문한 초상화이다. 이 3점은 모두 중국 화가에 의해 그려졌지만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관복본으로 그려진 것은 당시 조상 숭배를 위한 조종화의 양식을 띠고 있고, 와룡관본으로 그려진 것은 야외초상화 혹은 문인 행락도 양식을 취하였다. 화첩본은 작은 소본이지만 작가 맹영광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우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김육 초상화는 초상화를 통한 군신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는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찬을 받았는데, 이처럼 세 왕의 어제를 모두 받은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는 국왕이 사대부의 초상을 어떻게 관람하고 반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김육 초상화는 한 가문에서 초상화를 통해 조상에 대한 존숭과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는 사후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는데, 김육의 초상화와 어제를 포함한 관련 기록을 하나의 화첩으로 장첩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것이 현재까지 한 가문에서 관련 유물을 보관함까지 일괄 보존한 것은 매우 특기할만한 일이다. 한 가문에서 초상화를 통해 어떻게 선조를 기억하고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김육의 초상화 3점은 김육이라는 문인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위상과 제작연대 및 유래, 화가를 알 수 있는 기록, 숙종의 어제찬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높은 작품임에는 분명하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의 지정가치 기준(작품의 형태, 품질, 기법, 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외래품)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김육의 초상화들은 조선사신들이 중국에서 그려온 현전하는 초상화들과의 비교해 볼 때에도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독특한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다. 김육 전신좌상본에 표현된 정면관, 호피 깔린 의자, 팔자형 혜, 명대 양식의 사모 등은 16~18세기의 중국 지래본(持來本) 초상화인 <정곤수상>, <이광정상>, <전응양상>에도 등장하는 양식적 특징들이다. 전거한 3점의 중국 지래본 초상화들은 양손이 드러난 것에 비해 김육 전신좌상본은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18세기 <김재로상>, <남구만상> 등에도 보이듯이 중국 초상화 양식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육 전신좌상본은 조선후기에 유입된 중국초상화의 양식상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흉배의 비현실적 크기와 조악한 문양, 도식적이고 굵은 윤곽선으로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관모와 의복의 표현 등에서 다른 중국 초상화 지래본들보다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의습이나 관모의 윤곽선이나 의복주름에 가한 농묵의 굵은 필선 처리가 유려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우며, 담필 위에 굵은 농필로 여러 번 덧그은 것이 확연하게 티가 난다. 따라서 김육의 전신좌상본이 여타 중국지래본 초상화보다 독특한 특징과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조선후기 정면관 관복초상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육의 전신좌상본과 동시기 조선에서 제작된 초상화와 비교하면, 예술성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게 벌어진다. 관모나 의복의 비단문양, 직조까지 세심하게 표현된 조선의 초상화와 달리, 관모나 의복은 문양이 없고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였으며, 의복주름에 짙은 음영을 넣었다. 흉배의 학과 구름, 호피 등의 표현은 마치 민화에서의 표현처럼 부자연스럽다. 안면은 의복에 비하면 마마자국과 수염터럭까지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나, 두텁고 붉게 채색된 안료의 변질로 인해 흑화 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의복과 기물의 부자연스러운 표현과 안면의 안료 변질현상은 김육의 와룡관본에도 나타난다. 와룡관의 생략적이고 도식적인 묘사, 안면의 얼룩 등은 전신좌상본과 유사한데, 다만 와룡관본은 양미간을 살짝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전신좌상본보다 수염을 더 하얗게 묘사하였다. 이처럼 나무를 배경으로 한 사선구도의 지형에 인물을 배치한 야복본 초상화류는 명말 청초 중국에서 유행하는 양식이었으나, 조선에서는 널리 유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신들 또한 중국화가들에게 산수인물화류의 초상화 양식보다는 간략하고 생략적인 필선으로 대상을 잡아내는 소조형식의 초상화 제작을 의뢰했던 것을 보인다.

화첩본 초상화는 전신좌상본과 와룡관본 초상화에 비해 자연스러운 묘사와 채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두터운 의습선과 과한 음영법 등의 부자연스러운 표

현이 앞의 두 점과 동일하며, 두 점과 달리 눈이 충혈되고 코가 길고 높게 표현되었다.

조선의 초상화는 음영법을 시도한 경우에도 김육의 초상화들처럼 강한 음영대비를 가하지 않았으며, 안면에는 안료를 두껍고 탁하게 채색하지 않는다. 더구나 초상화마다 양미간을 찌푸리게 그리는 등의 심적 기류가 겉으로 드러난 표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안면은 인물의 성정을 드러내는 초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맑고 담박한 표정과 채색, 섬세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육 초상 3점은 조선후기 중국 지래본 초상화 및 조선시대 초상화와 비교해볼 때, 현저한 특이성, 작품성, 예술성 등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서의 가치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김육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역사성 및 학술성, 당시 중국 지래본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도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미흡)

김육(金堉, 1580-1658)의 초상화 3점은 다음의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1. 김육 초상화 3점은 김육이 1636년(인조14)에 동지사(冬至使)로 명을 방문했을 때, 현지 화가들에게 주문한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가 제작된 경위가 『조정일록(朝京日錄)』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 제작 동기와 시기, 작가가 확인된다. 특히 이 초상화의 작가가 중국 명대의 화가 호병(胡炳) 및 청대의 화가 맹영광(孟永光, 1590-1648)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초상화의 구체적 제작 사례로서 조선시대 초상화와 비교 연구, 장황의 방식에 대한 이해, 보관상자 제작방식 등 장래 연구가 필요하다.

김육 초상화 3점을 정리하면, ①<전신좌상본>은 당시 조상 숭배를 위한 조종화의 형식으로, ②와룡관본은 야외초상화 형식으로, ③<화첩본>은 소진(小眞) 형식으로 제작됐다. 김육 초상화는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찬을 받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또한 초상화를 통해 조상에 대한 존숭과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일부에서는 ①<전신좌상본>의 정면관 초상 형식이 조선에서 전개된 정면관 초상 형식에, ②<와룡관본>이 조선에서 제작된 야외연거복(野外燕居服) 초상 형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더 많은 자료가 수합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화가들은 조선의 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김육 초상화 3점을

완성했다. 중국 화가의 조선 복식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파악된다. ①<전신좌상본>의 경우, 김육이 착용한 관복의 운학문 흉배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조선 관복에 부착되는 흉배는 지위와 계급을 표상하는 중요한 표장이다. 그러나 <전신좌상본>에서는 흉배가 가슴을 덮을 만큼 크게 배치된 반면, 내부에는 한 마리의 학과 구름만 대충 표현되어 있다. 또한 ③<화첩본>의 등장한 김육은 조선이 아닌 명대의 관모와 복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관모와 복식의 섬세한 세부 표현을 생략한 채, 깊은 음영으로 입체감을 부각했다.

3. 현재 보물로 지정된 초상화 가운데, 제작 시기를 17세기로 상정할 수 있는 작품은 이시방(李時昉, 1594-1660)의 <초상(보물 1482호)>을 포함하여 총 18점 정도로 정리된다. 17세기의 제작 연대를 지닌 보물 지정의 초상화와 김육 초상화 3점을 비교하면, 김육 초상화 3점의 상태, 묘사력, 복식의 정확도 등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복식, 교의 등 화폭 전반의 묘사가 허술하고 섬세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17세기 초상화와 비교해 보아도 쉽게 입증된다.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의 <초상(경기도 유형문화재 224호)>을 포함한 동시기의 시도유형 문화재 지정 초상화 11점보다 묘사력이나 복식의 정확도가 현격하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육의 초상화 3점은 동양문화권에서 초상화 창작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된 ‘전신사조(傳神寫照)’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이다. 이러한 작품군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 일괄유물로 족자 2점과 목제 보관상자, 화첩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족자 ①은 전신교의좌상본이다. 사모를 쓰고 흉배를 찬 관복 차림

으로 공수를 하고 교의에 앉은 정면상이다. 도상과 화풍의 특징상 중국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위상단에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숙종의 어제시가 적혀있다. 견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안면과 표피의 일부에 黑變된 부분이 있고, 화면에도 일부 손상이 있다. 유소가 있지만 가늘고 드리개도 작아서 원래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통형의 보관함은 2017년에 실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된 상태이다. 보존처리할 때 별도의 보관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족자 ②는 전신입상본으로 와룡관을 쓰고 있어 와룡관본으로 지칭한다. 김육은 臥龍冠을 쓴 평상복 차림으로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다. 화면 좌상단에 '胡炳之印'이 찍혀있어 중국 명대의 화가 호병의 작품임을 시사한다. 화면 위상단에는 1751년에 지은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화면의 비단과 채색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옷과 안면에 일부 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와룡관본의 보관함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보관함은 실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하지 않았지만 양호한 상태이다. 화첩 ③은 청나라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김육의 초상화와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이 수록된 본이다. 화면의 비단과 채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얼굴 부분의 피부 일부와 수염, 동정 부분에 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潛谷 金堉(1580-1658)은 大同法 시행에 크게 기여한 實學의 원조라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明, 淸 교체기인 1636년(인조14), 1640년대, 1646년, 1650년(효종1) 등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중국통이었다. 대중외교와 신문물 수입, 그리고 조선의 民生을 위한 대동법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육의 아들 金佑明(1619-1675)의 딸이 현종과 결혼하여 왕실의 인척이 되어 이후 등극한 숙종의 외증조부가 되었다. 숙종은 김육을 존경하였고, 그의 초상화에 직접 찬문을 짓기도 하였다. 김육에 대한 존숭은 영조와 정조, 에게로 이어져 두 국왕도 김육의 초상화에 찬을 지었다. 김육 초상화 일괄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제 찬문과 함께 전해지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김육 초상화 세 점이 모두 중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점도 주목된다. 김육의 초상화 일괄은 명과 청이 교체하는 격동기라는 시대적 배경 중에도 중국화가가 제작한 초상화가 조선에 전래되어 전승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육 초상화 중 전신교의좌상본은 구성과 표현에서 중국 초상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화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모를 쓰고 녹색 단령에 단학흉배를 착용한 채 공수자세를 하고 있으며, 표피가 깔린 검은 교의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좌안칠분면의 초상화가 주류

이던 조선에서 정면 초상이 그려지는데 영향을 주었고, 교의에 표피를 깔은 것도 이후 조선 초상화에 영향을 준 요소로서 한중 초상화 교류를 시사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안면의 묘사 방식과 다소 굵고 둔탁한 윤곽선의 구사, 윤곽선 주변에 음영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내는 기법 등은 동시대 조선 초상화와 차이가 있다. 이 작품의 오른쪽 위에는 1713년에 지은 숙종의 어제찬문이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와룡관본은 화면 오른쪽 위에 ‘潛谷金文貞公小像’이라고 표제되었고, 이어 1751년(영조27)에 영조가 지은 어제찬이 기록되어 있다. 화면 왼쪽 위에 ‘胡炳之印’과 ‘龢鶴行人’이라는 인장이 있어서 중국화가 胡炳이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큰 소나무 아래 평상복인 두루마기, 野服을 입고 거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김육과 신의성의 기록 중 두루마기는 鶴氅衣라고 하였고, 관은 綸巾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익숙하지 않은 와룡관이나 윤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선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용어인 학창의와 관련시켜 ‘학창의본’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과 묘사는 중국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이후 조선에서도 야복차림의 야외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김육이 지은 『朝京日錄』에는 1637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중국화가 호병이 크고 작은 초상화 두 점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전신교의좌상의 흉배는 단학흉배로 당시 김육의 품계와도 일치하여 전신교의좌상과 와룡관본 소상이 모두 호병의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화첩본 초상화는 중국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반신상이다. 맹영광은 1645년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 후인 1648년 귀국하였는데, 조선에 체재하는 동안 많은 작품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화면의 왼쪽 위에 ‘孟永光寫眞讚’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화가를 알 수 있다. 화첩본의 초상화는 호병의 초상화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예술성이 높다.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金時默(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金持默(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申翊聖(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姜碩期的 「附序」, 계회의 座目, 계원의 詩 일부 등이 합쳐되어 있다. 따라서 맹영광이 그린 반신상이 포함된 화첩은 내용상 가장 늦은 정조연간 집안에서 함께 모아 成帖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좌상본과 와룡관본의 초상화에는 각기 원통형, 사각통형 보관함이 달려 있는데, 이 보관함들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육 초상화와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 연구소, 1999.3)

*와룡관본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髦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髦,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 화첩본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 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계회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欒一席。接殷勤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 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尙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堉。序

본 유물 일괄은 김육의 후손가에서 보관되다가 2007년과 2008년에 두 번에 걸쳐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일부이다.

□

○ 현 상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 일괄유물로 족자 2점과 목제 보관상자, 화첩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족자 ①은 관복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향해 교의에 앉은 坐像으로 1650년경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의좌상의 우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시가 적혀있는데, 김육은 숙종에게 외증조부가 된다. 안면부에 일부 黑變이 있고, 화면에도 조금씩 손상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원래 조선시대 초상화는 좌안칠분면이나 중국의 正面像이 조선에 소개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품 중 하나이다. 족자 ②는 臥龍冠을 쓰고 야외의 소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 작품은 목제상자의 내부에 후손이 써 놓은 쪽지에 의하면 1636년 청나라 화가 胡炳이 그린 것이라 한다. 이점은 관련 문헌에도 나오며, 또 화면 좌상단에 ‘胡炳之印’이 찍혀있어 사실임이 확인된다. 화면 우상단에는 1751년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이 작품 역시 안면부의 흰색 수염, 흰색 의복 등에 변색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화첩 ③에는 청나라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상반신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金時默(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金持默(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申翊聖(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姜碩期的 「附序」, 계회의 座目, 계원의 詩 일부 등이 합쳐되어 있다. 따라서 맹영광이 그린 반신상이 포함된 화첩은 내용상 가장 늦은 정조연간 집안에서 함께 모아 成帖한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潛谷 金堉(1580-1658)은 大乘法 시행에 크게 기여한 實學의 원조라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중국의 明.淸 교체기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다녀오며 외교와 신문물 수입, 그리고 조선의 民生을 위한 여러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 김육의 아들 金佑明(1619-1675)의 딸이 현종과 결혼하여 왕실과 인척관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호란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숙종은 외증조부 되는 김육을 존경하였으며, 초상화에 찬문을 짓기도 하였다. 김육에 대한 존숭은 숙종

의 아들 영조, 영조의 손자 정조에게로 이어져 이들의 초상화찬도 전한다. 김육 초상화 일괄은 바로 이런 김육에 대한 조선시대 역대왕들의 어제 찬문과 함께 전해지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김육 초상화 일괄은 모두 중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점도 주목된다. 明,淸 교체기에는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이어져 조선후기 문화의 풍성함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시기이다. 김육의 초상화 일괄은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 초상화가 조선에 전래되어 감상 내지 전승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김육 초상화 중 전신좌상본은 1650년 연행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선에서는 본래 좌안칠분면 초상화를 그렸으나, 김육의 이 작품을 선구로 중국식 정면상 초상화가 조선에 수입되어 이후 정면상이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초상화 교류사에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 위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찬문이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원유관본은 좌상단에 찍힌 인장으로 중국화가 胡炳에 의해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큰 소나무 아래 野服을 입고 자유롭게 산보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 역시 중국에서 성행한 양식으로 이후 조선에서도 이런 야복 차림의 야외 배경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의 위상단에는 1751년(영조27) 지은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화첩본은 중국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반신상 소품이다. 맹영광은 1645년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 후인 1648년 귀국하였는데, 조선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좌상단에 ‘孟永光寫眞讚’이 적혀 있어 작자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김육 초상화 반신상이 들어있는 화첩에는 이밖에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찬, 김육의 벗 신익성의 화상찬이 포함되어 있다. 또 김육과 1680년생 동갑계의 서문과 좌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반신상 초상화와는 무관하나 정조 연간 함께 成帖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좌상본과 원유관본 초상화에는 각기 원통형, 사각통형 보관함이 달려있는데, 이들도 관련 자료로 보존, 연구할 가치가 있다.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연구소, 1999.3)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鬢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鬢,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

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金堉，潛谷先生遺稿卷之二，「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金堉，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欒一席。接殷勤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尚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堉。序

○ 기 타

잠곡 김육의 후손가에서 2007년, 2008년 두차례 나누어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포함됨.



○ 현 상

김육(金堉, 1580-1658)의 초상화3점(죽자 2, 화첩 1)으로 이루어진 일괄유물이다.

①<전신좌상본>은 관복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향해 호피를 덮은 交椅에 앉은 좌상이다. 안면부에 일부 흑변(黑變)이 있고, 화면에도 조금씩 손상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얼굴은 천연두 앓은 흔적까지 자세하고, 가슴의 흉배와 호피무늬도 정교하다. 의복 주름마다 음영이 깊게 들어가 있다. 우측 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찬(御製贊)이 적혀있다. 숙종의 어제찬은 다음과 같다.

蒼顏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³⁶⁾

②<와룡관본>은 와룡관(臥龍冠)을 쓰고, 학창의(鶴擎衣)를 입고 야외의 소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산수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우측 상단에는 “潛谷金文貞公小像”라는 표제(標題)와 영조(英祖)의 어제찬이 적혀있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胡炳之印”과 “龢鶴行人”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작품 역시 안면부의 흰색 수염, 흰색 의복 등에 변색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영조의 어제찬은 다음과 같다.

綸巾鶴擎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³⁷⁾

③<화첩본>에는 김육의 상반신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검은색의 사모(紗帽)와 푸른색 도포를 입은 김육의 정면상이다. 배경은 없으며 위쪽 오른쪽에 “領議政潛谷金文正公小眞”이라는 제목이, 왼편에는 맹영광(孟永光)이 지은 讚文이 적혀있다. 안면과 작품 일부에 흑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으며, 얼굴과 의복의 주름에 음영이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다. 맹영광의 찬문은 다음과 같다.

雪髮霞儀 外形內德
 君子觀之 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³⁸⁾

36) 『列聖御製』 권16 「潛谷金相國畫像贊」 및 실학박물관(2014), 22면.

37) 실학박물관(2014), 17면.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김지묵(金持默, 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강석기(姜碩期)의 「附序」, 계획의 좌목(座目), 계원의 시 일부 등이 합쳐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김육은 명청 교체기에 4번에 걸쳐 사행을 다녀왔다. 1636년에는 명나라 동지사(冬至使)로, 청 왕조가 세워진 이후인 1643년에는 심양(瀋陽)에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1645년에 사은부사로 연경(燕京)에, 1650년에 진향사(進香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중국 방문 과정에서 현전하는 김육 초상화 전신좌상본, 와룡관본, 화첩본 3본이 제작되었지만 세 본의 초상화 제작 시기가 초상화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 구분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 한다.

①<전신좌상본>

김육 초상화, <전신좌상본>은 1637년 연행시 제작되었다는 견해와 1650년 연행시 제작되었을 것이란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중국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³⁹⁾ 정면상으로 당시 유행하던 중국 조종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손은 소매 속에 넣은 공수자세로서 조선의 초상화 형식을 따랐다. 숙종의 어제찬이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713년 숙종의 어제 제작시 사대부의 초상화를 열람하고 찬문을 내린 정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 숙종과 이이명과 나눈 대화가 자세하다.⁴⁰⁾

②<와룡관본>

38) 실학박물관(2014), 18면. 이 글씨를 누가 언제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후대에 成海應(1760-1839)이 쓴 기록에 근거하여 이 초상화가 孟永光의 작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持杖獨立”이라는 구절이 <소상>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 成海應도 이이명처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 이성훈(2019), 746-747면.

39) <와룡관본> 제작 연도는 보통 1637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전신좌상본> 제작시기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다. 조선미는 『잠곡유고』에서 1637년 호병이 소진을 그렸다는 기록을 근거로 <와룡관본>을 1637년 작품으로, <전신좌상본>을 작자 미상의 1650년 작품으로 추정했다. 조선미, 『초상화연구: 초상화와 초상화론』(문예출판사, 2007), p. 245; 260. 정은주, 이경화, 이성훈, 조인수는 1637년 <와룡관본>과 함께 제작되어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정은주, 「중국사행에서 제작된 조선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 33(2010), pp. 23-28; 이경화,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 36(2018);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 304-308; 742-750; 조인수, 「잠곡 김육의 초상화 세 점에 대하여 -제작과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37(한국실학학회, 2019), pp.137-168.

40) 『承政院日記』 477책, 숙종 39년 5월 6일(임오).

김육 초상화, <와룡관본>은 1637년 중국화가 胡炳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637년 김육이 초상화를 그려올 때의 상황은 『朝京日錄』에 자세하다. 1637년 3월 13일에 胡炳이 초상을 그려 갔으며(胡炳 寫眞而去), 4월 11일에 초상을 그려서 왔다(胡炳寫眞來). 그리고 4월 15일에는 작은 초상을 그려왔기에 양한 마리, 거위 한 마리, 인삼 석 냥, 부채 세 자루를 주었다(胡炳寫小眞來 贈羊一鵝一參三兩 扇三柄).⁴¹⁾

이 <와룡관본>에 대해서는 김육 자신의 자찬문⁴²⁾과 김육의 사돈이었던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찬문이 있다.⁴³⁾ 신익성의 몰년이 1644년이기 때문에 <와룡관본>의 하한선이 1644년이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영조의 어제찬이 있는데, 당시 영조가 김육의 초상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은행(溫行)을 다녀오는 길에 대동비를 보고 대동법을 시행했던 김육을 떠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⁴⁴⁾ 1751년(영조 27) 영조는 김시묵(金時默)에게 조부 김육의 화상 및 <甲會帖>을 가져올 것을 명하여 직접 살펴보고 숙종의 어제찬과 <갑회첩>에 있는 김육의 칠언시에서 차운하여 찬을 지었다.⁴⁵⁾ 영조의 어제찬 중 숙종의 어제찬에 차운한 것은 <와룡관본> 위와 <화첩본> 안에 모두 쓰여 있고, 김육의 칠언시에 차운한 것은 <화첩본>에만 포함되어 있다.

당시 중국에서 그려온 초상화가 대부분 祖宗畫 양식을 띠었던 것과 달리 당시 중국 문인들의 자의식을 그리던 야외초상화, 혹은 行樂圖 양식을 띠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 와룡관과 학창의 도상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은일의 모델로 추종되던 도연명(陶淵明)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였다.⁴⁶⁾

③ <화첩본>

김육 초상화 중 화첩본은 반신상은 작가의 찬문과 함께 초상에 대한 기록이 『잠곡유고』에 남아있어 1644년 중국 방문 당시 맹영광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김육은 1643년 12월부터 1644년 9월까지 9개월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원자보양관으로 심양에 머물렀다. 맹영광은 그 시기 연을 맺은 한족 화가로, 김육이 1644년 조선으로 돌아갈 때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초상화를 그려준

41) 「朝京日錄」, 『국역 연행록선집 2권』, pp. 350-358; 조인수, 위의 논문, 재인용.

42) 『潛谷遺稿』 卷二, <題寫眞小軸>.

43) 『樂全堂集』 卷八, 書後「潛谷小像贊」.

44) 『承政院日記』 1063책, 영조 26년 12월 5일(갑술). 이성훈(2019), 306면 및 639면에서 재인용.

45) 『영조실록』 73권, 27년 2월 3일(신미). 조인수(2019) 재인용.

46) 조인수(2019), pp. 137-168.

47) 김육, 『潛谷遺稿』 卷二, 時 七言絕句 一百十日首, 「別寫眞孟永光」

것으로 보인다.⁴⁸⁾ 좌상단에 ‘孟永光寫眞讚’이 적혀 있고, 맹영광의 찬문이 오른쪽에 적혀있다. 다만 맹영광의 찬문에 대해서는 누가 적었는지, 맹영광의 작품인지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⁴⁹⁾

김육 초상 화첩본은 후대에 《김육화상첩》으로 장첩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육 초상(화첩본)>이 제작된 시기는 1644년이지만 화상첩에는 숙종, 영조, 정조에게 내려 받은 어제찬이 각각 김육의 후손 김성하(金聖廈, ?~?) 김시묵(金時默, 1722~1772) 김지묵(金持默, 1725~1799)에 의해 이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청풍김씨 가문 후손들에 의해 장첩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첩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김육화상첩》은 총 20면으로, 제 2면에는 맹영광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육 초상(화첩본)>이 장황되어 있다.⁵⁰⁾ 이어 제 3면과 4면에는 <김육 초상(와룡관본)>에 대해 신익성의 찬문이 남아있다. 제 5면에서 16면까지는 1641년에 김육이 동갑 인사들과 계회를 가진 후 작성한 <계회서(契會序)>와 계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강석기(姜碩期, 1580-1643) 등이 작성한 7언 율시가 적혀 있다. 제 17에서 20면까지는 숙종, 영조, 정조가 내린 어제찬이 후손에 의해 이서되어 있다. 숙종과 영조의 어제는 앞서 언급한 것이며, 정조의 어제는 『홍제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¹⁾ 정조가 어떤 계기로 김육의 초상을 보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정조 어제찬은 숙종, 영조 어제찬을 차운하였으며, 영조의 어제찬과 마찬가지로 ‘대동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김육화상첩》은 <김육 초상(화첩본)>, 신익성의 찬문과 후손들에 의해 이서된 세 국왕의 어제찬, 그리고 1641년 김육이 참여한 갑회계에 대한 기록 등 3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김육화상첩》에 포함된 내용은 김육 관련 기록 중 후대 국왕들에 의해 언급되거나 어람된 것들을 묶어 보여줌으로써 청풍김씨 가문을 일으켰던 김육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말 정치적 몰락을 겪은 청풍 김씨 가문이 18세기에 들어 다시 정계에 진출하면서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왕의 총애를 얻었던 김육을 중심으로 화상첩을 재제작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문헌자료

48) 기존의 연구는 『權域書畫徵』의 기록에 따라 맹영광의 조선 입국이 소현세자의 1645년 입국과 함께 이뤄졌다고 했지만, 『仁祖實錄』에 따르면 맹영광은 인평대군과 함께 1647년 조선에 입국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육과 맹영광은 1644년 심양에서 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일환, 「漢族화가 孟永光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기억들」, 『동아시아문화연구』 60(2015), pp. 107-131.

49) 이성훈(2019), 746-747면.

50) 화첩 구성에 대한 설명은 이성훈, 앞의 논문, p. 304.

51) 『弘齋全書』 卷4, 「敬次肅廟大朝御製韻 題文貞公金垵小眞」. 清高遺像 彷彿儀風/大同經綸 一心奉公/濟世之才 肝膈之忠/存心愛物 謹厚筋躬/民賴于今 至誠所通/允矣君子 千載欽崇.

참고 문헌 (가나다순)

- 김일환(2015), 「漢族 화가 孟永光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기억들: 명청교체기 명나라 포로와 조선 지식인의 만남」, 『동아시아문화연구』 60
실학박물관, 『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보고서』, 2014, pp. 22-29.
- 안휘준(1979), 「來朝 中國人畫家 孟永光에 對하여」, 『全海宗博士 華甲紀念私學論叢』, 一潮閣
- 이경화(2018),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 36
-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9), pp. 744-745.
- 정은주,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 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33(명청사학회, 2010).
-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 조인수, 「잠곡 김육의 초상화 세 점에 대하여 -제작과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37(한국실학학회, 2019).
-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연구소, 1999.3).

○ 원전문헌

金堉, 『朝京日錄』 (『潛谷遺稿』 卷十四 및 『국역연행록선집 2권』)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髦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髦,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 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爨一席。接殷勤

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 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尚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堦。序

肅宗 御製, 『列聖御製』 권16 「潛谷金相國畫像贊」

蒼顏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

英祖 御製 1

綸巾鶴氅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

英祖 御製 2

當宁御製 英宗大王
吁嗟此日追思公
白髮蒼顏已暮翁
六十五旬豈曰異
今來古往亦云同

綸巾鶴氅即常服
 烏紗綠袍屬畫工
 何意得看潛谷像
 題詩聊次數篇中
 五世孫時默奉教書

正祖 御製, 『弘齋全書』 卷四 春邸錄四 <敬次肅廟大朝御製韻 題文貞公金墳小眞>

清高遺像 彷彿儀風
 大同經綸 一心奉公
 濟世之才 肝膈之忠
 存心愛物 謹厚飭躬
 民賴于今 至誠所通
 允矣君子 千載新崇

○ 기 타

잠곡 김육의 후손가에서 2007년, 2008년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포함됨.



그림139. 김육 초상
 (전신좌상본, 1650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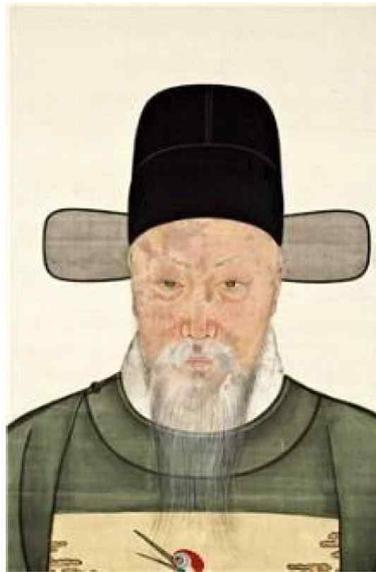


그림140. 김육 초상
 (전신좌상본 세부)



그림 141. 김육 초상
 (의룡관본, 1636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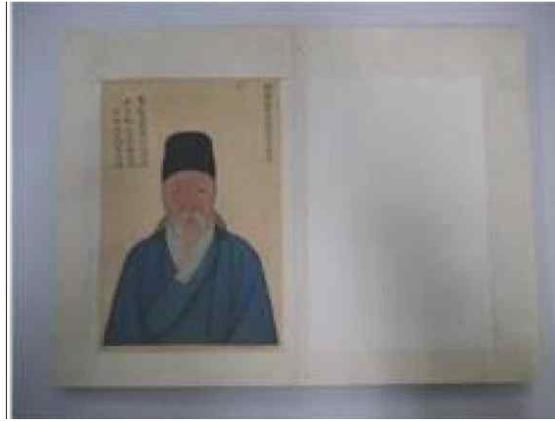


그림142. 김육 초상(화첩본), 17세기 전반

보완조사보고서

□

○ 현 상

<김육초상 일괄유물>은 김육(金堉, 1580-1658) 초상화 3점(족자 2점, 화첩 1점)과 목제 보관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1) 전신좌상본

김육이 1636년 동지사 자격으로 명에 갔을 때, 중국화가 호병이 제작한 초상화이다.(도1) 『조경일록』에 따르면, 김육이 북경에 머물렀던 1637년 3월 13일에 그리기 시작하여 4월 11일에 완성되었다고 전한다.

녹색단령에 사모를 갖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호피를 덮은 교의(交椅)에 앉아 있는 김육의 전신좌상본이다. 배채를 생략하고 앞면에서만 채색 처리하였으며, 바탕의 비단 재질이 얇아 족자를 말아 보관하는데서 비롯되는 주름 손상이 심하지 않다. 안면에 얼룩과 흑화 현상이 있으며, 바탕에도 얼룩이 있다. 신체의 윤곽선을 담필로 먼저 표현한 후, 농필로 덧그린 흔적이 확연하게 남아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영의정잠곡김문정 공화상(領議政潛谷金文貞公畫像)’이란 제목과 함께, 숙종(肅宗)의 어제찬(御製贊)이 있다.

蒼顏鶴髮望如仙風
厥像伊誰潛谷相公
大賢之後傳家孝忠
正色廊廟盡瘁鞠躬
一心體國神明可通
於乎先正小子欽崇



도 143 전신좌상본

2) 와룡관본



도 144 와룡관본

1637년 제작된 소상(小像)으로, 소나무 아래 와룡관(臥龍冠)과 학창의(鶴擎衣)를 입고 서있는 김육을 표현한 초상화이다.(도2) 김육의 전신좌상본과 같이 배채를 생략하고 비단 앞면에서만 채색하였다. 옷과 안면의 일부가 검게 변질되었다. 화면 좌측 상단에 ‘호병지인(胡炳之印)’, ‘화학행인(畵鶴行人)’의 인장이 찍혀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1751년에 제한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綸巾鶴擎倚立松風，
是誰之像潛谷金公。
昔之股肱爲國丹忠，
效古人義竭心鞠躬。
大同謀畫可謂神通，
吁嗟小子百載欽崇。
辛未二月

3) 화첩본



도 145 화첩본

雪髮霞儀外形內德
君子觀之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

김육의 상반신 초상화와 어제시가 수록된 화첩으로, 표지를 포함한 총 32면의 절첩본이다. 4편의 어제와 1점의 김육 반신상, 1편의 화상찬, 계획서, 좌묵, 연작시 등이 함께 실려 있다.

3면부터 6면까지 어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숙종의 어제는 현손(玄孫)인 김성하(金聖廈), 영조의 어제는 5세손인 김시묵(金時默 : 정조의 장인), 정조의 어제는 김지묵(김시묵의 사촌)이 글씨를 썼다. 7면부터 12면까지는 비단 바탕의 장황만 되어 있으며, 14면에 김육의 반신상이 수록되어 있다.(도3) 화면 우측 상단에 <영의정 잠곡김문정공소진(領議政潛谷金文貞公小眞)>이라는 표제가 있고, 좌측에는 맹영광의 화기가 있다.

17면부터 20면까지는 계획서(契會序)로, 19면까지는 김육이 짓고, 20면은 강석기가 지었다. 庚辰年(1580년) 현직에 재직 중이던 동갑 동료들의 친목계이다. 21면부터 24면까지의 좌목(座目)에 김육의 이름이 보인다. 26, 27면은 위의 계획원들의 연작시(連作詩)로, 죽소(竹所) 김광욱(金光煜), 잠곡 김육, 월당(月塘) 강석기(姜碩期), 입암(笠巖) 이성신(李省身)이 60세가 되어 인생의 회환에 대한 내용을 이어 지으며, 서로의 우의를 다진 내용이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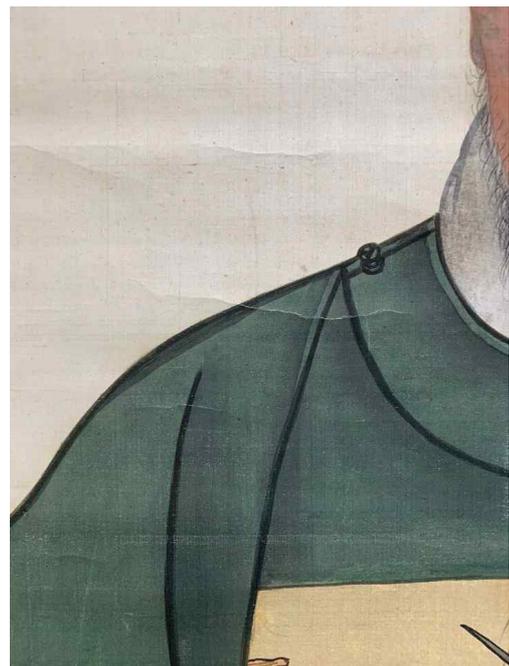
1) 전신좌상본

녹색단령과 사모는 직조 및 문양 표현이 없으며, 관대의 문양 또한 단순하다.(도 4, 7 참고) 흉배의 크기가 가슴 전체를 덮을 만큼 크게 그려졌고, 운학문도 생략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서 조선시대 사모관대 및 흉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도7)

안면에는 두텁고 붉게 채색된 안료의 변질로 인해 흑화현상이 진행되었다.(도4) 의습선은 담필 위에 굵고 진한 윤곽선을 여러 번 덧대어 그은 표식이 드러나며, 굵은 윤곽선과 의습선 주변으로는 진한 음영법을 가하였다.(도5) 화면 오른쪽 하단에 액체가 튄 얼룩이 남아 있다.(도6)



도 4 전신좌상본 부분



도 147 전신좌상본 부분



도 6 전신좌상본 부분



도 7 전신좌상본 흉배 부분

2) 와룡관본

와룡관의 단순한 형태, 경직된 윤곽선 등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전신초상본과 같이 두텁게 칠해진 안면과 흰색 도포에 흑화현상이 보인다.(도8)

3) 화첩본

중국식 관모와 복식을 하고 있으며, 전신좌상본과 같이 직조나 문양은 생략되었다. 복식은 전신좌상본과 같이 굵은 의습선을 중심으로 짙은 음영이 드러나 있으며, 전체적으로 작은 얼룩 및 울 트임이 있다. 전신좌상본과 와룡관본에 비해 안면 채색이 얇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충혈된 눈을 표현한 듯 흰자위에 붉은 기가 돌며, 코가 길고 높게 표현되었다.(도9)

□

○ 현 상

김육초상 일괄유물은 김육(金瑨, 1580-1658) 초상화 3점(죽자 2점, 화첩 1점)과 목제 보관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목제 보관 상자는 2017년에 보존 처리됐다.

① 전신좌상본

축(죽자)의 형식으로 된 초상화다. 관복을 갖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호피를 덮은 교의(交椅)에 앉은 좌상을 표현했다. 배채를 생략하고 비단 앞면에서만 채색 처리했다. 비단 뒷면에 1배접 처리만 한 듯, 바탕 재질이 상당히 얇다. 안면부에서 일



도 1 <전신좌상본>

부 흑화 현상이 발견되고, 바탕 비단도 일부 손상됐다. 관복, 흉배, 호피의 묘사가 엉성하고, 의복 주름에 음영이 깊게 표현됐다. 사모나 관복의 비단 직조도 생략됐다. 신체 윤곽선을 담필로 먼저 긋고 그 다음에 농필로 두껍게 다시 덧그었다. 화면 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찬(御製贊)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蒼顏鶴髮望如仙風
 厥像伊誰潛谷相公
 大賢之後傳家孝忠
 正色廊廟盡瘁鞠躬
 一心體國神明可通

於乎先正小子欽崇

이 밖에도 유소(流蘇)가 있지만 가늘고 드리개도 작아서 원래의 것인지 확실하기 어렵다. 원통형의 보관함은 2017년에 실학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된 상태다.

②와룡관본



도 2. <와룡관본>

축(족자)형식으로 된 초상화다. 김육이 와룡관(臥龍冠)을 쓴 평상복 차림으로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다. 배채를 생략하고 비단 앞면에서만 채색 처리했다. 화면의 비단과 채색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옷과 안면에 일부 흑화 현상이 나타났다. 화면 좌측 상단에 ‘호병지인(胡炳之印)’, ‘화학행인(鶴鶴行人)’의 인장이 찍혀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1751년 영조의 어제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綸巾鶴髦倚立松風，
 是誰之像潛谷金公。
 昔之股肱爲國丹忠，
 效古人義竭心鞠躬。
 大同謀畫可謂神通，
 吁嗟小子百載欽崇。
 辛未二月

③ 화첩본



도 3. 화첩본

김육의 상반신 초상화와 어제시가 수록된 화첩이다. 보라색 표지를 포함한 총 32면의 절첩본이다. 보라색 비단으로 덮은 표지에는 용이 시문되어 있다. 중간에 비어 있는 엽(葉)이 있다.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잠곡선생소상찬(潛谷先生小像讚)」이 적힌 13-14면은 바탕재질이 좋고, 나머지의 바탕 재질은 전부 비단이다. 화첩에 수록된 김육의 초상화는 검은색 사모와 푸른색 도포를 입은 정면상이다. 피부 표현에 흑변이 있고, 다른 2점의 초상화와 달리 충혈된 눈이 표현됐다. 관모는 조선이 아닌 명대 관모형식을 갖추었고, 복식에는 음영이 강하게 드러났다. 무배경이며 상단 우측에

“영의정잠곡 김문정공소진(領議政潛谷 金文正公小眞)”이라는 제목이, 좌측에 맹영광(孟永光, 1590-1648)이 지은 찬문(讚文)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雪髮霞儀外形內德
君子觀之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

이 밖에도 화첩에는 김육의 5대손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김지묵(金持默, 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강석기(姜碩期)의 「附序」, 계획의 좌목(座目), 계원의 시 일부 등이 합쳐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김육은 명청 교체기에 4번에 걸쳐 사행을 다녀왔다. 1636년에는 명나라 동지사(冬至使)로, 청 왕조가 세워진 이후인 1643년에는 심양(瀋陽)에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1645년에 사은부사로 연경(燕京)에, 1650년에 진향사(進香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실학박물관에 소장된 김육 초상 일괄은 김육이 1636년 동지사로 명을 방문한 이후에 제작된 작품군으로 판단된다.

① 전신좌상본

김육이 1636년 동지사로 명을 방문했을 때, 중국 화원 호병(胡炳)이 제작한 그의 58세 초상으로 추정된다. 『조경일록(朝京日錄)』에 따르면 김육이 북경에 머물

렸던 1637년 3월 13일에 호병이 <전신좌상본>을 그리기 시작하여 4월 11일 완성했다.

김육이 정면관을 한 채 사모와 녹색단령을 갖추었고, 표피(豹皮)가 깔린 흑칠 교의에 앉아 있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다소 작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명대 관복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조상 숭배를 위한 조종화(祖宗畵) 형식의 초상화인 셈이다. 국내 초상화의 경우, 17세기 전반에는 채전 위에 의자와 족좌대를 배치했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는 관복본 초상의 교의에 표피나 호피를 두는 형식이 일반화된다. 또한 정면관의 조종화도 이 시기부터 확산된다.

이 초상화를 그린 중국 화가는 당시 조선의 복식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김육이 착용한 관복의 운학문 흉배는 전체 가슴을 덮을 정도로 크게 그려졌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공신도상에서는 흉배 표현이 매우 꼼꼼하고 화려하며 정확하다.(비교자료 : <이시방 초상>, 1623년 경, 보물 1482) 흉배는 해당 인물의 관직과 신분을 알려주는 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작품의 경우 한 마리의 학과 구름이 대충 표현되어 있다.

또한 초상화에서 김육이 착용한 사모의 표현도 어설피다. 통상 조선의 초상화에서는 사모의 비단 직조와 무늬를 섬세하게 표현한다.(비교자료 : <이상길 초상>, 16-17세기, 보물 792호) 그러나 이 초상화에서는 비단 직조의 문양이 완전히 생략됐다. 이러한 현상은 김육이 착용한 관복 묘사에서도 발견된다. 관복은 담필의 선으로 옷의 외형과 주름을 표현한 후 농필의 선으로 덧그어서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복식은 명대 관복 초상과 마찬가지로 운보문 등에 대한 묘사를 완전히 생략한 채, 녹색으로 채색하고, 주름사이에 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비교 자료: <이성윤 초상>, 1613년 경, 보물 1490호)

안면은 माम로 얽은 흥터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됐다. 눈꺼풀, 콧망울, 입술에는 붉은색 선이 사용됐다. 피부색이 다소 두텁게 채색됐고 윤곽선도 굵고 둔탁하게 구사됐으며, 윤곽선 주변에 음영을 깔아 입체감을 살렸다. 이러한 묘사방법도 동시대 조선의 초상화와 차이가 있다. 분홍 피부색의 배합을 위해 사용된 연백의 변질로 일부 얼굴에 검은 얼룩이 발생했다.



전신좌상본 흉배 부분



<이시방 초상>, 1623년 경, 보물 제148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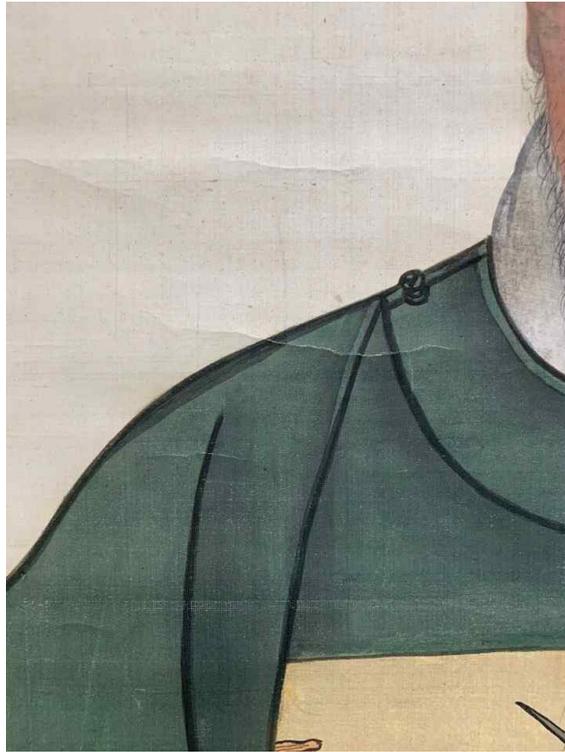
<전신좌상분> 세부



<이상길 초상>, 16-17세기, 보물 792호



《기사계첩》의 김창집 초상, 1719년, 국보 제325호



<전신좌상본> 세부



<이성윤 초상>, 세부, 1613년 경, 보물 1490호

②와룡관본

김육이 평상복 차림으로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야외초상화이다. 배채의 흔적이 전혀 없고, 비단에 1배접만 되어 있어, 바탕재질이 얇은 편이다. 김육이 1636년 동지사로 명을 방문했을 때, 중국 화원 호병이 제작한 그의 58세 초상으로 추정된다.

『조경일록(朝京日錄)』에 따르면, 호병이 <전신좌상본>을 완성한 다음, 4월 15일에 김육의 작은 초상(小眞)을 한 점 더 그렸다. 김육은 호병이 작은 초상을 그려 오자 양 한 마리, 거위 한 마리, 인삼 석냥, 부채 세 자루를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작품을 보관한 목제상자 내부에 후손이 써 놓은 쪽지에는 1636년 청나라 화가 호병이 김육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적혀있다. 피부색이 다소 두텁게 채색됐다. 분홍색의 배합을 위해 사용된 연백의 변질로 일부 얼굴에 검은 얼룩이 발생했다. <전신좌상본>과 <화첩본>에 비해 얼굴 표현이 섬세하다. 와룡관의 경우, 여타 국내 작품의 와룡관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묘사가 생략되어 있다. 야외연거복(野外燕居服)의 초상은 중국에서 널리 확산됐으며, 조선에서도 17세기 후반부터 유통됐다. 이 작품이 조선에서 제작된 야외연거복 초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③화첩본

보라색 표지를 포함한 총 32면의 절첩본이다. 4편의 어제와 1점의 김육 반신상, 1편의 화상찬, 계획서, 좌목, 연작시 등이 함께 실려 있다. 화첩본 제작과 연관된 기록은 『잠곡유고』에 남아 있다. 김육은 1643년 12월부터 1644년 9월까지 9개월간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의 원자보양관으로 심양에 머물렀고, 맹영광이 조선으로 귀국하는 김육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초상화를 그려준 것으로 추정된다. 김육의 초상이 제작된 시기는 1644년이지만 화첩본은 18세기 청풍 김씨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장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면에서 6면까지 숙종, 영조, 정조가 내린 어제찬이 후손에 의해 이서(移書)됐다. 숙종의 어제는 현손(玄孫)인 김성하(金聖廈), 영조의 어제는 5세손인 김시묵(金時默 : 정조의 장인), 정조의 어제는 김지묵(김시묵의 사촌)이 글씨를 썼다. 7면에서 12면까지 비어 있다. 14면에 맹영광이 그린 초상화가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영의정잠곡김문정공소진(領議政潛谷金文貞公小眞)>이라는 표제가 있고, 좌측에는 맹영광의 화기가 있다.

雪髮霞儀外形內德
君子觀之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

15, 16면에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잠곡선생소상찬(潛谷先生小像讚)」이 있다. 17면에서 20면까지 1680년생 동갑계 서문이, 21면에서 24면까지 참석자 좌목이 있다. 25, 26면은 비어있고, 27면부터 동갑계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강석기(姜碩期, 1580-1643) 등이 작성한 7언 율시가 있다. 1680년생 동갑계와 연관된 서문,

좌목, 7인 율시는 원래 반신상 초상화와는 무관하나 정조 연간에 함께 장첩된 것으로 보인다.

김육의 반신 초상화는 중국식 관모와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복식은 음영 표현이 강하게 구사되어 입체감이 잘 드러나고 관모는 검은 색으로 단순하게 표현됐다. 그러나 관모와 복식의 섬세한 무늬나 비단 직조는 생략됐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붉은 기운을 띠고 있으며, 나머지 두 점의 초상화에 비해 코가 길게 묘사됐다. 일부 흑화 현상과 비단 울의 굵힌 자국이 보인다.

○ 문헌자료

실학박물관, 『청풍김씨김육가문 기증자료 보고서』, 2014.

이경화,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3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정은주,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 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 33, 명청사학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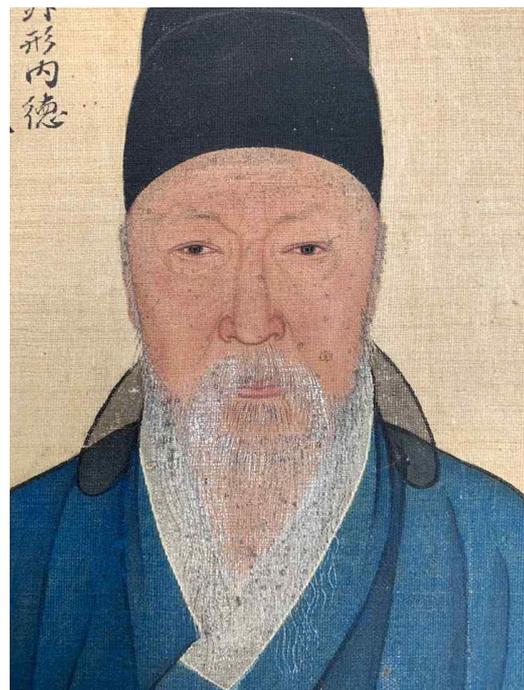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심으로」, 『미술사논단』 14, 한국미술연구소, 2002

조인수, 「잠곡 김육의 초상화 세 점에 대하여 -제작과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37, 한국실학학회, 2019.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와룡관본 부분



화첩본 부분

○ 문헌자료

실학박물관, 『청풍김씨김육가문 기증자료 보고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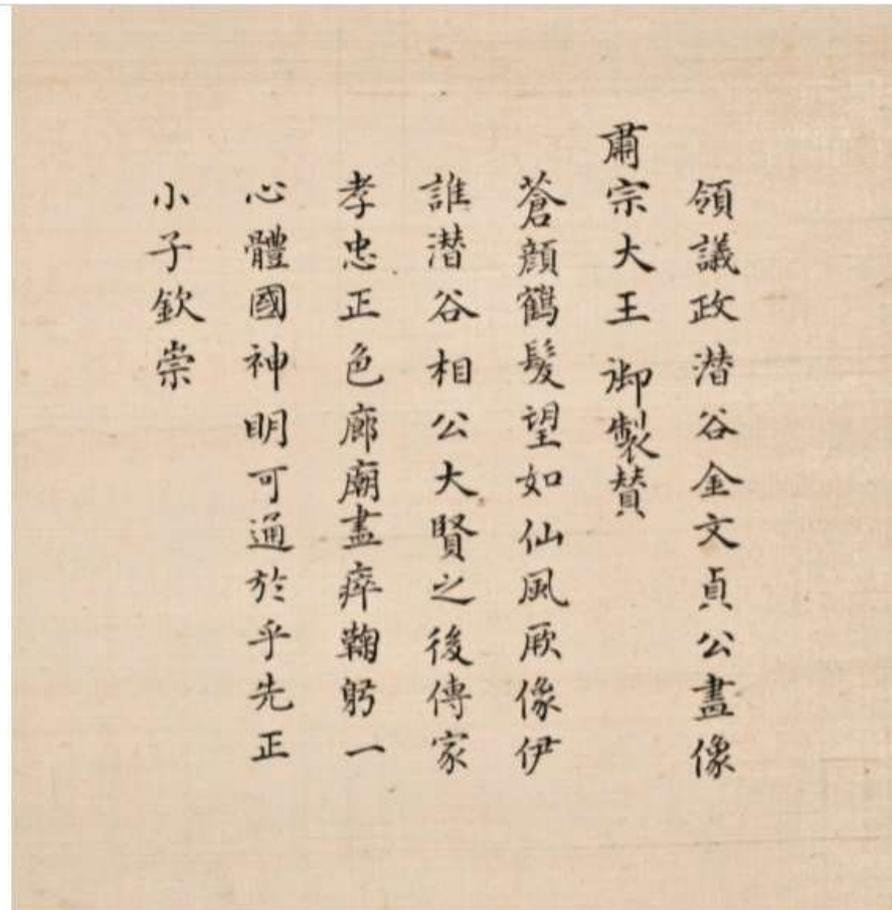
이경화,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3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8.

정은주,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 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 33, 명청사학회, 2010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심으로」, 『미술사논단』 14, 한국미술연구소, 2002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참고> 김육초상 서발문 내용



도 1-1. 숙종대왕 어제찬 肅宗大王御製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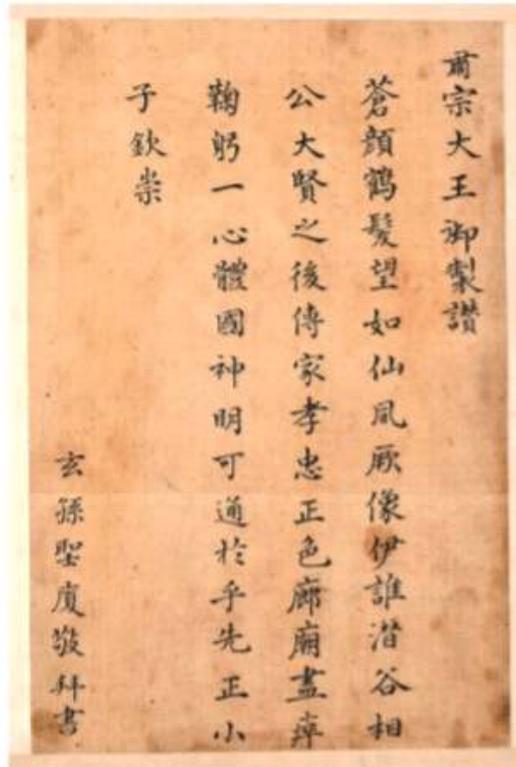
領議政潛谷金文貞公畫像

蒼顏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

영의정 잠곡 김문정공 화상

야원 얼굴과 백발은 바라보니 신선 풍격이로다.
그 상은 누구인가, 잠곡 상공이로세.
대현의 후손으로 집안에 충효 전하고
엄숙한 태도로 의정을 맡아 몸 바쳐 일했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신명이 통할만하다.
아, 선현이여, 소자 흠양하옵니다.

<전신좌상본> 숙종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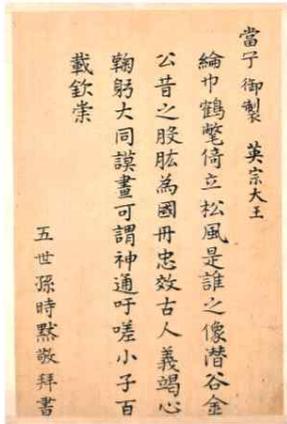
3면. 김성하, 건본묵서

숙종대왕 어제찬 肅宗大王 御製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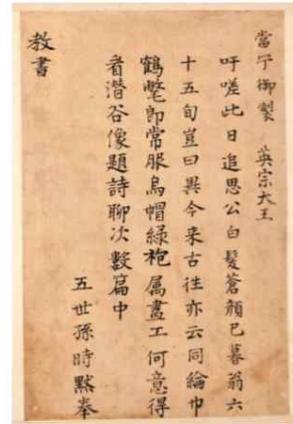
蒼顏鶴髮，望如仙風。
 厥像伊誰，潛谷相公。
 大賢之後，傳家孝忠。
 正色廊廟，盡瘁鞠躬。
 一心體國，神明可通。
 於乎先正，小子欽崇。
 玄孫聖廈敬拜書

아원 얼굴과 백발의 모습, 바라보니 신선 풍격이니.
 그 누구를 그린 것인가, 잠곡 상공이로다
 대현의 후손으로 대대로 집안에 충효 전하고
 엄정한 태도로 정사를 맡아 온 몸 바쳐 수행하였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니 신명이 통할만하다.
 아, 선정을 후인들은 흠양하리라.
 현손 성하 경배하여 쓰다.

<화첩본> 숙종어제



4면, 김시목, 견본목서



5면, 김시목, 견본목서

영종대왕 어제 英宗大王 當寧御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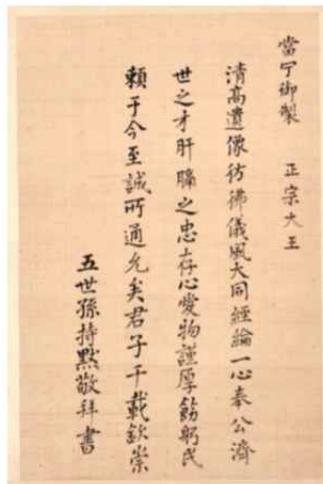
綸巾鶴髦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為國丹忠 效古人義 竭心
 大圖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五世孫時默敬拜書

윤건 쓰고 학창의 일고 솜바람 맞으며 서있으니
 이 그림 누구의 모습인가? 잠곡 김공이로다.
 과거 훌륭한 대신으로 나라 위해 충성하고
 옛사람의 의로움 본받아 진실으로 직분을 다하였네.
 대동법을 설계하니 신동하다 할 만하니,
 아, 후대인들은 매년토록 존경하리라.
 오세손 시묵 경배하여 쓰다.

영종대왕 어제 英宗大王 當寧御製

吁嗟此日 追思公白 髮蒼顏 已暮翁 六
 十五旬 豈曰異今 來古往 亦云同 綸巾
 鶴髦 卽常服 烏帽綠袍 屬畫工 何意得
 看 潛谷像 題詩 聊次 數篇 中
 五世孫時默奉 教書

아아, 오늘 공을 추억하건대
 백발에 아연 얼굴 이미 나이 들었네.
 65세 나이 어찌 다르다 하겠는가.
 예니 지금이나 또한 같네
 윤건에 학창은 일삼락이고,
 사모에 녹포는 바로 화가의 솜씨다.
 어떤 의미로 잠곡상을 보고 있는가.
 예오라지 시묵 지어 차운할 마음이지.
 오세손 시묵 교서를 받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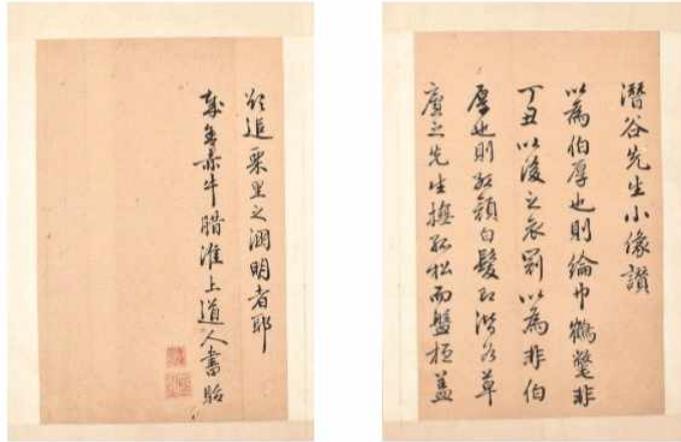


6면, 김지목, 견본목서

정종대왕 어제 正宗大王 當寧御製

清高遺像 彷彿儀風 大同經綸 一心奉公 濟
 濟世之才 肝膈之忠 存心愛物 謹厚飭躬 民
 賴于今 至誠所通 允矣君子 千載欽崇
 五世孫時默敬拜書

맑고 높구나, 공의 화상이여, 생전의 풍채와 방불하네.
 대동법에 큰 경륜 펼쳐 끝내 한마음으로 봉공하였고
 세상을 구제할 재능과 마음을 다하는 충성은
 백성 사랑에 마음 두어 근면하고 후하며 신칙하였네
 백성이 지금까지 은택 입으니 지극한 정성이 감동한 것
 참으로 훌륭한 군자로다, 후손은 길이 숭앙하네.
 오세손 지목 경배하여 쓰다.



15~16면, 동회거사 신익성 申翼聖, 1588~1644, 自本 문서

以為伯厚也 則綸巾鶴髦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為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潛谷草廬之先生 撫孤松而盤桓 蓋欲追粟里之潤明者耶 歲舍赤牛臘准上道人書貽

이 사람이 백후^{伯厚}라고 하자니, 윤건^{綸巾} 쓰고 학장의^{鶴髦}를 입어 1637년 신분이 아니다. 이 사람이 백후가 아니라고 하자니, 붉그레한 얼굴, 흰 머리 성성하니 곧 잠곡의 초가집에 살던 그 모습이다. 여기 소나무 어루만지며 소요하니 아마도 윤리^{栗里}에 살던 도연명^{陶淵明}을 따르고자 했던 것인가. 정축년 회상도인이 써서 주다.

<화첩본> 찬문

潛谷金文貞公畫像 御製贊 잠곡 김문정공 화상 어제찬

綸巾鶴髦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

윤건 쓰고 학장의 입고 솔바람 의지하고 서있으니
 이 누구의 상인가? 잠곡 김공이로세.
 과거 고굉 대신으로 나라 위해 충성하였으니
 옛사람의 뜻을 본받아 혼신으로 직분을 다하였네.
 대동법을 모획한 것 신통하다 할 만하니,
 아, 후손들은 백세토록 숭앙하네
 1751년 2월

<와룡관본> 영조어제

9. 남구만 초상 일괄 (南九萬 肖像 一括)

가. 검토사항

‘남구만 초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남구만 초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7.) 및 과학조사(’20.5.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남구만 초상 일괄(南九萬 肖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의령남씨 문충공파 대종회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134, 의령남씨 문충공파
- 수 량 : 3점(①관복전신좌상, ②야복전신좌상, ③시복반신상)
- 규 격 : ① 관복전신좌상 : 화면 145.9×88.4cm, 전체 219×101.6cm
② 야복전신좌상 : 화면 163.3×89cm, 전체 218×106.1cm
③ 시복반신상 : 화면 53.7×37.3cm, 전체 97.5×46.6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① 관복전신좌상 : 18세기 후반, ② 야복전신좌상 : 1698년(숙종 24) 추정
③ 시복반신상 : 18세기 전반
- 제작자 : 미 상



그림 168. 관북전신좌상



그림 169, 야복전신좌상



그림 170. 시복만신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미흡)

현재 종가에 전해지는 남구만의 초상화 3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남구만과 관련된 자료들이자 조선 후기 정치적, 사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소론계의 영수 남구만의 초상화로서 역사적, 회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회화적인 측면에서도 독특한 구성과 표현, 예술적 표현력을 구사하여 어느 정도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남구만 초상화>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동일한 도상과 표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작시기가 보물 제 1484호 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작품들과 관련된 제작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실들을 확정하기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또한 관련된 기록 등 자료가 미비하여 고증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먼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이후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南九萬(1629~1711)의 초상화 3점은 모두 정면관 초상화로서 정확한 필선과 유려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①관복의좌상은 복식과 형식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의 이모본으로 판단된다. ②야복의좌상은 화원 卞良이 1698년 그린 원본 2점 중 한 점으로 보이며, 화양건과 학창의 테두리의 검은색과 옥색 비단의 강렬한 대비가 뛰어난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 야복본 초상화 중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보인다. ③반신상도 정밀한 표현이 돋보이는 수작이나 안면과 목 부위에 검은색 오염이 진행되어 시급히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이상 세 점의 초상화는 조선후기 대표적 정치가이자 경륜가, 문인이자 예술적 소양을 구비했던 남구만의 초상화로서 종손가에 귀중히 보존해 온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세 점과 관련된 역사적, 회화사적 고증이 완비되지 못한 점에서 일단 국가지정문화재 보다는 지방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상세한 고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남구만 초상화 일괄’ 3점은 모두 유려한 필선과 정교한 채색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는 작품들이다. ①<관복본전신좌상>은 복식의 형태 및 화풍으로 보아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이모본 초상화로 판단된다. ②<유복본전신좌상> 변량이 1698

년에 제작한 2분의 초상화 중 한 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창의 테두리의 검은색과 옥색 비단의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야복본 초상화 중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③<관복본반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구만 초상>과 표현 양식이 유사한 작품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정치가이자 학자인 남구만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기의 세 초상화는 남구만의 종손가에서 대대로 보존해 온 작품들로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작품에 그 제작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이 초상화들의 제작 시점 및 제작 과정 등이 초상화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이 초상화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해 장황 형식, 비단의 상태, 안료 등이 작품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관련 문헌 조사를 병행하여 이 작품의 작가, 제작 시점, 제작 과정 등이 초상화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현 상

南九萬(1629-1711)의 초상화 3점 일괄 유물은 종가에 전해지는 작품들로서 모두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3점의 초상화는 각기 복식과 관모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正面觀으로 표현되었다.

① <관복전신의좌상>은 관복을 입은 채 교의 위에 정면을 향해 앉은 전신좌상이다. 화면의 하부에 나타나는 족좌대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좌우 교의의 손잡이가 화면에 바짝 붙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래의 화면은 이보다 조금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 소장자는 수리사실을 알지 못하나, 종종 다른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전 소장가 종손 남표희 씨가 1960년대 후반 배접이 너무 두꺼워 꺾임 현상이 일어나 재장황하였다고 한다. 화면이 일부 잘려져 나간 것은 이때 생긴 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채와 가필이 없고, 화면 하단에 약간의 가로금이 나타나는

것 이외에 화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족자의 하단 축봉이나 유소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② <야복전신좌상>은 華陽巾을 쓰고 儒服이라 불리우는 鶴氅衣를 입은 채 斑竹, 반점이 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정면 초상화이다. 이러한 관모는 조선시대 중 초상화에 등장하는 경우가 희귀할 뿐 아니라 학창의의 검고 두꺼운 테두리가 유난히 두드러지며 옥색 비단과 대비되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신발도 특이한 모습이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한 소재와 표현을 가진 작품이다. 화면 좌상단에는 남구만의 門人인 崔錫鼎(1646-1715)이 지은 초상화찬을 玄孫인 進和가 훗날 썼는데, 보물 제1484호로 지정된 국립박물관 소장 <남구만 초상>에 기록된 화찬과 동일한 내용이며, 같은 내용을 가진 글이 崔錫鼎(1646-1715)의 『明谷集』 卷之十一에 「藥泉南先生畫像贊」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가필과 가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인가 새롭게 장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모와 옷의 일부는 후대에 가채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그 부분도 변색된 상태이다. 먹으로 칠해진 부분도 후대에 가채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먹색이 두텁게 보이며 탁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족자의 후면에도 화면의 격인 부분에 띠를 대어 보수한 흔적이 있다. 앞 쪽 화면에도 전반적으로 잔금이 있고, 화면이 박락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③ <時服 半身像>은 ①관복의좌상의 초본이라고 알려져 왔던 작품으로 안면의 표현은 다른 본과 유사하다. 복식은 ①관복의좌상 보다는 보물 제1484호 국립박물관 본과 흡사하다. 반신상은 안면부와 목부분에 뒷부분에서 스며든 듯한 회색빛 오염이 그림 표면으로 올라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복의 채색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본은 화면의 견본 상태가 양호하고, 가필과 가채의 흔적이 없으며, 장황도 원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면 뒤쪽 부분도 상태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藥泉 南九萬(1629~1711)은 조선 후기 소론계의 영수로서 1665년 별시문과로 급제한 후 1684년 우의정, 1687년 영의정에 올랐다. 숙종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문장과 서화, 역사 고증에도 해박하여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이기도 하였다.

종가에 소장되어온 남구만의 초상화 3점은 복식과 표현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모두 正面觀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면관은 중국에서 유행한 형식인데 17세기 후반 중국에 사신으로 간 문인들이 중국화가로부터 초상화를 그려 귀국한 이후 조선에서도 상당수 그려졌는데, 남구만 초상은 그 중 대표적 예로 알려져 있다. 세 점의 초상화는 모두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졌고, 긴 족자로 장황되

어 있다. 3점 모두 안면(顔面)의 모습과 표현의 거의 유사하며, 섬세한 선묘를 구사하였고, 채색도 뛰어난 작품들이다. 그러나 눈동자 중 안정의 표현을 비교해 보면 ①관복의좌상과 ③時服 半身像은 유사하지만, ②야복전신좌상은 위의 두 작품과 차이가 있다.

①관복의좌상은 보물 제1484호인 국립박물관본과 유사한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그런데 좌상단에 최석정의 찬문이 기록되지 않았고, 표현 방식에서도 제작시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관복 부분의 표현에 문양은 이어지고 있어서 관념적인 표현이지만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의자에 깔린 표피와 호피의 표현이 극사실적이며, 흥배의 모습과 관대의 위치, 교의의 손잡이의 모양, 섬세하고 정교한 화문석의 문양 표현에서 18세기 후반의 이모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안정과 동공의 묘사는 간결한 편으로 두 단계 정도 어둡고 밝은 대비를 하고 있고, 동공은 검은 색으로 표현한 점과 족좌대 하부 목재의 표현에 입체감이 나타난지 않는 점에서는 원본과 유사한 요소가 있다.

② 야복전신좌상은 ①이나 ③반신상에 비해 훼손이 비교적 심하지만 예술적인 표현력이 뛰어나다. 화양건과 학창의의 테두리를 진한 검은 색으로 칠하였는데, 비록 후대에 덧칠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옅고 고운 옥색과 그 안의 연녹색으로 섬세하게 표현된 학창의의 색조와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자아낸다. 眼睛 표현은 ①관복본과는 차이가 있어서 다른 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초상화 역시 1960년대 후반에 수리되었다고 한다.

보물 제1484호본은 최석정의 찬문에 의거하여 남구만 사후 1715년에 모사된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구만 사후 최석정이 주도하여 해미에 영당을 짓고 남구만의 초상화를 봉안한 사실은 宋徵殷(1652-1720)의 『約軒集』卷之十「水源洞 頌議政致仕南公影堂記」에 기록되어 있다. 해미영당에 봉안한 초상화는 최석정 집안에 전해지던 원본을 보고 모사한 이모본이었을 것이므로 종가에 원본이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과 작품의 상태를 감안하여 볼 때 ②야복전신좌상은 현재는 비록 후대에 가칠과 가필이 더해진 상태이지만 남구만이 살아있을 때인 1698년 화원 卞良이 그린 원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시복 반신상은 ①관복의좌상을 그리기 위해 보물1484호본에 의거해 그린 초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식의 모습이 보물1484호본과 흡사하여 그러한 추정에 일리가 있고, 특히 눈동자의 표현에서 眼睛을 단순하게 두 단계로 표현하는 수법 등이 ①관복의좌상과도 유사하여 동일화가 그린 초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반신상은 관복상과는 별도로 완성된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도 이 초상화의 제작시기는 ①관복의좌상 보다는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南九萬(1629-1711), 『藥泉集年譜』

崔錫鼎(1646-1715), 『明谷集』 卷之十一 「藥泉南先生畫像贊」

宋徵殷(1652-1720), 『約軒集』 卷之十 「水源洞。領議政致仕南公影堂記」

○ 기 타

중중 인사의 전언에 의하면 ①관복의좌상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게 팔려나간 것을 쌀 5가마를 주고 다시 사왔다고 한다.



○ 현 상

南九萬(1629-1711)의 초상화 3점 일괄유물로 모두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3점의 초상화는 모두 正面觀인 점이 특징이다. ① 관복정장의좌상은 정면을 향해 교의에 앉은 坐像이다. 하부 족좌대의 일부가 잘려나가고 좌우 교의의 손잡이가 화면에 바짝 붙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래의 화면이 아님이 확인된다. 현소장자는 수리사실을 알지 못하나, 중중의 다른 본의 증언에 의하면 전 소장가 종손 남표희 씨가 1960년대 후반 배접이 너무 두꺼워 꺾임 현상이 일어나 재장황하였다고 한다. 화면이 일부 잘려져 나간 것은 이때 생긴 일로 판단된다. 족자의 하단 축봉이나 유소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②는 華陽巾을 鶴髦衣를 입고 斑點이 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정면관 초상화이다. 관모도 희귀한 예이고 검고 두꺼운 학창의 테두리에 옥색 비단 빛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신발도 아주 특이한 모습이다. 화면 좌상단에 남구만의 門人인 崔錫鼎(1646-1715)의 초상화찬을 玄孫 進和가 썼는데, 보물 제1484호로 지정된 국립박물관 소장 <남구만 초상>에 쓰인 것과 동일한 내용이며, 崔錫鼎(1646-1715)의 『明谷集』 卷之十一 에 실린 「藥泉南先生畫像贊」 과 같다.

③은 時服 半身像으로 안면의 표현은 다른 본과 유사하다. 복식은 ①관복의좌상 보다는 보물 제1484호 국립박물관본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 본이 ①을 제작하기 위한 초본이라는 추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반신상은 안면부와 목 부분에 뒷부분에서 스며든 듯한 회색빛 오염이 그림 표면으로 올라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藥泉 南九萬(1629~1711)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1665년 별시문과로 급제한 후 1684년 우의정, 1687년 영의정에 올랐다. 숙종대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서인이 노소론으로 분당한 후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었다. 문장과 서화, 역사 고증에도 해박하여 당대 대표적 지식인이기도 하였다.

남구만의 초상화 3점은 모두 正面觀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정면관은 중국에서 유행한 형식인데 17세기 후반 중국에 사신으로 간 문인들이 중국화가로부터 초상화를 그려 귀국한 이후 조선에서도 상당수 그려졌는데, 남구만 초상은 그 중 대표적 예로 알려져 있다. 세 점의 초상화는 모두 비단에 채색으로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3점 모두 안면(顔面)의 표현의 거의 유사하며, 섬세한 선묘와 채색의 뛰어난 작품들이다.

① 관복의좌상은 보물 제1484호인 국립박물관본과 마찬가지로 정면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물1484호본과 달리 좌상단에 최석정의 찬문이 없으며, 양식상 후대적 요소를 많이 보여준다. 즉 흥배의 모습과 관대의 위치, 교의의 손잡이의 모양, 족좌대 위에 그려진 화문석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의 이모본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후반 수리시에 족자의 하단과 좌우면이 조금씩 잘려나갔다.

② 야복전신좌상은 ①이나 ③반신상에 비해 화면의 훼손이 비교적 심하지만 초상화로서의 격조는 뛰어나서 후대 이모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추정된다. 화양건과 학창의의 테두리를 진한 검은 색으로 칠하였는데, 옅고 고운 옥색과 그 안의 연녹색과 함께 어우러져 강렬한 조화를 뿜어낸다. 이 초상화 역시 1960년대 후반에 ①과 함께 수리되었으나 화면은 그런데로 잘 보존되었다고 판단된다. 보물 1484호 본과 비교할 때 거의 같은 크기이며, 안면표현도 흡사하다. 그런데 보물 1484호본에는 최석정의 찬문이 쓰여있는 점으로 보아, 남구만 사후 5년째인 1715년 모사본으로 추정된 바 있다. 남구만 사후 최석정의 주도로 해미에 영당을 지어 초상화 봉안한 사실은 宋徵殷(1652-1720)의 『約軒集』 卷之十 「水源洞。領議政致仕南公影堂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해미영당에 봉안한 이모본은 당시 최석정 집안의 원본을 보고 모사했을 것인데, ②야복전신좌상은 당시 화원 卞良이 1698년 그린 원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야복본과 함께 제작된 관복의좌상은 어떤 연유로 보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종손가에서는 18세기 후반 ①관복의좌상을 새로 제작해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

③ 시복 반신상은 ①관복의좌상을 그리기 위해 보물1484호본에 의거해 그린 초본으로 추정하는 의견이 있다. 이런 추정은 복식의 모습이 보물1484호본과 흡사한 점에서도 지지된다. 그러나 이 반신상도 초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볼 수도 있으며, 관복의좌상 보다 손쉽게 펴 볼 수 있는 용도로 후손가에서 별도로 제

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작시기는 ①관복의좌상 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인다.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南九萬(1629-1711), 『藥泉集年譜』

崔錫鼎(1646-1715), 『明谷集』 卷之十一 「藥泉南先生畫像贊」

宋徵殷(1652-1720), 『約軒集』 卷之十 「水源洞。領議政致仕南公影堂記」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4권 「海美南相國祠堂記」

□

○ 현 상

‘남구만 초상화 일괄’은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초상화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점의 초상화는 현재 모두 족자로 장황되어 있다.

① <관복본전신좌상>은 관복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은 남구만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에서 정면을 향해 앉은 남구만은 쌍학이 수놓아진 흉배가 부착된 흑단령, 1품관의 품대인 서대(犀帶), 그리고 오사모를 착용하고 있다. 족좌대 전체가 화면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화면 하단은 어느 때 장황 과정에서 잘려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족자 상하단의 회장으로 쓰인 비단의 무늬 등으로 볼 때 이 족자의 장황 작업은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유물의 조사 과정에서 종종 인사 한 분이 이 초상화의 이전 소장가인 종손 남표희 씨가 1960년대에 이 초상화를 재장황한 사실을 알려 주셨다. 그에 따르면 남표희 씨는 당시 화면의 꺾임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다시 족자를 꾸몄다고 한다. 다만 족자의 하단 축봉이나 유소는 근래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1960년대에 새로이 장황할 때 장황 장인이 원 족자의 것을 그대로 떼어내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면 곳곳에 구겨졌거나 꺾인 부분이 확인되지만 작품 감상을 크게 방해할 정도의 큰 얼룩이나 훼손된 부분은 없다.

② <유복본전신좌상>은 유복을 착용하고 교의에 앉은 남구만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에서도 남구만은 정면관(正面觀)을 취하고 있다. 이 초상화에

서 그는 머리에 화양건(華陽巾)을 쓰고 몸에는 학창의(鶴擎衣)를 걸쳐 입었다. 그가 앉은 교의는 통죽(筒竹)으로 만들어진 의자로 보인다. 화면 상단 왼편에는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지은 화상찬을 남구만의 현손(玄孫) 남진화(南進和, 1771-?)가 서사한 글씨가 있다. 최석정의 화상찬은 그의 문집 『명곡집(明谷集)』(卷11)에 「약천남선생화상찬(藥泉南先生畫像贊)」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화상찬 앞에는 “領議政致死藥泉先生南文忠公眞”, 그 뒤에는 “門人領議政崔錫鼎贊, 玄孫進和書”의 글씨가 각각 적혀 있다. 화상찬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 보기 힘든 뛰어난 영웅호걸이자
 세 왕을 모셨던 재상이었네.
 깊은 학문과 뛰어난 문장으로 문채를 더하였고,
 높은 식견과 훌륭한 도량으로 세상을 구제하였네.
 청렴과 정직으로 관리와 선비들의 표상이 되었으며
 신의와 은혜로움은 백성이 바란 바에 부합하였다.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 큰 공적을 세웠으며
 어지러운 정국에서는 성심을 다하였네.
 오직 국가를 굳건히 하려는 충성스런 계획을 가져
 담종(湛宗)의 재앙이 닥치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였다.
 그의 덕은 강하면서도 굽힘이 없고
 그의 마음은 공명정대하여 당파를 짓지 않는다.
 한 그루 소나무는 엄동설한 곳곳이 버틴 뒤에야 그것의 절개가 드러나고
 북극성은 하늘의 중심에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이 초상화에 그려진 약천공의 용모를 보며
 약천공의 포부와 기상을 알 수 있네.
 만약 이 초상화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以間世英豪，爲三朝輔相。文之以邃學雄詞，濟之以高識雅量。廉直表卿士之儀，信惠叶軍民之望。績懋於要劇，誠著於板蕩。惟存固社之忠謀，罔恤湛宗之禍謗。其德剛而不訕，其心公而不黨。孤松凌寒而節乃見，魁斗柱天而衆皆仰。觀此七分之容貌，尙亦粗識其規模氣象。若其不可傳者，殆非毫素所肖狀。)

이 초상화는 ① <관복본전신좌상>과 비교했을 때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특히 안면(顔面) 주변으로 비단의 꺾임 혹은 갈라짐 자국이 많이 확인된다. 또한 오랜 세월이 걸쳐 오염물이 커켜이 미세하게 화면에 묻은 탓인지 남구만의 얼굴은 ①의

것에 비해 다소 검게 보인다. 화양건, 유복 등 화면 곳곳에 박락되었거나 구겨진 자국이 다수 확인된다.

③ <관복본반신상>은 남구만을 그린 반신상이다. 이 초상화의 의습 표현은 같은 관복본인 ①과 다소 다르다. 오히려 그것은 보물 제 1484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구만 관복본전신상>의 것과 유사하다. ③ <관복본반신상>의 보존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다만 남구만의 이마 및 양눈 옆 부분 그리고 그가 착용한 내의(內衣)에 회색 얼룩이 넓게 분포된 것이 확인된다. 상황은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초상화의 안면과 목 부위에 검은색 오염이 확인되는 등 그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 내용 및 특징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호는 약천(藥泉), 자는 운로(運路)이다. 165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6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해 관료에 올랐다. 이후 도승지, 부제학, 대사간 등 중앙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1684년에는 우의정, 1685년에는 좌의정, 그리고 1687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1698년에는 기사(耆社)에 입사하였다. 송준길을 사사한 그는 당대에 기호 예학을 계승하고 예제(禮制) 논의에 밝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최석정(崔錫鼎), 박태보(朴泰輔), 최규서(崔奎瑞), 최석항(崔錫恒), 정제두(鄭齊斗) 등 문하에 당대의 명사 다수를 출입시켜 이들이 후일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는데 상보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그는 소론의 영수로서 당대 정국 운영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남구만 및 그의 문인(門人)들의 문집에 그의 초상화 제작 및 봉안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먼저 『약천연보(藥泉年譜)』(卷5) 중 「연보(年譜)」에는 남구만이 1698년 기사에 입사할 때 화사 변량(卞亮)을 시켜 자신의 초상화 2분을 제작해 그의 집에 두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변량(卞亮)은 1711년에 윤증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는 변량(卞良, 17세기 전반-18세기 초반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징은(宋徵殷, 1652-1720)은 최석정이 어느 때 남구만 초상화의 모사를 주장했으며 그 초상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손수 전서(篆書)로 충청도 해미에 위치한 '남구만 영당'의 편액을 썼다고 기록하였다. 이 해미의 영당은 1715년에 건립되었다. 따라서 최석정의 주도로 이모되어 해미의 영당에 봉안된 남구만 초상화의 제작 시점은 1715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구만 관복본전신상>에는 최석정이 짓고 그의 아들 최창대가 쓴 화상찬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초상화가 바로 1715년경 최석정의 주도로 이모되어 해미 영당에 봉안된 본일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상기의 3점이 남구만 후손가에서 대대로 전해

져 온 것과 달리 이 국립중앙박물관본은 1902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입수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남구만 후손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대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① <관복본전신좌상>은 정면관의 관복본이란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구만 관복본전신좌상>과 비교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화면 상단에 적힌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글씨 및 앞서 소개한 송징은의 글 등으로 미루어 1715년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초상화 속 녹색의 단령 표현은 부산박물관 소장 <이덕성 초상>(1696년 작), 경기도박물관 소장 <이인엽 초상>(1697년 작) 등 1700년을 전후한 때에 제작된 관복본 초상화들에서 확인되는 것이어서 이 작품의 제작 시점은 적어도 18세기 초반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①은 국립중앙박물관본과 달리 단령이 검은 색 계열로 채색되어 있으며 의습선 주변에는 음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 요소들은 변상벽(18세기 중반 활동), 신한평(申漢桴, 1726-?) 등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초상화가들의 화풍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로 미루어 이 작품의 제작 시점은 18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①과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단령의 색, 단령 및 교의의 형태, 흉배 표현 등에서도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두 초상화를 모본(母本)과 그것의 이모본으로 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적어도 ①의 모본이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①의 화가는 국립중앙박물관본과 같은 관복본전신상을 저본으로 하여 ①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현은 후손가 소장품인 ②나 ③을 저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대의 복식 등을 반영해서 ①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 한다.

② <유복본전신좌상>은 정면관의 유복본 초상화이다. 이 초상화의 화면 우측에 최석정의 화상찬을 남구만의 현손 남진화가 쓴 글씨가 있다. 이 초상화에 그려진 신[鞋]은 169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박세채 유복본초상>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 또한 유복의 접힌 부분을 매우 각 지게 처리한 것은 1744년에 장경주(張敬周, 1710-?)가 변량이 1711년에 그린 것을 이모한 <윤증 초상(전신측면좌상)>(윤증 후손가 소장)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표현 요소들은 이 유복본 초상화를 『약천연보(藥泉年譜)』에 언급된 1698년 남구만이 기사입사 때 변량이 그린 초상화 2점 중 한 본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이 초상화를 1698년 변량이 그린 2점의 초상화 중 한 점으로 본다면 이때 변량이 그린 다른 한 점은 ‘관복본전신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국립중앙박물관본의 원본(原本) 초상화일 수 있다.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수록된 북송대 시인 왕우칭(王禹偁, 954-1001)이 지은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에서 학창의와 화양전은 연거복의 하나로, 특히 탈속적인 옷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이 복식은

남구만이 조정을 떠나 자신의 전장(田莊)에 머무르며 탈속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던 시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창대는 「영의정약천남공묘지명(領議政藥泉南公墓誌銘)[기해(己亥)]」에서 남구만이 1696년에 향리로 돌아갔다고 기록하였다. 결국 이 초상화를 『약천연보』에 언급된 남구만 초상화 2본 중 한 본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초상화는 1698년에 도화서 화원 변량이 남구만의 기사 입사를 기념해 제작한 작품으로 간략히 설명될 수 있다. ②의 초상화에 그림 제작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어 당장에 이 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그림의 고식적 요소들은 이 점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게 한다.

③ <관복본반신상>은 ①과 ②와 달리 남구만의 반신만 그려져 있다. 앞서 두 본처럼 비단에 그려졌지만, 단령에는 무늬가 없고 흉배도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정본으로 제작된 소본(小本)의 초상화라기보다 정본 제작을 위해 사용된 상초본(上綯本)으로 추정된다. 즉 비단에 그려진 초본(草本)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초상화에 표현된 단령의 의습선 모양은 국립중앙박물관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 사실은 두 초상화가 서로 관련이 있는 본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1698년에 변량이 제작한 본 중 한 본일 가능성, 1715년에 최석정의 주도로 이모본이 제작될 때 생산된 그림 중 한 본일 가능성, 1698년 이후 어느 때 별도로 제작한 이모본일 가능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안면 표현 등에서 국립중앙박물관본과 별다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격조를 보인다. 따라서 이 초상화의 제작 시점은 18세기 중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분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9.

南九萬(1629-1711), 『藥泉集年譜』

崔錫鼎(1646-1715), 『明谷集』 卷11, 「藥泉南先生畫像贊」

宋徵殷(1652-1720), 『約軒集』 卷10, 「水源洞, 領議政致仕南公影堂記」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4권 「海美南相國祠堂記」

10.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가. 검토사항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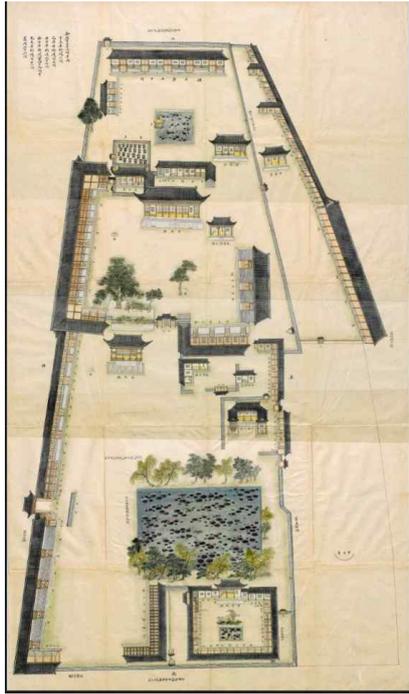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4./2.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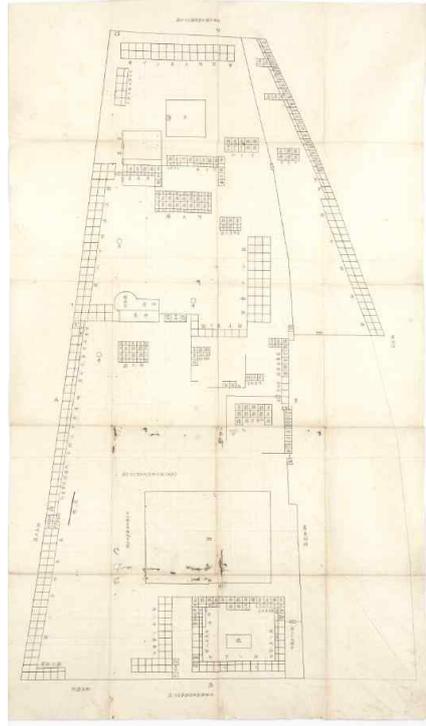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 수 량 : 1건 3점(도형 기미본 1점, 정간 기미본 1점, 정간 신유본 1점)

연번	상세명칭	조성연대	전체크기 (cm) *펼침면	표지크기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도형기미본 (圖形 己未本)	1799년 (정조23)	195.5×112.5	39.7×28.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2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기미본 (井間 己未)	1799년 (정조23)	193.5×111.1	38.6×28.7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3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신유본 (井間 辛酉)	1801년 (순조1)	192.7×124.0	40.7×31.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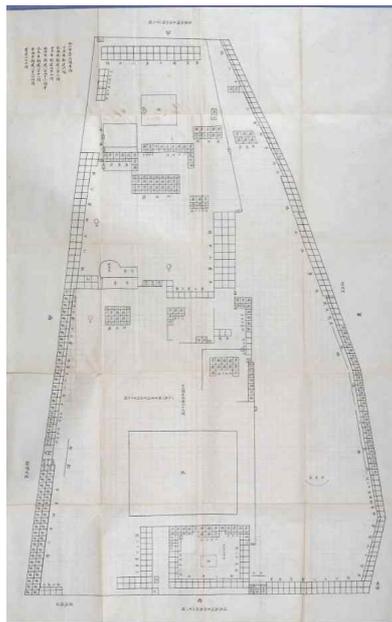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절첩(折帖), 채색계화(彩色 界畫) 및 간가도(間架圖)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신유본(18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本營圖形』은 정조대에 이현대로 변에 위치했던 장용영營舍의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하여 正祖에게 보고하고, 계속되는 영사의 변화를 기록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御覽用 기록화다.

『本營圖形』은 과학적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축적과 지형지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와 거의 유사한 대지의 형태를 표현했으며, 채색도와 간가도(間架圖)를 한 벌로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건축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후대에 확장된 영사를 다시 그려 장용영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현전하는 정조대 이전 건축기록화는 간가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순조대부터는 의뢰에 건물채색도가 실리기도 하고, 간가도 또는 반차도와 건물의 입체적 형태를 그린 도형이 함께 실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간가도와 채색도가 함께 갖추어진 건축도형으로 책에 실리지 않은 것은 현전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 『本營圖形』이라는 의미다.

3건의 『本營圖形』은 장용영 변화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조선 건축기록화의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다.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관리도 잘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영도형』 3건을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을 제안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확한 축적에 기초한 평면도를 통해 상세한 건물의 배치를 도해하였고, 정교한 필치로 건축물을 묘사하여 당시 장용영을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로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용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및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 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건축사적,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용영의 모습을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건물의 세부와 연못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기미년의 두 『본영도형』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대상을 그린 도형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도법에 차이를 두어 일반인(왕 혹은 관리)에 대한 보고용은 채색을 하고 입면의 모습을 상세히 그렸고, 실제 건물 조영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기호화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두 도형은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후기 관아건축의 상세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미년과 신유년의 『본영도형』 井間본은 건축물의 증축이 이루어진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동일한 도법(間架圖)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관영건축물의 조영과정과 유지 및 관리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영도형』 己未본은 채색이 되었을 뿐 아니라 井間 己未본과 같은 축척으로 그려졌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부감도법으로 그린 채색 건축계획화들과의 차이점이다. 기록화 외에 순수하게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부감도법 혹은 투시도법의 조선후기 건축도들은 건물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정한 축척이나 원근법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았다. 『본영도형』은 건물의 간격과 주칸, 전체 건물군의 외곽, 연못의 크기 등을 간가도와 일치되게 그렸다. 즉 개별 건물은 부감도법과 투시도법이 혼용되어 있으나 전체 건물군을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균일한 크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개별 건물의 형상 뿐 아니라 특히 건물간의 거리까지 실제 치수를 반영해서 제작했다는 의미이며, 건물간의 관계만 표현된 다른 부감도법의 건축도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실제 치수를 반영했으므로 마당과 건물의 크기를 사실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상세한 입면의 표현은 이보다 후대에 그려진 「경우궁도」나 「동궐도」 못지 않게 사실적이고 자세하며, 관아를 대상으로 한 『숙천제야도』의 관아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입면구성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영도형』 己未본에 묘사된 건물들은 정조년간 수원화성에서 시험했던 벽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벽체를 구성한 사실을 보여주며, 창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입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조선후기 관아건축 뿐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소실된 궁궐 부속 건물의 입면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미년과 신유년의 井間본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구조와 평면을 표현한 間架圖로 건물군을 하나의 도면에 담고자 할 때 유리한 표현방식이다. 매우 간략하지만 배치도, 평면도, 구조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본영도형』에서는 특히 건물내 글자의 방향에 따라 건물의 정면성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 글씨의 방향으로 정면을 나타내는 것은 입면전개식 부감도의 기호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훨씬 후대에 제작되는 「북궐도형」과 「동궐도형」과 같은 간가도에서는 지켜지는 원칙이나 다른 간가도는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본영도형』井間본에 기록된 내용 중 다른 도형사료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은 도형 중간쯤 빈 곳에 ‘八尺爲一間’이라 적혀있는 내용이다. 격자 1칸의 길이가 8자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기존의 다른 간가도의 축척 해석에 좋은 근거가 된다. 격자 1칸의 실제 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간가도를 실제 치수와 확인한 결과 추론된 8자가 조선후기 건축에서 기본적인 모듈체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건축도 중에서 감상용 혹은 기록용, 어람용은 소수남아 있으며 이 경우는 채색이 되어 회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실제 건축생산과 관리 등 실무적인 용도로 제작한 간가도는 그 수량이 많지 않고 대부분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며, 제작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본영도형』井間 2점은 각기 제작 시기와 대상, 목적이 분명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다.

또한 넓은 범위의 부정형 대지를 대상으로 다수의 건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시점으로 원칙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신청된 도형의 지정 명칭은 표제에 적힌 이름을 따르되, ‘본영’은 다른 모든 균영에도 해당되는 보통명사이므로 앞에 ‘장용영’을 붙여 ‘장용영 본영도형’이라 하여 도형이 표현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각 다른 3점은 표제 아래에 붙은 ‘己未’, ‘井間 己未’, ‘井間 辛酉’를 부기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본영도형』과 같은 건축도는 건축사분야의 중요한 사료이며 회화나 지도의 범주가 아닌 건축도 혹은 기술도로 분류하여 해당 도형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영도형』은 18세기 건축도 작성의 다양한 시도를 반영하고, 그 실용적인 활용을 확인시켜 주는 사료이다. 보고용으로 쓰인 채색 입면부감도와 실무용으로 쓰인 간가도가 함께 짝을 이루어 제작되었다는 점,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작도와 표기방식에 원칙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1칸의 크기를 표기하여 다는 자료의 해석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 건축사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장용영 본영도형」은 1799년과 1801년으로 제작연대가 명확하고, 조선시대의 도면 제작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측량과 작도의 방법으로 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측량 기술과 도면 제작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 건축 기술도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

도 한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방어시설인 장용영의 건물 구성을 알 수 있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장용영 본영도형」과 유사한 건축도 중에서 「동궐도(東闕圖)」(1801-1834)가 국보 제249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궐도안(西闕圖案)」(1831년 중건 이전)이 보물 제1534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궐도」와 「서궐도안」은 궁궐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지만 궁궐의 정확한 배치를 표현하는 기술도라기보다는 회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은 회화적 가치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한 건축 기술도로서 「동궐도」와 「서궐도안」보다도 이른 시기에 제작 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전통적인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기술의 도입 이후에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정확한 축척을 구현하였다. 또한 제작연대가 명확하여 다른 유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도성도(都城圖)」(18세기 후반, 보물 제1560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4년, 보물 제850호), 「동여도(東輿圖)」(19세기 중반, 보물 제1358호),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19세기초, 보물 제1583호), 「해서지도(海西地圖)」(1745-1756, 보물 제1584호) 등 1800년을 전후로 제작된 지리 기술도인 지도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많으나, 건축 기술도는 알려진 유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지도와 비교하여 건축 도면이 갖는 문화사적 가치가 적지 않고, 건축과 측량에 대한 기술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유물이므로 보물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현재까지 알려진 『本營圖形』은 3건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건, 고려대

학교 박물관에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本營圖形』 2건은 모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관된 것으로 기미년(1799)에 제작된 건은 채색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장번호는 K2-4366이다. 신유년(1801)에 제작된 건은 평면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장번호는 K2-4365로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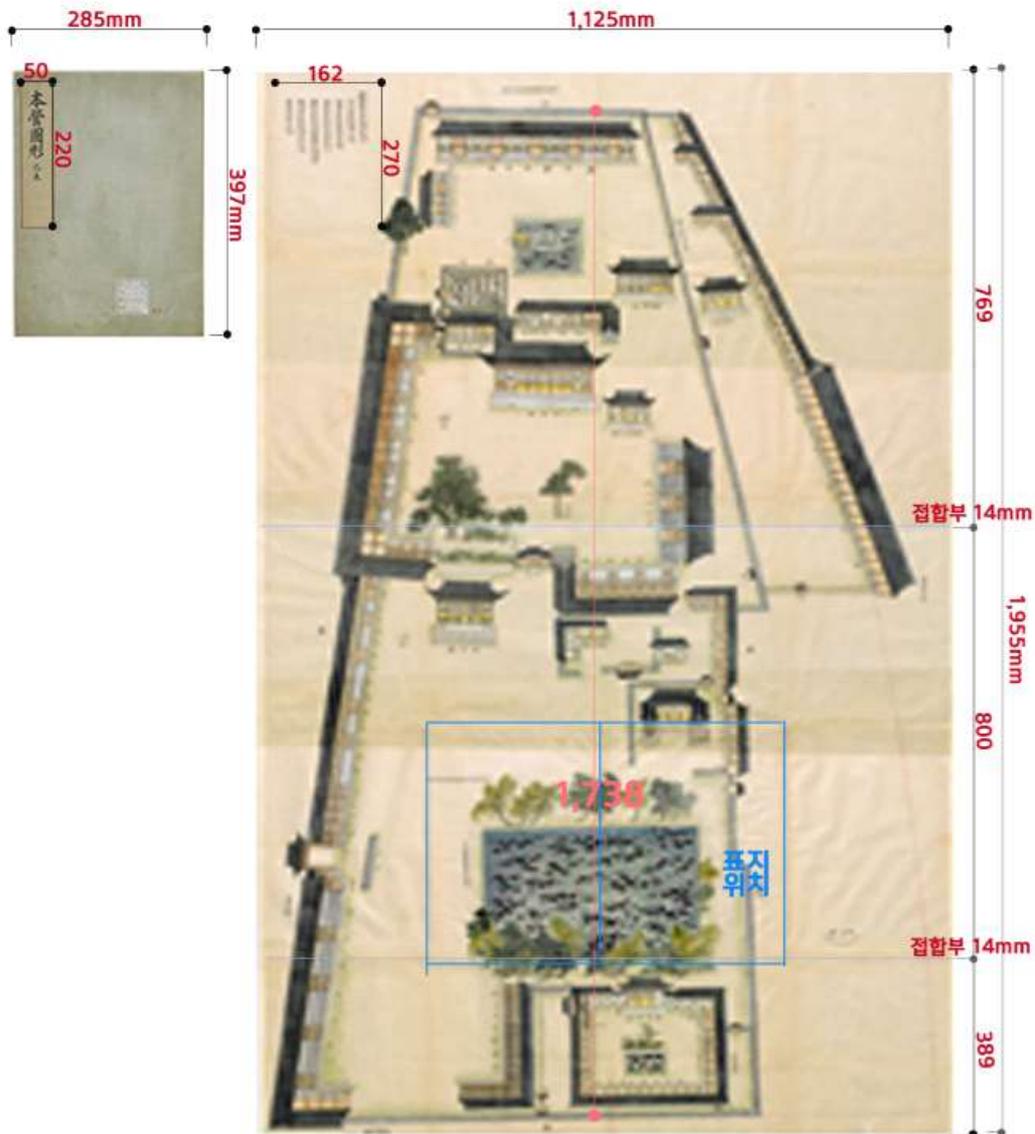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영도형』은 장서각에 소장된 1799년 채색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도안(圖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류번호는 1626이다. 2009년까지는 유물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여서 관리가 소홀하여 종이 먹는 등 훼손정도가 심하였으나, 2009년 장서각 자료와 함께 연구되면서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보존처리하여 2011년 <경복궁배치도> 와 함께 전시되기도 하였다.

각 도형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3건의 『본영도형』은 제작연대+채색도 ‘井間’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각기 다음 표와 같이 지칭하기로 하겠다.

己未 『本營圖形』	己未井間 『本營圖形』	辛酉井間 『本營圖形』

(1) 己未 『本營圖形』

己未 『본영도형』(K2-4366)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채색도로 구분되어 있다. 한 변이 1125mm인 저지(楮紙) 3장을 길이 1,955mm가 되도록 이어 붙인 후, 초본에 따라 칼로 작은 구멍을 내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 후,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것이다. 좌측 상단에는 시기별로 증축된 건물의 규모를 적은 별지가 붙어있다. 큰 종이에 그려진 도형은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397×286mm의 크기로 접어서 옥색능화지를 양면에 붙여 표지로 삼았다. 표지의 내공(內拱, 현재의 책등)은 홍색천을 사용하였는데, 홍색내공은 도형의 접힌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은 『본영도형』을 여러 서책 사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표침은 백색 비단에 표제를 쓰고 홍협(紅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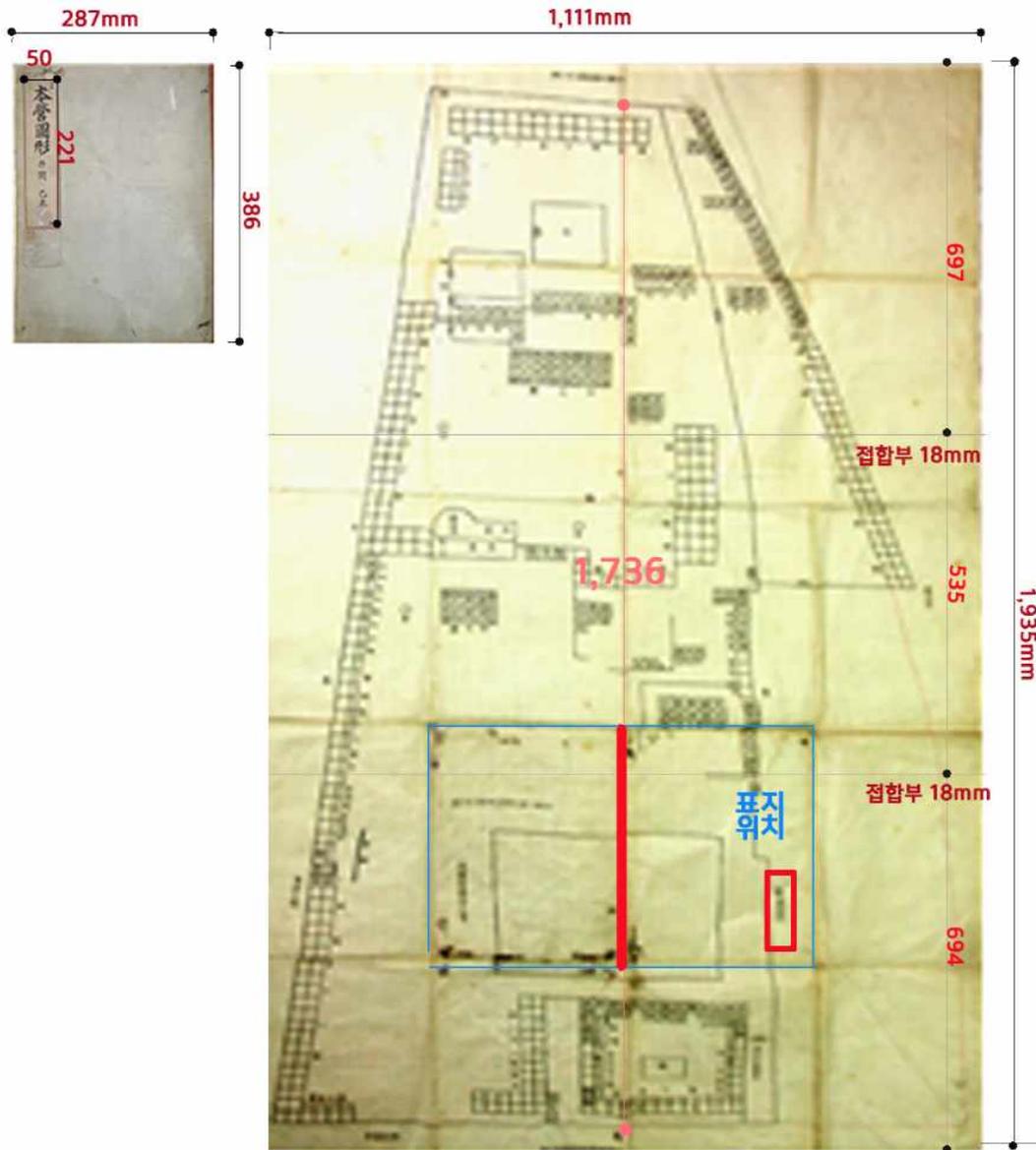


(2) 己未井間『本營圖形』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己未井間『본영도형』(분류번호:1626)은 圖案으로 분류되어있다.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했으나 보존처리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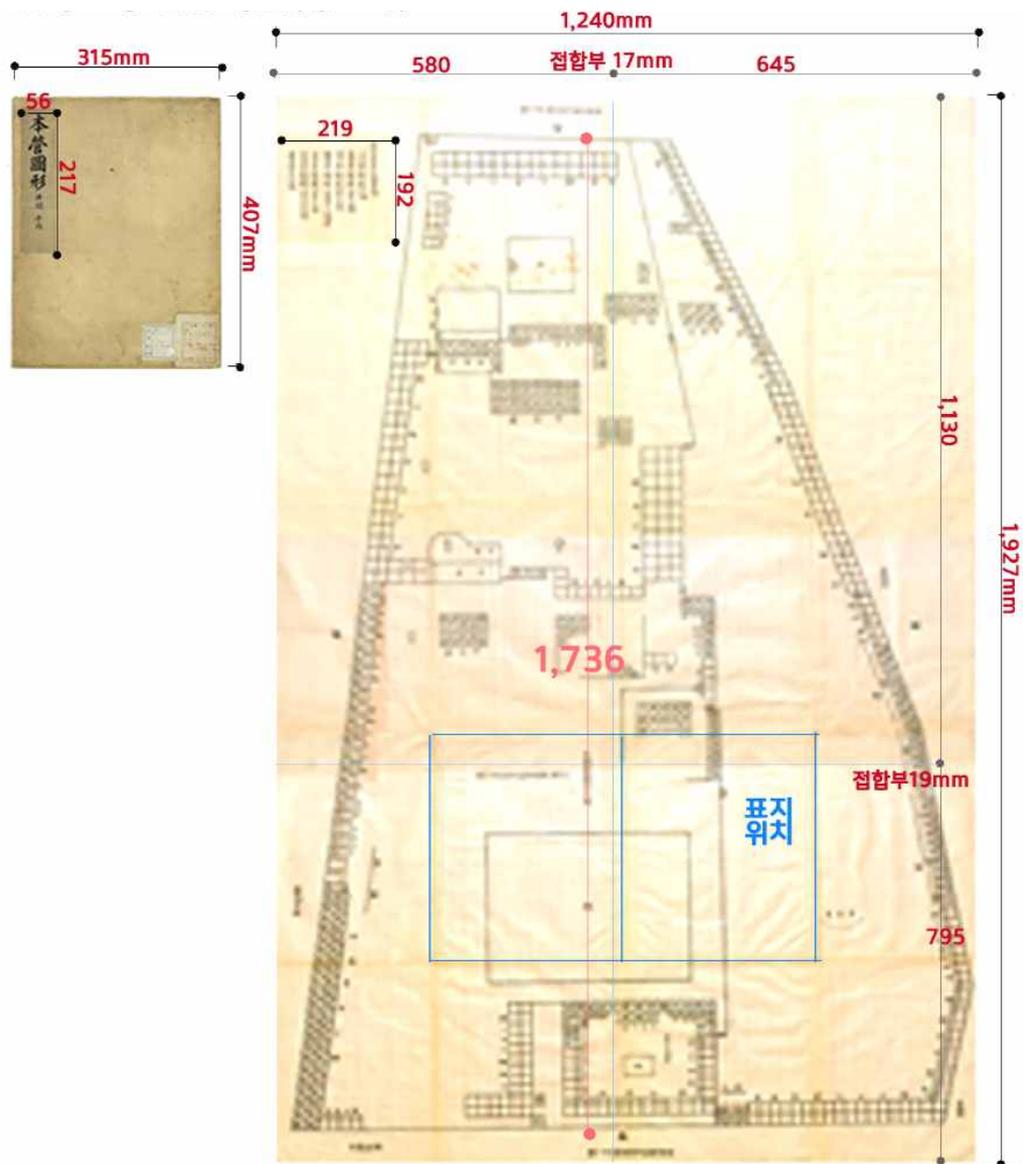
장서각 소장 己未『본영도형』과 마찬가지로 1,111mm 저지 3장을 1,935mm가 되도록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도형의 전체크기는 1,935×1,111mm로 장서각의 己未『본영도형』에 비하여 폭과 너비가 각 1cm정도 작은 편이나, 접은 상태의 크기는 386×287mm로 거의 같다. 己未井間『본영도형』과 己未『본영도형』은 크기뿐만 아니라 옥색능화문 표지, 홍색천 내공(현재 훼손), 백색 비단과 홍협으로 이루어진 표침, 표침의 크기, 도형 내부에 표현되어진 공간의 규모와 명칭 및 서체 등이 모두 같아 己未년간에 한 벌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다만 장서각의 己未『본영도형』과 달리 건물의 위치는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 먹칼로 선을 그어 표현했다.



(3) 辛酉井間 『本營圖形』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도형 辛酉井間 『본영도형』(K2-4365)은 현대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평면도로 분류되어 있다. 1,927×1,240mm가 되도록 4장의 저지를 이어 붙여 도형을 그리고 407×315mm의 크기로 접은 다음 백색 능화지로 표지를 만들었다. 기미년본과 달리 표지의 내공은 흰색천으로 하였으며 표점의 재료는 흰색 비단을 사용하다. 그리는 기법은 고려대 박물관의 己未井間 『본영도형』과 동일하지만, 건물의 증축과정을 별지로 적어 붙인 것은 己未 『본영도형』과 같다.



○내용 및 특징

(1) 장용영의 내영을 그린 『本營圖形』

세 종류의 『본영도형』의 명문 가운데 건물의 성격과 그 위치를 비정하기 위하여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는 梨峴大路, 梨峴橋渠, 東部, 蓮池洞, 蓮池洞川邊 등이 있다. 이들을 근거로 조선시대의 지도들을 살펴 본 결과(표 2 참조), 『본영도형』에 표기되어 있는 이현대호가 종묘의 동편에 위치한 창경궁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에 따르면 이현대호의 동편에는 시기별로 다른 관서들이 있었지만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동별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1900년 이전 지도에 기록된 이현대로 좌우측 시설물

지도종류	제작년대	이현대로 서편	이현대로	이현대로 동편	출간본 출처
都城三軍門分界之圖	1750년대	御營廳	黃參橋	東部	<허> 25쪽
都城圖	1750년대	御營廳	黃參儀橋	於義宮/ 東部	<허> 27쪽
漢陽圖	1760년대	御營	參判橋	梨峴宮/ 東部	<역> 10쪽
漢陽都圖	177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宣惠東倉	<허> 41쪽
漢京全圖	1777년경	.	黃參橋	東部	<허> 49쪽
漢陽全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역> 13쪽
漢城全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45쪽
都城地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50쪽
都城大地圖	18세기 後	御營廳	梨峴, 黃橋	?	<역> 14쪽
都城長安圖形圖	18세기 中	御營廳	黃橋	壯勇廳/ 東部	<허> 36쪽
城市全圖	1789년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52쪽
首善全圖	1840년대	御營	梨峴, 黃橋	東營/ 東部	<허> 61쪽
漢城圖(대동여지도첩)	1861	御營	梨峴, 黃橋	東部	<허> 65쪽
都城圖	1860년대	.	梨峴, 黃橋	東部	<허> 69쪽
首善總圖	19세기 中	御營	梨峴	訓東營/ 東倉/ 東部	<허> 71쪽
朝鮮京城圖	19세기 中	御營	.	訓東營/ 東倉/ 東部	<허> 75쪽
슈선전도	1892년	어영	배고개, 황교	동영/동부	<허> 81쪽
Map of Seoul	1900년	.	黃橋	東部	<허> 79쪽

*각 지도는 『정도600년 서울지도』(허영환 저, 범우사, 1994)과 『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편, 서울역사박물관유물관리과, 2006)에 실린 것을 참조하였다. 표에서 출간본 출처는 편의상 허영환의 것을 <허>, 서울역사박물관의 것을 <역>으로 표기하였다.

壯勇營과 訓練都監 東別營은 모두 군영이지만 훈련도감의 경우 본영은 明哲坊에 있고, 19세기 중엽에 이현대로 변에 동별영을 둔 것이어서 이곳을 일컬어 본영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반해, 장용영은 한성부에 內營(本營)을 설치하고 수원에 外營을 두었으므로 이곳에 본영이 있었던 군영은 장용영이라 볼 수 있다. 즉, 『本營圖形』은 연화방 이현대로변에 창건한 장용영 내영의 영사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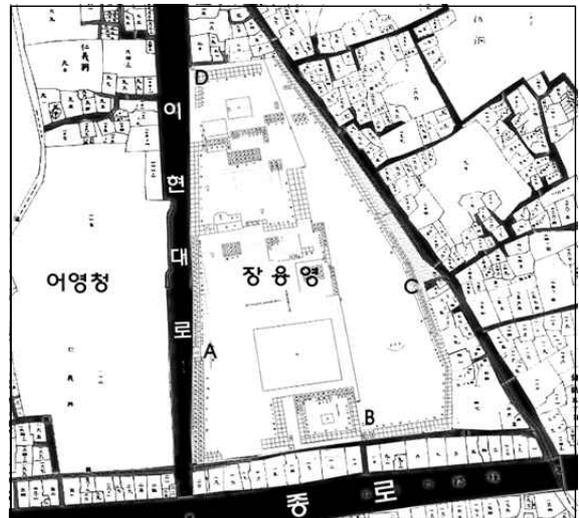
장용영은 정조대에 창설된 군영으로, 그 전신은 1785년(정조 9)에 설립된 국왕 호위전담부대였던 壯勇衛이다. 이후 壯勇廳을 거쳐 1788년(정조 12)년에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1793년(정조 17) 内外營制가 성립되기 전까지 정조의 호위를 담당하며 군제개혁의 중심역할을 했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 1802년(순조 2)에 혁파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용영의 역사는 매우 짧다. 1788~1802년, 대략 14년간 존재했던 군영으로, 장용영의 존치기간은 『본영도형』의 제작년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己未年과 辛酉年 두 해의 干支를 장용영이 있었던 기간과 맞추어 헤아려 보면, 기미년은 1799년이고 신해년은 1801년이다. 즉, 『본영도형』은 18세기 말의 기법으로 제작된 도형이며, 짧은 시기 엄청난 변화를 겪은 장용영의營舍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과학적 측량없이 대지의 형태를 유사하게 그린다.

장용영이 자리한 대지는 그 형태가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지의 동쪽경계에는 창경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蓮池洞川)가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구거(溝渠)가 종로변 시전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지세 때문에 장용영의 대문은 남쪽을 향하지 못하고 서쪽 이현대로를 향해 만들어졌다.



1929년에 제작된 지적도에 辛酉井間 『本營圖形』을 겹쳐 올림 (도로는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장용영내에 A,B,C,D가 적힌 곳은 외부로 통하는 문의 위치)

현전하는 대부분의 간가도들은 실제 대지형태와 상관없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에 그 공간을 모두 그려 넣어 실제 공간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本營圖形』은 현대의 지도와 겹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대지형태를 그렸다. 이는 지형지세에 대한 높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제작기법과 축척

① 己未 『本營圖形』

도형의 작성은 模本을 대고, 건물의 간격과 위치를 표기한 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와 똑같은 땅의 형태대로 도형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도형의 표면에 칼로 표시한 구멍은 있으나, 도형의 배경에 건물 간격의 기준이 되는 격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도형의 우측 아래쪽에는 붉은 선으로 대지의 경계를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己未井間 『本營圖形』의 그것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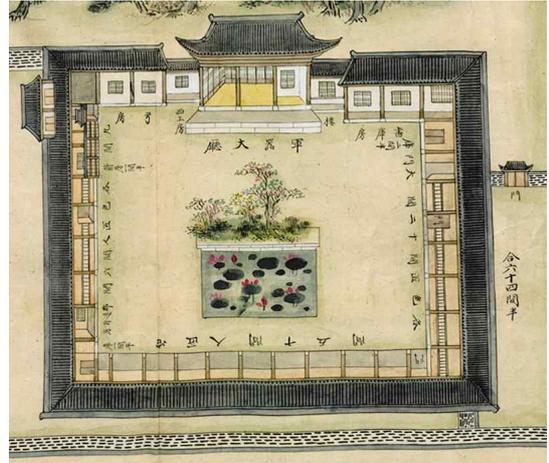


그림 2. 己未 『本營圖形』중 軍器大廳부분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바깥으로 넓혀 그린 (사방전도묘법)기법을 보여준다.

도형에 표현된 건물 및 갖은 시설물은 그 건축적 구조 및 지붕형태, 재료들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아래쪽에는 해당 공간의 용도가 한자로 명기되어 있다. 도형의 축척은 가로변이 1/140, 세로변이 1/15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과학적 측량기법이나 도구가 없는 시대에 그린 것으로는 이는 허용할 만한 수준의 오차다. 축척은 다른 두 도형도 동일하다.

건물들은 영역의 중심을 보면서 바깥으로 누운 四方顛倒描法⁵²⁾으로 그려져 있어 건물 깊숙한 곳까지의 공간구성, 창호의 형태 등, 건축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방전도묘법은 건물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정면들을 밖으로 넘어뜨려 그렸기 때문에 그 특성상, 문이 닫혀있는 건물이나 모서리에 위치한 곳의 내부공간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건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평면도와 같이 작성된 또 다른 도면이 요구되는데, 다음으로 언급될 간가도 형식으로 그려진 두 종류의 『本營圖形』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己未 『本營圖形』에는 앞서 언급한 건물의 용도를 적은 명문 외에도 지명이나 땅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

52) '四方顛倒描法'은 안휘준이 『옛 궁궐 그림』(대원사, 1997, 32~33쪽)에서 제안한 용어이다. 그는 '麟坪大君房全圖'와 같이 기록화 중에서 북쪽 한 방향으로만 넘어뜨리지 않고 동서방향으로도 넘어뜨린 그림을 正面俯瞰構圖 중에서도 그 모양이 꽃이 핀 것과 같기 때문에 '開花式描法' 또는 '四方顛倒描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송인호는 그의 연구 「四方顛倒描法 研究 - 宿踐諸衙圖를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제11권 3호, 2002, 105~120쪽)에서 안휘준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선시대 건축그림을 분석하였고, 四方顛倒描法이 殿閣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표현 방법은 정면의 시지각적 체험을 종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깊이감과 풍부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였다. 필자도 안휘준과 송인호의 의견에 동의하여 '四方顛倒描法'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② 己未井間 『本營圖形』

己未井間 『本營圖形』은 己未 『本營圖形』과 달리 간가도 형식으로 그려졌다. 그 제작과정을 도형에 남아있는 흔적들로 추정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첫 번째, 바늘로 격자 간격(1.8cm)과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 두 번째, 땅의 외곽선을 그린다.
- 세 번째, 그려진 땅의 외곽선 안쪽에만 붉은 먹선으로 격자를 그린다.
- 네 번째, 격자 위에 먹칼을 이용해 柱間을 격자 1間으로 하여 배치를 그린다.
- 다섯 번째, 해당 공간의 명칭과 실의 용도를 적는다.

위와 같은 절차는 본영이 위치한 곳의 땅의 형태가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그대로 살리고 안쪽에만 격자를 그려 넣었다는 것은 『본영도형』이 이미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실측하여 제작된 模本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서각 소장 己未 『본영도형』에도 모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본영도형』이 제작된 시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대지의 외곽을 그려냈지만,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아직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면 대문을 써넣은 부분의 외곽선이 마름모꼴 형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도형의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는 대지의 최외곽에 위치한 건물을 그릴 때 縱軸의 격자는 대지의 외곽선을 따르고, 橫軸線은 기존의 격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공간이 네 모서리가 직각인 사각형인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림 3과 같이 격자를 대지의 외곽선에 따라 보정한 다음 그려졌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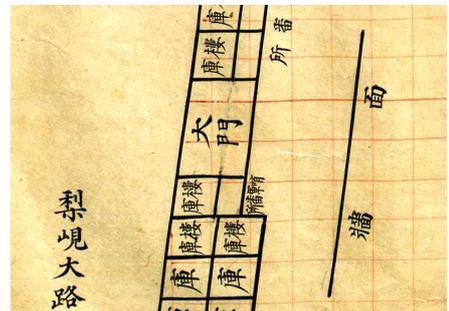


그림 3. 辛酉井間 『本營圖形』 부분 己未井間 『本營圖形』은 아니지만, 도형 안쪽으로만 격자를 그린 것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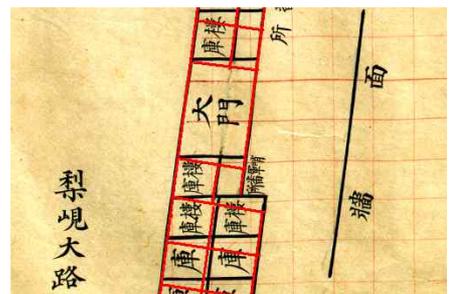


그림 4. 辛酉井間 『本營圖形』 부분 격자보정 예(필자작성) 대체적으로 공간은 모서리가 직각이 되는 사각형을 이루므로 그에 맞게 본영도형의 격자를 보정하면 위와 같이 된다.

③ 辛酉井間 『本營圖形』

도형의 제작기법은 己未井間 『本營圖形』과 같다. 다만, 己未井間 『本營圖形』에 비하여 동남쪽에 건물이 많이 늘어나 공간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바뀐 것도 있다.

상단에 별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미년에 제작된 것과 같은 채색도는 작

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정조에 대한 보고와 변화과정 기록을 위해 제작한 『本營圖形』

이혜원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그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⁵³⁾ 궁궐 및 국가의 공사에 있어서 도면은 공사의 내용 지시, 공사 시작 전에 건물의 위치나 규모 결정, 이후의 변화를 추가하여 수정,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의 배치나 특정장소의 형상을 보고하기 위해 그려졌음을 문헌의 해석을 통해 밝혔다.

장용영의 營舍를 그린 『本營圖形』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연대가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한다. 기미년(1799)에 작성된 『本營圖形』에 비해 신유년(1801)에 만들어진 『本營圖形』에는 동남쪽이 더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두 도형을 비교하면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용도로 표기되어 있는 공간도 찾아낼 수 있다.

증축 내용에 관한 부분은 도형의 상단부에 별지에 적은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01년의 장용영 규모는 모두 653間半으로 그 안에는 원래 터에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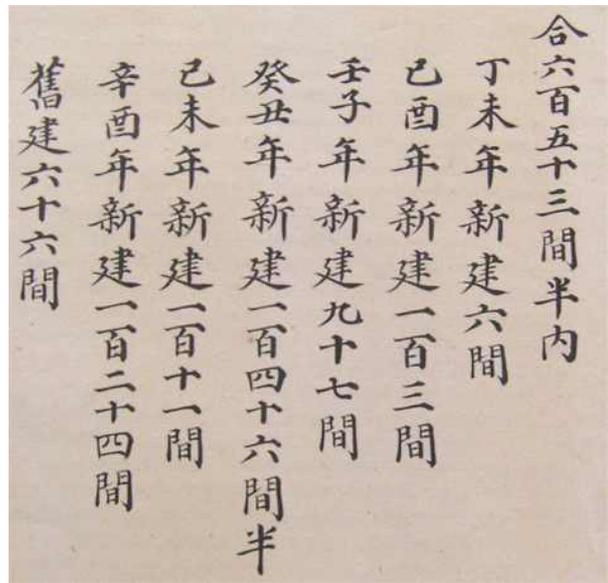


그림 1. 辛酉井間 『本營圖形』의 주기

건물 66間을 기본으로, 丁未年(1787)에 6間, 己酉年(1789)에 103間, 壬子年(1792)에 97間, 癸丑年(1793)에 146間半, 己未年(1799)에 111間, 辛酉年(1801)에 124間을 각각 증축하여 확장해갔음을 적고 있다. 주기는 己未 『본영도형』에도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유년의 확장부분을 제외하고 전체규모가 532間半임이 적혀 있다.

앞서와 같은 내용은 이혜원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영도형』의 제작도 장용영 영사의 증축 내용을 표현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장용영의 단계별 변화과정을 기록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장용영은 정조의 야심찬 계획 속에서 창설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營舍의 창건 및 확장 또한 그의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유가 여러 종류의 『본영도형』이 제작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간가도 형태가 아닌 채색도 己未 『본영도형』이 작성된 것은, 위의 내용을

53) 이혜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 『건축 역사연구』 제17권 4호(2008), 43~64쪽.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간가도 형태의 己未井間 『본영도형』과 입체적으로 건물을 표현하여 채색한 己未 『본영도형』을 한 벌로 제작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에서도 건물을 짓기 전에 공사를 위한 평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기호화된 도면을 그리지만, 건물의 조감도나 엑소노메트릭과 같은 입체도를 그려 보다 시각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곤 한다. 己未 『본영도형』의 제작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3건의 『本營圖形』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장용영 본영 공간의 변화

공간구성	출처	『壯勇營大節目』廳舍條 (1793~99년)	己未『本營圖形』 己未井間『本營圖形』 (1799년)	辛酉井間『本營圖形』 (1801년)
內大廳		24	24	24
外大廳		12	12	12
東大廳		6	6	6
軍器大廳		8.5	8	8
射亭		6	6	6
六隅亭		1	1	1
堂上將官直所		13.5	10 14	12(馬廐포함)
哨官直所		10	16 (司書牌房3/哨官廳・ 將軍廳12/문)	16 (司書牌房12/ 哨官牌房3/문)
志敷官廳		16	18	19
別武士廳		17	5	5
書牌番所		8	11(敎鍊官廳+哨書牌 房)	8(哨官廳)
哨軍番所		23	6	6
帳幕軍番所		2	4	4
鄉軍入接處		48.5	48.5	46.5(馬廐,虛포함)
軍器書庫番所		4.5	4.5	4.5
弓矢人間		10	10(版牆有)	10(版牆有)
工匠間(各色匠人間)		35	35	35
庫直番所		4	10(庫直房)	10(庫直房)
庫舍	東邊米庫	30	30	30

공간구성	출처	『壯勇營大節目』廳舍條 (1793~99년)	己未『本營圖形』 己未井間『本營圖形』 (1799년)	辛酉井間『本營圖形』 (1801년)
	東行閣米庫	.	40(東行閣庫舍)	40
	西行閣米庫	6	.	.
	南邊米庫및虛間	42	42+6	48
	西行閣樓上庫	.	48	48
	南邊錢木布樓上庫	10(上木下錢)	10	10
	軍器庫(樓上庫)	30	30(鉛丸, 鳥銃, 私庫)	30
	弓子庫(弓子點火庫)	7.5	7.5	7.5
	鐵庫	3	.	.
	北行閣帳幕庫	15	13.5(西行閣帳幕庫)	13.5(西行閣帳幕庫)
	火車庫	32	32	32
	別下庫	1.5	.	3(庫間)
	別將庫	1.5	.	.
	三司庫	3(각1)	10.5(左右司)	10.5(左右司)
	禁火庫	1	1	.
	吹鼓手庫	1.5	1.5(大廳直私庫)	1.5(槍劍庫)
	鄉軍雜物庫및虛間	.	.	31
	東行閣各色軍物庫	.	.	38
	軍器私庫	.	4	4
	軍器色庫	.	.	63
	拘留間	3	3	3
	門	13.5	16	20
	실제 규모의 합	436	530	666
	기록상의 총규모	446	513.5	653.5

○ 문헌자료

『本營圖形』己未,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4366).

『本營圖形』井間己未,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本營圖形』井間辛酉,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4365).

『壯勇營故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68).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69).

『總衛營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78).

『訓局總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406).

『華城城役儀軌』

『京城府管內地籍目錄』, 昭和 2年(1927) 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書』, 昭和 4년(1929).

『京城便覽』, 弘文社, 昭和 4년(1929).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東亞日報』

1912년 작성 서울 지적원도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경기대 이상구 재작도)

서울歷史博物館 編,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유물관리과, 2006.

이 찬,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1995.

허영환, 『정도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서울, 1994.

○ 기 타

- 장서각에 소장된 2건은 모두 198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관된 것이다.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건의 소장경위에 관해서 박물관에 문의한 바, 1958년에 도서관의 고문서류 분류되어 있다가 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이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전 연혁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1905~1946) 도서관시절 입수,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도서관 소장목록 원부가 소실되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현 상

-기미본의 경우 첩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커다란 도형을 세로 방향으로 오등분, 가로 방향으로 사등분이 되도록 접은 후에, 능화문이 찍힌 옅은 옥색의 종이를 앞표지와 뒷표지를 붙인 접포장(摺鋪裝) 형식이다. 앞뒤 표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붉은색 천을 붙여 마모를 방지했다. 앞표지에는 붉은 색의 가는 띠를 두르고 흰색 천을 붙인 제침이 부착되어 있는데 “本營圖形 己未”라고 묵서를 적었다. 표지의 위치는 도형을 펼쳤을 때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뒷면이다. 도형의 왼쪽 위편에는 네모난 종이를 붙이고 아래와 같은 주기를 적었다.

合五百三十二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己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九間半

己未年新建一百十一間

舊建六十六間

이는 증축의 연혁을 목서로 기록한 것이다. 현재 먼지 등으로 다소 오염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전체 도형은 가로로 긴 종이 세 장을 붙였는데 위에서부터 세로 76.9cm, 80cm, 38.9cm 정도로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뒷면에는 거친 종이로 배접을 하였다.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기미정간본의 경우 기미본과 마찬가지로 접포장 형식의 첩이었으나 소장처에서 근래 표장하면서 앞표지를 떼어내고 뒷면 전체에 새로 배접을 한 후, 앞표지를 다시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 앞표지만 남아 있는데 기미본과 마찬가지로 능화관 옥색 종이이며, 붉은 색의 가는 띠를 두르고 흰색 천을 붙인 제첩에는 “本營圖形 井間 己未”라고 적혀있다. 표장 후에도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뒷면에 다시 붙여 놓았다. 표지에 작은 충식의 흔적이 있다. 뒷표지는 없어졌는데 붙었던 부분에는 일부 결실된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 도형은 상태는 양호하며, 가로로 긴 종이 세 장을 붙였는데 위에서부터 세로 69.7cm, 53.5cm, 69.4cm 정도로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주선으로 격자를 긋고 먹선으로 건물의 위치를 도해했다. 건물과 문 등 건축물에는 이름을 목서로 적었으며,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신유정간본 역시 첩의 외양이지만 커다란 도형을 세로 방향으로 오등분, 가로 방향으로 사등분이 되도록 접은 후에, 능화문이 찍힌 옅은 황색의 종이로 앞표지와 뒷표지를 붙인 접포장(摺鋪裝) 형식이다. 앞뒤 표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갈색 천을 붙여 마모를 방지했다. 앞표지에는 흰색 천을 붙인 제첩이 부착되어 있는데 “本營圖形 井間 辛酉”라고 목서를 적었다. 표지의 위치는 도형을 펼쳤을 때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뒷면이다. 도형의 왼쪽 위편에는 네모난 종이를 붙이고 아래와 같이 주기를 적었다.

合六百五十三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己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六間半

己未年新建一百十一間

辛酉年新建一百二十四間

舊建六十六間

이는 증축의 연혁을 목서로 기록한 것인데, 계축년의 증축 규모가 기미본의 수치와는 다르다. 그런데도 두 기록에서 개별 증축분의 총 합계는 정확하기에 기미본의 수치가 착오였을 수도 있다. 현재 먼지 등으로 다소 오염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전체 도형은 종이 네 장을 붙였는데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뒷면에는 거친 종이로 배접을 하였다.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주선으로 격자를 긋고 먹선으로 건물의 위치를 도해했다.

○ 내용 및 특징 : 기미본의 회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

- 정조는 국왕의 호위부대에 해당하는 장용영을 1793년에 설치하고 그 군영을 종묘와 홍인지문 사이의 蓮花坊 梨峴에 자리 잡도록 했다. 이곳은 광해군의 잠저로 梨峴宮이라고 불렸으며 인조대 이후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었으며 숙종대에는 훗날 영조가 되는 延祜君의 거처였다.
- 기미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俯瞰視를 적용하여 장용영에 있었던 건물, 담장, 문, 정자, 蓮池, 우물 등 다양한 건축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묘사했다. 건물과 담장은 마치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기록을 위한 건축물 도해나 지도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다. 즉 화면 밖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통일된 시점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보다는 화면 속에서 바라보는 다시점, 이동시점을 통해 개별 경물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 기미본은 회화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개별 건물에는 원근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감을 표현했고, 도면에는 없었던 나무를 많이 그려 넣었으며 우물의 경우에도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입체감 있게 그렸다. 또한 세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갈색, 황색, 백색 등을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며 특히 모든 건물의 기단부 주위에는 옅은 녹색을 설채하여 전체적으로 현장감을 더해 주었다.
- 회화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나무의 경우 줄기, 가지, 잎 등의 자연스러운 묘사와 화사한 색채에서 전문 화가의 숙련된 솜씨가 잘 드러난다. 특히 蓮池의 경우 연잎의 크기, 모양 등에 변화를 주고 푸른 물을 일부러 얼룩덜룩하게 칠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다. 장용영을 蓮府라고도 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蓮花坊이었으며 연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연지의 표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연지에는 당시 화가의 지문이 여러 개 남아 있기도 하다.
- 기미본은 부감시를 취하면서 건축물을 평면도 방식으로 정확하게 채색으로 묘사

한 그림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크다. 이전의 사례들은 의궤 같은 목판본 책에 포함된 작은 도해이거나 필사본 화첩의 소략한 기록화 정도이다. 기미본은 크기 뿐 아니라 뛰어난 수준의 회화적 표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버금가는 것으로는 <위암선생 등청도>(국립중앙박물관), <문묘향사배열도>(성균관대박물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확한 축척에 기초한 그림은 아니다.

- 규모와 수준에서 기미본과 비견되는 건물도로는 1824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궁도> 정도이다. 그러나 <경우궁도>는 서양화법을 수용한 평행사선 부감법으로 그린 것이다. 즉 정간 구획을 따르는 間架圖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평행사선 부감법은 훨씬 더 실감나는 구도를 구현하기 때문에 <동궐도>처럼 장대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기미본이 당시 널리 사용되던 평행사선 부감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보수적인 부감시를 따른 이유는 기미정간본과의 밀접한 관련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진찬도의 경우에도 평행사선 부감법 보다는 부감시를 선호했는데, 회화적 효과 보다는 기록성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미본 역시 기미정간본과 한 발을 이루어 제작됨으로서 장용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간가도와 이를 기초로 한 건물도라는 희소한 사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기미본을 제외하고는 궁궐, 관아의 간가도와 일치하는 채색 건물도는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특히 대형 간가도식 평면도와 회화식 건물도가 한 벌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 참고문헌

-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舍의 建築的 特性」, 『장서각』 21(2009), 39-75.
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21(2009), 5-38.
김경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경우궁도景祐宮圖’에 관한 연구」, 『문화재』, 44권 1호(2011) 196-221.

○ 기 타

소장경위 : 정간신유본에는 宣禧宮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종이표가 부착되어 있다. 기미본과 정간신유본은 1981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 정간기미본은 정확한 입수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1958년에 이관되었다.

<참고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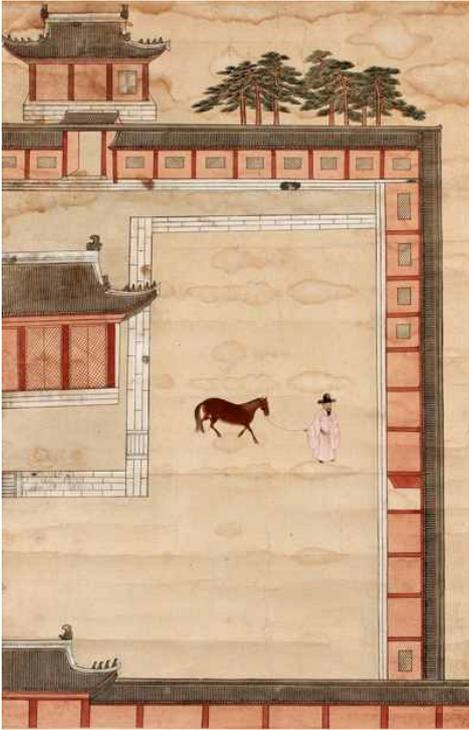


그림 183. <위암선생등청도>
111x72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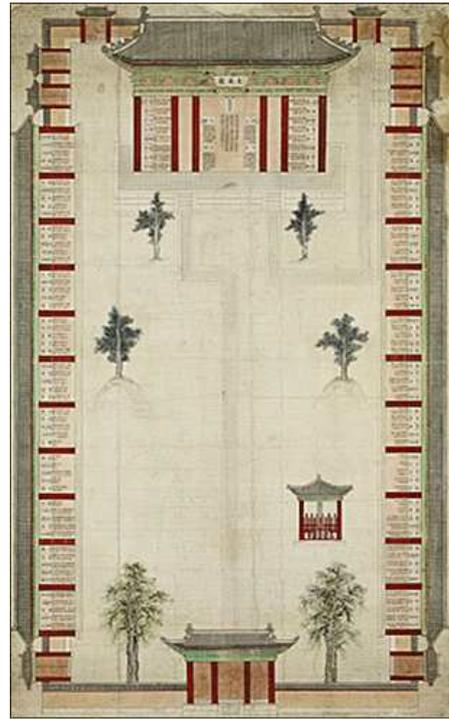


그림 184. <문묘향사배열도>
128x78.8cm, 성균관대박물관

□

○ 형 식 : 접포장(摺鋪裝), 채색 계화 및 간가도

세 점의 도형은 건물군의 영역이 모두 들어 갈 수 있도록 종이를 이어 붙여 큰 대지를 만들고, 같은 축척으로 조선 정조년간 설치된 장용영 내영의 배치를 그린 건축도이다. ‘己未’라고 간지가 적힌 도형 2점은 건물의 입면도가 보이도록 배치한 부감도법의 채색도와 평면구조를 보여주는 間架圖가 짝을 이루고, ‘辛酉’라고 간지가 적힌 도형은 간가도만 1점이다.

세로 방향은 5번 접고, 가로방향은 4번 접어 뒷면에 종이를 붙여 표지로 삼았다. 기미년의 두 도형은 백능화문 옥색 표지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 띠를 대고 다시 종이를 붙여 ‘本營圖形’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표제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간지를 적었고, 간가도에는 표제 아래에 ‘井間’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간지를 적었다. 신유년 도형의 장황은 기미본과 같으나 표지의 종이색이 다르고 표제부의 붉은색 띠를 대지 않았다.

기미본에 비하여 신유본은 동남쪽 부분에 행각이 추가되어 있어 건물을 증축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미본의 채색도와 신유본의 좌측 상단에 1787년부터 증축되는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적어 붙여 놓았다.

○ **조성연대** : ‘기미’본 2점 - 1799년(정조23), ‘辛酉’본 1점 - 1801년(순조 1)

도형의 표제에 ‘己未’와 ‘辛酉’라는 간지가 적혀 있어서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도형의 표현대상인 장용영이 설치된 정조년간 중에서 ‘己未’년은 1799년이고, 도형내에 표기된 증축내용이 ‘기미’본에는 “己未年 新建 一百一十一間”까지, ‘신유’본에는 기미년의 신건기록 뒤에 “辛酉年 新建 一百二十四間”이 첨가되어 있어 ‘辛酉’년은 1801년임을 알 수 있다.

○ 현 상

1) 『본영도형』의 내용

『본영도형』은 현재의 종로4가 인의동 일대에 정조년간에 설치된 장용영의 내영營業를 그린 건축도이다. 도형의 표제에는 ‘본영도형’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도형의 좌측(서쪽)길에 ‘梨峴大路’라 적혀있는 것을 단서로 표현 대상이 장용영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 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제21집, 2009.4.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業의 건축적 특성-<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1집, 2009.4.)

장용영은 1787년 이현궁 터에 자리 잡았다. 『본영도형』己未본과 井間 辛酉본의 좌측 상단에 증축한 해와 칸수가 적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장용영 설치당시 이현궁의 기존 건물은 66칸으로 여기에 새로 6칸을 추가했다. 이어 5차례의 증축을 거쳐 1801년에는 총 653칸 반의 규모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영도형』3점은 동일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건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3점의 도형을 종합하여 장용영 내영의 건물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도형으로 파악된 장용영 내영은 크게 4영역으로 나뉜다. 상급 관료들의 공간인 내대청, 하급 실무자의 공간인 외대청영역, 군기제작을 담당하는 장인들의 군기대청 영역이 행각과 담장으로 구분되고 동측으로 좁고 긴 대지에 창고와 군역자들의 입점처소가 마련되었다. 기미본에는 창고의 남쪽은 공지로 담장이 없이 대지 경계선만 그려져 있다. 辛酉본에는 이곳에 鄉軍과 都軍의 처소와 창고가 대지 외곽선을 따라 증축되었다. 남북으로 긴 마당은 貫革基라 적혀 있어 활터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활터에 면한 향군과 도군의 入接處 정면에는 담장을 두어 동선을 통제하고 시야를 가리도록 했다.

서측 이현대로에서 주진입이 이루어져서 외대청 마당에 들어서고, 그 동쪽에 敎鍊官廳과 知穀官廳이 담장을 둘러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외대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바깥쪽으로 퇴칸을 들렀으며 기단이 낮고, 석주를 높이 올려 창경궁 송문당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내대청과 외대청 사이에는 석단을 쌓고 은행목을 심었다.

내대청은 정면 7칸, 측면 2칸에 바깥쪽으로 4면 모두 퇴칸을 들렀다. 좌, 우협칸만 온돌방이며 중앙의 5칸은 대청으로 구성되었다. 내대청 남쪽에 종사관 대청이 있고, 북쪽에는 司書牌房, 堂上所, 庫直房이 있고, 각각 마루와 방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내대청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내대청 남동쪽의 米庫이다. 평면상의 주간 간격도 상당히 넓고, 입면상 기둥이 노출되지 않은 벽돌조 건물이다. 내대청 주변의 행각은 중층의 누상고로 이루어져서 각종 軍器와 쌀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지의 남쪽에 치우쳐서 口자형의 행각안에 군기대청이 있으며 행각에는 각색장인과 冶匠의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장용영 營舍내에서 기능이 다른 영역이므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 뿐 아니라 조경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채색된 『본영도형』기미본에는 내대청과 외대청, 군기대청 등 주요 공간에는 각각 규모가 다른 연못을 조성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며 내대청의 연못에는 草亭을 두었다.

위에서 『본영도형』3가지 도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군영의 공간 구분과 각 공간의 주요건물과 부속건물의 규모 및 형태, 실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본영도형』의 외곽에 명기된 도로와 지명, 그리고 대문의 위치와 방향으로 주변대지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2) 『본영도형』의 제작 방법과 축척 비교

조선시대에 제작된 건축도는 현대건축에서의 ‘도면’과는 그 명칭과 도법, 공간에 대한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인이 건물을 알기 쉽도록 여러각도의 시점을 하나의 건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와함께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단순하게 기호화하여 건축생산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용하기 위한 보다 기술적인 도형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건축도는 종류에 관계없이 圖, 圖形, 圖式 등으로 통칭되었다.

『본영도형』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장용영이라는 대상에 대해 제작된 건축도이다. 3점의 도형은 종이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건물외곽의 크기는 거의 같아서 같은 축척으로 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이 있는 영역의 크기만 보면 남-북 폭은 채색도가 2mm 더 크고 정간의 두 도형은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 겹쳐보아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본영도형』己未본과 井間 己未본을 겹치면 정간 간가도의 정면 기둥열이 채색도의 입면 기둥 하단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기둥 간격도 내대청 남쪽의 米庫와 樓上庫를 제외하고는 거의 간가도와 일치하고 있다. 담장의 위치나 동남쪽 모서리 공터부분의 붉은 대지경계선이 각도와 위치에서 조금씩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가도를 아래에 깔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채색도의 기둥간격과 건물간 위치 등은 간가도에 따라 축척을 맞추어 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각기 제작시기가 다른 간가도인 『본영도형』井間 己未본과 井間 辛酉본을 겹쳐 보면(좌측 하단과 상단 모서리 일치 기준) 井間 己未본의 서쪽 행각이 살짝 안으로 휘었으며 내부의 건물들 위치가 동쪽으로 약 1/4칸~반칸 정도 치우쳐 있다. 辛酉본은 남동쪽으로 군인처소와 창고가 증축된 부분이 추가되어 종이의 크기도 정간 기미본 보다 약 13cm 크다.

외곽선의 각도와 담장의 위치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 경우도 앞선 己未본의 두 도형과 마찬가지로 앞의 도형을 아래에 깔고 그린 것이 아니고 정간에 맞추어 필사한 것이 두 도형사이의 오차는 정간의 간격이 필사된 것에 따른 오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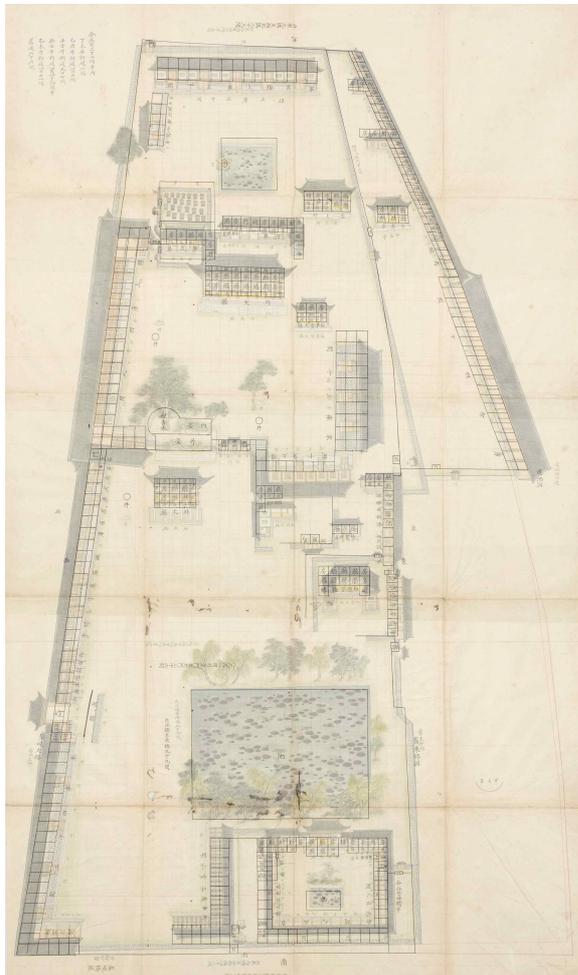


그림 185] 『본영도형』己未+井間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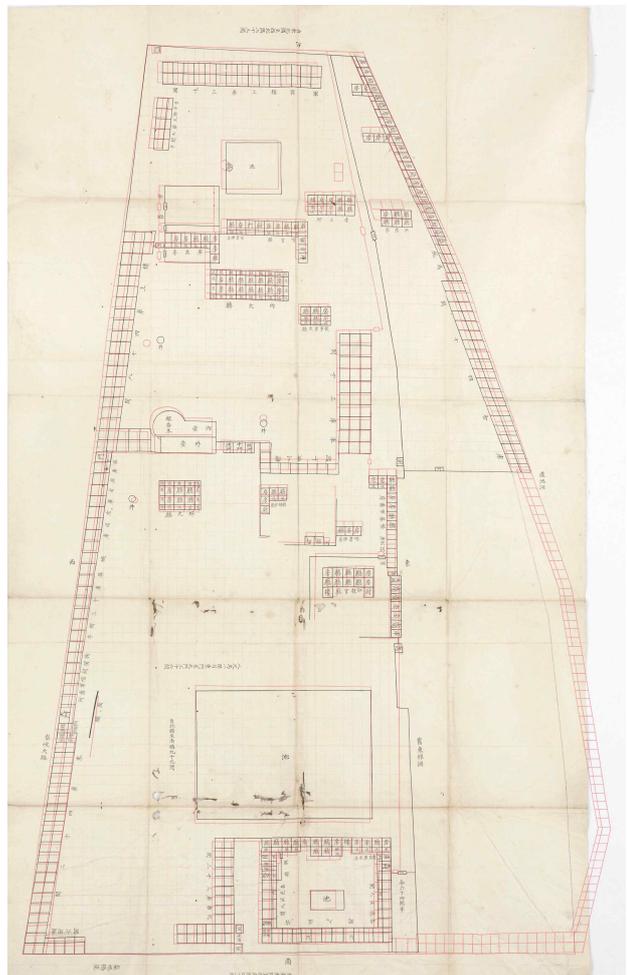


그림 186] 『본영도형』井間 己未(검정색)+井間 辛酉(붉은색)

표1] 도형에서 건물 외곽의 크기와 격자간격

도형	북측변길이(mm)	남측변길이(mm)	남-북 길이(mm)	격자 간격(mm)
『本營圖形』己未*	422	1,050	1,738	-
『本營圖形』井間 己未	417	1,045	1,736	17,5~18
『本營圖形』井間 辛酉	415	1,054	1,736	17,5~18

*입면도로 표현된 지붕 상단까지 측정 했으므로 다른 두 도형과 차이가 있다.

건축도는 실제의 큰 대지와 건물을 일정한 비례를 가지고 축소하여 종이에 그리는데, 그 축소 비율을 나타낸 것이 井間本の 붉은색 격자선이다. 『본영도형』정간본은 둘 다 대지 경계선 안쪽에만 격자선을 그렸다.

가로방향, 세로방향을 격자간격을 각각 조사한 결과 己未본과 辛酉본 정간의 간격이 같으며, 세로방향은 17.5mm, 가로방향은 상단은 17.6mm, 하단은 17.7~18mm였다. 정간은 필사한 것이므로 오차가 조금씩 있어 전체 길이를 칸의 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했다. 축척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외대청 마당 중간쯤에 ‘八尺爲一間’이라 적혀 있는데 격자 1칸이 8자라는 의미이다. 정조년간의 1자는 수원화성의 화서문에서는 308mm, 낙남헌은 310mm로 용척을 산정하고 있어서 이를 대입해 보면 『본영도형』井間本の 축척은 약 1/140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본영도형』己未

장용영 건물군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俯瞰圖法으로 그린 채색 도형이다.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보는 시점에 따라 각각의 정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 진입방향에 따라 입면을 배치하였으며 대문 및 중문이 누워있는 방향은 진입동선 방향에서 정면을 그리는 방식을 취했다.

『본영도형』己未본은 『본영도형』井間 己未본을 바탕으로 어람용이나 보고용으로 장용영의 건물과 공간을 쉽게 이해 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두 도형은 건축정보 전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건물전체는 俯瞰視로, 세부적으로 전면에 창호나 벽이 없이 안쪽까지 보이는 경우는 투시도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영역내의 중심건물인 내대청과 외대청, 군기대청 등은 정면 상하이동 시점의 투시도법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외곽을 형성하는 행각과 부속 건물들은 입면을 표현하되, 내부까지 보이는 경우는 투상도법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은 한 장의 그림으로 건물의 외부형태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건물의 아래쪽에는 건물의 기능에 따른 명칭을 적었으며 외행각의 남, 북 바깥

쪽에는 각 변의 길이가 間으로 적혀 있고, 동쪽에는 ‘蓮池洞川邊’, 서쪽에는 ‘梨峴大路’, ‘舊東部洞’이라 적혀 있는데 18세기 중반의 도성지도와 일치하고 있다.

건물의 입면은 기단, 초석과 디딤석, 방과 마루의 창호형태, 벽체의 재료(전돌, 판벽 등)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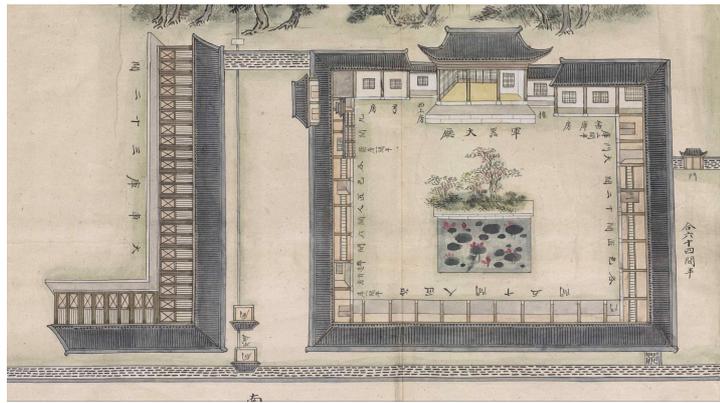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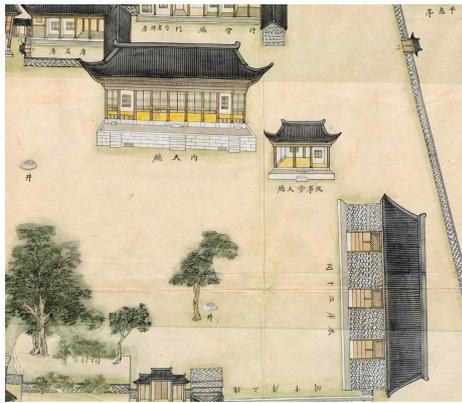


그림 187] 『본영도형』井間 己未본의 내대청영역 그림 188] 『본영도형』井間 己未본의 군기청영역

『본영도형』은 전통적인 정면부감도법을 사용하였지만 기존의 관아도에서 건물군의 외곽을 방형의 틀속에 맞추어 그린 점과 다르게, 넓은 영역을 도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지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이 그 이전의 부감도법의 관아도와 다른 점이다. 또한 건물 내부를 깊이감 있게 투시하여 표현하고, 재료와 창호의 형태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에 제작되는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각인 평행사선 부감법으로 그려지는 「화성행궁전도」와 「동궐도」로 이어졌다고 본다.

궁궐과 관아의 건축물을 주 대상으로 그린 부감도법의 채색도형은 그 실존 사례가 극히 적고 문헌의 기록도 드물다. 1555년(명종 10) 명종의 명령으로 ‘漢陽宮闕圖’를 병풍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표현」, 『동궐』, 2012).

영조년간의 제도정비와 지도제작은 정조년간 영건의궐에 도설이 수록되는 근간이 되었으며, 18세기에는 꾸준히 기술도와 건축도의 작성이 시도되었다.

정조년간 화성 건설과정에서 풍부한 도형을 제작하게 되는데 화성행궁도와 화성전도는 목판으로 인쇄되어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되었고 혜경궁 홍씨를 위해 제작된 『뎡니의궤』(1797)에 행궁과 화성의 전도, 성곽의 주요건물들의 채색도형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형은 평행사선부감법으로 그려진 것으로 1828년경 제작된 「동궐도」와 같은 도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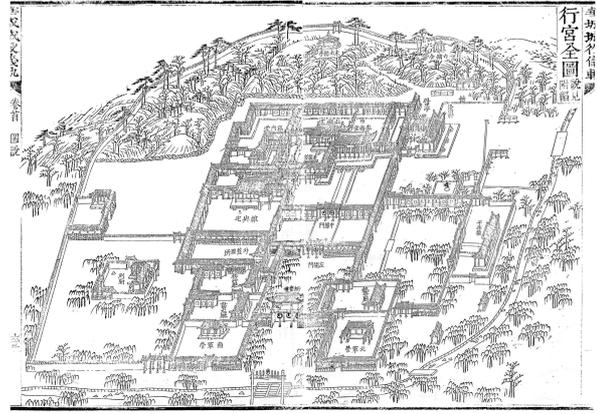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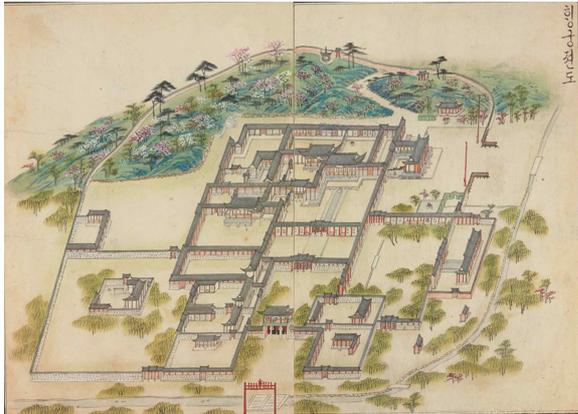


그림 189] 화성행궁전도(행궁전도, 『덩니의궤』, 1797, 프랑스 대학언어문명도서관)

그림 190] 화성행궁전도 (행궁전도, 『화성성역의궤』)

건축도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동궐도」(2,730×5,840mm, 고려대학교박물관, 2,740×5,782mm, 동아대학교박물관, 국보 제249호)는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것으로 접어서 보관하는 화첩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 시기는 1828년에서 18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화적인 가치도 높지만 조선후기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일관성 있는 도법으로 구현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궁궐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개의 본이 남아 있으며 접어서 책자형태(457×363mm)로 보관하는데, 총 16책으로 구성되었다. 보관과 열람이 쉬운 책자형태로 볼 때 감상용 보다는 실용적인 활용을 위한 도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궐도안」(1,290×3,970mm, 고려대학교박물관)은 경희궁을 그린 것으로 「동궐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도법도 같다. 종이에 먹으로만 그렸으며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동궐도」와 같은 채색도를 그리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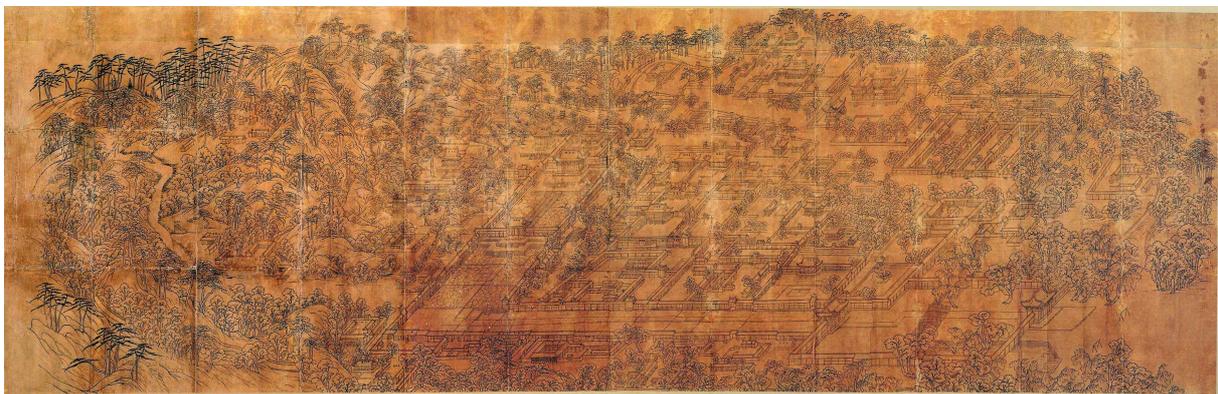


그림 191. 「서궐도안」(19세기 전반, 고려대학교박물관)



그림 192] 「동궐도」(1828~1830년,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보 제 249호)

관아를 그린 부감시의 도형은 주로 官署誌에 수록된 배치도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관서의 연혁과 조직, 업무, 관련자료 등을 수록하여 후일 참고할 자료로 삼기 위해 관서지를 편찬하였다. 관서의 도형이 수록된 것은 『태상지(太常志)』(1766년, 봉상시), 『탁지지(度支志)』(1788년, 호조), 『태학지(太學志)』(1785, 성균관), 『추관지(秋官志)』(1788년, 형조) 이다.

관서지의 관아 도형은 채색을 하지 않았으며, 지붕을 위에서 내려다 본 俯瞰視의 정면도를 그렸으며 주요건물에서 입면의 창호를 묘사했다. 세로방향의 건물은 지붕만 그렸으며, 전면에 창호가 없는 대청이나 헛간(虛間), 문은 각 칸마다 시점을 이동하면서 투시도법으로 그려서 건물 내부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문을 통한 진입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제작된 관서지의 배치도는 개별 건물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면서도 도법에 일관성이 없고 여러 방향의 시점과 표현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영조 42년(1766)에 간행된 『태상지』의 봉상시 배치도는 각각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이 보이도록 눕혀져 있어서 개별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보여주고자 한 점에서 『본영도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지붕만 보이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 『탁지지』의 「본아전도」(1788년)를 보면 방형으로 한정된 형태에 행각과 건물을 배치하였다. 개별 건물의 지붕은 입면이고 기단부와 내부 바닥은 투시도법으로 표현되었으며 연못은 등각투상법으로 표현하는 등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시점이 반영되어 있다.

관서지의 관아 배치도는 전문화된 건축도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18세기 후반에 다양한 도법으로 건축물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본영도형』은

관서지에 수록된 관아도의 도법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건축도다운 묘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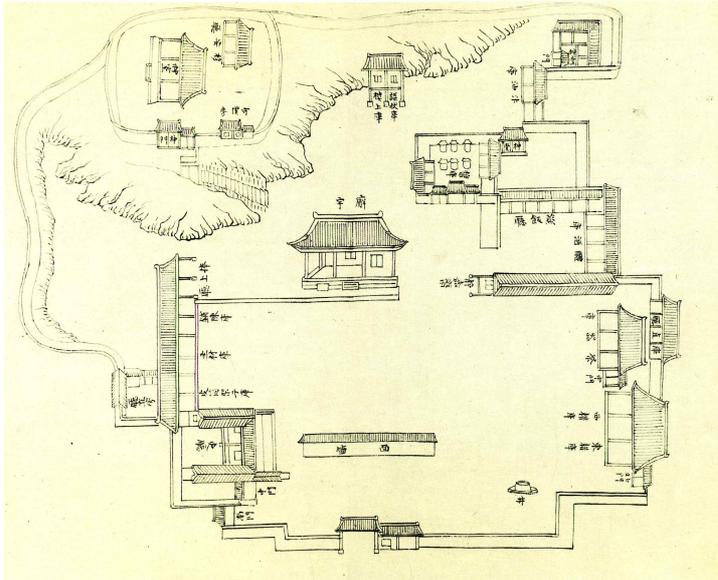


그림 193] 봉상시 배치와 건물들(1766, 『태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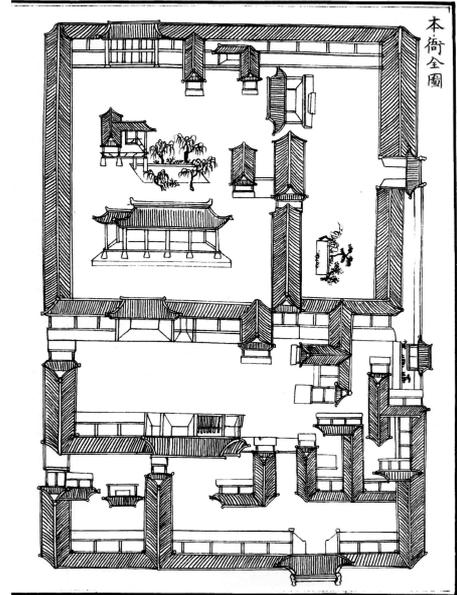


그림 194] 호조(1788, 『탁지지』)

이외에 19세기의 문신 한필교(1807~1878)가 자신이 봉직한 읍치와 관아를 그려 화첩으로 꾸민 『宿踐諸衙圖』(하버드-엔칭도서관)에 수록된 관아도가 있다. 기록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작년대가 확실하고 8개소의 관아의 건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비교적 일관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숙천제아도』의 관아도들은 「동궐도」와 같은 평행사선부감법이 아닌 『본영도형』과 같은 입면진개형 부감법과 부분적으로는 등각투상법, 투시도법 등이 혼용되어 있어서 『본영도형』의 도법이 19세기 중반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조를 그린 도형은 1839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탁지지』에 수록된 「본아전도」와 도법과 묘사방법까지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지붕 위쪽에 건물의 명칭을 적었다. 『宿踐諸衙圖』의 관아도는 건물의 사실적 묘사에 더하여 건물명칭과 규모 등을 해당건물 아래나 위에 적어 놓는 점이 『본영도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선혜청은 1861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영도형』과 같이 대지가 사다리꼴로 한쪽 변이 좁아지는 형상이다. 건물의 묘사는 수록된 다른 도형에 비하여 간략하지만 도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본영도형』과 같으며 칸수와 명칭을 빠짐없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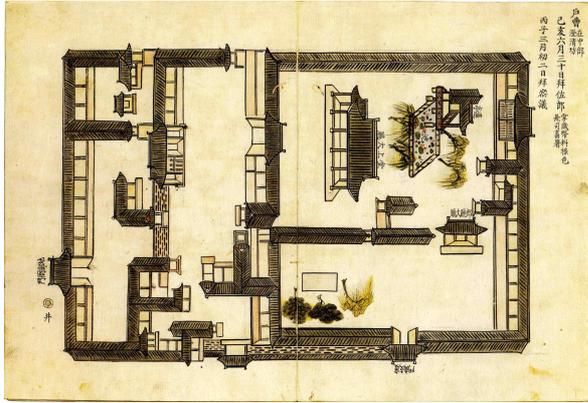


그림 195] 『숙천제아도』의 호조(18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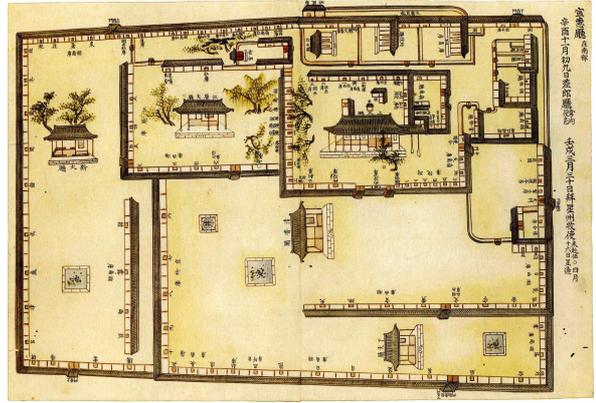


그림 196] 『숙천제아도』의 선혜청(1861년)

2) 『본영도형』井間 己未본과 辛酉本

2점의『본영도형』井間본은 축척을 가진 간가도이다. 間架는 조선시대에 건물의 구조와 규모를 지칭하는 의미로 『세종실록』에서부터 그 용례가 보인다. 일찌감치 간가도형식의 도형이 제작되어 문헌에 수록되기도 했지만 ‘간가도’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수록된 도형은 『(정조 건릉)산릉도감의궤』(1800)의 ‘채실간가도’가 처음이다.

문서에 첨부용으로 그려진 간가도는 정간을 그리지 않아 축척을 알 수 없고 다만 대상의 평면 구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영도형』井間본은 격자선을 바탕으로 제작된 도형을 간가도 중에서도 ‘정간’으로 지칭 하는 사례이다. 『본영도형』井間본의 간가도는 지도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먹선 혹은 주선으로 격자선을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의 기둥과 架構를 평면에 단선으로 도식화해서 그린 도형이다. 간가도에는 구조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나 쉽게는 평면도로 인식된다. 건물의 주칸 안에는 실의 구성을 적어 넣기도 하고 건물의 명칭나 용도를 아래쪽에 적은 형식이 일반적이다.

간가도의 각 칸에 房, 廳, 廚, 庫, 虛와 같은 실의 형태를 적어 넣는데, 글씨를 건물의 정면 방향으로 적어서 기존의 입면전개형부감도법을 근간으로 점차 도식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의 표현에서 두드러지는데 18세기의 간가도에 협문이나 대문 등 입면을 높혀 그리기도 했으며 이것이 점차 도식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정간을 바탕으로 그린 간가도는 건축도에 축척개념이 부여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간가도 중에서『본영도형』이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본영도형』은 간가도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표지를 갖추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사례이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간가도는 낱장으로 표지나 장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제작 주체나 년도가 알려져 있지 않고, 원 소장처조차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실무로 활용하기 위해 정간 간가도를 제작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용도로 제작된 간가도는 공사가 완

료되거나 그 기능을 다하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정간 간가도는 궁궐, 궁가, 민가에 관한 것들이 남아 있으며 관아를 그린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궁가의 간가도는 18세기의 것이 남아 있으나 정간을 그리지 않은 것이고, 정간을 바탕으로 삼아 그린 것은 『본영도형』을 시작으로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이 남아 있다.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 안쪽에만 정간을 그린 것은 『본영도형』만의 특징인데, 이후의 정간 간가도는 종이 전체에 정간을 그렸다.

궁궐 관련 간가도는 수량이 적다. 궁궐 전체의 배치를 한 장에 그린 것과 주요 전각을 중심으로 한 영역만 그린 것,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경복궁을 그린 「북궐도형」과 창덕궁 및 창경궁과 후원을 그린 「동궐도형」이 있다. 이 도형들은 정간 1칸의 크기가 11.4mm이고(약 1/200), 궁궐의 규모가 크므로 전체 도형의 크기는 『본영도형』보다 3배 가량 크다.

현재 전하는 궁궐의 간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2] 궁궐 간가도

도형	도형 크기 (세로×가로,mm)	격자 간격/ (mm)	제작시기	소장처
본영도형-정간 기미	1,935×1,111	17.7	1799년	고려대학교박물관
본영도형-정간 신유	1,927×1,240	17.7	18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창경궁)통화전도형	967×808	없음	1805년 전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덕궁도형	(미확인)	없음	1834년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대궐도형	671×520	20.1	?~186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교티전도형	393×530	없음	1865~189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통화당도형	410×613	14.2	1865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덕궁)낙선재도형	571×627	11.7	1863~186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인초소도형	825×715	없음	19세기말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배치도	4,070×2,650	11.7	1888~1890	고려대학교박물관
경복궁후원도	2,340×2,020			
북궐도형	4,425×2,760	11.4	1905~1907	규장각
	4,320×2,800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궐후원도	2,350×2,840	11.4	1905~1907	규장각
	2,310×2,820			국립문화재연구소
동궐도형	5,932×3,384	11.4	1905~1907	규장각
	5,900×3,44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영도형』이외의 도형들은 모두 해당 전각의 존치시기를 토대로 제작연대를 추정한 것이다.

궁궐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건물이 모여 있는 매우 복잡한 건축군이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궁궐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후 경복궁 복구를 위해 계획하면서 건물터를 살피고,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지을 건물의 도형을 그리는데, 궁궐의 일을 잘 아는 사람, 화원, 그리고 목수가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린 도형은 왕이 검토하고 수정해 나갔다(『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6월 17일(갑인)).

고종대에는 궁궐의 도형을 여러 본 제작하여 왕과 해당 부서에도 각각 비치하고 있었으며, 궁궐의 수리 및 영건에 활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 5월 12일).

『본영도형』 제작 직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경궁)「통화전도형」은 1805년 혜경궁 홍씨의 혼궁으로 사용하면서 크게 수리를 한 전각이다. 그 수리시 사용한 도형으로 추정되는데, 바탕에 정간 없이 그려졌지만 8자 짜리 행각 1칸이 24mm로 그려져서 축척을 가늠할 수 있다. 담장이 단선으로 된 점, 판장에 단선으로 그리고 글자를 넣은 점 등은 『본영도형』과 같은 표현방식이지만 門을 凸자 형태로 표기해서 문이 보다 더 기호형태로 변한 모습이다.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창덕궁도형」은 창덕궁 내전일곽이 화재로부터 복구된 1834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앞의 (창경궁)「통화전도형」처럼 정간을 그리지 않고 담장은 3개의 선이고, 판장은 단선으로 그렸다. 석축의 표현방식이나 담장, 일각문의 표현은 입면전개도에서 도식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는 창덕궁의 전각 수리시, 경복궁의 중건시 해당 전각만을 그린 것들이 소수 있는데 이 도형들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북궐도형」, 「동궐도형」과 그 형식이 같고 도형내에 문자로 표기되는 내용에 가감이 있다. 담장은 복선으로 통일되고 일각문은 복선의 凸자 형태로 일정하게 통일 되었다.



그림 197] 「동궐도」의 창경궁 통화전 일곽



그림 198] 「동궐도」의 창덕궁 대조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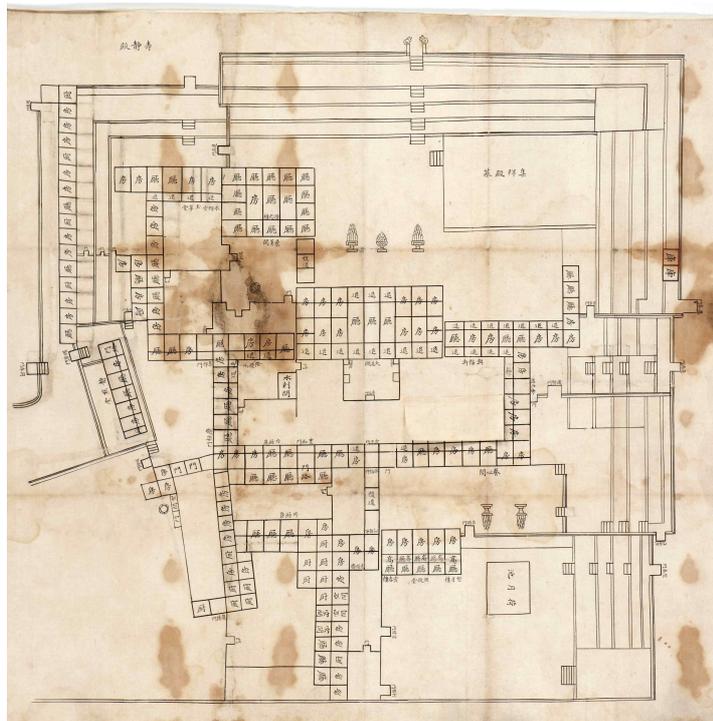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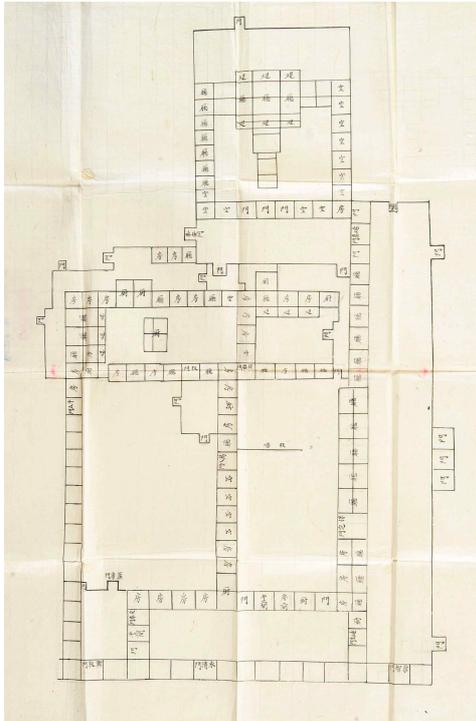


그림 199] (창경궁)「통화전도형」(국립 문화재연구소) 그림 200] 「창덕궁도형」(국립고궁박물관)

1887년경 경복궁의 전각 배치를 그린 「경복궁배치도」(고려대학교박물관)는 「북궐도형」과 형식이나 크기가 거의 같다. 이 도형을 통해 궁궐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체배치도를 반복적으로 제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 뿐 아니라 관아의 경우도 『본영도형』과 같이 증축과정에 따라 도형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경복궁배치도」는 도형의 명칭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소장처에서 명명한 것으로 현대적인 도면개념의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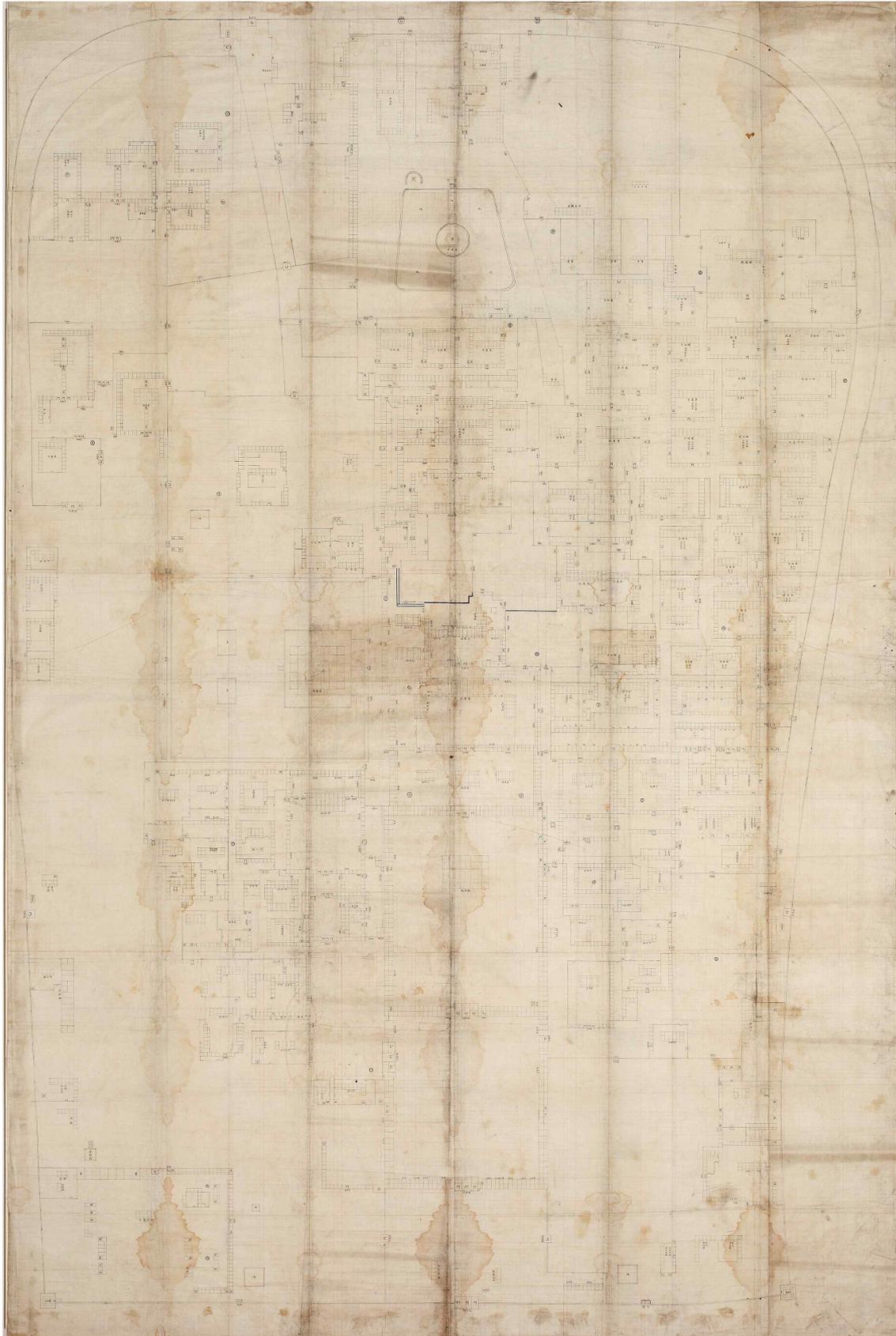


그림 201] 「경복궁배치도」(고려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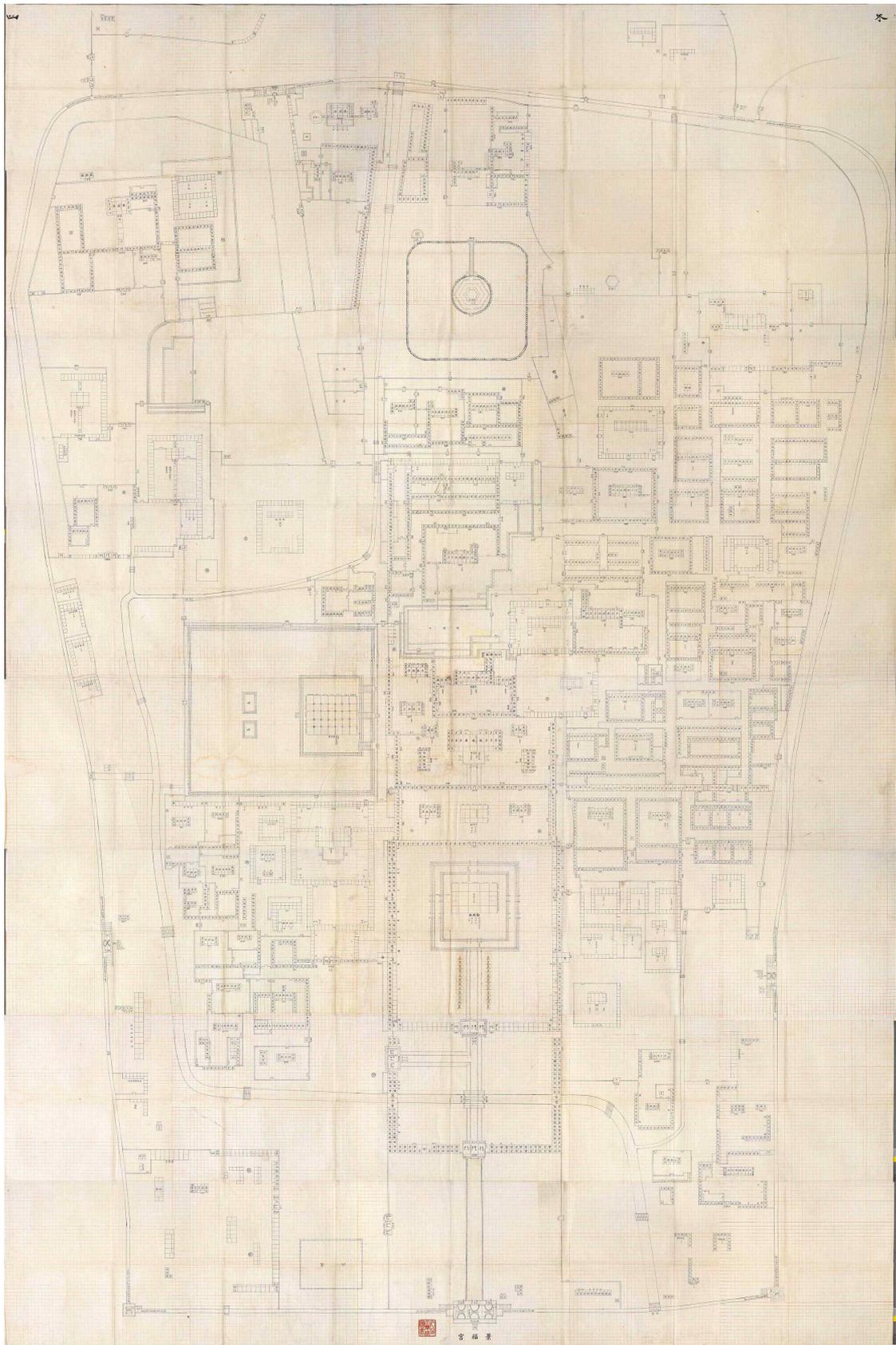


그림 202 「북궐도형」(규장각한국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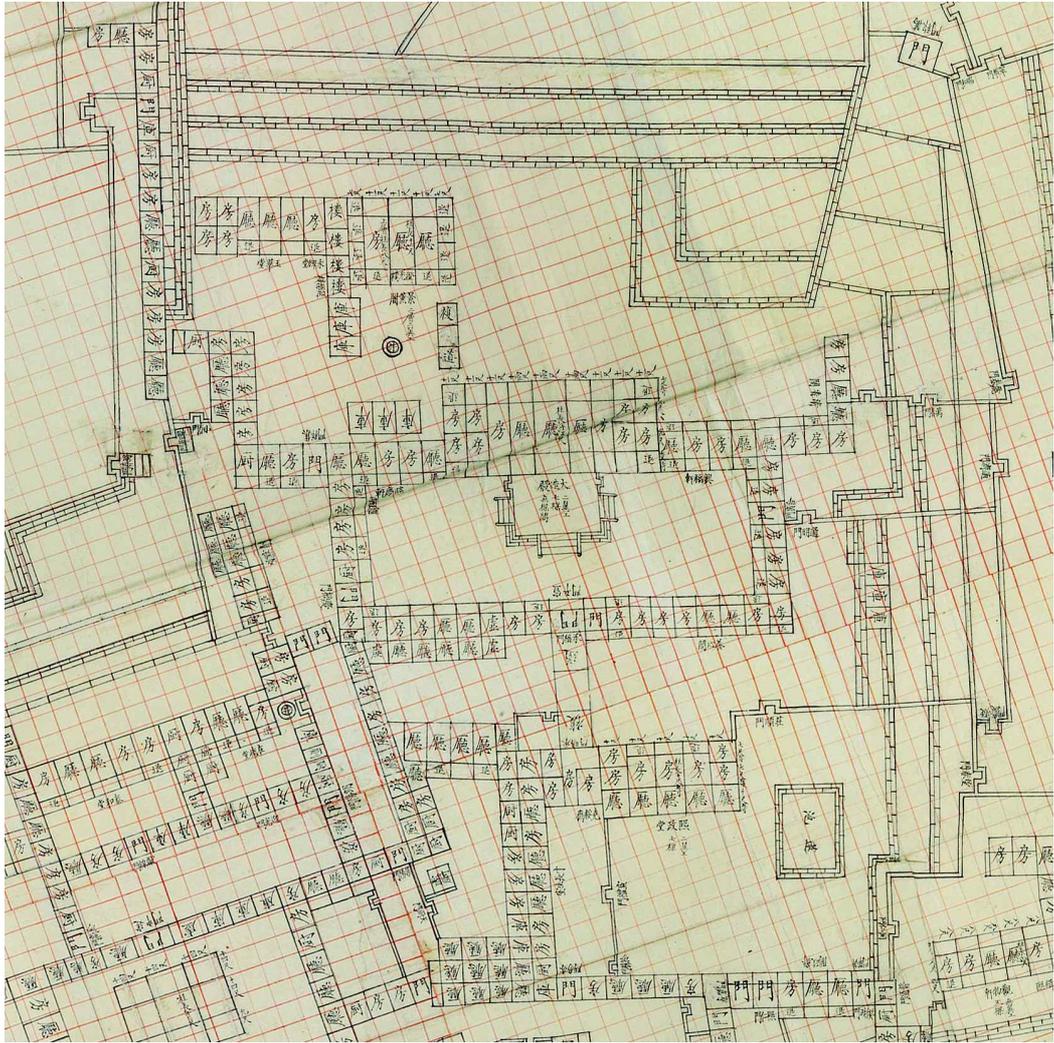


그림 203] 「동궐도형」(규장각한국학연구소)

마지막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북궐도형」과 「동궐도형」은 「경복궁배치도」와 같은 형태이나 석축이나 월대, 어로 등 건물 이외의 부분에 대한 표기가 추가되었고, 주요 전각에는 공포형식과 건물의 구조를 적고, 주간의 尺數를 적어 넣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건축정보를 담고 있다.

정간을 바탕으로 그린 『본영도형』의 정간도는 그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남아 있지 않고, 대지의 안쪽에만 정간을 그린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형에 정간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의 것으로 사료된다.

18세기 다양한 건축도형의 시도와 함께 현장기술자에 의한 간략한 형태의 도형은 상급관리자, 기획자와의 소통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도식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본영도형』이 제작되는 18세기 말에는 축척이 부여된 정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9세기 동안 경복궁 중건 등의 궁궐건축 조영과정에서 제작된 도형들은 건축정보 전달이라는 체계를 갖추었고, 간가도는 정간을 바탕으로 축

척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었다. 20세기초에 제작된 「북궐도형」과 「동궐도형」과 같이 수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의 전체 배치와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본영도형』은 이와 같은 건축도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본영도형』의 특징

『본영도형』은 정조년간 이현대로의 동쪽(인의동)에 위치했던 장용영 내영의 건축물의 면모와 배치를 그린 건축도이다. 총 3점의 접포장 형태로 표제는 『본영도형(本營圖形)』이고, 그 아래 각각 간지(己未, 辛酉)와 간가도에 한해서 정간(井間)이라 적혀 있다.

도형의 형식은 건물의 입면이 보이도록 눕혀 그린 채색 입면전개형 부감도법의 배치도와 적색 격자선에 평면구성을 일정한 축적으로 그린 간가도(間架圖)가 1조를 이루는 건축도이다.

입면전개형 부감도법의 배치도는 행사기록화 등에 그려진 건축내용과 다르게 건축물 자체의 형태적인 정보를 전체 건물군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영도형』은 도형의 실제 활용기능에 적합하도록 일관성 있고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같은 대상에 대해 1799년, 1801년 두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시기에 따른 건축물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고, 조선시대 건축도의 발전과정과 제작 방법 및 활용사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동서남북의 방위가 적혀 있는 점,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여 축척을 가지고 작도된 점이 근대적인 건축기술도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369)

廳舍條에 본영의 전체 규모를 446칸이라 하고 각 건물들의 명칭과 칸수가 적혀 있다. 『본영도형』(기미)의 513칸 반 보다 적어서 그 이전 시기의 장용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기 타

소장경위 : 1981년 문화재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된 자료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 裴祐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한국사론』 24, 서울대, 1991
- 김왕직·김홍식, 「조선시대 건축배치도의 도법과 사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98.6.
- 이혜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史料價値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8.8.
- 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 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제21집, 2009.4.
-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舍의 건축적 특성-<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1집, 2009.4.
- 김선주 외, 『숙천제아도』, 민속원, 2012.
-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표현」, 『동궐』, 2012.
- 송인호, 「四方顛倒描法 연구-〈宿踐諸衙圖〉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2013.
- 이혜원, 「조선시대 건축도의 전개와 특성」, 『동아시아 건축도면의 역사와 특징』, 수원화성박물관 학술총서 5, 2014.



○ 형 식

“장용영 본영도형”은 전통적인 기술도의 한 분야로서 건축도이고, 표기 방식으로는 축척도, 표현 방식으로는 간가도와 채색도의 형식을 보여준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기술도(技術圖)로서, 국가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연혁 등을 기록한 건축도(建築圖)이다.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도는 회화나 약도와 같이 실물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한 축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형태와 비율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 “장용영 본영도형”은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측량을 통해 표기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축척도(縮尺圖) 형식을 갖추고 있다.

3매의 건축도 중에서 표지에 ‘정간(井間)’이라고 표기된 두 매는 건축물의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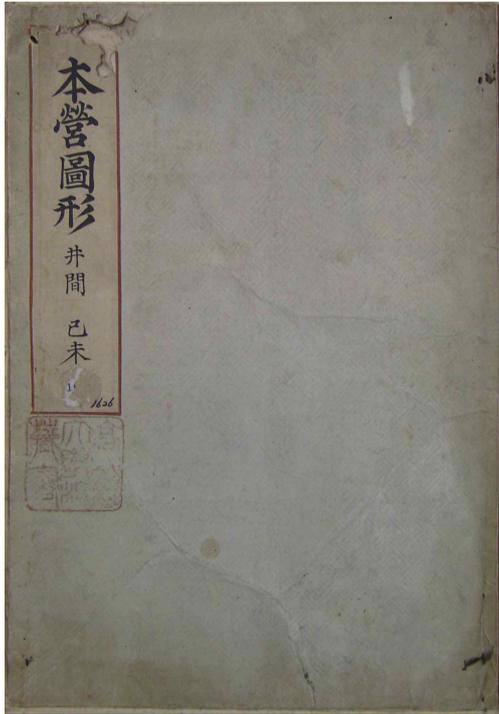
위치를 표기하여 칸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간가도(間架圖)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정간(井間)’은 바둑판 모양의 칸살을 의미하여 제작 당시에 간가도의 표현 방식을 ‘정간’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건축도는 간가도로 제작된 건축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건물의 입면과 조경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채색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건물의 입면은 몇 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넘어뜨려 그린 ‘사방경사묘법(四方顛倒描法)’으로 표현되어 있다.

○ **조성연대** : 1799년(己未), 1801년(辛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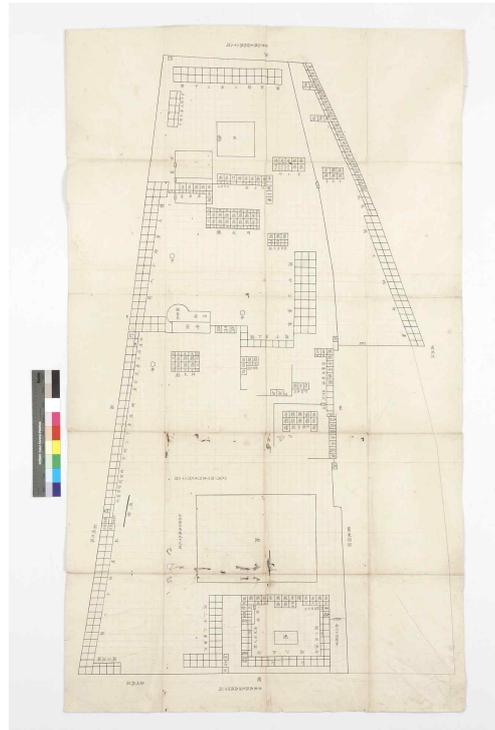
세 건축도의 표지에는 ‘본영도형(本營圖形)’이라는 표제와 함께 ‘기미(己未)’와 ‘신유(辛酉)’의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건축도가 표현하는 종묘 동남쪽의 부지에 ‘본영’이라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것은 정정남, 이왕무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1788년부터 1802년까지 존재한 장용영(壯勇營)이고, 따라서 기미(己未)는 1799년, 신유(辛酉)는 1801년으로 볼 수 있다.

○ **현 상**

1)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표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배치도

두 장을 이어붙인 1,111mm * 1,935mm 크기의 종이에 간가도 형식으로 장용영 본영을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에는 “본영도형 정간 기미(本營圖形 井間 己未)”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배치도의 사방으로 동, 서, 남, 북의 방위가 표기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위치 표현 방법인 동서남북에 면하고 있는 도로, 토지 소유주, 지명 등을 기록하는 사표(四標)가 북쪽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에 표기되어 있다. 동쪽에는 연지동(蓮池洞)과 구동부동(舊東部洞), 서쪽에는 이현대로(梨峴大路), 남쪽에는 이현교거(梨峴橋渠)가 기록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에는 대지의 길이가 각각 自東北隅至西北隅二十三間 自東南隅至西南隅四十一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용영 본영 대지의 규모는 군기대청(軍器大廳) 북쪽의 연못 좌상귀에 八尺爲一間 自東門至大門三十六間 自北牆至南牆九十九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용영 본영의 동남쪽 담장 밖은 붉은 실선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에서 장용영 본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표기된다.

배치도는 검은색 실선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건물은 격자의 칸으로 표기하였다. 장용영 본영의 내부는 동남쪽 담장 밖의 실선과 같은 붉은색으로 격자를 그렸는데,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칸 내부에는 房, 廳, 退, 門, 廚, 樓, 庫, 厠, 馬廄, 虛間 등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고, 건물 밖에는 건물명과 칸수의 규모가 표기되어 있다. 전

체적으로 남북으로 긴 사다리꼴 형태의 필지이고, 남쪽의 외대청(外大廳)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북쪽의 내대청(內大廳) 영역과 평지정(平志亭) 영역 등 세 영역이 담장과 건물로 구분된다.

외대청 영역의 서쪽 행각에는 대문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 장용영 본영의 주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편 동쪽의 동문이 부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에 큰 연못이 있고, 그 북서쪽으로 본건물인 12칸 규모의 외대청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 연못 남쪽에는 口자 형태의 장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연못이 위치하고 있다. 연못 북쪽에는 교련관청(敎鍊官廳)과 지곡관청(知穀官廳)이 위치하고 있다. 내대청 영역의 중앙에는 장용영 본영의 중심 건물인 24칸의 내대청이 위치하고 있고, 전면에 넓은 마당과 주변에 여러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대청의 북쪽에는 연못과 창고가 위치한다. 내대청 영역의 동쪽 담 너머에는 남북으로 긴 행각으로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내부에는 6칸의 평지정이 위치하고 있다.

2)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표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배치도

세 장을 이어붙인 1,125mm * 1,955mm 크기의 종이에 사방경사묘법으로 장용영의 본영을 채색하여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 중앙에는 “본영도형 기미(本營圖形 己未)”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좌측 상단에는 “합五百三十二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乙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九間半 己未年新建一百一十一間 舊建六十六間”의 장용영 본영의 증축 현황이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66칸 건물이었는데, 정미년(1787)에 6칸, 을유년(1789)에 103칸, 임자년(1792)에 97칸, 계축년(1793)에 149.5칸, 기미년(1799)에 111칸을 증축하여, 현재(1799) 합계 532.5칸 규모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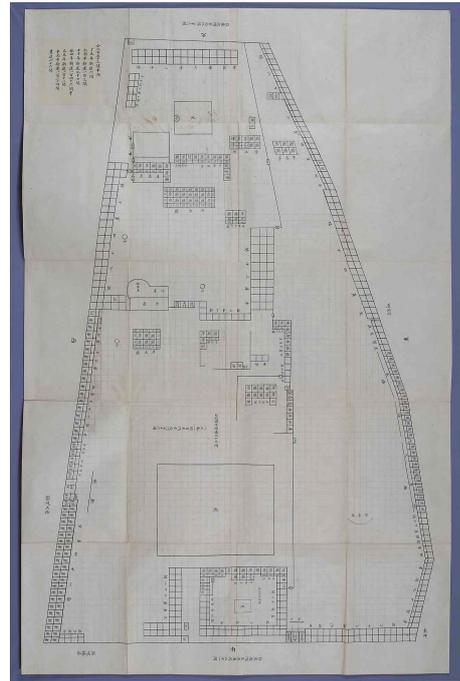
배치도는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간가도 형식이 아닌 사방경사묘법으로 건물의 외관과 나무, 연못 등을 그리고 채색하여 나타내고 있다. 격자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위치와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이 도면 아래에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을 놓고 배치를 그린 후에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용영 본영 영역 밖의 동남쪽 공터를 붉은색으로 표기한 것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 동일하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서 칸 안에 기록한 房, 廳, 退, 門, 廚, 樓, 庫, 厠, 馬廄, 虛間 등의 정보는 그림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바닥과 벽체를 표현하고 있으며, 건물명과 규모의 표기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동쪽 사표가 연지동이 아닌 연지동천변(蓮池洞川邊)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남쪽 외부 공간에 과녁대(貫革基), 평지정 영역에 鄉軍入接所四十四間, 외대청 영역 연못 남쪽의 口자형 건물에 군기대청(軍器大廳) 등이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는 달리 기록되어 있어 추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표지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배치도

네 장을 이어붙인 1,240mm * 1,927mm 크기의 종이에 간가도 형식으로 장용영 본영을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에는 “본영도형 정간 신유(本營圖形 井間 辛酉)”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는 장용영 본영의 증축 현황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合六百五十三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乙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六間半 己未年新建一百一十一間 辛酉年新建一百二十四間 舊建六十六間” 본래 66칸 건물이었는데, 정미년(1787)에 6칸, 을유년(1789)에 103칸, 임자년(1792)에 97칸, 계축년(1793)에 146.5칸, 기미년(1799)에 111칸, 신유년(1801)에 124칸을 증축하여, 현재(1799) 합계 653.5칸 규모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에 비해 신유년(1801)의 124칸이 추가되었고, 계축년(1793)의 149.5칸은 146.5칸으로 수정되었다.

배치도에서 2년 전에 제작된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과 다른 점은 장용영 본영 동남쪽에 붉은색으로 대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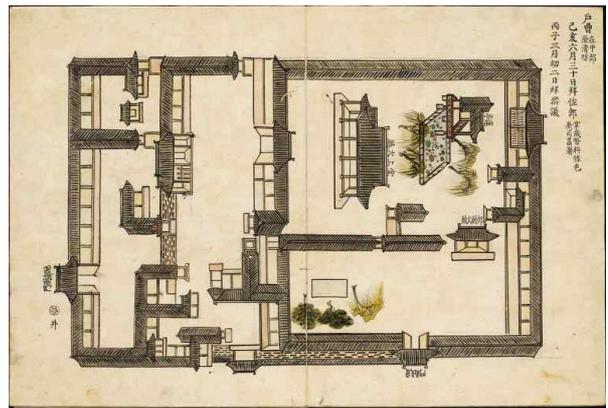
표기했던 과녁대(貫革基)가 위치한 지역을 장용영 본영 내부로 편입하고, 편입된 새로운 대지 경계에 행각을 신축하여 기존의 행각과 연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평지정(平志亭) 영역의 남쪽 담과 문을 철거하고, 평지정 영역과 과녁대 영역을 남북으로 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 표기된 동문은 장용영 본영 내부의 문이 되었고 신축된 동쪽 행각에 새로운 문을 설치하였으며, 군기대청(軍器大廳) 남동쪽 밖으로 기존의 서쪽에 위치한 대문 외에 추가로 남쪽으로 향하는 대문을 설치하였다.

○ 내용 및 특징

1) 「장용영 본영도형」의 제작 과정

「장용영 본영도형」은 건축 기술도로서, 정조 시대의 군사시설인 장용영의 배치를 측량하여 건축도면으로 제작한 것이다. 도면이 제작된 1799년과 1801년의 측량 방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측량에 의한 건물 정보를 도면으로 제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정남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대지의 외곽선을 먼저 그린 후에 대지의 안쪽에 붉은 먹선으로 일정한 격자를 그리고, 이 격자를 건물 한 칸의 기본 단위로 하여 건물의 배치를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장용영 본영도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격자와 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근대 시대에 그려진 대부분의 건축 도면에서 대지는 직사각형으로 표현되고 건물은 직각으로 배치된다. 근대적인 측량도와는 달리 전근대의 건축 도면은 건물의 규모를 칸으로 셈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었고, 주변 대지와와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축척, 건물의 외곽선, 건물 사이의 거리, 대지의 모양 등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격자에 맞추어 배치하고 모든 칸을 같은 모양과 크기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의 「호조(戶曹)」 (1839)

런데 「장용영 본영도형」은 대지의 모양을 상당히 정확하게 다각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칸이 붉은색으로 표기한 격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상당히 정확한 측량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였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기준이 되는 격자와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량하고 제작하였지만, 이전 시기의 건축도면과 달리 실제의 축척과

형태를 그려내고자 시도한 건축 도면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의 세 건축도면은 간가도와 채색도의 표현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1799년과 1801년의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지와 건물의 축척은 거의 일치한다. 세 도면은 같은 모본을 두고 제작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세 도면이 순차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이 측량에 의해 1799년의 현황을 그린 것이고,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은 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외관과 조경을 그려 넣어 그림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이후 1801년에는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 증축이 된 상황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제작 과정은 장용영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근대 시기에 국가적 중요 시설에 대한 건축 도면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고 관리되어 왔을 것이라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2) 건축 도면의 축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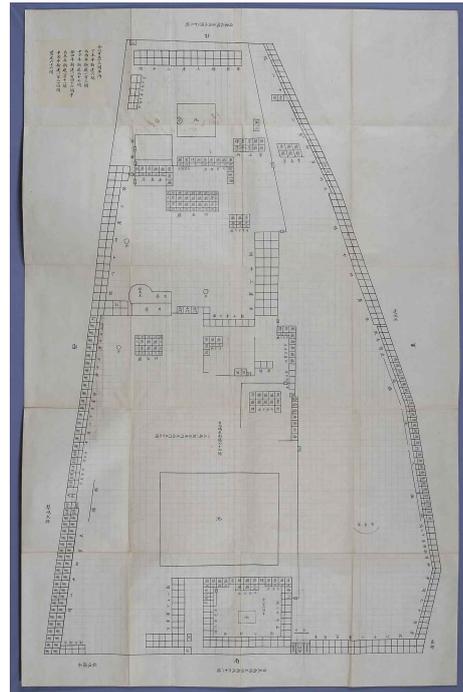
장용영 본영은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 훈련도감 동영을 거쳐 러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주차군 51연대가 사용하였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친위대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7년 군대해산 이후 대한제국 군부의 부동산을 통감부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통감부는 군부의 부동산을 다양한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했다. 장용영 본영 부지는 이러한 경위로 1909년 『주본(奏本)』 문서에 등장한다. 본래 있었던 51연대 부지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측량을 하고 1/300 축척의 배치도를 작성한 문건이 존재한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같은 부지를 표현하였고, 51연대의 부지 건물은 장용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1908년부터 1910년 경에 『주본(奏本)』에는 「51연대 부지 평면도」와 같이 국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측량도가 다수 첨부되어 있다. 이 시기는 이미 근대적인 측량술과 도면 작도법이 일반화되어 다수의 측량학교와 민간의 측량회사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면의 정확도는 충분하다 할 수 있고 현재의 지도에서 필지의 위치를 비교해 보아도 거의 차이가 없이 신뢰할 만하다. 「51연대 부지 평면도」를 통해 장용영 부지의 북변 길이가 약 56.55m, 장용영 부지의 남북 길이가 약 240.18m로 확인되었다. 이 길이로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같은 위치의 축척을 계산해 보면, 동서 방향의 축척이 1/136.3, 남북 방향의 축척이 1/138.4 정도가 산출된다.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거의 일치하여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에 표기된 “八尺爲一間”을 근거로 한 척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동서 방향으로 30.73cm,

남북 방향으로 30.33cm로 산출된다. 영조 26년(1750)의 영조척(營造尺)이 31.22cm로 추정되고 개항 이후 일본에서 도입된 곡척이 30.30cm인 것과 비교하면, 1800년 경 영조척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주본(奏本)』의 1909년 문서에 첨부된 「51연대 부지 평면도」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배치도

○ 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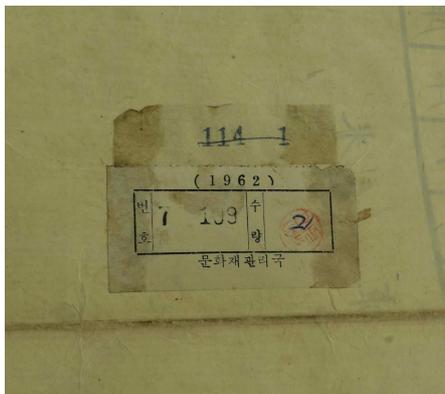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1791-1802)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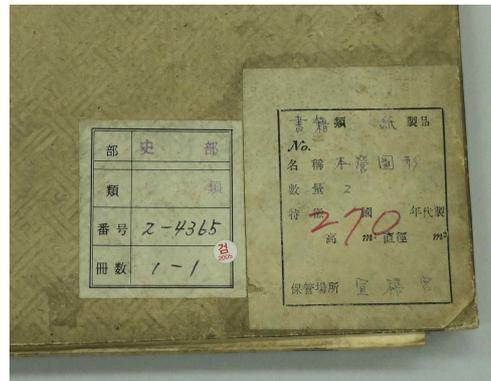
「장용영 본영도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2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을 방어하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로서 장용영 또는 장용영의 상급기관에서 3점을 함께 작성하고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용영 본영도형」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경위를 시대를 거슬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8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관리해 온 자료 중에서 “지정 자료와 궁릉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장서각에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왕직에서 관리하거나 생산한 자료들로서, 해방 이후 구왕궁사무청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거쳐 문화재관리국으로 전해졌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뒷면에 붙어 있는 부표는 1962년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되면서 이관받은 자료에 일괄로 붙인 관리 표식

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이왕직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왕실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궁내부의 자료를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에 왕실 관련 자료를 궁내부의 규장각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표지에 붙어 있는 부표에는 보관장소가 ‘선희궁(宣禧宮)’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의 재산 및 물품 관리처로서 궁방 중 하나인 선희궁에 「장용영 본영도형」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표는 물품의 종류, 규격, 소장처 등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또는 이왕직, 대한제국 시기의 궁내부 등에서 이관받은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궁내부의 주요한 재정관리처로 기능하고 있었던 선희궁에서 소장한 「장용영 본영도형」이 1908년 황실재산정리에 따라 궁내부의 제실재산정리국 또는 규장각으로 이관되고, 이후 조선총독부와 이왕직 등으로 다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표가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던 자료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심궁도형」 등에도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문화재관리국 관리 부표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이왕직(추정) 관리 부표



「세심궁도형」(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문화재관리국 및 이왕직(추정) 관리 부표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은 중간에 다른 경로로 구입 또는 이관된 자료가 아니라면 대한제국의 궁내부로부터 이어져 온 자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장용영은 정조의 왕권 강화와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친위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 이 위치는 훈련도감 동영을 거쳐 친위대가 사용하였다. 친위대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조선보병대와 조선기병대로 구성되어 황실을 근위하는 군사조직으로서, 당시 궁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호 시설이었다. 장용영 이후 장용영 터는 조선 왕실과 수도 한성의 방어를 위한 중요 시설로서 왕실에서 관리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장용영 본영도형」은 제작된 이후 왕실에서 시설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에 대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58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 가장 앞선 기록이고, 한국전쟁 시기의 도서관 소장목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소장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보성전문학교(1905~1946) 도서관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 왕실의 기록물이 민간의 보성전문학교로 전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 2점과 함께 이왕직에서 미군정기의 구황실사무국으로 전해졌지만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경위를 알 수는 없는 사정으로 민간에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박홍수, 「이조 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 이규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근대이행기 왕실 건축도면의 내용과 특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이왕무, 「『본영도형』을 통한 조선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21, 2009
- 전봉희·이규철·서영희,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정정남, 「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징-『본영도형』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21, 2009.

11.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가. 검토사항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2.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2015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지정명칭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 2015년 제4차 회의(8.13.)에서 심의하였고 명칭관련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조사 및 의견수렴('20.5.28.)을 거쳐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재부의함.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 예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3구
- 규 격: ① 본존 전체높이 163.0cm, 상높이 154.0cm, 어깨 폭 61.5cm, 광배폭 64.0×63.0cm
② 우협시 상높이 105.0cm, 어깨폭 32.0cm, 광배폭 36.5cm
③ 좌협시 상높이 98.0cm, 어깨폭 31.0cm, 광배폭 37.0cm
- 재 질: 화강석
- 제작연대: 644년(선덕여왕 13) 경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7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종교적 상황이 불상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흔히 신라인의 불교 세계관을 풀어놓은 경주 남산의 造像活動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주 남산의 조상활동은 王都에서 가장 근접한 북쪽에서부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나가 그야말로 웅장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삼존상은 경주남산의 불상 중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불곡 감실 불상” 등과 더불어 신라 불국토 개막의 첫머리에 놓이는 귀중한 불상이다.

이 석조미륵여래삼존 중 본존은 1925년 경상북도 경주사 산 24-1 석실 안에서 출토되었다. 발견된 곳은 장창곡에서 불곡으로 넘어가는 북쪽 능선에 위치하며,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 정밀학술보고서에 장창곡 제10사지로 명명되어 있다. 장창곡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에 발간한 『경주남산의 불적』(1940년) 등에 등장한다. 장창곡은 남산신성 창고지 부근에서 계곡이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藏田谷이라고도 한다. 장창곡으로 흐르는 개울은 해목령에서 시작하여 서북쪽으로 흘러오는 큰곡의 여

울과 남산신성 장창지에서 서쪽으로 흘러오는 개울이 傳 일성왕릉 부근에서 합쳐져 나정과 장창곡 제3사지(傳 창림사지) 사이의 금광못을 지나 형산강인 기린내로 흘러간다.

지정예고 기간 중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명칭(미륵)과 발견 장소(삼화령)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2015년도 동산분과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출토지를 삼화령 또는 장창곡으로 할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재논의 하였다. 논의 결과 본존불의 존명은 미륵으로, 발견 장소에서 대해서는 확실한 사지명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삼화령으로 명명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삼존상이 위치했던 계곡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

삼존상은 마애불이 아닌 환조로 조성된 보기 드문 삼국 시대 삼존상이자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본존불은 의좌세로 표현되어 이 당시 유행한 미륵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등 한국조각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조각품으로 출토지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주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 7세기 전반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뛰어난 불상으로 한국조각사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명칭관련 종합의견

□ 존상명칭 검토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장창곡 정상부근 석실에서 반출되어 경주박물관으로 이안된 것임. 삼존상 중 의좌세를 취한 본존은 미륵여래의 도상적 특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임. 따라서 존명은 미륵여래삼존상이 적합함.

□ 출토지에 대한 검토

이 삼존상은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조와 同冊 卷第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조와 결부시켜 釋生義가 三花嶺上에 봉안한 미륵세존으로 추정하여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불상이 출토된 곳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지정명칭으로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지정명칭에 대한 종합의견

경주 남산소재 문화재 지정 명칭 기준에 따라 불상이 소재했던 골짜기(장창곡) 명과 본존의 존상 명칭을 넣어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주 남산 장창곡과 불상의 원 위치(『慶州 南山 I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p.103.)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 신라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불이다.
- 주존불의 출토지는 남산 장창곡이며, 두 협시보살은 내남면의 민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져 삼존불로 재설정되었다.
- 삼국유사의 '생의사석미륵', '충담사'조에 근거하여 삼화령미륵불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 6세기 말 7세기 초인 北周와 隋 시대에 중국 서북부 장안 지역에서 성행한 조각양식과 관련이 있다.
- 의좌식의 미륵불과 입상의 양 협시보살로 이루어진 삼국시대의 유일한 삼존 불상으로, 삼국시대 성행한 미륵(하생)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 명칭에 삼화령과 장창곡 가운데 무엇을 넣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 조사내용

이 삼존상은 1925년 4월에 원위치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북봉의 石室에서 본존불을 먼저 경주박물관으로 이안하고,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인근 탑동의 민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협시보살상 2구를 압수하여 박물관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 삼존상은 남산의 북봉(北峯)부근 삼국시대말로 추정되는 고분들과 나란히 남북으로 자리 잡은 석실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 석실을 두고 부채등(佛背)이라 불렀다. 일찍이 일본 학자들은 이 삼존상이 놓인 石室이 고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원래부터 고분에 매납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도굴되어 노출된 고분 안에 인근 폐사지에 있던 석불을 이안하여 신앙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고분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의 불상을 고분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는 법식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림 218.삼화령 석조 미륵여래의 발견당시 모습(『황수영 전집』1 한국의 불상에서 전제) 후 모습(『다시 보는 경주와 박물관』(1998)에서 전제)

비록 본존불과 협시상이 따로 수습되었지만, 원래 이 삼존상은 석실의 奧壁에 근접하여 중앙에 본존불을 두고 그 좌우에 상대하여 보살상이 직립한 삼존형식으로 조성된 것이다. 석실의 내부 천장은 장대석으로 짜고, 정면에 해당하는 남쪽에는 문을 두었으며, 석실 내외부에 와편이 잔존해 있었으므로, 애당초 충주 미륵대원 석굴과 같이 삼존불을 봉안하기 위해 구축한 석굴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상은 일찍이 故황수영 박사님에 의해 『三國遺事』 “생의사석미륵”와 “경덕왕 충담사 표현대덕” 조에 등장하는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탁견이 발표된 바 있고, 이후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이 불상의 조성 근거가 되는 『삼국유사』 권제3 탑상 제4 “生義寺石彌勒”條와 같은 책 권제2 紀異 제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의하면,

선덕왕 때에 중(僧) 생의는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한 중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매어 표를 해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말한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것을 파내다가 고개 위에 편하게 묻어주소.”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를 놓은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니 거기에서 석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三花嶺)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 갑진(甲辰)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절 이름을 생의라고 했다.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성의사(性義寺)라고 한다. 충담사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공양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다.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당나라에서 德經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이것을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嶽과 三山神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이 歸正門 樓 위에 나가서 좌우 신하들에게 일렀다. “누가 길거리에서 威儀 있는 중을 한 사람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때 마침 威儀 있고 깨끗한 高僧 하나가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좌우 신하들이 이

중을 왕에게로 데리고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威儀있는 승려가 아니다”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다시 중 한사람 있는데 衲衣를 입고 櫻筒(혹은 삼태기를 등에 졌다고 했다)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왕이 보고 기뻐하여 樓 위로 영접했다. 통 속을 보니 茶具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小僧은 忠談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어요?” “소승은 3월3일과 9월 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의 彌勒世尊께 드리는데, 지금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그 차를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였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스님이 耆婆郎을 찬미한 사뉘가 그 뜻이 무척 고상하다고 하니 그말이 과연 옳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安民歌를 지어주소.” 忠談은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王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王師로 봉하매 忠談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安民歌는 이러하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위의 기록에 의하면, 도중사 중 생의가 꿈을 꾸 내용을 바탕으로 석미륵상을 발굴하여 삼화령 위에 봉안하고, 선덕여왕 13년 갑진(644년)에 미륵불을 안치한 곳에 생의사를 세웠다고 하며,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달여서 공양했던 불상이라고 附記하고 있다. 부기한 내용은 같은 책 기이편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忠談이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하고 오는 길에 景德王을 安民歌를 지어 올리는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生義가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안치한 삼화령 석미륵과 충담이 차를 다려 공양을 올린 석미륵이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삼화령 미륵불상은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안치한 불상이므로, 고정불변의 마애불상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圓刻像이 분명하며, 석미륵과 미륵세존이라는 존명에서 돌로만든 여래형 미륵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 중 嶺上에 안치한 고신라 시대의 돌로 만든 원각상은 이像밖에 없고, 본존상이 중국 북위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북제·주를 거쳐 미륵도상으로 정착되었던 倚坐勢를 취하고 있어 기록상 등장하는 彌勒의 尊名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석불을 봉안한 삼화령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三花”는 『三國遺事』 卷5 感通 7 融天師 慧星歌條에서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을 “三花之徒”라 일컫고 있는데서 三花嶺의 “三花”도 花郎의 무리와 관련있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故 황수영박사는 미륵삼존 앞에 형성되어 있는 고분이 삼국 말에 조성된 화랑의 묘로 추정하고, 나아가 이 미륵삼존상은 이들을 추모하고, 죽지랑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다시 화랑으로 化生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성된 석굴로 보았다.

신라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화랑으로 화생하기를 염원하면서 미륵상을 망자의 무덤 앞에 조성한 사례를 죽지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생각하여 우대하였다. 이 시기 제작된 미륵상들이 대체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미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러한 미학적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런즉, 이 삼화령 미륵삼존상은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천진하게 표현되었고, 오래전부터 이 삼존상을 “애기부처”라고 사랑스럽게 불려온 까닭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이 삼존상이 남산의 북봉의 고분과 더불어 남북으로 나란히 조성된 석실에서 발견된 점, 본존상이 취한 자세가 미륵의 도상적 특징인 의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칭하여 미륵상을 마치 어린아이 같이 표현한 점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三花嶺 彌勒世尊”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본존불상은 타원형의 연화대좌 두 다리를 딛고, 덩치 큰 사람이 웅색한 의좌에 엉거주춤 앉은 모습이다. 전면에서 보면 의자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뒷면에는 의자의 앉는 자리와 다리가 ㄲ형으로 투박하게 조각되어 있다. 머리와 한 돌로 제작된 둥근 광배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여 무늬가 없는 협시보살상과 차이를 두었다. 머리는 소발로 처리하였고, 정수리에는 낮고 작은 원반모양의 육계를 표현하였다. 귀불은 길게 어깨까지 늘어졌으며 열쇠구멍 형태의 耳孔을 뚫었으며, 귓볼에도 타원형의 구멍을 조각하였다. 耳孔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두덩 사이로 반가한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하였고, 동그란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귀여운 인상을 준다. 불의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식이며, 신체의 윤곽을 따라 두텁지 않게 걸쳐 입었으며, 주름은 도드라진 가는 융기선 주름으로 처리된, 이른바 紐狀衣紋이다. 이러한 주름은 경주 배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이나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군위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7세기 전·후반기로 추정되는 고식의 石佛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슴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지게 내의를 입었으며, 군의를 묶은 띠 매듭은 뱃단처럼 마름모꼴 형태이다.



그림 220.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전경



그림 221. 본존불 정면



그림 222. 본존불 배면

이외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倚坐한 오른쪽 무릎의 소용돌이 주름(渦券紋)과 가슴의 “卍”字를 양각한 것이다. 소용돌이 주름은 북위 말의 불상에서 시원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북주·수대이며, 이곳의 주름도 북주나 수대 불상의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슴의 “卍”字는 중국 동·서위 시대에 번역된 『無量義經』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의 卍字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손은 크고 듬직한데,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고 반주먹을 쥐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의 지물을 꽂았을 것으로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팔뚝으로 넘겨진 옷깃을 잡고 있다.



그림 223. 우협시보살상



그림 224. 좌협시보살상

좌우 협시보살상은 頭光을 佛身을 한 돌로 만들었고 대좌는 본존불 대좌를 토대로 새로 조성한 것이다. 보름달 같은 둥근 광배는 머리에 보다 약간 크며, 본존불과 달리 문양을 새겨 넣지 않았다. 두 보살상은 3면에 둥근 꽃 장식을 세우고, 이를 굽은 띠로 연결한 보관을 썼다. 머리의 윗부분은 신라식 관모를 쓴 듯 산 모양으로 봉긋하게 솟아 있어 특징이 있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 사이에는 반개한 눈을 길게 새겨 넣었고, 삼각형의 오뚝한 콧날은 파손되었다. 작고 도톰한 입가에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었고, 목에는 둥근 메달이 부착된 두터운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손목에도 굽은 링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불신에는 양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은 2단으로 걸쳤는데, 한 자락은 복부를 가로질러 팔뚝으로 넘겼고, 다른 한 자락은 무릎을 가로 질러 팔뚝으로 넘겼다. 작은 체구에 2단으로 걸쳐 무겁게 보이기도 하지만, 신체와 잘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허리춤에는 치마의 단을 요형으로 주름 잡아 멋을 내었다.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천의와 치마 등에 가는 융기선 주름을 사용하였다.

좌협시 보살상은 통통하고 양증맞은 오른손으로 짧은 줄기의 연꽃을 잡았고 왼손으로는 송편모양의 荷葉을 받쳐 들었다. 우협시 보살상은 왼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리듬을 타듯 맞대었으며 오른손으로 반으로 접은 荷葉을 들고 있다. 자세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강조한 三屈姿勢를 보이는데, 아직 영덩이와 무릎 등 삼굴 자세의 박자가 미미한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협시 보살상은 본존불상의 엄숙함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큰 머리, 좁은 어깨, 짧고 통통한 팔다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로 인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삼국시대 미륵여래의 협시 보살상의 도상이나 존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이후 대표상보살과 법화림 보살로 정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삼존상의 본존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이다. 의좌상은 인도에서 기원하여 초기에는 王 내지 神像으로 조성되다가 미륵과 결합하여 교각미륵보살상에서 의좌미륵보살상, 다시 의좌미륵불로 발전 정착했으며, 중국에서는 北魏대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北齊·周기를 거쳐 수·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화령 미륵불상을 비롯하여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몇 점이 전할 뿐 매우 드문 도상이다. 특히 양식적으로 아기같이 큰 상체에 짧은 하체와 통통한 양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북주에서 수대에 걸쳐 유행한 양식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삼존상은 선덕여왕 13년(644년)에 도중사의 생의스님이 경주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봉안한 미륵상이자 경덕왕때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공양했던 저명한 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比定)됨에 따라, 정확한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고신라 불교조각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의 뛰어난 자제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미륵상을 많이 조성하였는데, 이 불상은 역사적인 기록과 실물자료가 꼭 일치하는 사례로 그 가치를 높여준다. 물론 미륵여래삼존을 통해 新羅화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거니와 고신라 불상으로서 유일하게 644년 무렵에 도중사의 生義스님의 현몽에 의해 조성하였다는 조성연기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에 의해 헌다공양 등 이 불상에 담겨 있는 일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이 갖는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의 비중과 위치는 막중 막대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삼화령(또는 생의사)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추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삼존상은 불의와 천의, 그리고 치마 등에 시문된 유상의문과 협시보살상에서 三屈의 자세 등에서 새로운 조각양식이 반영되고 있고, 북위 이래 미륵불의 도상으로 확립된 의좌상의 이른 시기의 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좌상은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등 통일신라 이후의 불상에서 몇 점 확인되지만, 이 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원적 양식이고, 규모면에서도 큰 국내 유일의 圓刻 彌勒倚坐像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이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조각사나 신라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조각사적·불교사적 위치와 비중은 대단히 높고 무거운 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삼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참고자료

一然,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90

黃壽永, 「慶州 南山 長倉谷에서 옮겨진 三尊石像」, 『史學會誌』 7, 연세대학교, 1964(동저, 『黃壽永全集』 1 한국의 불상 상, 혜안, 1998)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동저,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

黃富慶,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의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문명대,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4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 관련문헌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旣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簣).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旣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 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朕生以支所音物生 此盼噲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孝昭王代 竹旨郎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里. 隔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警怪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峯. 造石彌勒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 太宗, 文武, 神文, 四代爲冢宰. 安定厥邦.

□

○ 현 상



도 1. 삼화령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불의상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남산 장창곡(長倉谷)의 한 석실(石室)에서 옮겨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삼존불상이다. 본존상의 얼굴(도 1)은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는데 눈부분이 앞으로 돌출된 형태이며 코끝이 훼손되었고 귀가 매우 길어서 어깨까지 닿을 듯하다. 소발(素髮) 머리위에는 육계(肉髻)가 낮게 새겨져 있으며 둥근 원형의 광배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몸에는 가사(袈裟)를 걸쳤는데, 그 주름이 양어깨 위에 양각되었다. 넓게 U자형으로 열린 가슴에는 내의가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며 내의를 묶은 2줄의 띠에서 올라오는 매듭이 허리 근처에 새겨졌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부분이 훼손되었고 왼손으로는 가사 자락을 쥐고 있다. 다리를 덮은 가사의 옷주름은 층단의 주름을 이루며 무릎부분에는 나선형을 이루고, 두 발을 디딘 바닥의 일부가 훼손되어 왼쪽 엄지 발가락이 결실된 상태이다. 정면에 비해 뒷면은 조각이 없이 편평하게 치석이 되었으며 방형의 의자가 표현되어 있다.

향좌측의 협시보살입상(도 2)은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광배와 불신(佛身)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의 두광에는 아무런 조각(彫飾) 없는데, 테두리 군데군데에 훼손된 곳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과 좌, 우에 꽃이 달린 삼화보관(三花寶冠)을 쓰고 코와 입술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얼굴표정은 온화하고 자비롭다. 귀는 길어서 어깨 위까지 늘어지고 목부분이 절단되어 이어붙인 흔적이 보인다. 목에는 넓은 띠모양의 목걸이를 걸었는데, 중앙에 둥근 구슬로 장식되었다. 왼손



도 2. 좌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도 3. 우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은 어깨 높이로 올려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둥글게 말린 경권(經卷)처럼 보인다. 오른손은 배 위에 대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어깨에 쇼올처럼 걸친 천의(天衣)는 바닥까지 닿는데 배와 다리위로 2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뒷면은 밋밋하다. 윗단을 밖으로 접어 입은 치마(裙) 자락이 오메가(Ω) 형태의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향좌측의 협시보살입상(도 3)은 반대편 보살상과 여러 점에서 유사한데 크기가 약간 작다. 불신과 광배가 일석(一石)인데, 원형의 광배의 상단이 훼손되었고, 머리에 삼화보관을 썼으며, 귀가 길어 어깨위로 늘어졌다. 얼굴은 뺨이 통통한 아기와 같은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코끝부분이 깨진 상태이다. 목에 걸고 있는 메달이 달린 띠 모양의 목걸이는 향좌측 보살상의 목걸이에 비해 짧으며, 어깨에 걸친 천의는 배와 다리위에 두 개의 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치마는 윗단을 밖으로 접어 입었다. 오른손으로는 짧은 줄기가 달린 연꽃봉오리를 들고 왼손으로는 대합조개처럼 생긴 둥근 지물(持物)을 받쳐 들었다. 자세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하고 왼발을 아래로 딛었으며 오른발을 살짝 들어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내민 향좌측 보살상과 반대의 자세이고, 배는 볼록

나와 신체의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아래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사를 기초로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된 생의사(生義寺)의 석조미륵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의 승려 생의(生義)는 도중사(道中寺)에 머물렀는데, 어느날 꿈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南山)으로 올라가 풀을 묶어 표시하게 하고 산의 남쪽 골짜기로 와서 말하길,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나를 파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기를 바랍니다.”하므로 그곳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석미륵(石彌勒)이 있었다고 한다. 생의는 이 상을 삼화령(三花嶺) 위에 모셨다가 선덕왕 13년 갑진

(644년)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후에 생의사(生義寺)라고 하였다.[지금은 잘못 전해져 성의사(性義寺)라 한다. 충담사(忠談師)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바치는 부처님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善德王時 釋生義 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상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倚坐像)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의좌상이다. 이와 같은 의좌상은 중국에서 남북조시대 이래 크게 유행하였는데, 대부분은 ‘미륵불’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삼화령 미륵삼존상의 어린아이의 몸 같은 4등신 정도의 단구형(短軀形) 신체비례를 보이는 불·보살상은 중국에서 제·주(齊周)시대부터 수대(隋代)에 걸쳐 유행하였다(도 4, 5). 이와 같은 단구형의 불상들은 7세기초에 신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주 배동(拜洞) 석조삼존불입상이나 경주 인왕동 석불좌상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좌우 협시보살상에서 보이는 이른바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의 형태이다.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이 결합된 양식은 경주 선도산 석조삼존불상의 우협시보살입상과 영월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에서 나타나며, 중국에서는 수대에서 초당(初唐) 조각에서 유행하였으므로 그 영향이 신라조각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상에서 조심스럽게 보이는 신체 움직임의 표현 역시 초당(初唐) 양식의 전래를 암시한다. 이와 같은 양식적 특징에서 판단해 볼 때,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제작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 4. 석조보살입상, 北周 566년, 東京 書道博物館



도 5. 석조미륵보살삼존의상, 북주 573년, 감숙성박물관

○ 참고논저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條; 同書 卷 1 奇異 第2 「忠談師」條.
黃壽永, 「慶州 三花嶺 彌勒世尊」,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乙西文化社, 1969);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및 『황수영전집』 1권, 혜안, 1998, 에 재수록)

金理那, 「三國時代の 佛像」,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黃富敬,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최성은, 「신라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新羅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朱秀浣, 「新羅에 있어서 北齊·周 彫刻樣式의 展開에 관한 一考察」, 『강좌미술사』, 2002.

<붙임 1>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립경주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3715호(2015.6.17.) 관련입니다.
2. 우리 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요청서를 송부하오니 문화재 지정에 앞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목 적: 적합한 문화재이름 부여
 - 나. 대 상 품: 우리 관 전시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慶州 南山 三花 嶺 石造彌加來三尊像)>
 - 다. 요청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서 1부, 끝.

국립경주박물관장



특에연구사 **임재완** 특에연구관 **이재연** 2016. 8. 11. 특에연구실장 정민

참조자

시합: 특에연구실-1307 (2016. 8. 11.) 접수: 유형문화재과-6087 (2016. 8. 11.)

주: 35171 경북 경주시 일점동 188 국립경주박물관 특에연구실 / gyeongju.museum.go.kr

전화번호: 064-740-7688 팩스번호: 064-740-7686 / tiger1219@museum.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서 >

내 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예고품(보물)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

목 적: 적합한 문화재명칭 부여

요 청 품: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三花領 石造彌勒如來三尊像)

요청부분: 한글 명칭 및 한자 명칭

요청내용

부분	변경 검토 요청 내용	내 용
명칭	(원 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수정 요청 안) 1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좌상 2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삼존불상	1. "삼화령"이라는 지명은 장창골을 삼화령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2차적 해석이 되는 명칭임. 따라서 출토지인 장창골(곡)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 2. "미륵"이라는 존명은 해당 불상의 도상적 특징(자세)에 기초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나, 현재 존명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고려 필요 3. '제작자: 生義'는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 또는 '발견자: 生義'로 수정 필요

12.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9.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2.27./'20.5.14.~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원당암(불상) 및 해인사성보박물관(복장유물)
- 수 량 : 불상 3구, 복장유물 8건 23점, 복장전적 29첩 *목록 별첨
- 규 격 : ① 아미타여래 상 높이 72.5cm, 무릎 폭 61.0cm, 전체높이 89.5cm
② 관음보살(좌) 상높이 95.3cm, 전체높이 106.3cm
③ 지장보살(우) 상높이 91.8cm, 전체높이 102.8cm ※전적은 별도 목록 참조
- 재 질 : 목조, 동, 종이, 견
- 형 식 : 불상: 삼존상, 전적: 절첩(折帖)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 제작자 : 초창(미상), 중수화원(法峇, 法宗, 敬天, 清湛, 智日)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여래삼존상



아미타여래좌상의 후령통

○ 복장유물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불상복장기문 	1694년	종이	38.6x177.3	1	*1694년(숙종20) 7월 17일에 處徽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으로 '佛法僧寶'가 새겨진 인장이 일곱 군데 찍혀있다.
2	원문 	1694년	종이	39.9x61.1	1	*용인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이다.
3	후령통 	15세기	동	높이 8.8 입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몸통은 원통형이며, 표면에 방주가 쓰여 있다. 후혈에는 오방천이 두텁게 둘러져 있다.
	양면원경 	15세기	동	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오보병을 안립하고 마지막에 이를 덮은 양면원경이다.
	사리호 	15세기	수정		1	*동근 수정에 홈을 파고 나무로 봉하였다. 황색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음
	은제팔엽연봉 	15세기	동	전체높이 1.0 최대폭 1.4	1	*연봉을 팔엽연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며, 연꽃과 연봉은 따로 제작하였다.
	무공심주 	15세기	수정	지름 1.8	1	*오보병의 중앙에 놓여 있는 구슬모양의 무공심주이다.
	오보병 	15세기	견	높이 11.5 지름 8.6	1	*청-적-백-흑-황색 비단으로 오보병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오방색으로 감싸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3	직물편 	15세기	견	① 백색 무문사 5.3x5.3 ② 홍색 문사(3점) 9 x 3.2, 2.5x21, 11x2.5 ③ 황색 주 42.4x3.4	5	*후령통 바닥에 접혀 있던 직물편으로, 황색 1점, 백색 1점, 홍색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보협다라니 	15세기	견(絲)	20x2.7	1	*絲로 만든 것이며 후령통과 황초폭자 사이에 접혀 발견되었다. 금니로 소보협다라니를 적었다.
	황초폭자 	15세기	견	25x25	1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로, 표면 네 면과 후령통이 놓이는 밑면에는 오방색으로 오륜중자를 적었다.
4	사리호 	15세기	수정동	전체높이 2.5, 지름3.4	1	별도로 직은단보에 싸여 있던 사리호로, 6엽의 연꽃대좌와 둥근 수정제 몸통, 국화꽃 모양으로 타출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織銀緞褙 	15세기	견	5.5x5.2	1	*사리호를 싸던 보자기
	靑綠色紋綾褙 	조선	견	12.1x13.5	1	네 모퉁이에 분홍색 비단실로 장식하였다.
	靑色紬褙 	조선	견	17.4x14.5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청색주로 만든 보자기이다. 보자기 안에는 청록색문능보자기-직은보자기-6엽사리호의 순서로 납입되어 있었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5	靑綠色花紋綾襪 	15세기	견	28x28.2	1	*겹보자기이며 모란과 국화가 시문되어 있다.
6	운보문단주머니 雲襪紋緞囊 	1	견	15.5x21.8	1	*청록색문능보자기에 싸여있던 주머니로 겹은 5매 3비 縹子織 또는 朱子織으로 그름과 寶紋을 표현한 운보문단이다. 주머니의 안감은 黃色紬로 했는데, 입구에 1.8cm 너비로 주황색주를 덧대고 그 안에 주머니 끈을 끼워 넣었다.
7	朱黃色雲龍紋織金주머니 	15세기	견	6.6x13.3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겹은 구름과 용무늬를 편금사로 나타낸 운용문직금주머니이다. 주머니의 입구에는 약1.5cm 너비의 초록색 소화문직금능을 덧대었다. 직금으로 짠 최고급 주머니이다.
8	北靑色無紋주머니 	15세기	견	8.5x12.2	1	*운룡문직금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겹은 3매 능직으로 직조한 무문능으로 하고 안감은 황색주를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주머니 끈은 주황색 三線으로 역 125cm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2줄로 끼워 넣었다.
계	8건 23점					

○ 복장전적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비고
0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9.2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43.1	
0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70.0	
0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96.2	
0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31.1×970.0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비고
				(14~15세기)		
0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08.6	표지 : 연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91.2	
0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62.6	
0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10.9	
1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0.4	
1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14.2	
1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64.0	
1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84.4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晉)
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62.6	
1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036.4	
1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108.6	
1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0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939.8	
1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962.0	
1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4.0	
2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152.0	
2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6.0	
2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205.0	
2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1,104.4	
24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50.6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貞) 권6의 표제 짚은 貞의 오자
25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99.2	
26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39.9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貞)
27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890.1	
28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865.9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비고
29	제다라니(성불수구대다라니경 등)	목판본	1첩	1375년(우왕 1) (14~15세기)	7.1×466.4	포갑·수진본
계	이상 29첩					

라. 조사자 검토 의견

<불상 및 복장유물>

○ (지정 가치 있음)

1.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일부 보수된 흔적이 남아 있으나 대좌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 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음.
2.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정확한 조성 연대를 특정할 수 없고 1694년에 어느 부분이 중수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도상 구성 방식, 신체 비례, 세부적인 특징들이 15세기 후반의 불상과 보살상의 조형과 많이 닮아서 조성 연대 설정에 참고가 됨
3.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왕실발원 불좌상들과 유사하여 왕실의 후원을 받아 학조대사가 해인사와 원당암(봉서사)을 중창하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은제 후령통이 1490년에 봉안된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은제 후령통과 닮아서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 줌
4.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불삼존상으로서 드문 예로서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조형적·도상적으로도 시대성을 반영하는 대표작임.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지정되어 보호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5. 다만 복장유물 중 경전류 자체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삼존상과 대좌들, 조성발원문, 후령통 등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 가치 있음)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명대 티베트양식이 혼합된 15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삼존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원래의 봉안처인 해인사 원당암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원당암 삼존상은 설법인의 아미타불, 化佛寶冠을 쓴 관음보살, 민머리의 지장보살로 정확한 아미타삼존도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아미타삼존과 달리 고려 후기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아미타삼존 도상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다. 다만, 고려 후기의 아미타삼존은 기록이나 불화를 통해 확인될 뿐 조각으로 남은 예는 거의 없다. 조선 전기도 탑내 봉안되는 소형 금동불상 외 규모를 갖춰 주불전에 봉안된 사례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금산 신안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일 정도로 그 수가 적다.

삼존상의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는 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당시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엿 볼 수 있는 요소이며, 너풀거리며 드리워진 목깃 주름과 왼쪽 팔꿈치의 ‘Ω’모양의 주름, 불상의 무릎 위에서 힘차게 솟구친 주름, 관음보살의 감각적인 천의와 조백의 표현, 복스럽게 살이 오른 양감과 크고 몽툰한 콧날, 얇전히 다문 입술 사이로 고요함이 넘쳐나는 상호표현, 과장되지 않은 양감과 부피감 등 뛰어난 조형미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1466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58년) 등 15세기 중·후반 왕실 발원 불상들과 예술적 맥락이 닿아 있다.

관음보살의 보관은 고려시대 못지않은 조선 전기 금속 공예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앞쪽 판은 꽃모양으로 디자인한 두 개의 금속판을 겹쳐 제작하였고, 뒤쪽 판은 여의두형으로 멧을 내어 앞판과 연결하였다. 표면은 타출기법과 투각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연꽃과 넝쿨무늬를 아름답게 연출하였다. 여기에 더해 化佛, 鳳凰, 火焰 등을 덧붙여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보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보관은 고려 중·후기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관처럼 앞선 시대의 전통과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조선 초기 보관으로서는 드문 예이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불상에서 드러나는 양식과 함께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복장형식을 통해 볼 때, 이 삼존상은 1490년 전후한 시기 왕실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인사의 중창불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1488년부터 149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해인사에 대한 중창불사가 일단락되고, 원당암(1495년 중창) 등으로 중창 불사가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아미타여래삼존상은 해인사 범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했던 왕실관련 주체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자료이다.

삼존상은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아미타여래와 관음, 지장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며, 조선 초(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어 조선 초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또한 삼존상은 제작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원래의 봉안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

대로 신앙, 보존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복장전적>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 및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3종류(진한·연한 검색표지와 황색표지)로 인출·장정한 후쇄본이며,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은 1375년(우왕 원년)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불교기록유산이다. 제24장의 1장이 누락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개별 권의 장차가 모두 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체적인 보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표제의 표기방식과 장정형태 등에서 14~15세기 경에 인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진한 검색 표지는 본문 글자의 마모도 등에서 연한 검색표지와 황색표지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다라니』 1권 1첩도 1375년 이후 15세기 경 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14~15세기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도 우왕 당시 고려사회의 불교 사상적 경향 등을 진단하고, 해당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으로서의 희소적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 기준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과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현재까지 『대

방광불화엄경(진본)』 권38(보물 제1192호) 등 전체 6건 정도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과 동일한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인출 당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의 보존 장소·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제다라니』 1권 1첩도 해당 원판을 복원하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현재까지 처음 발견된 희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록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동일 인출본과 역사·문화적인 보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의 경우에는 향후 해당 동일 인출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선본(善本)을 중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음
-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크기가 고르지 못한 나발들과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손, 목조관음보살입상의 보관 장식 일부분(봉황 장식 등) 등은 다시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1983년, 개금을 위하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을 개봉하였고, 2017년, 다시 개금 불사할 때 지금의 복장유물을 조사, 확인함
-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는 조선시대 1694년에 작성된 [불상복장기문(佛像腹藏記文)], [원문(願文)], 복장유물, 1983년의 [개금불사원문]이 발견되었음.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에도 X-ray 촬영을 통하여 복장유물(후령통과 경전류)이 있는 것이 확인됨
- [불상복장기문]에 의하면, 1694년에 해인사의 승려 승열(崇悅), 종안(宗眼) 등이 모연하여 불상과 보살상 중수를 주도하였는데, 증사(證師, 증명證明)로 탁근(卓根), 지전(持殿)으로 일원(一元)이 역할을 맡았으며, 법잠(法岑), 법종(法宗), 경천(敬天), 청담(淸湛), 지일(智日) 등의 조각승이 중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 [불상복장기문]에 절 이름을 “願堂(원당)”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17세기 후반에 이곳을 지금과 같이 원당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음
- [원문]은 [불상복장기문]에 동일 인물로 보이는 용인(融印)이라는 승려 이름이 확인되어 1694년에 함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미타삼존의 가피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확인됨. 다만 여기서는 실제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과 달리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로는 은제 후령통, 은제 팔엽연봉오리, 은제 양면원경, 수정사리기, 무공심주, 다수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성불수구다라니경(隨求成就陀羅尼經)』(고려 1375년, 수진본(袖珍本)) 등이 있음.
- 『대방광불화엄경』(고려시대 간행본)은 진본(晉本) 23권(황색 표지에 목서 경명(經名)의 경전 11권, 감색 표지에 금니 경명의 경전 12권)과 정원본(貞元本) 5권(황색 표지 목서 경명 3권, 감색 표지 금니 경명 2권)이 있음

○ 내용 및 특징

1. 목조아미타불좌상

- 목조아미타불좌상은 통견 방식(혹은 변형 편단우견)으로 법의를 입고 설법인을 결한 채 연좌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음
- 즉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을 배 앞에서 살짝 들어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 연화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형식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임
- 불상은 턱이 둥근 장방형의 얼굴에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으며, 육계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머리 형태에 반원형의 커다란 중앙(중간) 계주, 크기가 다른 나발들로 구성되어 있음
- 불상은 왼쪽 어깨 부근의 법의 자락이 삼각형으로 뒤집어지고(경상북도 영주 흑석사 黑石寺 목조아미타불좌상(1458년)과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1466년)) 양쪽 무릎 위에서 살짝 들려 있는 법의 주름(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상, 15세기 후반) 등 세부적인 특징 외에 조형적인 면에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왕실에서 발원된 불상들과 많이 닮았음

2. 목조관음보살입상

- 목조관음보살입상은 따로 제작한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천의와 치마를 입은 채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은 형식의 연화대좌 위에서 있는 천의형 보살상임. 보관을 장식하고 있는 장엄의 일부와 관대는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보살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왼다리의 무릎까지 내려서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음
- 보살상의 얼굴은 본존과 많이 닮아 같은 조각승의 솜씨로 추정됨
- 보살상은 지장보살상과 같은 형식의 귀걸이와 팔찌, 가슴 치레 장식을 하고 있으며, 몸을 덮고 있는 영락 장식은 천의에 가려진 채 흘러내려 끝부분이 살짝 드러남
-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이 왼쪽 어깨 부근의 천의 자락이 삼각형으로 뒤집어져 있음
- 보살상은 몇 겹의 천의로 감겨 있으며, 배 앞에서 크게 U자를 두 번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음
- 보살상의 천의와 군의는 몸의 굴곡과 자세에 따라 유기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됨
- 군의는 목조지장보살상과 같이 매우 짧아 발목이 드러나 있으며, 발가락도 유난히 긴 것이 특징임. 보살상은 지장보살상과 같이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긴 15세기 후반의 보살상의 신체 비례를 보여 줌

3. 목조지장보살입상

- 목조지장보살입상은 민머리에 통견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음
- 오른손을 내려뜨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을 배 앞에 두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함. 왼손 손바닥에는 원래 보주가 올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지장보살상은 귀걸이와 가슴의 영락(치레) 장식 등을 하고 있는데, 대의에 의해 가려진 채 흘러내려 끝부분이 밖으로 나옴
- 관음보살상과 같이 상체가 하체에 비해 다소 긴 듯한 조형으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의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 줌
- 관음보살상과 같이 군의 자락이 짧아 발목이 드러나 있음
- 보살상의 얼굴은 아미타불상과 관음보살상과는 달리 개성이 뚜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지장보살상의 조형에서 벗어난 조선시대 특징을 보여주는 것임

4. 전체적인 특징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고려시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대세지보살이 아닌)의 도상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예임. 이러한 도상 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과 그 후에 몇 번에 걸쳐 보수된 적이 있는 전라남도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들 수 있음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의 불좌상과 보살입상의 형식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많이 보임.
- 아미타불좌상의 위엄있는 얼굴 표정(관음보살상도 동일)과 안정된 자세에서 고려 말의 조형을 15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아미타불상과 관음보살상의 왼쪽 어깨 부근에 표현된 삼각형의 법의 자락

과 아미타불상의 양 무릎 위에 살짝 접혀 올라간 법의 주름 등은 15세기 후반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임

-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긴 듯한 보살상의 신체 비례는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보이는 특징임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중수한 조각승 중 법감은 1701년에 흥천사興天寺 목조관음보살삼존상(원소장처 전라북도 임실군 사자산 적조암)을 조성하기도 함
- 불상 조성 당시에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은제 후령통은 그 형식이 다른 사찰의 불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1490년 학조(學祖)대사가 왕실 후원을 받아 해인사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납입했던 은제후령통과 매우 유사하여 목조아미타불삼존상도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줌
- 학조대사는 1458년에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였고, 1485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을 받아 해인사를 중창하였으며, 1489년부터 1490년까지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 중수도 주도하였음. 또한 봉서사(원당암)에서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1499년), 『선종유심결(禪宗唯心訣)』(1500년),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1501년) 등을 간행하는 등 원당암의 불사에도 깊이 관여함. 이 때 원당암 보광전 목조아미타불삼존상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성불수구다라니경』의 변상도에 보이는 삼신불상三身佛像과 마리지천摩利支天道상은 고려말 삼신불 구성과 마리지천 신앙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됨
- X-ray 사진에서 확인되는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의 복장 유물 중에서 족자형 사경의 사경축 금속 장식은 지금까지 일본 긴잔지(金山寺) 소장 의 고려 사경인 『불설대길상다라니경(佛說大吉祥陀羅尼經)』(1324년 추정)에서만 확인되고 있음

[사진]



1.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2. 목조아미타불삼존상



3. 목조아미타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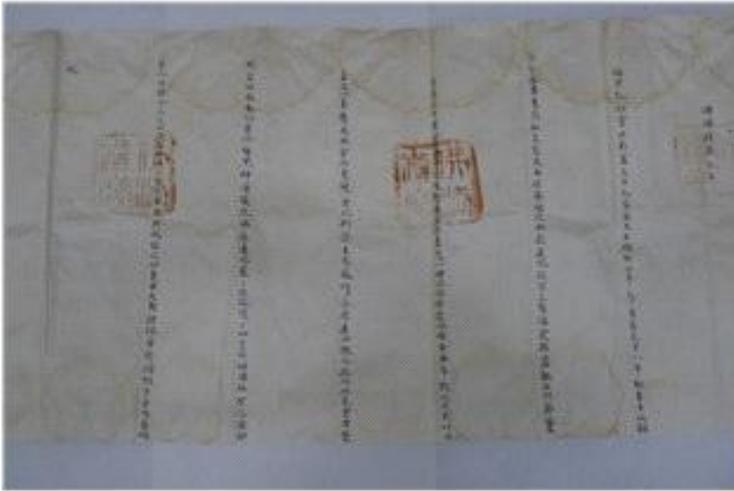
4. 목조관음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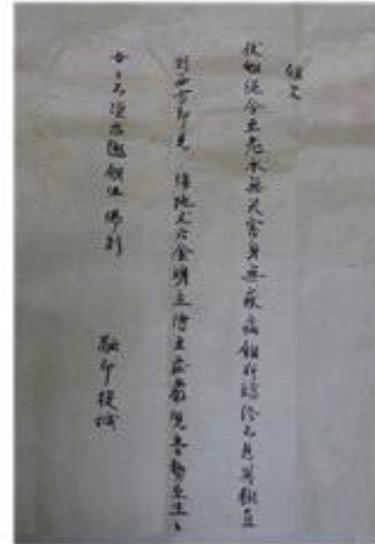
5. 목조지장보살입상



6. 복장유물 일괄



7. 불상복장기문



8. 원문



9. 성불수구다라니경

□

○ 현 상

- 좌상의 아미타여래상과 입상의 관음보살, 지장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상이다.
- 세 존상은 모두 조선 초기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불상 양식을 갖고 있다.
- 아미타여래상의 복장으로부터 중수발원문(불상복장기문, 1694년), 원문(1694년 추정), 개금발원문(1983년), 후령통(15-6세기), 「성불수구대다라니」(1375년), 그리고 절첩본 화엄경(28권, 고려 말 또는 조선 초 간행 추정)이 발견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원당암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주존으로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상이다.

- 아미타여래상은 하반신 폭에 비하여 상반신이 길며, 얼굴과 손발에는 비교적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옷은 두꺼워 내부의 불신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결과부좌한 오른발의 발가락이 노출되어 있으며, 머리에 정상계주가 없고 중앙계주만 표현되어 있다. 옷은 승기지와 함께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착용하였는데, 승기지 상단에는 옷을 묶은 끈의 매듭이 나타나 있으며. 왼쪽 어깨 아래에는 끝이 둥그랗게 말린 옴모양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신체에 비해 두부가 커서 단신형의 체형을 보이며, 얼굴, 가슴, 손 등에 양감이 드러나 있다. 주존처럼 옷은 모두 두꺼워 신체가 옷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지장보살은 균의, 승기지, 부견의, 그리고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어 부견의를 제외하면 주존상과 동일한 복제를 보이고 있으나, 관음보살은 균의와 천의, 그리고 낙액(조백)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두 상과 구별된다. 지장보살이 착용한 승기지는 상단이 평행을 이루고 별도의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은 모습이 주존상과 동일하다. 관음상과 지장상 모두 胸飾과 腰飾 등 영락과 완건을 착용하고 있다.
-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상은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상(1280년 개금),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29년) 등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성행하였다.
- 또한 원당암 삼존상과 같이 주존이 좌상이고 좌우 협시상이 입상인 삼존상은 개심사상(13세기)이나 평양역사박물관상(15세기) 등처럼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성행하였으나, 안동 서악사 목조아미타삼존상(1567년)이나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1610년)처럼 17세기 초반까지도 제작되었던 방식이다.
- 삼존상에는 고려 후기 이래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함께 조선 초기에 새로이 명으로부터 유입된 티베트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 주존상의 노출된 발가락, 왼쪽 어깨 아래의 옷주름, 승기지 상단의 매듭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15세기 불상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
- 아미타여래 두부에 정상계주가 없이 중앙계주만 있는 점,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은 내려 설법인같은 수인을 취한 점, 두 보살 모두 하반신을 비롯한 전신에 영락장식이 표현된 점 등은 전통적인 요소이며, 삼존상에 공통하는 仰蓮과 伏蓮이 연접된 연화대좌형 대좌는 티베트적인 요소이다.
-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의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 있으며, 부분적으로 티베트적인 요소가 혼입된 조선 초기 15세기 후반 또는 16세기 초반의 불상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①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重修發願文」⁵⁴⁾ 白紙墨書, 1694년 7월 17일, 38.3×177.0cm

佛像腹藏記文

按古記願堂迺新羅三十九哀莊大王踐祚三年即唐貞元十八年親幸于此勅海印也奉爲烈祖文聖大王追冥福之所戢建也殿有三聖像虎踞盤龍上以無量壽爲主千葉寶蓮中以觀勢爲左右盖悠一時之所共造而惜其無年號之欠哉吁自貞元以來幾見風雲之變態金泥剝落未免龜坼⁵⁵⁾之痕遠而微之近以非矣寺僧崇悅宗眼獻金以重修璨然神像儼然踞座遠之嚴 近之慈 此豈非福國祐世之像耶古人所謂今人之功政在於前人之前矣然則悅眼之功嵬乎大哉結緣芳銜開列于后乃爲頌祝

以此勝功 佛光遍照 三千大千 天上人間 邦基地久 聖壽天長 先亡父母 皆往西方 親見彌陀 同蒙記光 七趣三途 俱惺歇狂 亦願現今 化緣結緣 生獲五福 當證法王 此岸彼岸 互爲主伴

康熙三十三年甲戌七月十七日翫月沙彌處徽謹誌

證師卓根

持殿一元

僧統尙軒

施主秩

前僧統胤一

戒允比丘

供養人

冲惠

崔厚京

曹太吉

道玄

就眼

信佳

信祐比丘

嚴弼伊

文悟

三綱 衍一

天機

金彥生

趙武生

雪湜

就信

思一

吳大海

普益比丘

別座

大禪師惠能

金斗義

李行間

特靈

曇華

孫金伊

金談沙里

尙能

朴一祥

柳一龍

處徽

金伍尙

金從萬

執綱融印

畫員秩

孫忞立

前執綱曇絢

法岑

善寬

法宗

老德元海

敬天

釋惠

清湛

雪清

智日

楚嚴

坍宗

允海

衛賢

戒允

怡察

性岑

祖坦

54)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55) 원문은 坼. 坼의 오기 추정.

震惠

杜瓊

竺玄

能贊

思悅

信謙

懷⁵⁶⁾演

澤善

真一

得性

聖勒

處益

得心

化主 崇悅

智还

宗眼

戒暎

聖學

法薰

熙遠

冲衍

機眼

衛澄

敏湖

衛閑

②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願文」⁵⁷⁾ 白紙墨書, 1694년 7월 17일, 40.0×60.0cm

願文

伏願從今至老永無災害身無疾病願我臨終不見異類直

到西方即見 彌陀丈六金軀立侍立莊嚴觀音勢至生 "

世 " 不墮惡趣願生佛刹 融印投誠

③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改金發願文」⁵⁸⁾ 白紙墨書, 1983년 10월 24일,

23.3×62.8cm

改金發願文

海印叢林

方丈 退翁 性徹

十四庵子

山中大衆 五百名

56) 원문은 卍+衣.

57)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58)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願堂庵大衆名單

證明 慧菴 性觀
 比丘 哲雨
 々 能度
 沙彌 大悟
 々 宗徹
 々 宗悟
 院主 正默
 金魚 全漲祐
 々 鄭万五
 々 田都成
 負木 田永棟
 供司 鄭大願華

禪院大衆

々 金大願性
 々 李普陀行
 々 盧金剛心
 々 李大慈行

施主秩

許용 李중만 박영달
 丁水月華 임정각 구태희
 曹無碍性 申智郁 김태영
 許普賢性 박영근
 金仕龍 (陰)

仏紀二五二七年十月二十四日 願堂庵



○ 조사내용

해인사 원당암은 해인사 산내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암자로, 원래 順應大師가 鳳棲寺라고 이름하고 주석한데서 비롯한다. 경내에는 통일신라 후기의 다층 석탑과 석등이 남아 있다.

해인사 원당암의 주불전인 보광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상이다. 구성은 좌상의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측에 입상의 관음과 대세지보살로 삼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2017년 불상의 개금을 위해 본존 아미타불상 1구에 한해 복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견된 복장유물은 중수발원문과 불상의 제작시기 판단에 중요한 후령통과 경전류들이 발견되었고, 아쉽게도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후령통은 해인사 범보전과 대적광전 비로

자나불상에서 발견된 후령통의 형식과 복장물목이 거의 같은 모습이어서 이 삼존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도움을 준다. 참고로 해인사의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의 후령통은 1490년 학조대사의 주도와 왕실의 지원으로 불상을重修하면서 조성 납입한 것이다. 1894년 원당암의 중창시 櫟間에서 발견된 옛 상량기(弘治八年 乙卯 五月 日 重創. 化主 海印寺重創 燈谷和尚 前斷俗寺住持 信文禪師)에도 1495년 燈谷(법명 學祖)和尚(1432-1514)과 信文禪師에 의해 사찰이 중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무렵 아미타여래삼존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1. 함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선시대(15세기)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와 관련된 발원문은 세 종류이다. 두 종류는 1694년에 불상을 중수하면서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1983년에 불상을 개금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1694년에 기록된 것은 <불상복장기문>과 <원문>이다. <불상복장기문>에는 신라 애장왕 3년 해인사 창건 때 文聖大王(839-857)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당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이 쇠락하여 승려 宗悅과 宗眼이 모연하여 불상을 중수하였다는 내용과 法岑, 法宗, 敬天, 清湛, 智日 등 중수화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중수화원으로 참여한 법장은 1701년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상을 조성한 조각승이며, 법종은 지리산 감로사 수도성전암 목조보살좌상과 전주 삼경사 목조보살상을 제작하였다. <원문>은 “임종시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의 장육금신과 관음, 세지 양 보살을 친견하고 불국토에 머무르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며, 발원 주체는 融仁이다. 용인은 1694년의 불상복장기문에도 등장하여 이 원문이 1694년에 함께 납입된 원문임을 알 수 있다. 1983년 개

금중수에는 해인총림 方丈 性徹, 證明 慧庵, 哲雨스님 등과 金魚 全漲祐, 鄭萬五, 田都成이 참여하였다.

삼존상은 모두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본존의 대좌는 본존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본뜬 삼각형이며, 좌우협시는 둥근 대좌이다. 이와 같은 대좌의 형식은 원·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대좌의 전형이다. 나발은 굵고 크며 중앙계주도 크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1514년 改造된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7년)의 머리모양과 비교된다. 나발의 단은 발제선에서 중앙계주까지 3단이며, 정상계주는 표현되지 않았다. 양 미간의 중앙에는 백호를 박았으며, 얼굴은 가름하며 부푼 눈두덩 사이로 드러낸 눈매는 고요히 선정에 잠긴 모습이며, 오뚝하고 몽툰 콧날이 특징이며, 얇전히 다문 입술에는 法悅의 미소를 담았다. 이륜은 둥글게 표현하였고 콧볼은 둔중하게 표현되었다. 귀孔은 8자 모양으로 깊게 파는데, 흑석사 아미타불여래좌상이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 전기 불상의 귀 표현과 유사하다. 착의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슬쩍 걸친 변형 편단우견이며, 옷 주름은 힘과 탄력이 넘치고 억양이 깊어 입체적이다. 특히 왼쪽 팔꿈치에 형성된 ‘Ω’주름이고, 너풀거리며 접힌 못 깃 주름과 어깨 측면 파상으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주름, 무릎 위쪽에서 솟구치듯 날을 세운 옷 주름, 무릎 좌우로 속도감 있게 펼쳐진 주름 등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국보 제28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1466년, 국보 제221호),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66~1474년, 보물 제1615년),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82년, 국립대구박물관) 등과 시대 양식을 공유한다.

본존불의 가슴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 불상과 달리 상당히 부피감이 강조된 양감을 바탕으로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여말 선초 원·명대 라마불교 영향으로 등장하는 허리가 잘록하고 젓가슴이 발달한 불상계보의 영향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도 2. 우협시 지장보살



도 3. 본존 아미타여래



도 4. 좌협시 관음보살

좌협시 관음보살은 화불이 표현된 보관을 썼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고리를, 팔에는 2줄의 띠형 팔찌를, 목에는 세 줄로 늘어진 영락을 착용하였다. 허벅지에도 늘어진 영락장식이 부착되었다. 보관은 두 개의 꽃모양의 판을 겹쳐 만들었다. 보관의 아래 면은 연화넝쿨무늬를 타출하였고, 윗면은 S자형으로 펼쳐진 역동적인 당초문을 세밀하게 투각하였다. 보관의 大輪에는 별도로 만든 입체적인 연꽃과 화염문을 부착하였고, 표면에도 마주보는 봉황과 화염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보관의 정면에 안치된 화불은 불꽃이 표현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두 손은 소매에 넣어 합장 또는拱手印처럼 표현하였다. 소홀하기 쉬운 작은 곳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빈틈없이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3. 관음보살의 보관



도 4. 관음보살의 발

보살의 머리는 뿔아 낮은 삼릉형의 보개를 만들었으며,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뿔아 어깨 위에서 3개의 고리를 만든 뒤 다시 세 가닥으로 드리웠다. 이곳에서 확인

되는 보계는 고려 후기 보살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크기도 작아졌고 형태도 단순해졌다. 이마는 좁은 편이며 양미간에는 작은 수정제 백호를 박았다. 얼굴은 살이 도톰하게 올랐고,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복스러운 콧날이 특징이다. 佛身에는 매우 세련된 天衣와 條帛, 裙衣를 걸쳤다. 양 어깨를 덮고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天衣는 오른쪽 허리춤에서 교차하여 양 팔뚝을 걸쳐 좌우로 길게 뻗어 내렸다. 비스듬히 걸친 條帛은 가슴 중앙에서 T자형으로 교차하여 마무리하였다. 군의는 허리춤에서 멋스럽게 뒤집었고, 이를 다시 긴 끈으로 나비 매듭지어 묶고 그 자락을 길게 드리웠다. 발목 부근까지 흘러내린 옷자락은 너풀너풀 율동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손짓은 엄지와 중지를 리듬 타듯 당듯 말듯 감각적으로 처리하였다. 자세는 한쪽 무릎의 힘을 슬쩍 뺀 三曲의 자세인데,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발가락의 미세한 율동감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관음보살상은 하체가 다소 짧은 단구적인 신체 비례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천의, 화려한 보관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양식과 표현감각은 전반적으로 의숙공주가 발원한 1466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조각 전통을 따르고 있고,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대 석당박물관 건칠대세지보살상과 남원 실상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등과도 비교할 수 있다.

우협시 지장보살의 머리는 민머리이며, 왼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왼손은 허리춤에 내려 엄지와 중지를 닿을 듯 말 듯 표현하였다. 귀에는 화형의 귀고리를, 목에는 관음보살의 것과 같은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가사는 두 장의 대의를 입은 이중착의형식이다. 가슴에는 군의를 가는 띠로 매듭지어 묶었다. 옷 주름은 관음보살의 율동적인 것에 비해 차분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단구적인 비례, 이중으로 걸친 착의형식과 간결한 옷 주름 등은 서산 개심사 목조지장보살입상 등 15세기 작품들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제작당시의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상과 후령통의 양식을 통해 1490년을 전후한 시기 해인사에 진행된 대대적인 중창불사 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왕실에서 발원하여 조성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원당암 불상도 왕실불사와 관련 있는 조각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복장유물(목록참조)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제작당시의 복장 후령통, 주머니를 찢던 보자

기 등의 직물류, 그리고 1694년의 <불상복장기문>, <원문>, 1983년 <개금불사질>, 그리고 많은 불경류이다.

후령통은 동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으며, 후혈에는 오방색천으로 두텁게 감았다. 후령통의 몸통에는 四方呪를 적었다. 후령통의 내부에는 오방색천을 감싸 오색사로 묶어 오보병을 안립하고, 그 위에 사리호, 무공심주, 팔엽연화 등을 두고 양면원경을 덮어 마감한 형식이다. 후혈에는 오방색천을 감았다. 후령통의 저면에는 소보협인다라니를 두고 마지막으로 오륜종자를 적은 황초폭자로 싸고 근봉지대를 돌려 마감하였다.

크기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후령통의 형태, 제작기법, 물목, 안립 형식 등은 1490년 중수 때 납입된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것과 거의 같다. 아마도 149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 왕실의 대대적인 지원과 발원으로 해인사의 중창이 마무리되고, 이어 1495년 진행된 원당암 중창(1495년) 때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3겹의 보자기로 싸여있던 또 다른 사리호 1점이 더 발견되었고, 靑綠色花紋綾褙, 雲寶紋緞囊, 朱黃色雲龍紋織金綾褙, 北青色無紋稜囊 함께 발견되었다. 한편 오방색천을 감아 원통형처럼 만들어 복장에 납입한 경우는 수국사 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수국사 아미타불상은 고려 후기 제작 이래 홍치22년(1389년)과 가정41년(1562년)에 각각 중수되는데, 해인사 불상과 가까운 1392년 중수 때 납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손영문,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70, 2011.
정은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원당』,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願堂-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불상복장기문 	1694년	종이	38.6x177.3	1	*1694년(숙종20) 7월 17일에 處徽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으로 '佛法僧寶'가 새겨진 인장이 일곱 군데 찍혀있다.
2	원문 	1694년	종이	39.9x61.1	1	*용인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이다.
3	후령통 	15세기	동	높이 8.8 입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몸통은 원통형이며, 표면에 방주가 쓰여 있다. 후혈에는 오방천이 두텁게 둘러져 있다.
	양면원경 	15세기	동	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오보병을 안립하고 마지막에 이를 덮은 양면원경이다.
	사리호 	15세기	수정		1	*둥근 수정에 흠을 파고 나무로 봉하였다. 황색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음
	은제팔엽연봉 	15세기	동	전체높이 1.0 최대폭 1.4	1	*연봉을 팔엽연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며, 연꽃과 연봉은 따로 제작하였다.
	무공심주 	15세기	수정	지름 1.8	1	*오보병의 중앙에 놓여 있는 구슬모양의 무공심주이다.
	오보병 	15세기	견	높이 11.5 지름 8.6	1	*청-적-백-흑-황색 비단으로 오보병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오방색으로 감싸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3	직물편 	15세기	견	① 백 색 무 문 사 5.3x5.3 ② 홍 색 문 사 (3 점) 9 x 3 . 2 , 2.5x21, 11x2.5 ③ 황 색 주 42.4x3.4	5	*후령통 바닥에 접혀 있던 직물편 으로, 황색 1점, 백색 1점, 홍색 3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보협다라니 	15세기	견 (絲)	20x2.7	1	*絲로 만든 것이며 후령통과 황초 폭자 사이에 접혀 발견되었다. 금니 로 소보협다라니를 적었다.
	황 초 폭 자 	15세기	견	25x25	1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로, 표면 네 면과 후령통이 놓이는 밑면에는 오방색으로 오륜종자를 적었다.
4	사리호 	15세기	수정 동	전체높이 2.5, 지 름3.4	1	별도로 직은단보에 싸여 있던 사리 호로, 6엽의 연꽃대좌와 둥근 수정 제 몸통, 국화꽃 모양으로 타출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織銀緞襖 	15세기	견	5.5x5.2	1	*사리호를 싣던 보자기
	靑綠色紋綾襖 	조선	견	12.1x13.5	1	네 모퉁이에 분홍색 비단실로 장식 하였다.
	靑色紬襖 	조선	견	17.4x14.5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청 색주로 만든 보자기이다. 보자기 안 에는 청록색문능보자기-직은보자기 -6엽사리호의 순서로 납입되어 있 었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5	靑綠色花紋綾褌 	15세기	견	28x28.2	1	*겹보자기이며 모란과 국화가 시문되어 있다.
6	운보문단주머니 雲襖紋緞囊 	1	견	15.5x21.8	1	*청록색문능보자기에 싸여있던 주머니로 겹은 5매 3비 縐子織 또는 朱子織으로 그림과 寶紋을 표현한 운보문단이다. 주머니의 안감은 黃色紬로 했는데, 입구에 1.8cm 너비로 주황색주를 덧대고 그 안에 주머니 끈을 끼워 넣었다.
7	朱黃色雲龍紋織金주머니 	15세기	견	6.6x13.3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겹은 구름과 용무늬를 편금사로 나타낸 운룡문직금주머니이다. 주머니의 입구에는 약1.5cm 너비의 초록색 소화문직금능을 덧대었다. 직금으로 짠 최고급 주머니이다.
8	北靑色無紋주머니 	15세기	견	8.5x12.2	1	*운룡문직금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겹은 3매 능직으로 직조한 무문능으로 하고 안감은 황색주를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주머니 끈은 주황색 三線으로 역 125cm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2줄로 끼워 넣었다.
계	8건 23점					



○ 현 상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및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으로,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은 표지의 색이 진한 감색과 연한 감색 및 황색 계통으로 3종류이며,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도 진한 감색과 황색 계통의 2종류로 표제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현재 해인사 정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권의 경우는 표지의 훼손과 본문의 습기 흔적 및 특정 장차의 누락(『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의 제24장) 현상 등이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현황]

순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간행처	간행시기	비고
0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7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표지 : 연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0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표지 : 황색 표제 : 목서(晉)
1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0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1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5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5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8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4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貞) 권6의 표제 짚은 貞의 오자
25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순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간행처	간행시기	비고
26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2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貞)
27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6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8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8	목판본	1첩	미상	13세기 중엽	
29	제다라니(성불수구대다라니 등)	목판본	1첩	미상	1375년(우왕 1)	포갑·수진본

<서지사항>

0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69.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4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수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晉五 五卜/ 晉五 十九卜

권미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수 : 혜도(惠刀 : 제1장 등)/ 혜(惠 : 제10·13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5장 21행의 彼자 마모도에서 진본 권5는 진한 감색 표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으며, 황색 표지와 연한 감색 표지는 이후 인출

0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6(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43.1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수제 : 晉六 二/ 晉六 四卜/ 晉第六 十七卜

권미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수 : 천(天 : 제21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16장의 상하단변 마모도에서 진한 감색이 황색 표지보다 선명한 상태

0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70.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定(定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0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2(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96.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1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卍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二 二卜/ 晉二十二 十六/ 晉二十二 音二(제21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각 수 : 이(耳 : 제1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21장(음의 2)의 글자 𑖀자 마모도에서 황색 표지보다 선명한 상태

0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7(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970.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7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卍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七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각 수 : 명단(明端 : 제3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0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3(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108.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안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卍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三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각 수 : 천(天 : 제2장 등)/ 혜도(惠刀 : 제4장 등)/ 돈일(敦一 : 제9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

특이사항 : 원판의 제24장(음의)이 누락

07.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4(연한 검색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91.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7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안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수제 : 晉四 二/ 晉四 八卜

권미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각수 : 敦일(敦一 : 제1장 등)/ 혜(惠)·敦일(敦一 : 제10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4·9장 등의 경우에는 본 인출본이 현존 원판보다 마모 정도에서 양호한 상태이며, 제4장의 인출상태는 황색 표지보다도 상대적으로 선명하면서 두 인출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

0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연한 검색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62.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2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수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권미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수 : 혜(惠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09.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7(연한 검색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110.9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썸

권수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수제 : 晉七 二十三

권미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각수 : 정(定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1장의 하란 마모 정도에서 연한 감색 표지가 황색 표지보다 양호한 상태

10.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9(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60.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九 四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각 수 : 천(天 : 제4장 등)/ 천규(天佳 : 제8장)/ 천규(天圭 : 제1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앞표지 일부 마모. 제13장의 장차가 판수제의 제일 하단에 위치. 제8장의 각수가 천가(天佳)는 천규를 이자체로 표기한 사례

1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14.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0×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정(定 : 제5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6(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64.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3cm/ 1절면 31.0×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六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각 수 : 문(文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4(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1084.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0cm/ 1절면 31.7×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째(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四 二/ 晉四 八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각 수 : 돈일(敦一 : 제1장 등)/ 혜(惠)·돈일(敦一 : 제10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4·9·13·20장 등의 경우에는 본 인출본이 현존 원판보다 마모 정도에서 양호한 상태

1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1062.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7×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째(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 수 : 혜(惠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1036.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8×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째(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六 二/ 晉六 四卜/ 晉第六 十七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 수 : 천(天 : 제21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7(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1108.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2cm/ 1절면 31.8×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째(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七 二十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각 수 : 定(定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7.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0(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939.8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1cm/ 1절면 31.8×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 二卜/ 罽二十 音義二(제20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각 수 : 敦一(敦一 : 제2장 등)/ 이(耳 : 제19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1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962.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7×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定(定 : 제5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의 經자가 황색 표지의 經자와 차이

19.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2(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84.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1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二 二卜/ 罽二十二 十六/ 罽二十二 音二(제21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각 수 : 이(耳 : 제1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20.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5×1152.0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7cm/ 1절면 31.5×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4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罽二十五 二/ 罽二十五 六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각 수 : 이(耳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2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86.0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罽二十六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각 수 : 문(文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에는 罽자가 누락된 상태

2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5×1205.0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2cm/ 1절면 31.5×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5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罽五十五 二/ 罽五十五 五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각 수 : 문(文 : 제2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2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8(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1104.4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3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罽(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罽五十八 十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각 수 : 료(了 : 제2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2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6(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850.6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8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째(貞의 오자)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六 六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 수 : 희(希 : 제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의 진(眞)자는 정(貞)자의 오자로 정원본. 제18장의 판수제는 생략된 상태

2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32(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899.2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1cm/ 1절면 31.0×12.2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표제를 금니로 필사) 貞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三十二 二/ 貞三十二 四/ 貞元三十二 音義一(제19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각 수 : 료(了 : 제4장 등)/ 濫(제8장 등)/ 희(希 : 11장)/ 인(仁 : 제17장)/ 원(元 : 제18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의 방(方)자는 일부가 훼손·마모된 상태

2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12(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39.9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9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貞(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목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十二 十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각 수 : 인(仁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27.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3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890.1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2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貞(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묵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三十六 八/ 貞三十六 十/ 貞元三十六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각 수 : 기(己 : 巳자로 표기, 제8장 등)/ 보(甫 : 제19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각수 기(己)를 사(巳)로 표기. 제19장은 장차 십구(十九)가 누락된 상태

2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38(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865.9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2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8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貞(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표제 묵서)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三十八 三/ 貞三十八 四/ 貞三十八十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각 수 : 인(仁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묵 서 : 天(뒷 표지의 아래 부분에 묵서)

특이사항 : 제1장의 상·하란 상태가 원판보다 양호한 상태. 제12장의 판수제는 권차와 장차를 연이어 판각

29. 제다라니경(諸陀羅尼經)

목판본(木板本 : 1375년(우왕 원년)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 변상도 四周雙邊)/ 전체 7.1×466.4cm/ 무계(無界)/ 전곽 63행12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6.5cm/ 1절면 7.1×4.8cm/ 1장 7절/ 1절 9행12자/ 전체 14장 연결/ 표지(황색 비단)/ 포갑(연녹색 비단)

권 수 제 : 成佛隨求大陀羅尼

판 수 제 : 第二丈(제2~10장)/ 十一丈(제11~14장)

권 미 제 : 없음

각 수 : 田成尺刀(변상도 : 사주단변 형태 안에 양각)

간행정보

[원문]

甲寅(1374년)伊始於今乃成功德之[處]

所當[印]行過神咒[影]佛種猶萌

況持而信玄應[愈]明

太后難[老]

主上遐齡祥[疑]四[埜]慶洽

朝廷[秉]彝之暇咸悟無生廣資

恩有令出火院

洪武乙卯(1375년 : 우왕 원년)冬施主壽[郎]將朴 免述

刊字 金允貴 李 仁烈

梵漢字書并校平[陽]朴 免

始全願

大匡壽判內府事金 師幸

中隨喜雲霞蕩子釋 竟回

終助緣

奉翊大夫開城尹朴 成亮

匡靖大夫判崇敬府事朴 元鏡(제14장)

구성 체계 : 변상도(佛會相 : 弥陀·毘盧·帝釋·釋迦·摩利支天)—수□□송주(隨□□[誦]咒)—박면지(朴免誌 : 甲寅秋朴免誌)—개법장주(開法[藏]咒 : 주문 悉曇章)—성불수구대다라니(成佛隨求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隨求陀羅尼心咒—실담장—隨求終 免書)—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觀自在菩薩大悲心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大悲咒終朴免書)—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 주문 실담장—尊勝終朴免 妥夫書)—대불정심능엄주(大佛頂心楞嚴咒 : 주문 실담장)—구도불모충지(救度佛母揜持 : 주문 실담장)—여래십호(如來十号 : 주문 실담장)—오호다라니심주(五護陀羅尼心咒 : 주문 실담장)—육자대명주(六字大明咒 : 주문 실담장)—관자재보살여의륜주(觀自在菩薩如意輪咒 : 주문 실담장)—삼신주(三身咒 : 주문 실담장)—일체다라니모주(一切陀羅尼母咒 : 주문 실담장)—칠구지불모성대준제주(七俱胝佛母聖大准提咒 : 주문 실담장)—불공견삭주(不空羂索咒 : 주문 실담장)—제불내영주(諸佛來迎咒 : 주문 실담장)—관세음보살각수진언(觀世音菩薩各手真言 : 관세음보살 四十二手咒 가운데 如意珠手咒 등 40수주를 한자주문제목+ 실담장 주문내용으로 표기한 이후 各手終—妥夫書)—관세음보살근본다라니(觀世音菩薩根本陀羅尼 : 주문 실담장—根本終—朴免[書])—안토지주(安土地咒 : 주문 실담장)—대보누각주(大宝樓閣咒 : 주문 실담장)—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소만병주(消万病咒 : 주문 실담장)—소재길상다라니(消災吉祥陀羅尼 : 주문 실담장)—예적금강대신통다라니(穢跡金剛大神通陀羅尼 : 주문 실담장)—문수멸죄진언(文殊滅罪真言 : 주문 실담장)—보현멸죄진언(普賢滅罪真言 : 주문 실담장)—관음멸죄진언(觀音滅罪真言 : 주문 실담장)—지장멸죄진언(地藏滅罪真言 : 주문 실담장)—파지옥진언(破地獄真言 : 주문 실담장)—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陀羅尼 : 不空三藏 譯—주문 실담장+ 한자—주문 한자 해설—주문 실담장+ 한자)—봉청마리지천주(奉請摩利支天咒 一名摩利支天身咒 : 주문 실담장+ 한자—주문 한자 해설)—마리지보살최상심진언(摩利支菩薩最上心真言 : 주문 실담장+ 한자—甲寅秋仲岩遁朴免妥[夫]誌)—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 한자 본문—주문 실담장+ 한자—心經終 免書)—문수최상승무생계(文殊最上乘無生戒 : 한자 본문—如來遺教弟子傳授—乘戒法西天禪師指空)—대방광불화엄경심과지옥계(大方廣佛華嚴經心破地獄偈 : 계송 한자)—대승묘법연화경심계(大乘妙法蓮華經心偈 : 계송 한자)—금강반야바라밀경심계(金剛般若波羅蜜經心偈 : 계송 한자)—여래대열반경심계(如來大涅槃經心偈 : 계송 한자)—무량수불근본주(無量壽佛根本咒 : 주문 실담장)—지거불심파지옥주(智炬佛心破地獄咒 : 주문 실담장)—양기리에청복독해주(襄[驪]哩曳淸伏毒害咒 : 주문 실담장)—여인고난산수지차주(女人苦難產受持此咒即易生 : 주문 실담장)—제적난진언(除賊難真言 : 주문 실담장)—안토자주(安土地咒 : 주문 실담장)—호신주(護身咒 : 주문 실담장)—일자정륜주(一字支輪咒 : 주문 실담장)—정법계주(淨法界咒 : 주문 실담장)—해백생원주(解百生冤咒 : 주문 실담장)—미타심중심주(彌陀心中心咒 : 주문 실담장)—보궐주(補闕咒 : 주문 실담장)—부적(符籙 : 成正覺印

등 20종류의 부적)—원견미타주(願見彌陁咒 : 주문 실담장)—왕생정토주(往生淨土咒 : 주문 실담장)—보회향주(普迴向咒 : 주문 실담장)—제불·보살명호(諸佛·菩薩名號 : 명호 한자)—간행 정보

목 서 : 長守(뒷 표지 목서)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진본·정원본) 28권 28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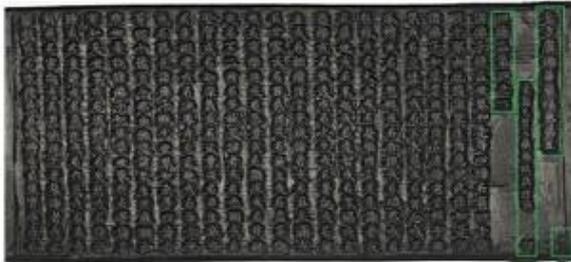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에 포함된 28권 28첩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은 각각 다른 3·2종류의 표지로 장정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는 권5·6·21·22·27 등 5첩으로, 표제가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표시된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대방광불화엄경권제오(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라 필사되어 있으며, 금사란 아래 ‘진(晉)’자가 금니로 표기되어 있다. 연한 감색의 표지는 권3·4·5·7·9·21·26 등 7첩으로, 표제가 진한 감색과 동일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면서 개법장진언부호의 형태와 함께 표제의 서체 및 표제 가운데 ‘제(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황색 표지는 권4·5·6·7·20·21·22·25·26·55·58 등 11첩으로, 표제가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대방광불화엄경권제사(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 권21의 경우는 표제 經자를 經자로 목서) 진(晉 : 권26의 경우만 晉자 누락)’이라 목서되어 있으므로, 진한 감색 및 연한 감색 표지와 각각 표제의 서체와 글자 형태 및 개법장진언부호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는 권6·32 등 2첩으로, 표제의 글자형태·개법장진언부호 및 표기방식 등이 진본의 감색 표지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금사란 아래 ‘진(晉)’자를 대신하여 ‘정(貞 : 권6의 표제 晉은 貞의 오자)’자로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권12·36·38 등 3권 3첩의 황색 표지 정원본도 표제의 글자형태·개법장진언부호 및 표기방식 등에서 황색 표지의 진본과 동일하며, 다만 ‘진(晉)’자 부분에 ‘정(貞)’자가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진한 감색 표지와 연한 감색 및 황색 표지가 각각의 특정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8권 28첩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은 현재 국보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이다.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의 해당 경판은 상하단변(해인사 고려목판은 사주단변)의 형태, 본문의 행자수와 글자 형태·위치, 권수제·권미제·판수제의 형식과 글자 형태 및 위치, 각수의 이름·위치, 그리고 개별 권의 구성체계 등이 조사대상의 인출본과 서로 일치한다. 더구나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1장의 인출본 3종류(진한·연한 감색 및 황색 표지) 경우는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에 새겨진 권수제·한역정보·품제·각수(惠刀)의 형식

과 위치도 동일하므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찍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



진한 감색 표지(01)



연한 감색 표지(08)



황색 표지(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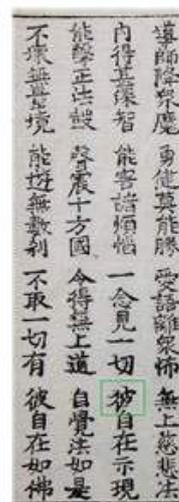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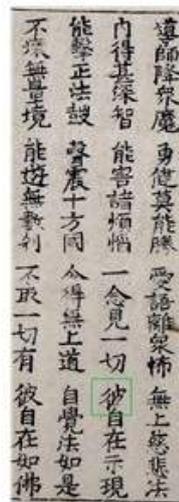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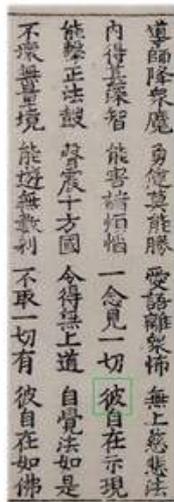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1장의 현존 원판과 원당암 인출본 사례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은 13세기 중엽 경에 조성되었다.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은 판식과 글자 형태 등이 1244~1245(고종 32)년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에 조성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 60권 및 『대방광불화엄경(정원)』 40권과 거의 동일(합차·간행정보의 표기 여부에서만 차이)하며, 특히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惠·惠刀·定·耳·敦·一·天圭·天佳·明端 등)도 13세기 중엽의 활동 인물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제1·10장 등에 찍혀있으면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의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 동일(敦一)은 1238년(고종 25) 고려국대장도감에서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권6(芥함) 제37~40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해인사 고려목판의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제12장 및 권27, 제3장 등을 각각 직접 만든 각수 천규(天圭·天佳) 및 명단(明端)도 1238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방광반야바라밀경(放光般若波羅蜜經 :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권20(重함), 제14·15장 및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권11(薑함) 제29~40장 등을 판각하는 등,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은 13세기 중엽 활동한 각수들이 판각한 경판이다.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인출발문이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이 13세기 중엽 경에 판각·조성되었으며, 해당 인출본의 일부에

서 상하단변·글자의 마모 현상과 함께 경판의 균열 현상 등이 보이므로,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13세기 중엽 이후 특정한 시기에 찍은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인출본에서는 표제 부분에 15세기까지 확인되는 개법장진언부호가 확인되므로, 인출시기를 15세기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장정형태와 표제형식 등이 14~15세기 인출본에서 상당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14~15세기 인출·장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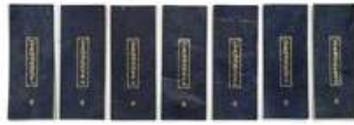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정원본의 3종류 인출본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5장의 제21행 16자에 양각된 피(彼)자의 사례에서는 진한 감색 표지의 경우가 마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에 포함된 해당 원판과 연한 감색표지 및 황색 표지의 경우에서 획의 일부가 훼손·탈락 현상을 보이므로, 진한 감색 표지의 인출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장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한 감색 표지와 황색 표지의 경우는 인출의 선후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려목판(국보 제206호) 진한 감색 표지(01) 연한 감색 표지(08) 황색 표지(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5장 제21행의 현존 원판과 원당암 인출본 글자
마모도 사례



진한 감색표지



연한 감색표지



황색표지(권26의 풀 누락)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의 앞표지



진한 감색표지(권6의 풀은 貞의 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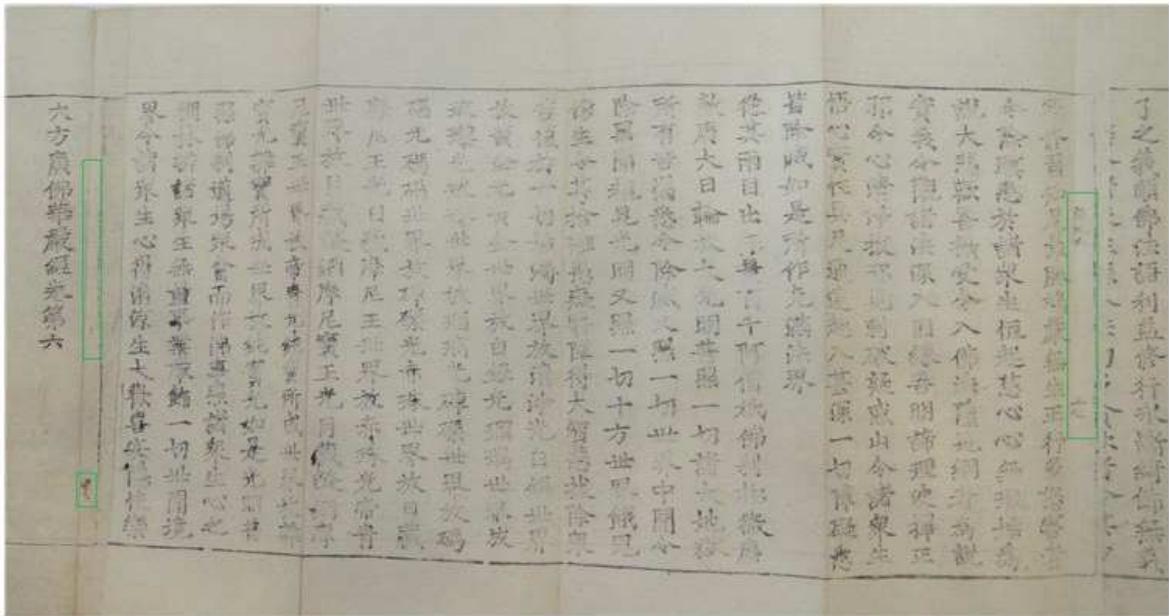


황색표지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의 앞표지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제18~19장 앞면(제18·19장의 판수제와 권미제 : 제19장은 장차를 音義一로 표기)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제17~18장 뒷면(제17장 판수제와 제18장의 판수제 누락 및 제18장의 각수 希)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에 포함된 『제다라니』 1권 1첩은 휴대용의 수진본(袖珍本)으로, 황색 비단의 표지에서 표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14장은 변상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다라니·진언(眞言)을 이어진 다음, 간행정보로 마무리되어 있다. 첫머리에 있는 변상도는 불회상(佛會相)이라는 제목으로, 미타(彌陀 : 아미타불)·비로(毘盧 : 비로자나불)·제석(帝釋 : 제석천왕)·석가(釋迦 : 석가모니불)·마리지천(摩利支天) 등의 도상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권수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성불수구대다라니(成佛隨求大陀羅尼)라는 한자 제목을 이어 주문 내용이 실담장(悉曇章 : 범어 문자의 자음·모음 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觀自在菩薩大悲心大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대불정심능엄주(大佛頂心楞嚴咒) 등 수십 종류의 다라니·주(咒)·진언(眞言)이 한자 제목을 이어, 실담장이나 한자 또는 실담장·한자 병기의 주문 내용이 새겨져 있다. 보결주(補闕咒)의 다음에는 성정각인(成正覺印) 등 20종류의 부적(符籙)이 새겨져 있으며, 간행정보의 앞부분에는 제불(諸佛)·보살명호(菩薩名號)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판수제는 제이장(第二丈)·십일장(十一丈)과 같이 표기되어 있으며, 변상도의 좌측 하단에는 사주단변 형태 안에 ‘전성척이 이 변상도를 조각하였다(田成尺刀)’라 새겨져 있다.

간행정보에는 이전 낭장을 역임한 박면(朴免)이 1375년(우왕 원년) 겨울 지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인출본의 원천텍스트로 삼은 원판은 1375년 겨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행정보에는 갑인년(1374) 인출본의 원판을 조성하는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성목적과 함께 조성조직 등을 밝혀 두었다. 조성목적은 왕실 및 조정의 안녕 등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조성불사에서는 박면(朴免)이 시주와 함께

범자(梵字 : 실담장)·한자(漢字)의 필사 겸 교정 등을 맡았으며, 김윤귀(金允貴)·이인렬(李仁烈)이 간자(刊字 : 각수)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전(搨) 판내부사(判內府事) 김사행(金師幸), 승려지식인 각인(覺因), 개성윤(開城尹) 박성량(朴成亮), 판승경부사(判崇敬府事) 박원경(朴元鏡)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 인출본은 변상도와 함께 상하단변·글자 등에서 마모 현상이 보이므로, 1375년 이후 특정의 시기에 인출·조성된 후쇄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과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발견되지 않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은 1374~1375년과 인출 당시 고려사회의 불교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기술의 실체·역량 등을 진단하고, 해당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은 아직까지 동일 기록유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적 희소성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포갑 및 표지



변상도(佛會相)

제다라니(수진본)



성불수구대다라니 제목

제다라니(수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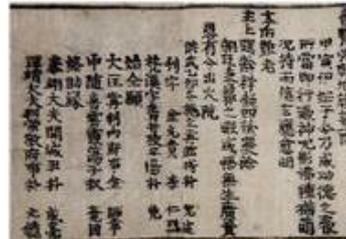


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제목) 및 수구(성불수구대다라니)종



부적

제다라니(수진본)



간행정보

○ 문헌자료

해인사성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 2017.

남권희,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小字 총지진언집 연구」 『書誌學研究』 71, 한국
서지학회, 2017.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지정사례

보물 제1192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8(1994년 01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083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91년 07월 지정
절첩본) 진한 검색과 유사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1992년 12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154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1993년 4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017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 주본 권38, 정원본 권2·38(1989년 08월
지정 : 주본 권38은 국보 제206호와 차이)

<참고> 해인사 원당암 목조관음·지장보살입상 X-ray 사진



13.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 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12.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4.29./5.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2002.1.10.)
- 명 칭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 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소재지 : ① 불보살상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갑사
② 복장유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보살상 4구, 복장유물 7건 263점, 복장전적 8종 8점 *목록 별첨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268.9cm, 약사여래 237cm, 아미타여래 246cm
보살상1(석가 좌측) 229cm, 보살상2(석가 우측) 227.5cm
보살상3(약사 좌측) 230cm, 보살상4(아미타 우측) 228cm
- 재 질 : 소조, 저지(楮紙)
- 조성연대 : 1617년(광해군 9)
- 제작자 : 幸思·德玄·天潭·熙淳·敬輪·心淨·應梅·性耑·性宗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 복장유물

연번	유물명	시기	재질	수량	크기(cm)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점	*1.2×37.8 *11매로 구성
2	후령통	조선시대	비단 외	1점	*지름 7.8, 높이 27
3	오보병	조선시대	비단·곡물	1점	*14.5×7.5 *검은색 비단에 곡식을 넣고 포장한 뒤 명주실을 감아 마감함.
4	비단편 및 목부재	조선시대	비단·나무	2점	*비단편 37.8×57.7 *비단편은 용과 용비늘 문양을 시문함 *목부재 길이 85.3
5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목판본	3매	*27.7×17.8
6	묘법연화경 권1,2,3,4,5,6	[1573년]	목판본	213매	41.7×50.2
7	다라니	조선시대	목판본	42매 (흑색33매, 주색9매))	*38.2×57.0
계	7건 263점				

○ 복장전적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필사본	1첩	1388년	29.7×240.9
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399년 (고려 말~조선 초)	26.9×16.8
3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5세기	28.5×17.8
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405년	27.3×16.7
5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36.5×21.8
6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년	35.3×24.6
7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업경 권6~10	목판본	1책	1433년	27.7×17.1
8	상교정본자비도광참법 권8~10	목판본	1책	1352년 (고려 말~조선 초)	34.1×17.3
계		8건 8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삼불사보살’이라는 특별한 구성의 가장 이른 사례!

갑사 불상은 우리나라 불상 가운데 사례가 드문 삼불, 사보살의 칠존 형식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완전하게 남아있는 복장물!

2015년 보존 수리 과정 중 발견된 향우(尙右) 보살상의 복장물은 불상 복장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성 당시의 원형 그대로 빠짐없이 남아있어 갑사 대응전 불상과 보살상의 내력, 복장 의례 물품, 후령통 형식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1617년 정확한 제작 시기!

복장발원문을 통해 1617년 정유재란 이후 갑사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대응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 조각승 행사(幸思)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대표 작품!

지금까지 조각승 행사의 이름은 1648년 도장사 석가모니불좌상의 발원문에서 ‘師翁 幸思比丘’로 등장한 것이 유일한 예였다. 갑사 대응전 불상은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작품이다.

■ 큰 크기, 온전한 보존상태!

2미터가 넘는 큰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으며, 취약한 보살상 보관에 이르기까지 1구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잘 남아있다.

■ 2300여명의 동참 불사!

임진왜란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1617년,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대불사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 자료!

갑사 대웅전의 불상은 조선 전기 양식의 계보를 이으면서 조선 후기를 시작하는 양식으로 조각사 편년에 있어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행사가 수화승으로 작업한 유일한 작품으로, 차후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시각 자료가 될 것이다.

공주 갑사의 소조석가여래삼존불상 및 사보살입상은 문자 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며, 조각승 유파와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임란 후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형 소조삼불상의 사례들 중에서 가장 이른 1617년에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 조성된 삼불상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사례가 더 많은 가운데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석가·아미타·약사 삼세불 조성의 선구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논산 쌍계사(1605), 공주 동학사(1606)에 이어 세 번째 현존하는 오래된 삼세불상의 사례이다. 그러나 협시보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형소조불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대형소조불상들,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상(보물 제958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576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274호), 부여 무량사의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65호) 등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갑사 소조삼세불상 역시 학술적 가치가 큰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바, 표훈대덕 찬문이 있는 고려시대 <금강반야바라밀경>, 책자 형태로 조성된 독특한 발원문 등도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판단되어 갑사 소조삼세불 역시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삼세불과 함께 4보살상은 봉안하는 법식을 통해 조선시대 불교도상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발원문에는 당시 삼세불과 함께 석가·아미타의 협시보살인 문수·보현·아미타·지장보살로 4보살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갑사 삼세불은 보관에 화불이 있는 관음이나 두건 혹은 삭발한 모습의 지장보살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원사와는 다른 4보살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좌측 보살입상에서 ‘미륵’ 묵서명이 적외선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산전·응진전에 주로 봉안되는 석가삼존의 협시인 제화갈라·미륵보살, 그리고 대웅전의 석가삼존의 협시인 문수·보현보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각각 법화와 화엄을 아우르는 삼존구성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조각양식적으로 불두가 실제 인체비례에 가깝게 작은 편이고, 불두의 안정감있는 역사다리꼴 윤곽, 섬세한 수인의 묘사, 유려한 옷주름 처리, 보살입상의 건칠로 조성한 섬세한 보관과 보석장엄 등은 조각승 행사가 조성한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조선전기의 조각양식과 조선후기 조각양식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겸하고 있다. 특히 공주 동학사 불상은 그가 각민을 도와 조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같은 양식의 불상이 대형소조불상으로 조성될 때의 비례상의 차이점이나 기법상의 변화를 비교고찰할 수 있어 특히 주목된다.
5.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욱 널리 알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사보살 형식의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작이자 최고작이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17세기 전반기 대형 불상에 널리 적용된 소조기법의 이른 사례이다. 따라서 갑사 불상은 조선 후기 삼불사보살상 도상 및 제작기법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17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幸思를 비롯한 분명한 조각주체, 조선 후기 최대인원의 시주자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시대의

역작임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의 기준 자료이다. 특히 수조각승 幸思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釋俊, 元悟, 覺敏의 조각적 전통을 이어 받은 조각승으로 현존하는 최고 최대 작품이다. 역삼각형의 가름한 얼굴에 우뚝한 삼각형의 콧날에서 행사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장대하고 늙은 형태와 비례, 기백 넘치는 선묘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대형불상들과 시대적 특징을 공감하며 국난 극복과 불교 부흥의 시대적 열망과 의지를 담았다.

시주자들의 면면도 주목된다. 1630년대 금산사 중창불사를 주도한 守文大師를 비롯하여, 현진, 응원, 범령 등 당대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여 불사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조각승간의 교류와 협력관계 연구에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시주자로 조선 후기 최대 인원의 사부대중이 참여하고 있어 이 시기 불교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복장유물은 불상조각에 생명력과 위신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진신과 법신이다. 발견된 복장유물은(목록참조, 경전은 별도 지정시 제외) 중수 시 중첩 납입된 것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의 복장전적은 판본으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관각과 인출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장정 형식 등에서 학술적인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의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입상의 조성 시기에 해당하는 1617년(萬曆 45年) 이전의 복장 봉안 경전류의 유형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에도 일괄 유물로서 함께 연구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복장전적 8종 8점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공주 갑사 대웅전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불좌상과 4구의 보살입상이다. 모두 흙으로 조성한 소조상이다. 중앙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향우)에 약사불, 오른쪽(향좌)에 아미타불을 봉안했으며, 그 사이사이에 보살입상을 배치했다. 3구의 불좌상은 크기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중앙 석가모니불상이 가장 커 268.9cm이며, 아미타불은 246cm, 약사불은 237cm이다. 4구의 보살입상은 보관을 포함해 228.9~233cm 정도의 크기이다. 내부에 여러 개의 나무로 기본 틀을 갖추고 2~4cm 정도 두께의 진흙을 바른 후, 그 위에는 삼베와 옷칠을 하고, 금을 입혀 마무리했다.



<1617년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 사진 편집 임영애)>

■ 불좌상 3구의 현상

불좌상 3구는 손 모양과 가사 형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습이다. 3구의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육계는 머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그 정상에는 정상계주를, 그 아래에는 반달모양의 중심계주를 두었다. 하관 너비보다 이마 너비가 더 넓은 역사다리꼴의 얼굴에 코와 입을 큼지막하게 표현하여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눈썹 사이의 백호는 작으며, 콧날이 오뚝하다. 삼도는 목이 아닌 가슴 쪽으로 내려 음각선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어깨가 넓고, 양 팔은 몸에 최대한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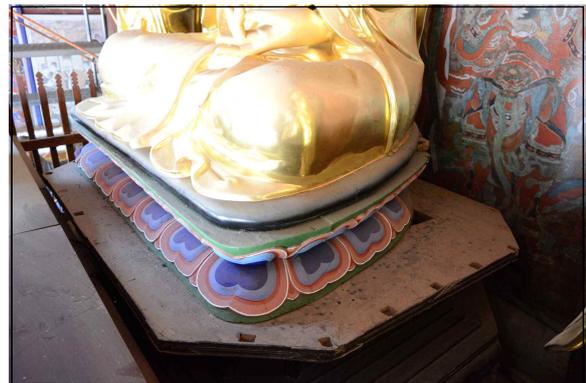
상체는 긴 편이며, 하체에 비해 상체를 크게 표현하여 불상이 장대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는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시점을 감안한 것이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너비가 넓어 안정적이지만, 무릎의 높이는 낮다. 이처럼 무릎 높이를 낮게 한 예는 1614년 송림사상, 1633년 선운사 대웅전 소조삼불좌상, 1633년경 김제 귀신사 소조삼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구 불좌상의 차이점은 손 모양과 가사의 형식이다. 손 모양은 3구의 불좌상이 모두 다르다. 중앙 석가여래는 왼손을 배 앞에 가로 두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댔으며,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어 항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취했다. 석가여래 왼쪽의 약사여래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에 두었으며, 석가여래 오른쪽의 아미타여래는 손 위치를 대칭으로 표현했다. 약사여래이지만 약기(藥器) 없이 아미타불상과 대칭을 이루는 설법인을 취한 것도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삼불좌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가사는 모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 형식이지만,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불의 가사는 차이를 두었다. 즉, 중앙 본존상은 1장의 가사를 걸쳐 오른팔을 드러냈지만, 좌우 협시불은 1장이 아닌 2장의 가사를 걸쳐 오른팔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2장의 가사를 걸친 형식을 소위 ‘이중착의’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의 석가여래상은 항상 1장의 가사를 걸치고, 오른팔을 노출시켜 다른 존상과 차별화하려 하였다.



<불상 연화 대좌와 대좌 받침>



<불상 연화 대좌와 대좌 받침 상단>

나무로 만든 대좌와 대좌 받침은 전체 높이가 101~107cm이다. 불상과 보살상은 진흙으로 조성했지만, 대좌와 대좌 받침은 모두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연화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큼지막한 연화좌로 불좌상의 밑면과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조성했다. 연화대좌 아래에는 삼단으로 이뤄진 대좌 받침이 있다. 대좌 받침의 상단은 얇은 판으로, 중단은 장방형에 모서리를 죽인 팔각형이며, 네 면에는 안상을 투각했다. 상단에는 원래 난간 모양의 목재가 둘러져 있어 대좌를 감싸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목재를 꽃았던 흔적만 남아있다.

■ 보살입상 4구의 현상

4구의 보살상은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서있는 입상이다. 얼굴의 비례, 얼굴 모습, 가사 주름 등이 불상과 기본적으로 같아, 같은 조각가의 솜씨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은 상투[寶髻]가 높으며, 이마 위로 보관을 씌울 수 있도록 층을 두었다. 귀 앞으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귓바퀴를 감아 어깨로 내려왔는데, 어깨 위에서 매듭을 지은 후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팔뚝으로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보살상의 손 모양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2구씩 서로 대칭으로 표현했다. 즉, 석가여래의 왼쪽에 위치한 2구의 보살입상은 왼손을 위로, 오른쪽에 위치한 2구의 보살입상은 오른손을 위로 했다. 4구 모두 양손으로 지물을 들었는데, 1구는 여의(如意)를, 3구는 연꽃가지를 쥐었다.

보살의(菩薩衣)는 일반적인 보살의 착의 형식인 천의가 아니라 불상과 동일한 가사를 걸쳤는데, 이는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2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착의' 형식 역시 불좌상과 동일하다. 보살의 가사가 허리에서 무릎까지 길게 덮여 있어, 군(裙)은 무릎 아래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갑사 보살입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칠기법으로 제작한 화려한 보관이다. 아쉽게도 향좌측 끝의 보살입상 보관은 1930년 조각승 일섭(日燮)이 새로 조성한 것이지만, 나머지 3구의 보관은 1617년 보살상 조성 당시의 것이다. 건칠 보관은 넝쿨 무늬, 연꽃, 화염보주, 봉황, 구름 무늬로 장식했으며, 좌우에는 바람에 날리는 관대(冠帶)를 표현했다. 보살상의 대좌는 불좌상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제작했다. 보살상의 대좌는 불상대좌와 재질은 같지만, 형식은 달라 양련의 연꽃대좌와 대좌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련 연꽃대좌는 세 줄의 연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대좌 받침은 팔각형으로 모서리마다 다리를 조각했다.



■ 복장물 구성



2015년 5월 보존 수리 과정에서 향우 측 보살입상 1구의 복장 유물이 세상에 드러났다. 보살입상 바닥의 복장공은 가로×세로 22.3×15.4cm, 두께 6cm 크기의 봉합목으로 봉인되어 있었



<보살상 복장유물>

다. 복장물은 모두 16건 265점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발원문과 후령통, 오보병,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 1388년)』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경전류, 다라니, 후령통 등이 납입되어 있었는데, 고려말-조선초에 간행한 전적류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발원문은 11매의 종이를 엮은 책 형태로 18면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2,334명의 시주자 이름을 적고 마지막 장에 제작 소임을 맡은 31명과 조성시기와 사찰명을 기록하였다. 발원문에 의하면, 공주 감사 대응

전의 조각은 1617년 조각승 행사(幸思)가 중심이 되어 8명의 조각승이 합심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발원문은 2334명의 시주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려다 보니 18쪽에 빼곡히 이름을 적어 이를 책자로 꾸몄다. 임진왜란이 끝난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아 조성한 7구의 불상으로 많은 명단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발원문을 책자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하다. 감사 보살상의 후령통은 『법화경』(쌍계사본)에 싸여 발견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삼불사보살상의 독특한 구성



1617년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39년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보물 제1378호)

1703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삼불사보살상 구성 비교 © 사진편집 임영애>

커다란 방형 수미단 위에 병렬로 7구의 불상과 보살상을 안치했다. 갑사 대웅전의 불상과 마찬가지로 삼불사보살로 구성되어 있는 예는 두 곳이 더 있다.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보물 제1378호)와 1703년 화엄사 각황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이다. 모두 수미단 위에 삼불상은 좌상이고 사보살상은 입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갑사상은 남아있는 칠존불 가운데 가장 예이다. 쌍계사상과 화엄사상은 나무로 제작했지만, 갑사상은 7구 모두 재료가 흙이다.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공간에 3구의 불상을 봉안하는 삼불상 형식이 크게 유행했다. 불교교주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현실의 수명장수를 위한 약사불, 그리고 사후 극락왕생을 위한 아미타불로 구성하는 형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공주 갑사 대웅전의 불상은 삼불상 형식에 사보살입상을 추가하는 특별한 구성을 지닌 가장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 1617년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승 행사(幸思)

복장발원문은 2300여명의 발원자 이름이 가득 적힌 여러 종이를 묶은 책자형태이다. 발원문 끝부분에 적힌 ‘萬曆四十五年丁巳十月日鷄龍山岬寺佛像畢造’ 문서(墨書)를 통해 불상의 조성연대가 1617년임이 밝혀졌다. 조각승은 행사(幸師)가 주관하여 덕현(德玄), 천담(天潭), 희순(熙淳), 경륜(敬倫), 심정(心淨), 응매(應梅), 성은(性崙), 성종(性宗)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각민(覺敏), 해심(海心), 무염(無染), 응원(應元) 등과 활동하던 화승들이다. 갑사상의 조성에 갑사 출신 승려뿐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집단과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어 당시 갑사 불사의 규모와 사찰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예는 갑사 대웅전의 삼불사보살상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다만 수화승은 아니지만, 1648년에 조성된 도장사 석가모니불좌상의 발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장사 발원문에는 ‘師翁 幸思比丘 養師 無染比丘 首畫員 海心比丘’라 적혀 있는데, 이 발원문은 행사와 17세기 조각승 무염(無染), 해심(海心)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행사 화풍의 특징이 무엇이며, 도장사 불상에 행사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갑사 대웅전 불상은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2300여명의 시주자 단합의 결과물!

갑사는 정유재란(1597-1598)으로 완전 소실된 이후 사찰의 대규모 복구사업을 진행했다.⁵⁹⁾ 우선 1604년에 현재 대웅전 중건을 비롯하여 진해당 등을 중건했으며, 1617년 갑사상 역시 갑사 복구불사의 일환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후에 제작한 불상이다. 이 후 1650년에는 괘불을 조성하고, 1654년경에 또 가람을 일신하기도 했다.

흙이라는 재료는 금동이나 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 전반에는 장육불상과 같은 대형 불상을 조성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소조불상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불좌상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기림사 삼불좌상 등이 대표적인 소조불상이지만, 특히 조선 후기에 그 예가 많다. 갑사상은 이들 대형 소조불상의 전통을 이은 것인데, 소조상이지만 그 크기가 워낙 크고, 존상의 숫자

59) 1799년에 편찬한 『범우고(梵宇攷)』, 1659년에 여주목사(驪州牧使) 이지천(李志賤)이 지은 『공주갑사사적비(公州岬寺事蹟碑)』에 의하면, 정유재란으로 갑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선조(宣祖) 37년(1604)에 대웅전(大雄殿)과 진해당(振海)을 중건하였고, 효종(孝宗) 5년(1654)에 가람을 개축하였다고 전한다.

도 많아 7구의 상을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2300여명의 불상 대시주자 가운데 비구니 묘충(妙聰)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감사 불상의 시주자 2300여명 가운데 360여명의 승려가 동참했는데, 비구니는 묘충, 혜금(惠今), 보월(寶月) 등 3명뿐이지만 발원문 서두에 비구보다 비구니를 먼저 비중 있게 기록한 점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다.

■ 큰 크기, 온전한 보존상태!

감사 대웅전의 불상과 보살상은 2미터가 넘는 커다란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다. 특히 보살상의 보관은 보존에 취약하여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데, 감사 보살상은 4구 가운데 1구를 제외하고는 보관이 온전히 잘 남아있다.

보관은 그 재료가 특별한데, 모두 종이와 옷으로 만든 건칠보관이다. 보관을 건칠로 제작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건칠기법은 고려부터 조선전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유행했다. 옷칠이라는 재료 자체가 고가인데다가, 제작이 쉽지 않고,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칠불 제작을 선호한 이유는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용이하고, 열·물·벌레 등에 잘 견디는 내구성이 강하며,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사 보살상 3구의 보관은 17세기 전반이라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보관을 고가의 건칠기법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 뛰어난 조각 솜씨!

3구의 불좌상은 전체적으로 평면적이기는 하지만, 상체가 장대하며, 무릎 너비가 넓어 안정된 신체 비례를 보인다. 머리와 구분되지 않는 육계, 원통모양의 정상계주, 반달모양의 중심계주, 이마 너비가 넓은 역사다리모양의 얼굴형태, 커다란 코와 입, 넓은 인중, 크고 두툼한 손 등은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추었다.

수조각승 행사가 주관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하지만, 감사 불상을 통해 목조와 소조기법이 혼용된 제작기법, 유일한 건칠보관의 제작 등, 나무와 흙, 건칠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 대웅전의 불상은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각가 행사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 참고문헌

김광희, 「감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 연구』 300, 2018, pp. 167-195.

심주완,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칠존불상 연구」, 『불교문화연구』 2, 한국불교문화학회, 2003, pp. 227-247.

□

○ 현 상

현재 갑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1604년(선조 37)에 중건된 것이다. 대웅전은 현재 충남 유형문화재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상의 규모 및 재질로 보아 이동이 불가능한 관계로 1617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웅전 건축과 함께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형소조불상으로서 그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협시보살과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5년도에는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약사여래불의 좌협시보살입상(불단향좌측 보살상)에 대한 감마레이 촬영 및 복장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소조삼세불의 조성연대(1617년, 萬曆45年) 및 제작자(幸思)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복장물의 납입 순서 및 납입 위치 등도 정밀하게 조사되었다.

원래 불상 각각이 협시보살을 두면 모두 6구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4구만 축약적으로 구성된 것도 특이하다. 기초조사 당시 약사여래의 좌협시(불단 좌단 위치)의 보관 뒷면의 적외선 촬영에서 ‘미륵’ 묵서명이 확인되었다. 이 묵서가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처음부터 미륵보살로 조성된 것이라면 수기삼존에 의한 제화갈라·미륵보살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삼세불이므로 석가모니의 협시보살인 문수·보현보살이 또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 보살은 문수, 보현, 제화갈라, 미륵보살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 4구의 보살상이 봉안된 간격도 주목된다. 네 보살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두 보살을 본존 석가모니에 더 가깝게 붙여서 배치했다. 즉, 중앙의 두 보살을 각각 석가와 아미타, 석가와 약사의 중간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석가모니불좌상에 가깝게 배치했다. 이는 균등한 비중을 지닌 삼세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가모니를 중심에 두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불상 뒤편에는 화승 의겸(義謙)이 제작한 불회도가 각각 걸려 있었는데 이 역시 불상과 짝을 이루어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지만, 약사불회도가 도난당해 현재는 석가 및 아미타불회도만 전하며, 대웅전에는 원본 대신 프린트된 복제본이 걸려 있다. 사라진 약사불회도 대신 아미타불회도를 추가적으로 복제하여 약사불 뒤에 대신 걸어둔 상태이다. 이 불화들은 의겸 화사가 활동한 1700

년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상과 100년 가량의 연대차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뒤에 벽화로 삼신불회도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갑사도 불상이 제작될 당시에는 벽화로 제작되었다가 법당을 중수하면서 후대에 탕화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대형소조불상 조성의 선구적 위상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그 규모와 양식의 독특함, 그리고 보살상과 조합을 이룬 봉안방식 등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정확한 조성연대 및 작가 등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1617년 조성임을 알게 되었다.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과 같은 대형의 불상들은 대체로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1617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대형 소조불로 주목되는 사례는 우선 양식적으로 기림사 대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삼불좌상은 1719년 개금기에서 1564년에도 개금이 이루어졌던 기록이 확인되어 최소 1564년 이전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형소조불상 중에서 16세기에 조성된 유일한 사례이자,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이러한 대형소조불상이자 비로자나삼불상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임란 이전의 기림사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란 이후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26년(인조 4),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귀신사의 중창이 이루어졌던 1624년부터 중창불사의 마지막으로 영산전 존상들이 봉안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33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41년(인조 19)에 조성되었다. 삼신 혹은 삼세불은 아니지만, 대형의 소조삼존불상으로서 부여 무량사의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633년(인조 11), 김제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장육삼존상은 1627년(인조 5)에 조성되었다. 금산사 미륵전의 존상은 본존불은 1934년 화재로 1938년 김복진이 새로 조성한 것이지만, 좌우협시보살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627년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1620년대~1630년대에 대형소조불상이 특히 충청·전북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은 매우 주목되는 조선시대 불교문화의 한 현상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규명된 바가 없다. 다만 그러한 현상이 촉발된 것이 바로 1617년에 조성된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임이 밝혀진 셈이어서, 그 원인규명에 있어 갑사의 역사적 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대형소조불상은 기림사의 경우처럼 임란 이전에 이미 조성된 사례

가 있고, 금산사의 경우도 자장율사가 조성한 청동미륵대불이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이후 새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갑사에도 이전부터 대형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현재와 같은 대형소조불상을 완전히 새로이 조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갑사는 원래 비로자나불을 봉안하는 대적전이 주불전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하는 바, 화엄십찰의 하나였던 갑사에서 비로자나불을 모셨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현재 대적전에는 1650년대 조성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국보 제298호로 지정된 갑사 괘불탱(1650년작)은 비로자나삼신불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화엄종 사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화엄종의 비로자나불 대신 석가삼세불을 모신 대웅전은 임란 이후의 새로운 경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석가여래삼세불상 도상의 선구적 의미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중앙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서방 아미타불, 동방 약사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삼세불 구성은 불교도상에서 널리 알려진 도상이지만, 막상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4방불, 혹은 4면불이 석주 형식으로 혹은 불탑의 부조로서 4면에 돌아가며 조성되었고, 간혹 칠불암처럼 사방+중앙의 개념으로 오방불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사불회도(국립중앙박물관), 육불회도(일본 西來寺, 오불+지장보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세 불상이 삼불상 개념으로 일괄로 조성된 가장 이른 시기는 고려말 정도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천사 10층석탑의 <삼세불회> 장면을 들 수 있다.

한편 천은사에 전하는 고려말 제작으로 추정되는 금동불감은 불감 내부의 정면에 비로자나불회도, 그리고 좌우 측벽에 아미타·약사불회도를 타출했고, 불감 안에 별도로 비로자나·아미타·약사의 삼불을 봉안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본존비로자나불은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도상은 기본적으로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도상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이한 경우로는 경주 왕룡사원 삼세불상의 경우는 원래부터 삼세불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1466년 조성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1579년에 석가·약사불을 추가로 조성하여 삼세불을 구성한 사례이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금산사 대적광전의 경우에는 원래 대웅대광명전으로 비로자나삼신불을 모시고 있었으나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뒤 1635년 재건하면서 극락전의 아미타불과 약사전의 약사불을 함께 봉안하여 5불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전의 삼신불이 언제 조성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역시 여말선초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말~조선초부터 삼세불, 혹은 삼신불 도상이 이전의 사방불, 오방불

을 대신하여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신·삼세불 신앙이 별도로 확립된 신앙인지, 사방·오방불 신앙의 축소된 신앙인지 알 수 없으나 점차 이전의 사방·오방불 대신 조선시대에는 삼신·삼세 도상이 주축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요~원나라 때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산서성 대동 화엄사의 경우 상원(上院)에는 금대의 5방불이 봉안된 반면 하원(下院) 박가교장전(薄伽教藏殿)에는 요나라 때의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산서성 오대산 불광사(佛光寺) 대전의 주존도 삼불상인데, 건축은 당나라 때 건축이지만 불상은 금나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도상들은 아마도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의 양식과 도상은 오히려 조선초기에 더욱 유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삼신·삼세불 도상 역시 고려 후기~말기에 등장은 했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조선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초기만 해도 불교경전, 불탑부조, 소형금동불감 등에 대한 자료만 남아있어 법당봉안용 주존불로서 삼신·삼세불의 현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경주 왕릉사원 삼세불이 이른 예이지만 석가·약사불은 조성연대가 16세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15세기 아미타불이 조성될 때는 삼세불을 옆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당주존으로서의 삼신·삼세불의 가장 오래된 현존사례는 현재로서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으로 대표된다. 아마도 이러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임란중 소실되었다는 금산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삼신불, 그리고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발원문을 통해 기록만 남아있는 세조 연간의 삼세불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불상들은 기림사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란 때 소실되고, 1600년대 전반, 즉 17세기 전반에 복원된 예가 앞서 열거한 선운사, 귀신사, 무량사, 법주사, 송광사 등의 대형소조삼불상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감사 소조삼불상은 연대적으로 1617년 조성되어 임란 후 조성된 대형소조삼불상으로는 연대가 가장 빠를 뿐 아니라, 기림사, 귀신사, 선운사, 법주사 등의 본존이 모두 비로자나불인 반면에 본존이 항마촉지인 석가모니불인 삼불상으로서도 현존하는 예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

1650년대 이후에는 비단 대형의 소조불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법당 봉안용 규모의 목조불상으로 삼세불이 대거 조성되기 시작했다. 대형소조불상에서는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삼불상의 사례가 더 많았지만, 목조불상으로 조성된 경우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삼세불상의 사례가 더 많다는 점에서 감사 소조삼불상은 이후 조선의 법당 봉안 불상 도상의 주류로 자리잡은 석가모니·아미

타·약사여래 삼세불의 선구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갑사 삼세불보다 빠른 삼세불의 현존사례로는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1605년), 공주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1606년)이 있으나, 동학사 삼세불은 갑사 삼세불을 조성한 조각승 행사(幸思)가 조각승은 아니었지만,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갑사 삼세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갑사 삼세불은 그 규모가 더 크고 구성면에서도 협시보살까지 모두 갖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다.

이처럼 갑사 삼세불상은 삼세불 뿐 아니라 협시보살이 함께 전하고 있어 조선 시대의 불교도상학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헌적으로는 상원사 문수보살상의 복장발원문을 통해 석가·아미타·약사여래 삼세불의 협시로서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을 조성했던 것이 확인된다. 문수·보현은 석가, 관음·지장은 아미타의 협시로서 약사불의 협시보살을 제외하고 4구의 보살을 봉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갑사 삼세불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는 보관에 화불을 지닌 관음보살이 없으므로, 관음보살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민머리, 혹은 두건을 쓴 지장보살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미타불의 협시인 관음보살을 생략해가면서 약사여래의 협시보살을 강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좌측에 위치한 보살의 보관 뒤편에서 ‘미륵’ 묵서명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그것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보살 4구가 모두 석가모니의 협시로서 화엄에 의한 문수·보현보살, 법화에 의한 제화갈라·미륵보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갑사가 대웅전에는 석가삼세불을 봉안하고, 또 별도로 괘불은 비로자나삼신불을 봉안한 사례를 통해서도 석가모니의 법화신앙과 비로자나의 화엄신앙을 두루 겸하고자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 조각의 양식적 특징과 예술적 가치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조각승 행사(幸思)가 수조각승이 되어 조성한 것이다. 행사는 원래 조각승 각민(覺敏)이 주도한 불사에서 동학사 목조삼세불상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이는 논산 쌍계사 목조삼세불 다음으로 오래된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조삼세불상이다. 갑사 삼세불상은 동학사 삼세불상 도상의 계승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규모를 대형으로 확대하고 협시보살상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현재 소실되었지만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삼존상 역시 행사가 각민을 도와 제작에 참여한 사례였다. 갑사 소조삼세불은 행사가 최초로 조각승으로 주도한 사례인 셈인데, 그밖에는 기록을 그다지 남기지 않아 행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조각적 우수성으로 보아 그의 조각 전통은 조선 전기양식과 조선 후기양식을 이

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갑사 소조삼세불의 조각양식적 특징은 유사한 시기의 대형소조불상들, 즉 선운사나 귀신사상을 조성한 법해·무염, 법주사와 무량사상을 조성한 현진 등의 작품에 비해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단아·단정하면서 차분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일종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불상들에서 자주 보이는 머리가 큰 비례라든가 때로 괴체적이고 풍만한 인상을 풍기는 것과 달리 갑사 소조삼세불은 비례면에서는 얼굴이 작은 편이어서 실제 인체의 비례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며, 높은 상체를 통해서도 환칠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입상인 보살상의 경우는 특히나 날씬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비례로 조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불상은 수인, 보살상은 지물에 있어 변화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성 있는 질서와 균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불상의 가슴 아래로 내의가 접힌 부분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흥미롭다. 아미타불은 옷자락이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부정형으로 표현되었고, 석가모니는 비스듬한 사선 형식으로, 그리고 약사여래는 부채꼴처럼 주름진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한편 보살들의 보관은 건칠기법이 사용된 매우 정교한 형식인데, 금속제 꽃봉오리 안에 보석을 박아 원래는 매우 화려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속제 틀 안에 보석을 감입하여 장엄하는 보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건칠보살상 보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조선전기에 세종대왕의 아들 등 왕실이 참여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기록이 발견된 대구 파계사 건칠보살좌상 역시 보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석을 감입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처럼 화려한 보관 장엄을 한 보살상은 드문 사례로서 주목된다.



○조사내용

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불전이다. 대웅전은 1604년에 중건되어 1654년과 1876년에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전 내부에는 장방형의 크고 웅장한 수미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흙으로 조성한 삼불·사보살입상을 배치하였다. 후불벽면에는 1730년 의겸스님이 주도하여 그린 석가여래삼세불도(약사여래도는 도난)를 걸었고, 후불벽의 뒷면에는 1665년에 제작된 비로자나삼신괘불탱이 보관되어 있다.

웅장한 수미단 위에 봉안된 삼불상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측에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였다. 보살상은 석가여래 좌우에 각1구, 약사여래 좌측에 1구, 아미타여래 우측에 1구를 배치하였다. 석가여래 앞은 높이는 268.9cm,, 약사여래는 237cm, 아미타여래는 246cm이며, 주존을 조금 더 크게 조성하였다.

삼불·사보살상은 2015년도에 보존처리와 개금불사가 있었고, 당시 방사선 촬영(γ -ray)을 통해 복장 상태가 가장 온전한 형태로 확인되는 약사여래불의 협시보살상(최 좌측보살상)에 대해 복장조사를 진행하자는 자문 의견에 따라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조사는 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다라니, 전적, 직물편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은 萬曆 45年 丁巳 즉 1617년에 작성된 것인데, 불상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상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證明 法正, 畫員(彫刻僧) 幸思·德玄·天潭·熙淳·敬輪·心淨·應梅·性崑·性宗, 佛像大施主 比丘尼 妙聰, 上金大施主 朴興元, 腹莊(腹藏)大施主 趙德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 1,2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주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⁶⁰⁾ 여기에 화원 9명, 조연 3명, 숙두 4명, 반두 2명, 별좌 1명, 지전 2명, 증사 1명, 연화 5명, 간선 4명을 더하면 모두 1,301명에 달한다. 불상 제작과 관련된 용어로는 佛像, 上金, 面金, 材木, 腹藏, 裱希, 供養 등이 확인된다.



도 419. 공주 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60) 兩主로 표기된 人名을 두 명으로 환산하면 2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도 420. 석가여래좌상과 좌우협시

삼불상은 모두 팔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팔각대좌의 족대는 獸足形이며, 족대 밑 부분은 마대를 부착하였고, 족대 사이에는 계 눈각을 세련되게 조각하였다. 중대 궁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조각하였다. 상·하대의 받침대는 모두 4단으로 구성하였고, 하대목과 상대목에는 경첩을 모각하였다. 팔각대좌 위에는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를 두었다.



도 421. 약사여래좌상과 좌협시



도 422. 아미타불상과 우협시

삼불상의 불신은 여러 개의 나무를 접목해 윤곽을 만든 후 다시 흙을 올려 완성한 소조 불상이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듬직하고 당당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며, 흙으로 표현한 주름은 활달한 모습을 띤다. 석가여래상은 변형편단우견에 항마촉지인을 걸하였으며, 좌우측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이중착의로 법의를 걸쳤고, 수인은 오른손과 왼손의 방향을 달리 하여 서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삼존 모두 왼쪽 무릎에는 옷자락을 크로버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상호의 표현은 대체로 군살이 없는 역삼각형 얼굴에 우뚝 솟은 삼각형의 콧날이 특징이다. 귀는 이륜의 윗부분에 능을 주었고, 상하각 사이의 삼각와는 짧고 굴게 표현하였다. 佛身에는 대의를 두텁게 걸쳐 입었고, 노출된 육신은 차분하게 처리하였다. 대의의 옷주름은 굵고 힘 있는 선묘로 간결하고 시원하게 처리하였고, 주름 선의 깊이도 일정하다. 목깃과 군의자락은 너풀거리듯 처리하여 강직한 옷주름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4구의 보살상은 모두 2단의 화형 보관을 착용하였다. 3구는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보관을 썼으며, 1구(아미타여래의 우협시)는 1930년 日燮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보관의 형태는 꽃잎모양을 띠고 있으며, 2단 구조로 제작되었다. 1단은 보관의 主面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표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겨 넣었다. 2단은 주면의 윗면을 장식한 것으로, 넝쿨무늬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제작한 화염문을 군데군데 부착하였고, 측면에는 쌍 S자형으로 나부끼는 관대를 달았다. 지물은 두 손으로 연꽃, 여의, 연꽃, 연꽃을 잡았다. 4구의 보살상은 모두 팔각연화대좌에 안치하였다. 대좌는 팔각받침대와 연화대좌로 구성되어 있다. 팔각 받침대는 족대 밑에는 마대를 돌려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계 눈각을 초각하였다. 연화대좌는 둥근 연육부에 날날의 연꽃을 제작하여 삼중으로 중첩하였다.

네 구의 보살상의 상호는 삼불상과 같으며, 머리카락은 닿아 올려 보계를 만들었고, 어깨 위로 드리운 머리카락은 2개의 둥근 고리를 형성하며 두 가닥으로 흘러내렸다. 목에는 세 줄로 길게 늘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목걸이의 선구적인 예로 이후 다른 조각승으로도 파급되어 17세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천의는 이중으로 걸쳐 입었고, 주름은 간결하고 요점적으로 처리하였다. 군의는 수평으로 처리하고 상단에는 띠 매듭의 표현이 없으나 무릎 사이로는 두 가닥의 띠 자락을 표현한 점과 앞치마처럼 흘러내린 천의에 두 세 가닥의 골 깊은 주름을 엇갈리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주름은 1605년 원오가 제작한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구의 보살상은보살상의 존명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석가여래의 좌우에는 문수·보현보살 또는 미륵과 제화갈라보살이 등장할 수 있으며, 약사여래의 좌측에는 일광보살이나 월광보살, 아미타불상의 우측에는 관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조성된 삼불사보살상을 살펴 보면, 1606년에 조성된 완주 위봉사 삼불사보살상은 협시보살로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상이 등장하여 약사여래의 협시들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39년에 제작된 하동 쌍계사 삼불사보살상은 석가·약사·아미타여래 삼불과 일광·월광보살, 관음·대세지보살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703년에 제작된 화엄사 각황전 삼불사보살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도상명칭이 밝혀진 사례이다. 이곳에서는 석가·다보·아미타여래로 삼불을 구성하고, 석가여래의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을, 다보여래의 좌협시로 지적보살

을, 아미타여래의 우협시로 관음보살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도상구성은 法華舉佛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갑사의 삼불은 17세기 유행한 석가·약사·아미타로 구성하여 시·공을 모두 아우르는 신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보살상은 아직까지 존명을 특정할 수 있는 존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외선 촬영에서 약사여래의 좌측보살상의 보관의 안쪽과 석가여래의 좌측 보살상 보관의 안쪽에서 각각 “左補 彌勒”으로 추정되는 묵서명과 ‘觀’ 또는 ‘提’로 볼만한 묵서가 발견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사보살상의 존명을 확정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묵서는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이 보다 앞서 조성된 석가여래삼불· 사보살상은 정확한 규칙없이 당시의 신앙적 상황에 따라 보살상이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옷 주름과 착의형식, 삼불사보살상의 도상과 배치형식은 17세기 전반기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불륜이 약화된 역삼각형의 얼굴과 삼각형의 콧날에 있어서는 수조각승 행사의 조각적 경향이 담겨있다. 양 어깨에 걸쳐진 너풀거리며 뒤집은 목깃과 헛바닥처럼 늘어진 군의자락이 특색이 있다. 목깃은 1606년 覺敏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군의자락은 1610년 원오가 제작한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오와 각민은 석준과 소속의 조각승으로 판단되고, 행사 역시 이들의 조각유과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갑사 불상 곳곳에서 선배 조각승들의 영향이 엿보인다.

수조각승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행장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발견된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볼 때 16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판단된다. 그가 처음 조선후기 불교 조각계에 이름을 드러낸 1606년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수조각승 각민)이다. 이후 1614년 각민이 제작한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에는 두 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솜씨를 발휘하였고, 3년 뒤 1617년에 진행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 조성 때에는 수조각승이 되어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조각적 역량이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1620-30년대 그의 작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1648년 해남도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畫員秩의 첫머리에 師翁 幸思 이어서 養師 無染과 首畫員 海心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17세기 중엽경 수화원으로 활약한 해심의 실질적인 조각계보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사의 계보는 후일 무염과 해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그는 1648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는 시주질에 명단을 올렸고, 역시 1655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쟁가한 여수 흥국사 응진당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 제작 때도 山中碩德秩 이름을 올려 후배 조각승을 후원하였다.

두·세번째 화원으로 이름을 올린 德玄과 天潭은 아직까지 활동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며, 네 번째 화원 熙淳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首 각민) 제작에 보조(5위)

로 참여하였고, 1656년 무염에 의해 제작된 완주 송광사 나한전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에는 여덟 번째 조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송광사 나한상은 조각승의 순위로 봤을 때同名異人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敬倫은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석가여래삼불좌상(首 太顛, 7위)제작에 참여하였다. 여섯 번째 心淨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14년, 首 각민, 6위) 제작에 참여하였고,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24년, 首 應元, 3위)에도 참여하였다. 일곱 번째 應梅는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14년, 首 覺敏, 7위)과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김제 금산사 대장전, 1650년, 首)을 제작하였다. 여덟 번째 性崑은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김제 금산사 대장전, 1650년, 首 應梅) 제작시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 복장유물

복장유물 조사대상 선정은 방사선 촬영과 육안조사를 토대로 복장 상태와 보존상태가 가장 온전한 약사여래의 좌협시 보살상 대해 복장유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유물 조사는 2015년 6월9일부터 2015년 6월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위탁보관 중이다. 일습으로 조성된 불상의 경우 복장 양상이 비슷하게 安立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불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장유물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즉 원래 모습 그대로 후대에 전할 필요성과 소조불상의 특성상 무리하게 조사할시 불상에 2차적인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복장유물은 발원문을 비롯하여, 별도의 검은색 비단으로 싸인 곡물과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1388년 필사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1352년), 『묘법연화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1433년) 등과 같은 경전류, 인본다라니(주색, 흑색 2종류), 직물편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발원문은 선장으로 제작된 것이며 총 11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왕실삼전하의 축수를 시작으로 불상 시주의 대표자 명단을 이어서 나열하였다. 시주자 명단은 모두 1270명(兩主를 두 사람으로 계산하면 2000여명)에 이르며, 승속의 명단이 섞여있다. 발원문의 마지막장에 불상을 직접 조각한 화원들의 명단과 이 불사의 증명한 증명법사, 이 불사를 주관한 화사, 그리고 이 불상을 제작한 시기를 적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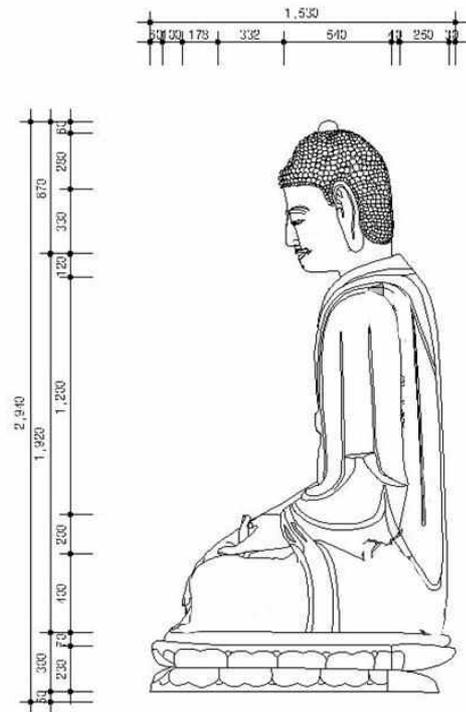
후령통은 황초폭자로 감싸고 후혈 윗부분에서 십자 형태로 묶어 마무리 지은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이를 다시 날장의 경전으로 한 번 더 감싼 것이 특징이다. 황초폭자의 외면에는 오륜종자를 적었다. 이러한 후령통의 포장방식은 1606년 覺敏이 제작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후령통에서도 볼 수 있다. 후령통은 해포할 경우 재안립이 어렵기 때문에 출토 당시의 모습대로 존치하고 있다. 후령통 내 납입하지 못한 물품은 별도의 비단에 싸서 납입하였는데, 고려 후기의 불복장에서부터 조선 후기 복장에 이르기까지 다수 확인되는 바이다.

○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복장유물 목록

연번	유물명	시기	재질	수량	크기(cm)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점	*1.2×37.8 *11매로 구성
2	후령통	조선시대	비단 외	1점	*지름 7.8, 높이 27
3	오보병	조선시대	비단·곡물	1점	*14.5×7.5 *검은색 비단에 곡식을 넣고 포장한 뒤 명주실을 감아 마감함.
4	비단편 및 목부재	조선시대	비단·나무	2점	*비단편 37.8×57.7 *비단편은 용과 용비늘 문양을 시문함 *목부재 길이 85.3
5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목판본	3매	*27.7×17.8
6	묘법연화경 권1,2,3,4,5,6	[1573년]	목판본	213매	41.7×50.2
7	다라니	조선시대	목판본	42매 (흑색 33매, 주색 9매))	*38.2×57.0
계	7건 26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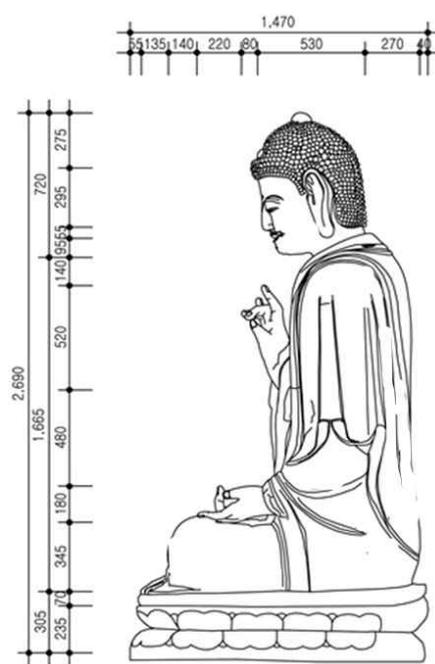
도 297. 석가여래 실측도(정면)



도 298. 석가여래 실측도(측면)



도 299 아미타여래 실측도(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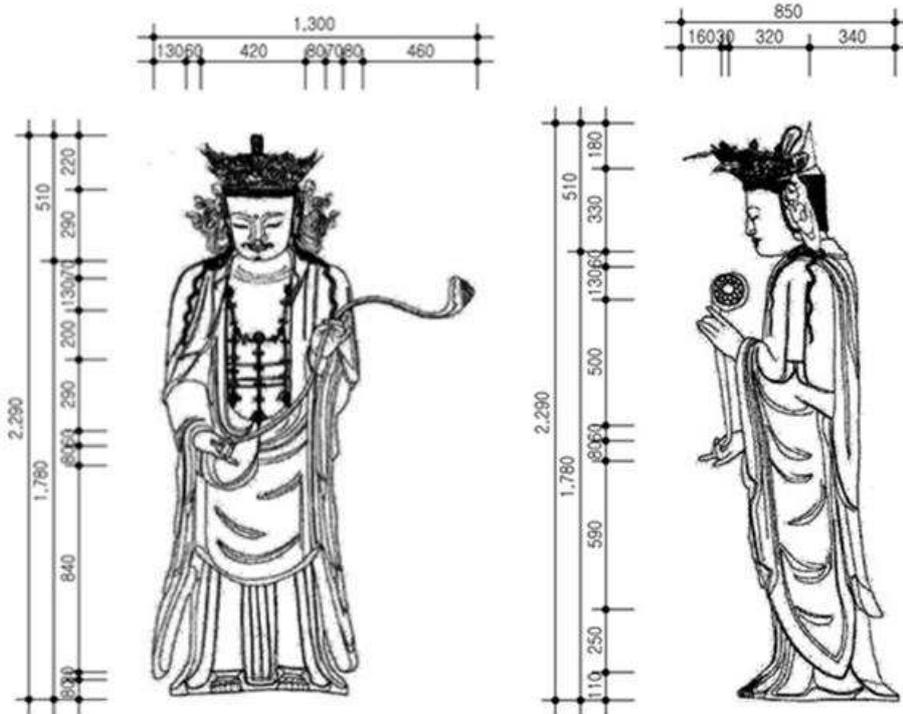


도 4. 아미타여래실측도(측면)



도 301. 약사여래 실측도(정면)

도 4. 약사여래 실측도(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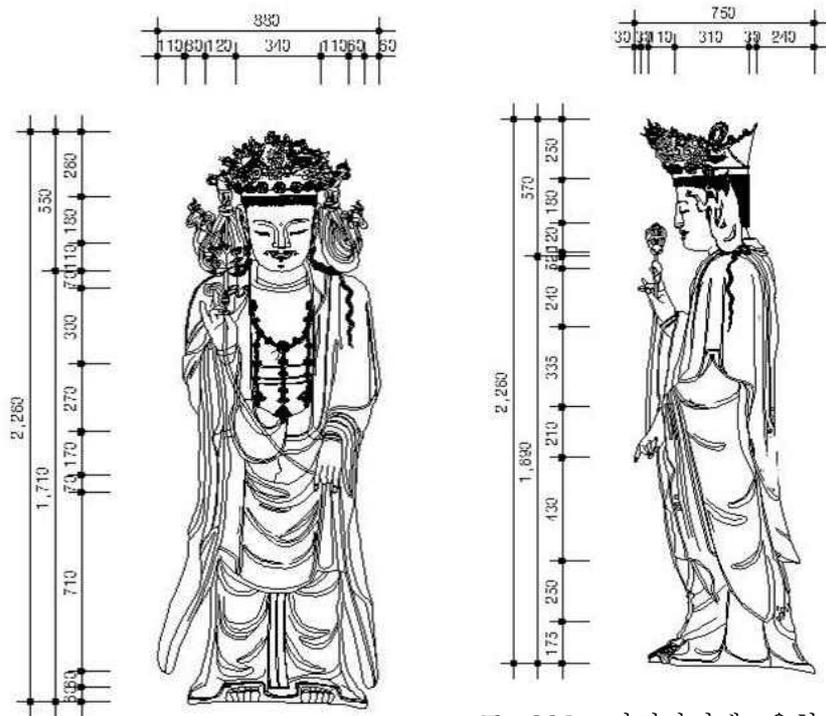


도 303. 석가여래 좌협시(정면도)

도 304 석가여래 좌협시(측면도)



도 305. 석가여래 우협시(정면도) 도 306. 석가여래 우협시(측면도)



도 307. 아미타여래 우협시(정면도)

도 308. 아미타여래 우협시(측면도)



도 309. 약사여래 좌협시(정면도)

도 310. 약사여래 좌협시(측면도)

1) 감사 대응전 소조보살입상 발원문⁶¹⁾

(1A)

主上殿下壽萬歲」王妣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佛像大施主比丘尼妙聰保
 倅」佛像大施主恩德保倅」上金大施主 朴與元兩主」施主 朴效敏兩主」腹莊施
 主 趙德龍兩主」施主 深元保倅」朴象宮保倅」比丘尼惠今」比丘尼寶月」

(1B)

韓元龍兩主」郭友諒兩主」郭銀星兩主」崔莫成兩主」面金施主李氏保倅」上金
 施主河元兩主」頓知保倅」金惠訓兩主」高彥沉兩主」朴有福兩主」腹莊施主金
 敬進兩主」金儀敬兩主」恠之保倅」朴自今兩主」恠男保倅」扶永兩主」崔禮兩
 主」愛敬兩主」⁶¹⁾伊保倅」金命世兩主」

學雲比丘」寶正比丘」勝玄比丘」一淨比丘」上云比丘」印千比丘」天機比丘」
 勝正比丘」隱祐比丘」

崔儀忠兩主」金金伊兩主」鄭承吉兩主」辛真兩主」崔芻屎兩主」崔玉田兩主」
 崔得生兩主」得香保倅」高德男兩主」李希望兩主」朴壽命兩主」李淡金兩主」

61) (재)불교문화재연구소·이경주 연구원 석문, 송광사 古鏡 교감

性安比丘(지견)」雪俊比丘」宝安比丘」日旭比丘」天印比丘」信元比丘」德能比丘」戒信比丘」法令比丘⁶²⁾」雪慧比丘」真淡比丘」

李者斤水两主」李莫孙两主」盧春鶴两主」滄介保倅」安壽京两主」李化京两主」金千夫两主」咸还福两主」孔元千两主」今还伊两主」幸摩两主」裴仁守两主」金吉成两主」李德良两主」筏成两主」韓己玆两主」忝秋两主」韓六男两主」崔有田两主」朴德伊两主」金亓孙两主」金凱同两主」裴應祥」裴戒生两主」

(2A)

鄭德男两主」𡇗德伊两主」鳳玄两主」永乃两主」韓盡浩」孔界信两主」李崇元两主」金世伊两主」徐吉公两主」咸於水两主」郭春京两主」韓敬立两主」孔原立两主」安貴希两主」洪春希两主」鄭世亦两主」韓氏保倅」洪默伊两主」於朋伊两主」崔大明两主」李忝介两主」

忝生保倅」柵⁶³⁾應吉两主」命还两主」李仁伊两主」岩回伊两主」朴氏保倅」金連伊两主」李雲鶴两主」勝福伊两主」李花水两主」崔伊敏两主」詎介两主」朴南伊两主」裴京生两主」金金無赤两主」高應男两主」盧齡男两主」李千祐两主」禹應千两主」李冬志两主」芳仁旺两主」韓鼂男两主」許員鶴两主」今善非两主」

𡇗伊保倅」金金伊两主」朴難伊两主」金夢水两主」李水富两主」李元伊两主」忠實两主」鄭仁孙两主」道星两主」壽今两主」鄭德日两主」鄭吉伊两主」李餘男两主」粉介伊两主」李戒男两主」鄭氏保倅」柵福連两主」令海比丘」乙生保倅」元云水两主」金伊代两主」大德伊两主」吳春卜两主」揆代保倅」

𡇗知保倅」今壽两主」卒德两主」出玉两主」長补伊两主」金敬壽两主」於里介两主」

(2B)

佛像大施主黃敬成两主」佛像大施主李必伊两主」佛像大施主朴世福两主」供養大施主李孝礼两主」佛像大施主金彦希两主」佛像大施主丁夢順两主」供養大施主金龍伊两主」供養大施主林順億两主」上金大施主吳億只两主」上金大施主梁己男两主」上金大施主李禿仲两主」上金大施主朴今金两主」供養大施主尹世良两主」供養大施主彦今保倅」上金大施主愛礼保倅」上金施主趙彦京两主」上金

62)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1615년 首 태전, 4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首 현진, 5위)

63) 柵 : 權의 이체자. 柳의 이체자이기도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權으로만 사용례가 있고, 본문 중에는 柳가 별도로 사용 됨.

施主 恠介两主」面金施主 李千鶴两主」上金施主 業介两主」腹莊施主 金凱文两主」面金施主 風介两主」

上金大施主 朴今金两主」面金施主 林德筏两主」腹莊施主 壬莫失两主」上金施主 金恠致两主」面金施主 李笠孙两主」材木大施主」材木大施主」材木大施主 朴番伊两主」裏菴⁶⁴⁾施主 羅士順两主」李京勝两主」李夏孙两主」車貴伊两主」金水伊两主」李恠金两主」李礼信两主」过仇日两主」全券民两主」趙彦同两主」宋文忠两主」菴德伊两主」安記福两主」金揆攝两主」愛雲两主」

韓今同两主」息伊两主」吳應立两主」金补唱两主」白祐孙两主」李者斤金两主」玉代保 倅」粉伊保 倅」柳日萬两主」金海水两主」汝玉伊保 倅」姜洪水两主」淳海保 倅」李氏保 倅」李氏保 倅」

(3A)

恠今保 倅」孔菴同两主」姜息补两主」羅弘伊两主」羅應春两主」宋誥同两主」春伊两主」夏古之两主」文億孙两主」李難守两主」白牛石两主」柳夏方两主」朴植伊两主」恠淳保 倅两主」永介保 倅两主」梁允梅两主」李白只两主」命春伊两主」泉春伊两主」日春伊两主」連代两主」內客里两主」

戒淳比丘」敬和比丘」戒澄比丘」峇正比丘」三玄比丘」志成比丘」靈雲比丘」仲徽比丘」慧岩比丘」元信比丘」学廉比丘」依信比丘」印暹比丘」守文比丘」性日比丘」德倫比丘」雪仁比丘」智崇比丘」道文比丘」靈隱比丘⁶⁵⁾」慧安比丘」印暉比丘」

正日比丘」正还比丘」汰岑比丘」性圭比丘」信祐比丘」靈禪比丘」太浩比丘」信浩比丘」信玄比丘」惠俊比丘」惠元比丘」真日比丘」印玄比丘」淨守比丘」楚雲比丘」双云比丘」日珠比丘」應元比丘⁶⁶⁾」勝安比丘」法界比丘」戒照比丘」印和比丘」

普照比丘」並洽比丘」海岑比丘」勝悅比丘」雪岑比丘」文彦比丘」上允比丘」元惠比丘」敬和比丘」玄云比丘」正心比丘」思俊比丘」宗敏比丘」淡和比丘」

64) 菴：布的 오기.

65)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1641년, 수 청헌, 14위)

66) -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대전)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2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아미타불,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송광사사적기)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파명문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4위, 화엄사사적기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惠照比丘」一淳比丘」思允比丘」思淳比丘」奉鶴保倅」真守比丘」信日比丘」
惠安比丘」

(3B)

戒俊比丘」玉淳比丘」幸悅比丘」学淳比丘」仅玉比丘」敬淳比丘」卓令比丘」
天淳比丘」令日比丘」靈圭比丘⁶⁷⁾」玄真比丘⁶⁸⁾」唯正比丘」明隱比丘」仅能比
丘⁶⁹⁾」宗印比丘」淡守比丘」学連比丘」天日比丘」徳林两主」仁京两主」李世
同两主」滄徳两主」

白晝現两主」高元同两主」福汗两主」补春两主」金億只两主」趙守口两主」徳
知两主」金大必两主」金千上两主」李韶同两主」李吳立两主」金億万两主」九
月保倅」於里介保倅」守徳伊两主」文今两主」朴夢补两主」李今春两主」李余
男两主」金泉孙两主」金日龍两主」莫終伊两主」黃徳伊两主」

尹鶴伊两主」今伊保倅」崔奉益两主」崔奉还两主」萬福伊两主」李仁世两主」
玉真保倅」長夏屎两主」朴頓卜两主」欣春伊两主」石忠男两主」金得龍两主」
少玉保倅」永卜两主」富己伊两主」宋同伊两主」莫知两主」大春两主」孝男两
主」守今两主」林洒水两主」金香水两主」金命伊两主」

方齡同两主」李齡同两主」李應恪两主」朴何补两主」鄭自信两主」揆音徳保
倅」金忠己两主」秋尹补两主」朴希億两主」金韶水两主」洪代保倅」姜加之里
两主」今徳伊两主」朴忠卜两主」朴晝卜两主」愛春伊两主」朴韶同两主」宋上
月两主」種伊保倅」李龍尙两主」洪卜伊两主」惠徳伊两主」姜鶴孙两主」

(4A)

林福男两主」靛今保倅」善伊保倅」姜万卜两主」少玉保倅」韓連水两主」粉代
保倅」元旺保倅」上巨非两主」延梅伊两主」夏非两主」梁伊间两主」梁恣尙两
主」石莫同两主」石吉伊两主」鄭男伊两主」福代保倅」李氏保倅」

67)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위

68)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위

-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1위, 上員
-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1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1위
-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위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1위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29년, 1위
-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1위
- 적천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3년, 1위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9년, 1위

69) -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 1612년, 3위(현진), 次員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趙氏保倅」李氏保倅」李宝男兩主」李雲龍兩主」金彦己兩主」守慧比丘」學閑比丘」學連比丘」印千比丘」玉明比丘⁷⁰⁾」法還比丘」三梅比丘⁷¹⁾」法岑比丘」應明比丘」廣允比丘」宝明比丘」千水比丘」法正比丘」淡守比丘」印文比丘」貞敏比丘」應連比丘」祖軒比丘」信還比丘」尚淳比丘」智俊比丘」性宝比丘」元惠比丘」信贊比丘」佛仁比丘」覺惠比丘」罔珠比丘」仅悅比丘」守卓比丘」澄願比丘」明休比丘」戒允比丘」仲玄比丘」信日比丘」淡淨比丘」性明比丘⁷²⁾」勝暉比丘」靈機比丘」明允比丘」守日比丘」尚澄比丘」印浩比丘」惠唯比丘」垣熙比丘」仅敏比丘」懶默比丘⁷³⁾」印暹比丘」芳會比丘」戒林比丘」道日比丘」妙尚比丘」雲祐比丘」尚祐比丘」慧正比丘」熙安比丘」宗祐比丘」德均比丘」印宝比丘」法澄比丘」彦和比丘」生益比丘」性覺比丘⁷⁴⁾」

(4B)

1

談敏」敬熙」信悟」仅光」開元」浩徹」智勝」現真」法尚」伏仁」道均⁷⁵⁾」勝日⁷⁶⁾」惠云⁷⁷⁾」思彦」順梅」勝悅⁷⁸⁾」熙仁⁷⁹⁾」幸唱」尚叩」龍云」

-
- 70)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4위(현진)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71) - 보은 범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8위
 -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보은 범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前住持 雪梅, 化土
 -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불좌상, 1674년, 6위(성조)
- 72)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 고흥 능가사 목조약사불좌상, 1653년, 2위(희장)
- 73)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삼신불좌상, 1636년경, 대화사(청헌)
 - 보은 범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門弟
- 74) - 보은 범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9위(현진)
- 75) - 해남 도장사 목아미타불, 1648년, 10위(해심)
 - 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3위(무염)
 - 고창 문수사 목지장시왕상, 1654년, 5위(해심)
 - 부여 무량사 삼전괘, 1654년, 화원3위(철학)
- 76)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治匠 2위(성욱, 현진), 勝一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위(현진)
 - 경남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 1629년, 2위(현진)
 - 밀양 표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34년추정, 1위
 - 전북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삼세불, 1635년, 2위(무염)
 -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삼세불, 1639년, 2위(청헌) 勝日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아미타불좌상, 1639년, 2위(현진)
 - 천은사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1위, 勝日.

2

印还」智先」惠會」性和」惠岑」太和」大俊」永俊」幸衍」三正」文彦⁸⁰⁾」法招」先覺」海允」浩云」宋默」德敏⁸¹⁾」洪真」汗梅」敬熙」敬先⁸²⁾」双俊」

3

處訓」雪崇」智安⁸³⁾」双招」敬和」守淨」仁俊」道訢」双默」碧雲」明印⁸⁴⁾」天然⁸⁵⁾」道闲」戒淳」幸和」尙祐」慧明」印浩」勝圭」三学」宝淨」

4

信軒」妙訓」道能」勝悟」善會」性澄」幸思⁸⁶⁾」法能」無善」特祐」崇悟」雲什」天敏⁸⁷⁾」淨明」太軒」忍修」道珠」天照」宝胤」法还」크梅⁸⁸⁾」

- 강진 정수사 목삼불상, 1648년, 1위
-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1년, 1위(勝一)
-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위(勝一)
-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1위(勝一)
-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지장 및 시왕상, 1660, 1위, 원경북
-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삼장 및 시왕상, 1665년, 1위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위(勝一)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88년, 1위(勝一)
- 김천 고방사 목아미타삼존불, 1670년, 1위(勝日)

77) - 부여 무량사 승정9년명동중, 1636년, 畫員3위(정우), 惠云
- 고흥 능가사 불상 발원문, 1639년, 11위(운혜)

78) -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시왕상, 1654년, 8위(해심)

79) -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51년, 3위(휴일)

80)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길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5위(승일)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68년, 5위(승일)

81) - 고흥 금담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9년, 6위(삼인)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길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碑陰 通政

82) - 김천 직지사 강원 목조석가모니불좌상, 1648년, 4위(현윤)
-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49년, 9위(희장)
-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2년, 10위(혜희), 敬禪

83) -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8년, 4위(승일)

84) - 고흥 금담사 목아미타여래삼존불, 1651년, 9위(휴일)

85)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0위(응원), 비파묵서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86) - 공주 동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06년, 3위(각민)
-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1614년, 2위(각민)
- 해남 도장사 목아미타불, 1648년, 師翁(해심)
-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시왕상, 1648년, 시주(인균)
-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山中碩德(인균)

87)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3위(현진)
-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 1629년, 3위(현진)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5

彦和」永林」学軒⁸⁹⁾」惠真」天印」守日」信普」法淨⁹⁰⁾」太元⁹¹⁾」天鑑」永彦」双林」海淳」正行」尙云」敏还」日見」妙叩」双淳」真淳」勝旭⁹²⁾」熙尙」

6

法雲」幸和」学倫」戒还」會海」性海」一雲⁹³⁾」悅性」無崑」印淡」惠明⁹⁴⁾」印思」惠鑑」敏还」宗允」尙澄」**正玄⁹⁵⁾**」文徹」處仁⁹⁶⁾」海允」

(5A)

李京勝兩主」李夏孫兩主」車貴伊兩主」李永伊兩主」李壽金兩主」全億成兩主」过仇日兩主」全養民兩主」趙彦同兩主」宋文忠兩主」耇德伊兩主」安記福兩主」金揆攝兩主」愛云保倅」李德伊兩主」每香保倅」金懿福兩主」崔岩安兩主」金連水兩主」梁罷作兩主」金大千⁹⁷⁾兩主」金焉官兩主」金仅立兩主」古銀里兩主」金岩圃兩主」柳順伊兩主」覺終伊兩

88) -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8위
 -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前住持 雪梅, 化士

89) - 해남 서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0년, 4위(운혜)

90) -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삼존불좌상, 1634년, 大化士(법해)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91) - 구례 친은사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3위(승일)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92) -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5년, 證師

93) - 남원 선원사 소조지장시왕상 일부 존상 보결, 1645경, 2위(도색)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一云

94) -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1위
 - 전남 고흥 금탑사 목아미타삼존불, 1651년, 7위(휴일)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95) - 고흥 능가사 불상 발원문, 1639년, 證明, 碧川正玄
 -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 1648년, 大德 正玄
 - 영광 불갑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4년, 尺 2위
 -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2년, 3위(혜희, 특기되어 있음)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85년, 大禪師創建主 正玄靈駕
 - 고흥 능가사 홍양팔영산능가산사적비, 1690년, 大樓創主 碧川 正玄, 毘盧菴 創主 碧川正玄
 - 고흥 능가사 범종, 1698년, 棚主先大師 正玄

96) - 속초 신흥사 목아미타불 및 지장시왕, 1651년, 11위(무염)
 - 고창 문수사 목지장시왕상, 1654년, 14위
 -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20위(혜희)

97) 大千 : 원문은 千大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主」姜一男两主」孔云伊两主」今福伊两主」金伊同两主」金恠世两主」金剋世
两主」李春方两主」金應男两主」張昶仇之两主」張昶同两主」朴伊福两主」李
补男两主」愛石伊两主」趙大德两主」馮白伊两主」愛云保倅」韓彦春两主」
李𠄎金两主」李礼信两主」河貴伊两主」朴世安两主」齡德保倅」金齡山两主」
朴莫同两主」林雨深两主」李卜伊两主」文代保倅」安知安两主」金順男两主」
金介山两主」林忠石两主」李夢石两主」朴莫失两主」李難伊两主」金七山两
主」金命卜两主」朴貴闲两主」李石介两主」裴奉孙两主」李界两主」
孔介春两主」張厚失两主」朴萬世两主」張命卜两主」銀代保倅」李莫金两主」
金吾音金两主」柳俊風两主」春代保倅」𠄎德保倅」夏代保倅」順代保倅」莫介
保倅」貴接保倅」云非保倅」金安保倅」張七同两主」金浩两主」金彦珠两主」
林汗同两主」金金伊两主」金仁會两主」

(5B)

金命龍两主」文成立两主」文敬林两主」李莫金两主」李德水两主」蜜陽保倅」
恠春两主」士今保倅」金九立两主」𠄎代保倅」李每邑金两主」朴連伊两主」敬
代保倅」亨非两主」金齡金两主」張彦己两主」金京伊两主」李順香两主」𠄎金
两主」金同知两主」恠非保倅」
金長應两主」金玉千两主」李恠春两主」水介保倅」朴彦希两主」吉揅音石两
主」鄭彦風两主」李补壽两主」春水两主」朴今石两主」於里介两主」趙宝两
主」李畿山两主」李春風两主」李莫後两主」朴立春两主」莫今保倅」信希保
倅」壽今保倅」姜福壽两主」李非郎两主」
金與水两主」金億終两主」四月保倅」張大男两主」朴氏保倅」文宝巾两主」白
守两主」金春尚两主」高春补两主」金夏世两主」朴米伊两主」命春两主」金知
宝两主」李古音两主」金今守两主」李补男两主」𠄎德伊两主」朴春伊两主」里
代两主」智盈两主」崔彦男两主」安知立两主」
金希同两主」韓壽山两主」李夏屎两主」宋順中两主」張仁伊两主」李善伊两
主」鄭昶同两主」黃仁世两主」宋金伊两主」進代两主」張莫同两主」宋夏金两
主」龍德伊两主」姜允玄两主」吳過守两主」过世仁两主」李揅音同两主」金平
伊两主」屯代保倅」卜介保倅」金玉連两主」何奉斤两主」

(6A)

李笠生两主」齡真两主」芮者斤金两主」朴戒男两主」鄭朴伊两主」高夏金两
主」朴勝男两主」愛鳳伊两主」玉介保倅」朴仅男两主」朴夢补」鄭軍同两主」
金揅音石两主」金每仁两主」李恠守两主」李良守两主」夏非两主」分代保倅」

崔鶴連兩主」難春伊兩主」朴石男兩主」
神夏屎兩主」世今保倅」洪士男兩主」金順元兩主」順介保倅」金貴閑兩主」孫
貴千兩主」神命斤兩主」文尙男兩主」林莫同兩主」李春發兩主」李寂男兩主」
母老介兩主」李揆音山兩主」金長水兩主」金莊伊兩主」金恠峯兩主」林貴連兩
主」裴奉孫兩主」朴順伊兩主」裴天河兩主」信山仆兩主」丁齡卜兩主」
金正男兩主」金應男兩主」朴異奉兩主」李葵同兩主」朴石伊兩主」朴有連兩
主」淨德伊兩主」金守難兩主」朴彥伊兩主」奉春伊兩主」金揆音世兩主」金順
連兩主」李卜丁兩主」恠傑兩主」姜恠沙里兩」安哲水兩主」金男伊兩主」徐元
孫兩主」李洪伊兩主」金氏愛禮兩」金馬大妣兩主」丁應吉兩主」洪京伊兩主」
長夏金兩主」
金世柵兩主」金岩圃兩主」朴補壽兩主」車莫同兩主」哭天及兩主」柳卜男兩
主」德只保倅」長開面兩主」春月保倅」崔卜伊兩主」裴舜傑兩主」嵩斤代保
倅」李莫金兩主」李卜同兩主」高補山兩主」片夏注之兩主」李壽延兩主」朴投
伊兩主」李世伊兩主」壽非兩主」禹敬臣兩主」李金剛兩主」

(6B)

朴成男兩主」金德孫兩主」萬非保倅」李今同兩主」金李龍兩主」銀玉伊兩主」
朴龍介兩主」林應水兩主」鄭卒同兩主」林卜伊兩主」趙德明兩主」鄭開春兩
主」趙日難兩主」李億龍兩主」全代保倅」金春卜兩主」孔雲起兩主」李山伊兩
主」金億萬兩主」李世同兩主」地敬男兩主」
金悟先兩主」丁貴介兩主」朴思仅兩主」恠德兩主」金彥世兩主」李惡金兩主」
開春伊兩主」金順良兩主」玉伊保倅」朴恠同兩主」朴禾伊兩主」皮終卜兩主」
李萬壽兩主」億輦保倅」車倫兩主」安山真兩主」𠵿伊兩主」黃順良兩主」金億
只兩主」鄭開春兩主」金𠵿和兩主」金石孫兩主」禹難兩主」
李萬壽兩主」洪彥壽兩主」金銀閑兩主」柳石孫兩主」愛非保倅」朴永卜兩主」
姜岩圃兩主」俱永卜兩主」朴代保倅」粉德伊兩主」李夏屎兩主」鄭仅信兩主」
順介保倅」金己生兩主」李敬秋兩主」金彥介兩主」」都長石兩主」卜代保倅」
朴大倫兩主」金萬同兩主」長敏吳兩主」今伊兩主」金壽万(方)」
自德兩主」崔允同兩主」悟乃保倅」銀介保倅」姜千非兩主」李漢德兩主」齡真
介兩主」申孫伊兩主」永非兩主」李少兩主」連介兩主」池認金兩主」今德伊兩
主」朴崑夏屎兩主」芳文玉兩主」李夢男兩主」金端仅兩主」朴許龍兩主」億非
保倅」奉介保倅」莫春兩主」九月兩主」卒德兩主」

(7A)

六士願兩主」 曷伊兩主」 李希宗兩主」 金卜千兩主」 崔仅男兩主」 鄭揆伊兩主」
 香介兩主」 有德兩主」 崑屎兩主」 朴河申兩主」 德介兩主」 介今兩主」 金熙兩
 主」 朴忞世兩主」 李順介兩主」 朴水難兩主」 金水難兩主」 李齡金兩主」 李金伊
 兩主」 林德仁兩主」 林德金兩主」 朴还伊兩主」
 丹風金兩主」 姜得芘里兩主」 姜必万兩主」 貴仁伊兩主」 金大卜兩主」 卜介保
 倅」 鄭洪斤兩主」 趙先宗兩主」 申卜伊兩主」 長允希兩主」 姜数少兩主」 姜孟春
 兩主」 朴春伊兩主」 鄭應京兩主」 金齡補兩主」 金德龍兩主」 洪春失兩主」 吳春
 同兩主」 白業同兩主」 崔能世兩主」 梁德水兩主」 礼願兩主」
 朴萬金兩主」 金貴男兩主」 崔成福兩主」 水難兩主」 莫介保倅」 李靛山兩主」 李
 雄男兩主」 姜福伊兩主」 朴仁希兩主」 朴敬男兩主」 柵應文兩主」 林春筏兩主」
 林大明兩主」 金德水兩主」 丁萬夫兩主」 丁應吉兩主」 金春龍兩主」 全連金兩
 主」 朴元信兩主」 李先會兩主」 尹夢石兩主」 宋丹秋兩主」
 崔石兩主」 洪滄同兩主」 鄭汗水兩主」 屯代兩主」 秋世伊兩主」 李軍同兩主」
 春林兩主」 李世進兩主」 鄭春伊兩主」 金盈卜兩主」 長春宝兩主」 过山伊兩主」
 金應真兩主」 揆音莊兩主」 金玉同兩主」 金彦同兩主」 金老重兩主」 姜允宝兩
 主」 朴無里山兩主」 白芘屎兩主」 林永立兩主」 朴泉石兩主」

(7B)

吳難水兩主」 朴芘金兩主」 能福伊兩主」 山石伊兩主」 朴真伊兩主」 白仁好兩
 主」 水德伊兩主」 長居士兩主」 金仁世兩主」 芘介兩主」 幸唯保倅」 金莫山兩
 主」 金敬男兩主」 金大願兩主」 戒陽兩主」 芘非兩主」 金希水兩主」 崔得方兩
 主」 金己連兩主」 鄭鉄斤兩主」 徐應男兩主」 金石兩主」
 趙大方兩主」 奴日男兩主」 齡石兩主」 大龍兩主」 金芘希兩」 金銀金兩」 丁允年
 兩」 洪龍兩主」 春德兩主」 金敬男兩主」 金安春兩主」 金水万兩主」 李同兩
 主」 尹應秋兩主」 朴水男兩主」 崔忞同兩主」 春石伊兩主」 忠介保倅」 朴立伊兩
 主」 尹己信兩主」 滄德兩主」 億介兩主」
 全連伊兩主」 朴仁水兩主」 高平石兩主」 李花伊兩主」 金世浩兩主」 崔仁世⁹⁸⁾兩
 主」 寒己水兩主」 崔應男兩主」 徐應吉兩主」 丁仁乃兩主」 丁進希兩主」 金失夢
 兩主」 金千水兩主」 金文世兩主」 朱云鶴兩主」 朴仅信兩主」 金旭兩主」 禾春伊
 兩主」 金齡福兩主」 曹忞同兩主」 金成連兩主」 吕仁孫兩主」
 郭寒路兩主」 李無金兩主」 朴金伊兩主」 金連水兩主」 李古邑金兩主」 安難宗兩
 主」 洪己伊兩主」 己春伊兩主」 尙德伊兩主」 文孟希兩主」 文應真兩主」 朴億水
 兩主」 李士男兩主」 趙福明兩主」 崔進難兩主」 崔希補兩主」 崔齡卜兩主」 李忞

98) 仁世 : 원문은 世仁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男两主」金餘光两主」吳夢端两主」𠵽德两主」

(8A)

黃終男两主」崧山两主」𠵽介两主」朱億卜两主」韓少男两主」朴小吉两主」金石文两主」金師願两主」裴水还两主」莫代保倅」黃夏屎两」崔十五两主」金凱补两主」禹俊立两主」柳补伊两主」𠵽德伊两主」金𠵽音两主」多仲同两主」多銀卜两主」李𠵽孙两主」

徐补世两主」粉伊保倅」金失男两主」金信文两主」李彦世两主」朴西小两主」朴己山两主」朴𠵽世两主」莫今保倅」萬非保倅」李氏保倅」黃仁卜两主」金應男两主」崔進伊两主」姜愛龍两主」李𠵽屎两」金德春两」羅淨水两主」李風連两主」金卜林两主」金大仁两主」

李愛男两主」朴奉鶴两主」金連雨两主」朴壽万两主」崔夏無金两」長水希两主」金銀生两主」黃春伊两主」柳敬春两主」長卜伊两主」李日男两主」李應伊两主」李莫孙两主」金石真两主」洪夢世两主」吳必伊两主」羅𠵽同两主」李夢伊两主」德成介两主」李洪金两」丁仲补两」

李揆音卜两主」禹戒相两主」崔銀伊两主」白汗卜伊两主」車菴𠵽两主」金山伊两主」長安山两主」金尙同两主」金希江两主」朴补伊两主」姜彦水两主」李永春两主」柳永男两主」金士文两主」金貴孙两主」今種伊两主」壽代两主」金崧金两主」三月保倅」姜應男两主」高欣同两主」

(8B)

李後并两主」李種伊两主」金無金两主」金應竜两主」應男两主」安諒良两主」崔應卜两主」金尙傑两主」朴𠵽鶴两主」吳莫孙两主」全养民两主」鄭大水两主」韓石佛两主」姜莫同两主」貴介保倅」金水孙两主」梁𠵽作两主」進德伊两主」順代两主」金岩回两主」

金二同两主」金億連两主」朴滄同两主」李凱文两主」山代保倅」愛奉保倅」忠日保伏⁹⁹⁾」李夢世两主」林江伊两主」朴甘音金两」金伊保倅」𠵽連伊两主」韓鉄水两主」金厚男两主」崧金两主」香春保倅」春玉保倅」壽非保倅」希非保倅」林順應两主」金福唱两主」

金知春两主」金二名兩主」孙億孙两主」趙延伊两主」金守江两主」吳億补两主」分代保倅」德水保倅」金業伊两主」金今守两主」鄭九孙两主」李崧金两主」林彦相两主」林守仁两主」崔夢丁两主」漢代保倅」金命两主」雪菴比丘」性胤比丘」戒尙比丘」德祐比丘」文彦比丘」

光雲比丘」双淳比丘」世照比丘」印天比丘」靈祐比丘」天機比丘」**守文**比丘」戒信比丘」印鑑比丘」仅悅比丘」仁俊比丘」信能比丘」省年比丘」世風比丘」

99) 伏：体的 오기

弘惠比丘」智海比丘」勝旭比丘」靈俊比丘」大非保倅」朴仁守兩主」

(9A)

法寬比丘」仅俊比丘」戒仅比丘」惠元比丘」处真比丘」道敬比丘」春梅保倅」
淨浩比丘」雪俊比丘」宝希比丘」淨淳比丘」法倫比丘」双日比丘」祖日比丘」
信裕比丘」金生伊」李得男」甘朴男」吳一連」

張命真兩主」柵大英兩主」韓有良兩主」裴億男兩主」崔仇之兩主」春伊保倅」
山會保倅」法見比丘」信能比丘」日真比丘」勝思比丘」智和比丘」李先兩主」
金_ㄱ補兩主」金_ㄷ同兩主」朴彦信兩主」李_ㄷ屎兩主」銀今保倅」金欣福兩主」
南美信兩主」鄭男伊兩主」召里伊兩主」金彦伊兩主」崔命石兩主」韓_ㄷ孫兩
主」黃成器兩主」刘山卜兩主」李海水兩主」李凱文兩主」徐元石兩主」朴彦水
兩主」莫介保倅」鄭勝吉兩主」_ㄱ德兩」鄭德元兩主」曹玉山兩主」金有成兩
主」宋化保倅」

李揜音卜兩主」趙旺方兩主」徐彦水兩主」姜春夫兩主」愛重保倅」長巨孫兩
主」彦介保倅」莫代保倅」金春養兩」鄭延水兩」彦今保倅」朴記伊兩主」玉代
保倅」朴水吉兩主」壽春兩主」徐成旺兩主」_ㄱ代兩主」梅春兩主」朴永卜兩
主」

(9B)

畫負」幸思比丘」德玄比丘」天潭比丘」熙淳比丘」敬倫比丘」心淨比丘」應梅
比丘」性嘗比丘」性宗比丘」助緣」仅甘比丘」真守比丘」云食比丘」熟頭」日
淨比丘」惟瓊比丘」慧敏比丘」法日比丘」飯頭」玉仁比丘」依信比丘」別坐」
剋真比丘」持殿」暎會比丘」寶真比丘」證師」法正比丘」緣化」金彦京」全_ㄷ
福」智寬比丘」印垣比丘」雲敏比丘」幹善道人」玄印比丘」双翊比丘」德耳比
丘」幹善道人」性安比丘」萬歷四十五年丁巳¹⁰⁰⁾十月日雞龍山岬寺佛像畢造」

100) 萬歷四十五年丁巳：1617년. 歷은 曆의 오기.

□ (갑사 대응전 소조관세음보살입상 복장 전적)

조사 대상은 공주 ‘갑사 대응전 소조삼세불’ 가운데 소조관세음보살입상의 복장 유물 가운데 보이는 전적류 11건이다. 필사본은 1종으로 백지에 묵서로 서사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며, 그 외 10종은 모두 목판본으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7종,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 1종,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 1종, 다라니가 1종이다.

지난 2015년 6월 19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복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불교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우선 이를 목록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공주 갑사 대응전 소조관세음보살입상 복장전적 현황]

순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간행시기	지정가치
0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필사본	1첩	1388년	○
0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399년]	○
03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5세기]	○
0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405년]	○
05	묘법연화경 권7	목판본	3장	1567년	-
06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
07	묘법연화경 권1~6	목판본	213장	[1573년]	-
08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년]	○
09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목판본	1책	[1433년]	○
10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목판본	1책	1352년	○
11	다라니	목판본	42장	조선시대	-

복장 전적 11종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경전류가 9종, 의식류가 1종 그리고 다라니류가 1종이다. 또한 간행 시기는 고려본과 조선시대 16세기 중반까지로 복장 원문에서 확인된 1617년(萬曆 45年) 이전의 자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장 전적 각각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

筆寫本

折帖 / 전체 29.7×240.9cm/ 난고(欄高) 18.6cm/ 1절면 29.7×10.0cm/ 1장 8절/ 1절 6행

17자/ 전체 4장 연결(제1장 1절면 및 제4장 1절면 이후 결락)

寫記：洪武廿一年五月初吉日誌



이 사경은 전면에는 『금강경』의 내용을 서사하였고, 배면에는 『묘법연화경』의 제 25품에 해당하는 「관세음보문품(觀世音普門品)」과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표훈대덕발원문(表訓大德發願文)」 그리고 사경 발원문과 간기가 이어진다. 사성기(寫成記)의 내용을 통해 1388년(洪武 21) 비구 준암(峻庵)과 심탄(心坦)이 돌아가신 어머니 이씨가 고해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며 100부를 사성했음을 알 수 있다.

02.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定宗 1(1399)].

3卷 1冊(111張)：四周單邊，半郭 18.8×12.7cm，無界，14行24字，無魚尾
26.9×16.8cm. 線裝

卷頭題：妙法蓮華經

版心題：法○

卷尾題：妙法蓮華經



권1

요해 서

이 책은 3권 1책의 영본으로 선장본 형식이다. 표지는 없으며 반엽 14행 24자의 구성을 갖고 있다. 간행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판식 등을 통해 1383년 간행된 법흥산 백련암 계통의 번각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03.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卷1-3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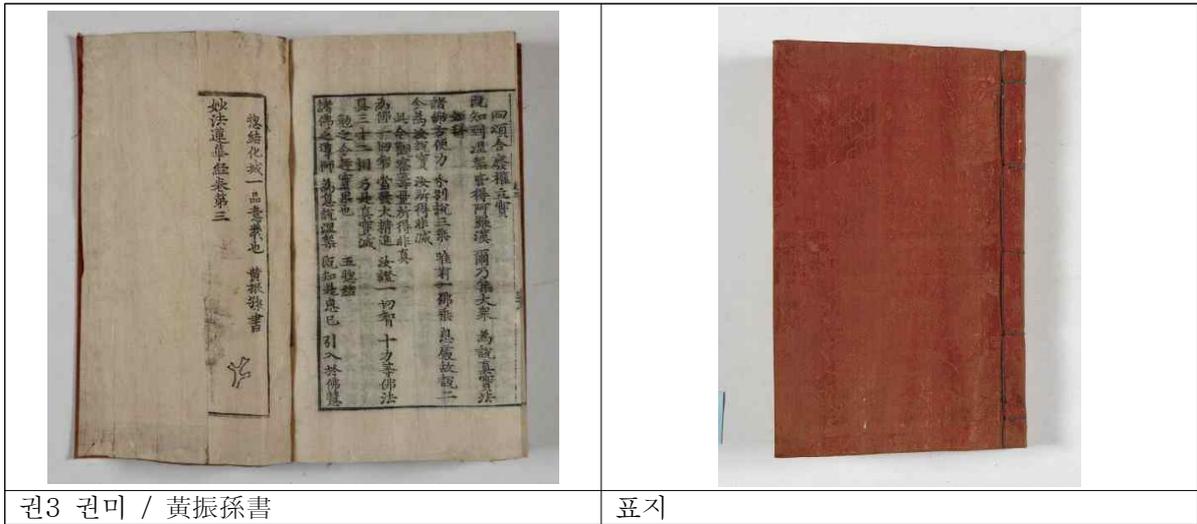
-- 木板本. -- [刊行地不明]：[刊行處不明], [15세기].

3卷 1冊(164張)：四周單邊，半郭 20.2×13.2cm，無界，10行20字，無魚尾
28.5×17.8cm. 線裝

卷頭題：妙法蓮華經

版心題：法○

卷尾題：妙法蓮華經



이 책은 3권 1책의 영본으로 선장본 형식이다. 표제는 없으며 주색의 비단으로 장황된 상태이다. 간행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권4 권미 부분에 있는 ‘黃振孫書’라는 기록을 통하여 황진손 서체 계열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판식 등을 통해 조선 전기(15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04. 묘법연화경 권3~4

妙法蓮華經. 卷3-4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安心寺], [1405].

2卷 1冊(119張) : 四周單邊, 上下間 21.4×16.0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3×16.7cm. 線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

卷尾題: 妙法蓮華經



이 책은 2권 1책의 영본으로 선장본 형식이다. 표지는 없으며 권3의 1장도 반엽만 남아 있다. 간행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판식 및 서체를 통하여 1405년 안심사에서 간행된 성달생 서체 계열의 원간본과 동일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05. 묘법연화경 권7

妙法蓮華經. 卷7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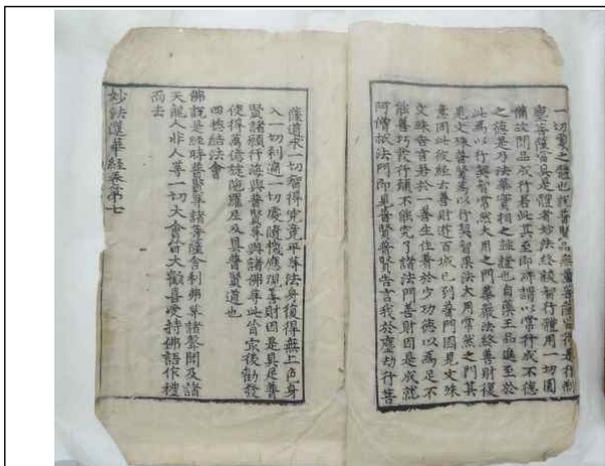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明宗 22年(1567)].

3장(51,52,53) : 四周單邊, 半郭 19.4×12.1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7×17.8cm. 線裝

版心題: 法七

卷尾題: 妙法蓮華經

刊記 : 嘉靖四十六年丁卯正月日龍城山人默齋謹跋



권7 권미



권7 발문

권7의 51장, 52장, 53장의 낱장 3장만 남아 있다. 마지막 장에 “嘉靖四十六年丁卯正月日龍城山人默齋謹跋”이라는 1567년(명종 22)에 지은 용성산인 묵재의 발문이 있다. 성달생 서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발문을 통하여 1564년 판각을 시작하여 1567년 봄에 2-3건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06. 묘법연화경 권5~7

妙法蓮華經. 卷5-7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無量寺], [成宗 24年(1493)].

3卷 1冊(193張) : 四周單邊, 半郭 26.6×16.3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6.5×21.8cm. 線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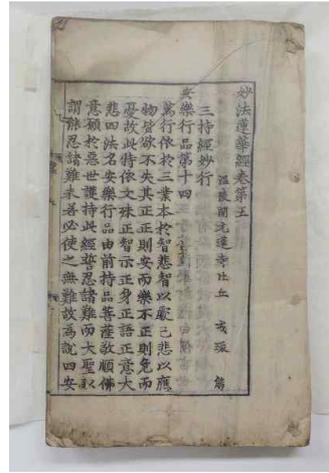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妙法○/法跋

卷尾題: 妙法蓮華經



권7 권미 / 발문



권5 권두

이 책은 3권 1책의 영본으로 선장본 형식이다. 표지는 없으며 권5~7의 내용에 이어 발문이 있다. 김열경(金悅卿)이 지은 발문에는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에 주자로 찍은 법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지희(智熙)의 주관하에 1491년~1492년 사이에 다시 판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주갑인자본의 변각본 계열임을 알 수 있다.

07. 묘법연화경 권1~6

妙法蓮華經. 卷1-6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雙溪寺], [宣祖 6年(1573)].

213張(弘傳序-6장/권1-105장/권2-72장/권3-6장/권4-6장/권5-12장/권6-6장): 四周

單邊, 半郭 25.5×16.2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41.5×50.7cm. 線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妙法○/法跋

卷尾題: 妙法蓮華經



권1 67장



弘傳序

장정되지 않은 낱장본은 모두 213장이다. 권차, 장차 구별없이 2~3장씩 인출되었는데 弘傳序를 포함하여 권1~권6까지 있으나 권7만은 남아 있지 않다. 인출된 종이의 크기는 41.3×50.4cm 내외이다. 간행 관련된 기록은 없으나 각 장별로 변란 밖으로 확인되는 시주자의 기록을 통하여 1573년(선조 6)에 쌍계사에서 판각 인출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08. 묘법연화경 권4~5

妙法蓮華經. 卷4-5 / 鳩摩羅什(後秦)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廣德寺], [世宗 34年(1555)].

2卷 1冊(129場): 四周單邊, 半郭 25.5×19.7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35.3×24.6cm. 線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版心題: 法華經 ○ 卷尾題: 妙法蓮華經



권4 권미 / 권5 권두



표지

이 책은 1455년(세조 원년) 강희안의 글자체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을해자 인출본의 번각본이다. 표지는 진한 남색 비단으로 장정하였고, 제첩은 주색 비단으로 만들어 장황하였다. 권4~5의 일부분으로 정확한 간행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권4

권미의 시주자에 대한 기록과 변란 밖에서 확인되는 시주자의 내용을 통하여 1555년 광덕사에서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09.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6-10 / 般刺密諦(唐) 譯, 戒環(宋) 解
-- 木板本. -- [花岩寺], [世宗 15年(1433)].

5卷 1冊(152張): 四周單邊, 半郭 21.9×14.4cm, 無界, 11行22字,
無魚尾, 27.7×17.1cm. 線裝

卷頭題: 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版心題: 楞○

卷尾題: 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이 책은 전체 10권 가운데 권6~10의 일부분이다. 정확한 간행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권미제와 음식(音釋)에 이어지는 동원시주(同願施主) 관련 기록을 통하여 1443년(세종 25)에 성달생이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화암사본 계열임을 알 수 있다. 지질 및 인쇄 상태를 볼 때 15세기 전반에 인쇄된 책으로 판단된다.

10.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8~10 / [眞觀 等] 諸大法師 集撰.
-- 木板本. -- [刊行處未詳], [恭愍王 1年(1352)].

3卷 1冊(129場): 上下單邊, 上下間 25.4cm, 無界, 5行13字,
無魚尾, 34.1×17.3cm. 線裝

卷頭題: 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

版題: 懺○

卷尾題: 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

刊記: 至正十二年壬辰十月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송(宋)의 청량산(淸涼山) 사문 광균(廣鈞)이 7년에 걸쳐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대조하고 교정하여 총 10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자비도량참법』은 본래 남제(南齊)의 경릉왕(竟陵王, 460~494)이 꿈 속에서 감응한 바를 21편 30권으로 찬술한 이후, 양(梁) 무제(武帝, 462~549)가 진관(眞觀) 등 여러 법사에게 새로 10권으로 찬집(撰集)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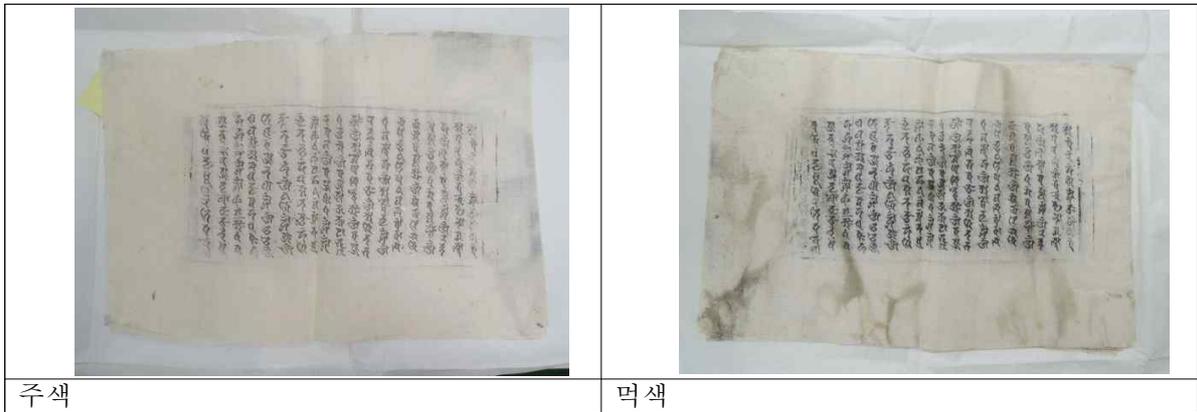
조사본은 전체 10권 가운데 3권 1책의 영본이다. 표지는 없으며 절첩본 형태의 판본을 한 면에 5행식 선장본의 형태로 장정하였다. 판심부 없이 5행과 6행 사이에 판제(版題)인 참(懺)과 권차를 기록하였다. 이 책은 권10 말미의 간기를 통하여 1352년(至正十二年, 壬辰)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1. 다라니

陀羅尼

木板本. 42장(墨-33장/朱-9장)

四周單邊, 19行11~12字, 全郭 19.8×38.5cm.



다라니는 전체 42장으로 묵색이 33장, 주색이 9장 확인되었다. 의례용 다라니로 전곽의 크기는 19.8×38.5cm이며, 종이의 크기는 38.2×50.5~57.0cm 내외이다.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가운데 소조관세음보살입상의 복장 유물은 내용 상으로는 사경류 1종, 경전류 9종, 의식류 1종 그리고 다라니류 1종으로 분류되고, 간행 시기는 고려본 2종 외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으로서 모두 복장 원문에서 확인된 1617년(萬曆 45年) 이전의 자료들이다.

자료 가운데 절첩본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순번01)은 전면에는 『금강경』의 내용을 서사하였고, 배면에는 『묘법연화경』의 제 25품에 해당하는 「관세음보문품(觀世音普門品)」과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표훈대덕발원문(表訓大德發願文)」 그리고 사경 발원문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더욱 사성기(寫成記)의 내용을 통해 1388년(洪武 21) 비구 준암(峻庵)과 심탄(心坦)이 돌아가신 어머니 이씨가 고해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며 100부를 사성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된다. 비록 제1장의 1절면과 제4장의 1절면 이후는 결락된 상태이나 사성기를 지닌 사경으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간본으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권8~10(순번10)이 있다. 이 책은 전체 10권 가운데 3권 1책의 영본에 해당하나 권10 말미의 간기를 통하여 1352년(至正十二年, 壬辰)에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동일본으로 이미 지정된 자료들이 우종문화재단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보물 제875호), 호림박물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3(보물 제875-2호) 등이 있다. 공주 갑사 복장 유물은 전해지는 자료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인출본으로 판단된다.

복장 전적 가운데 조선시대의 간본으로서 중요한 자료는 1443년(세종 25)에 성달생이 고산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화암사본 계열의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순번09)과 『묘법연화경』의 여러 판본 가운데 ① 1383년 간행된 범흥산 백련암 계통의 번각본인 『묘법연화경』 권1~3(순번02) ②

판식과 인출 상태 그리고 비단 장정 등을 통하여 15세기 전반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黃振孫’ 서체 계열의 판본인 『묘법연화경』 권1~3(순번03) ③ 1405년 안심사에서 간행된 성달생 서체 계열의 판본인 『묘법연화경』 권3~4(순번04) ④ 문종이 동궁으로 있을 때에 주자로 찍은 갑인자 계열의 법화경을 저본으로 하여 지희(智熙)의 주관 하에 1491년~1492년 사이에 다시 판각하여 인출한 『묘법연화경』 권5~7(순번06) ⑤ 1455년(세조 원년) 강희안의 글자체를 자본으로 하여 만든 을해자 인출본의 번각본으로서 1555년 광덕사에서 간행하고, 표지와 제첩을 진한 남색 비단과 주색 비단으로 장황한 『묘법연화경』 권4~5(순번08) 등이 해당된다. 이상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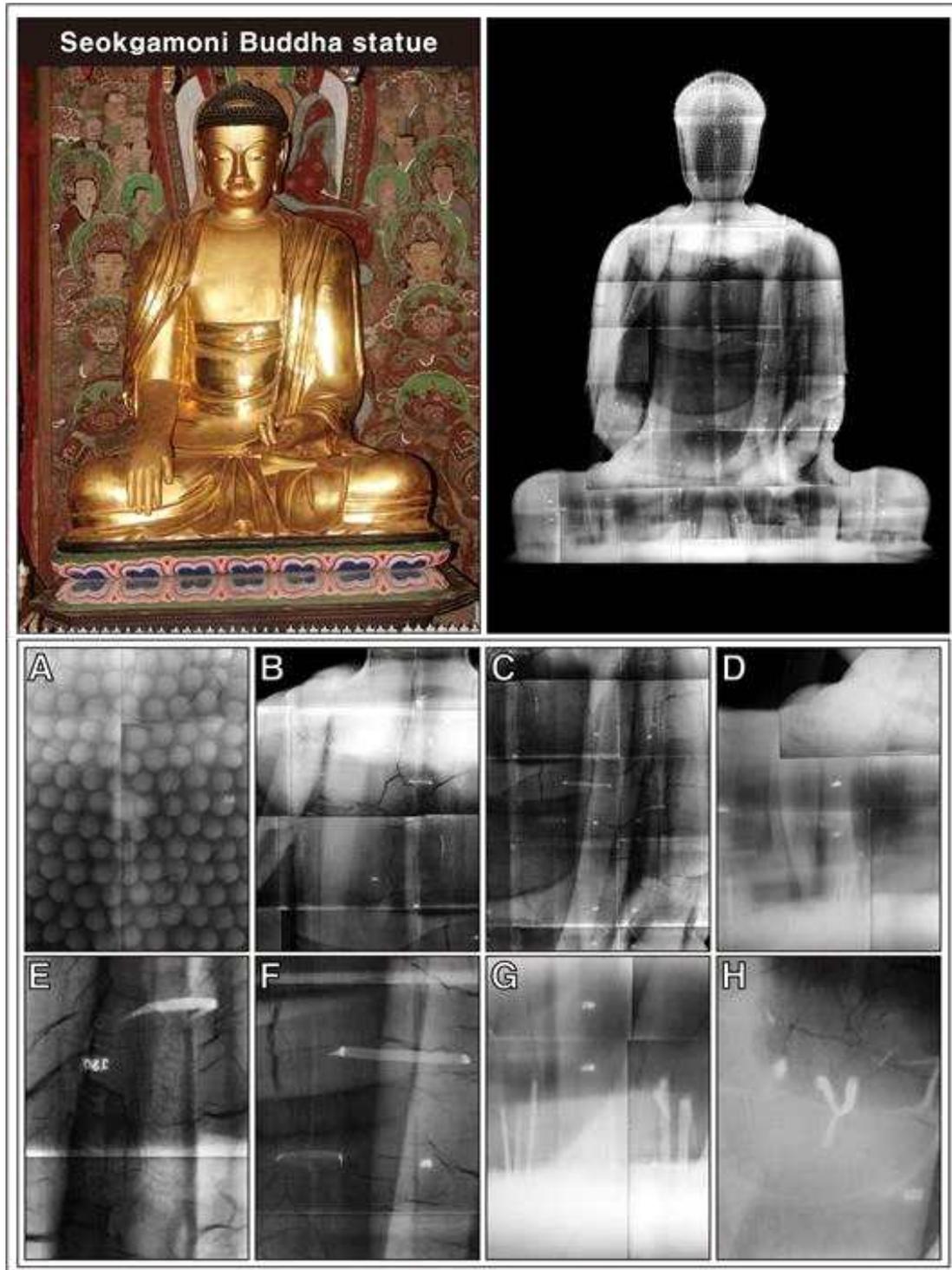
경전 이름	판종	수량	간행시기	비고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필사본	1첩	1388년	순번01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399년]	순번0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5세기]	순번03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405년]	순번04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순번06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년]	순번08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목판본	1책	[1433년]	순번09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목판본	1책	1352년	순번10
		8종 8점		

이들 자료는 판본으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판각과 인출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장정 형식 등에서 학술적인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 공주 ‘갑사 대응전 소조삼세불’의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입상의 조성 시기에 해당하는 1617년(萬曆 45年) 이전의 북장 봉안 경전류의 유형과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에도 일괄 유물로서 함께 연구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장 전적 8종 8점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감마선 촬영사진¹⁰¹⁾
가. 소조석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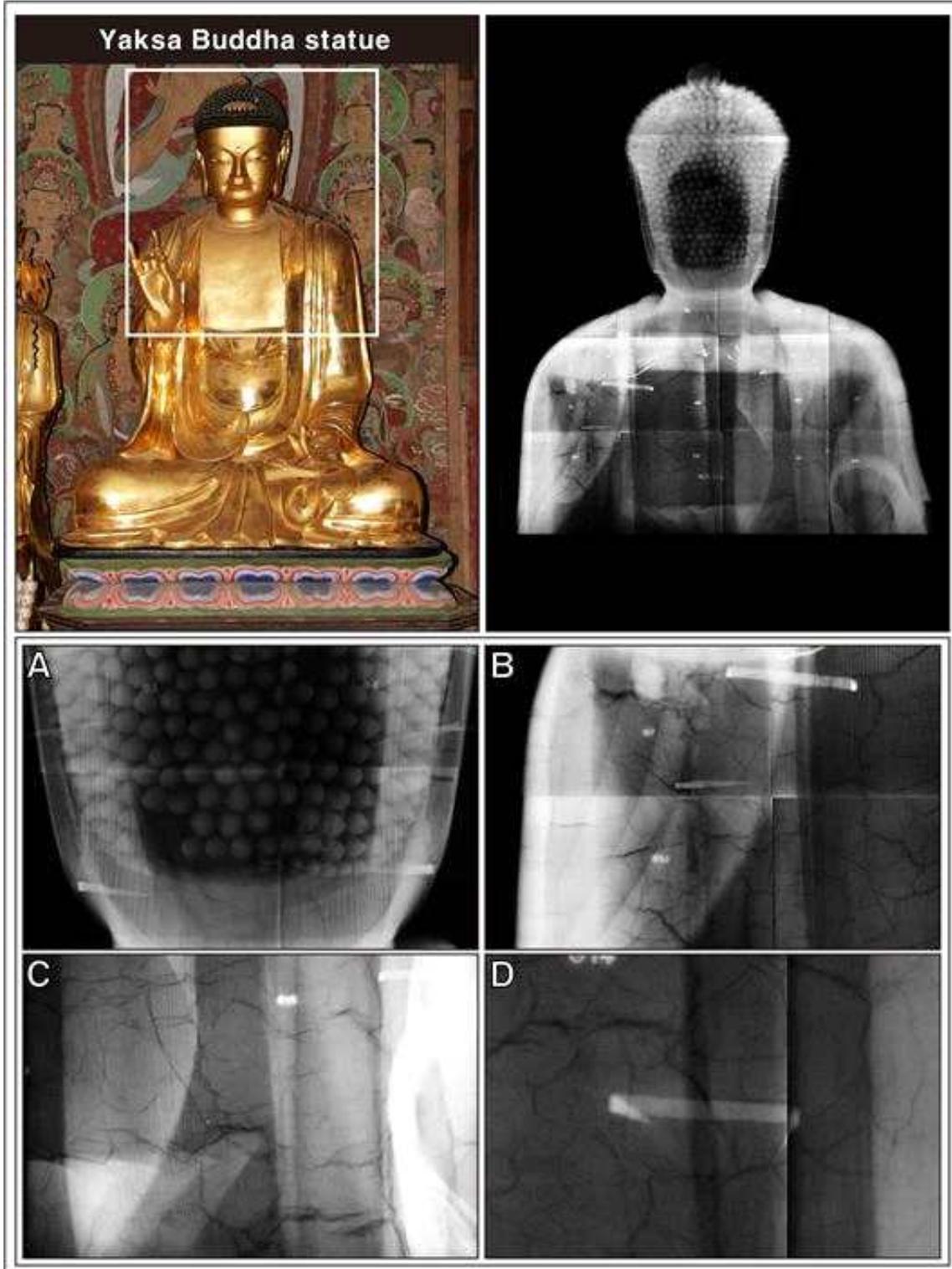
[사진 5-26] 소조석가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101) 본 감마선 촬영사진은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조사보고서 사진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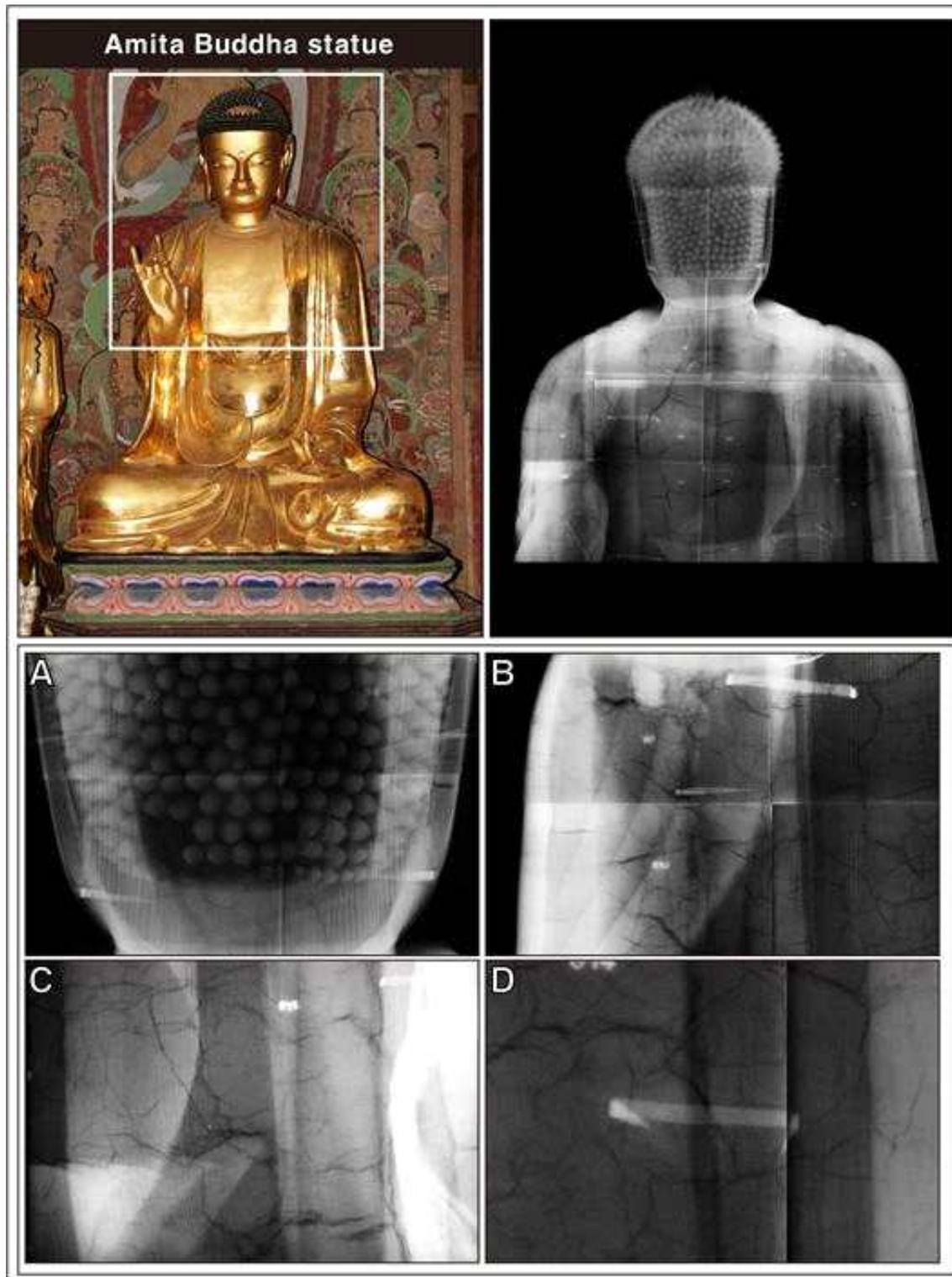
나. 소조약사여래좌상

[사진 5-27] 소조약사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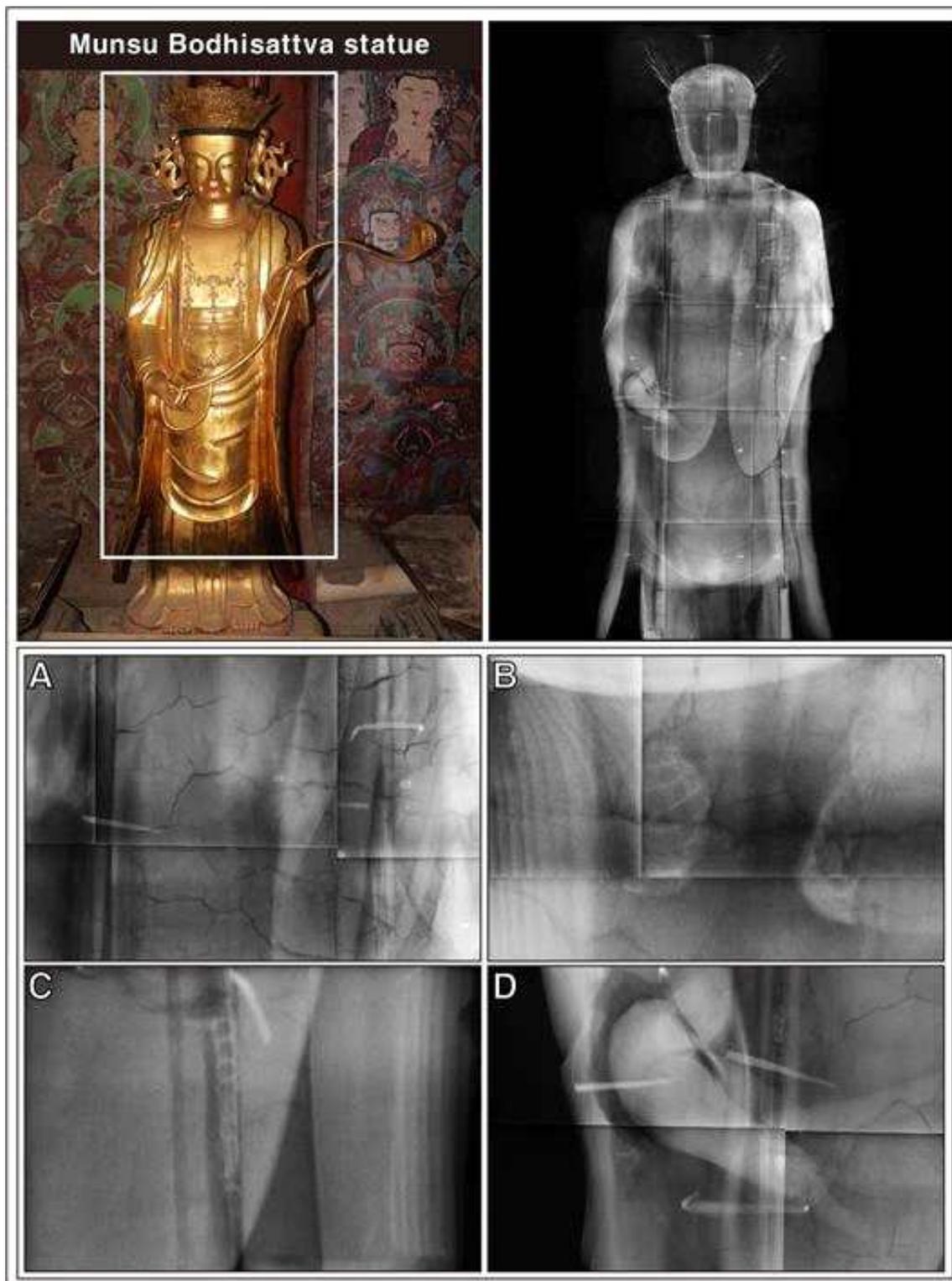
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사진5-28]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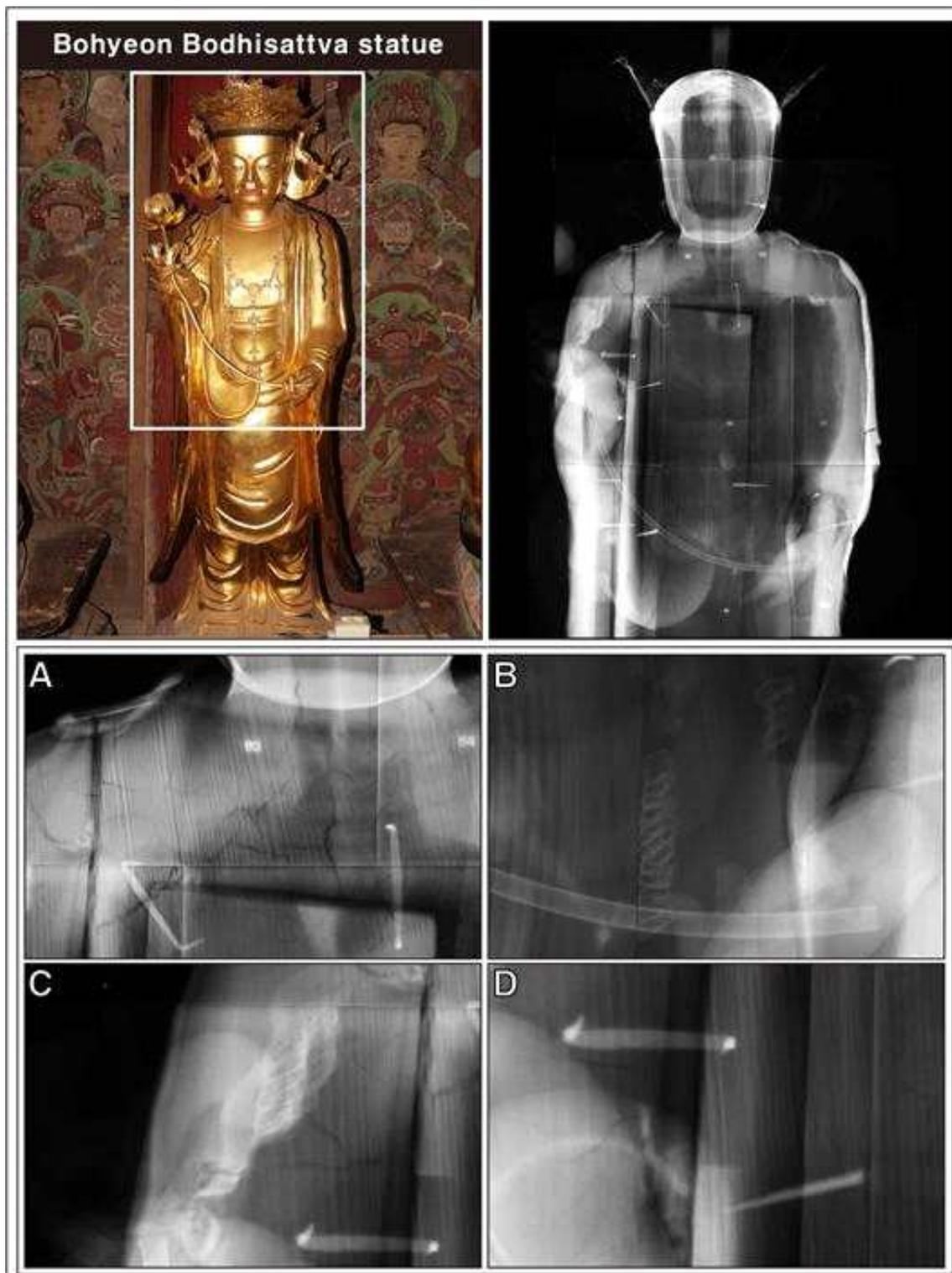
라. 소조문수보살입상

[사진 5-29] 소조문수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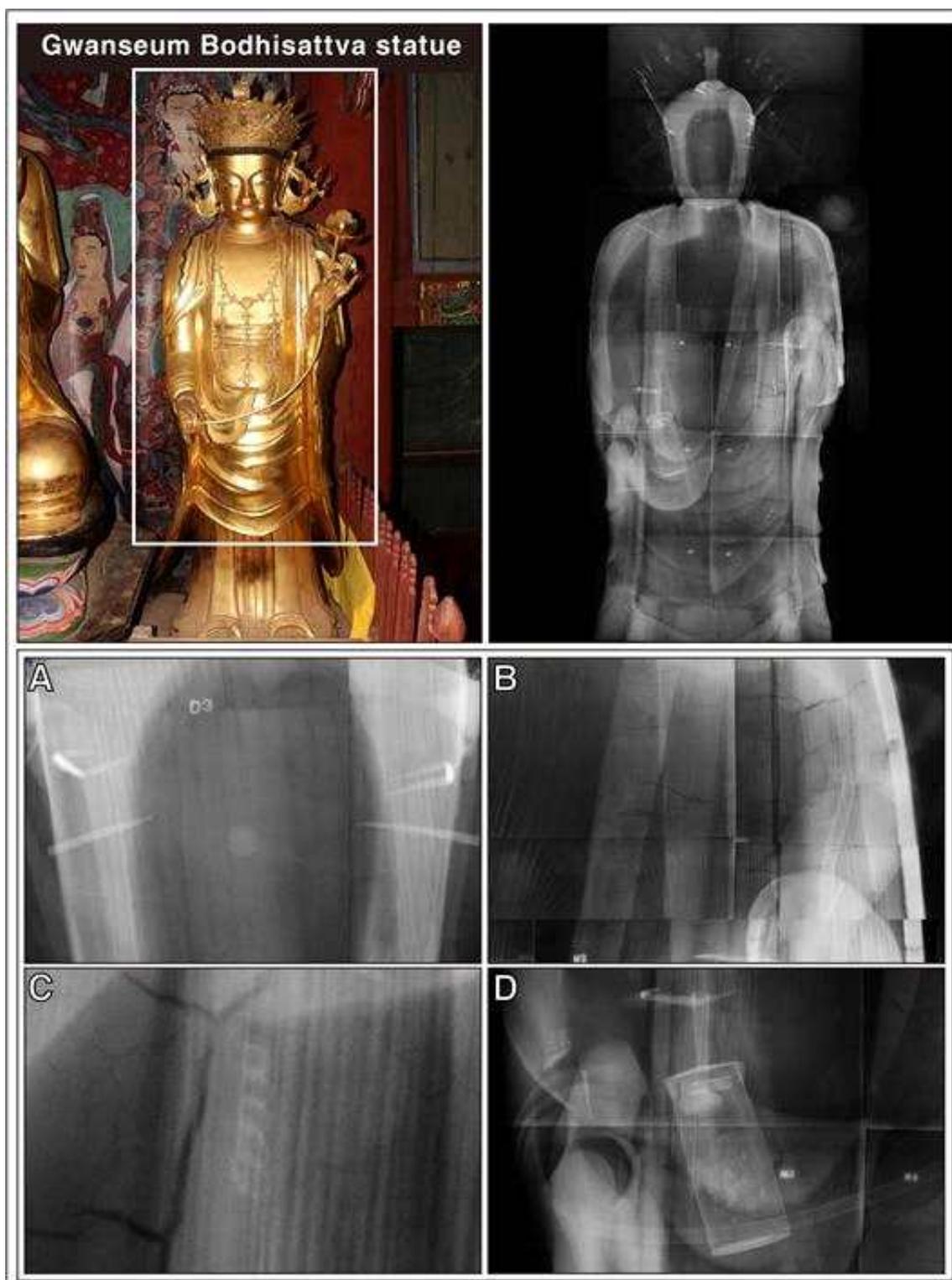
다. 소조보현보살입상

[사진 5-30] 소조보현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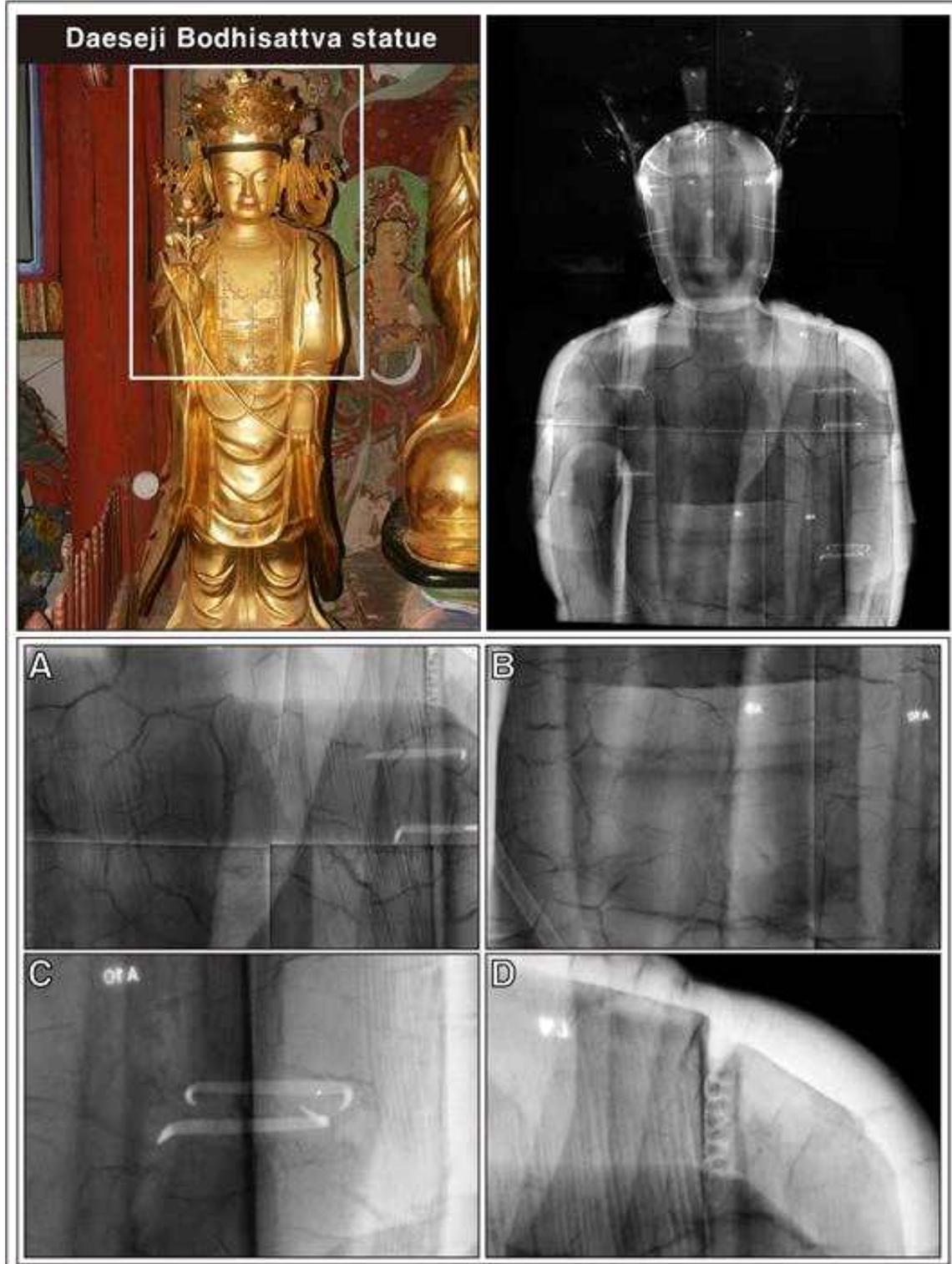
바. 소조미륵보살입상

[사진 5-31] 소조미륵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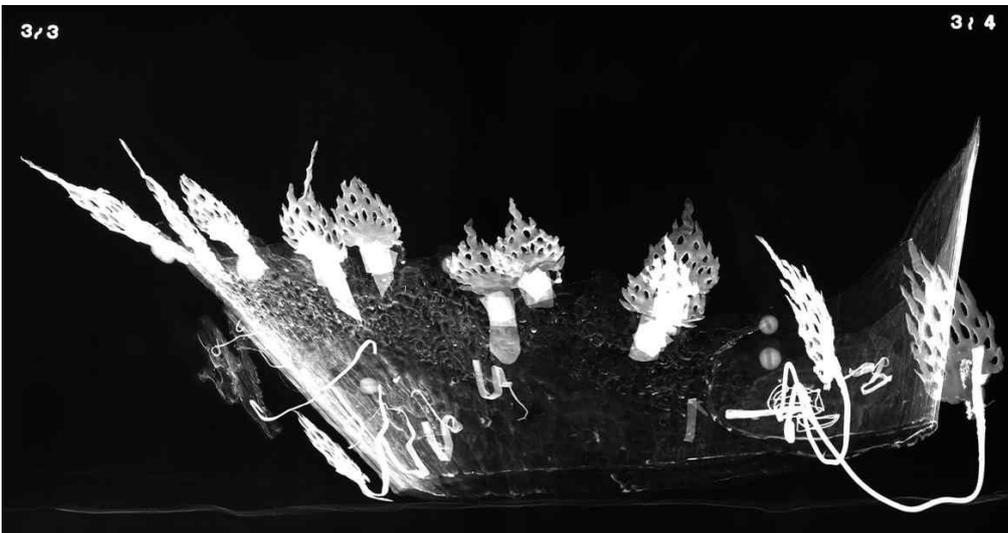
사. 소조제화갈라보살입상 (또는 소조관음보살입상)

[사진 5-32] 소조제화갈라보살입상 (또는 소조관음보살입상) 감마선 촬영사진



4. 기타 사진

[사진 5-33] 소조미륵보살입상 보관 사진과 X선 촬영사진



14.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및 腹藏遺物)

가. 검토사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정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1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7.18.) 및 과학조사(17.7.16~17.7.19./9.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하였으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20.2.13.)에서 복장유물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20.5.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재부 의함. 위 사안에 대해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① 괘불도 :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남장사에서 직지사로 소유권 이전(참고)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 소재지 : ① 괘불도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직지사정보박물관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 1길 259-22, 남장사
- 수 량 : 괘불도 1폭, 동경 1점, 복장낭 1점, 복장낭함 1점
- 규 격 : 괘불 전체 1,101.4×590cm, 화면 1,050×564.4cm
동경 지름 37.7cm, 복장낭 78.0×63.0cm, 복장낭함 79.0×73.7×17.7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목조
- 조성연대 : ①괘불 및 복장낭 : 1776년(정조 1), ②복장낭함 : 1783년(정조 7)
- 제작자 : 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동경과 복장낭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이 작품은 전체 크기가 1,104×590cm나 되는 대형의 작품으로, 1776년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0여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은 1776년 제작된 괘불이지만, 제작된지 얼마 후 관내 기우제 행사 때 사용하다 손상을 입어 지금껏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린 채 전래되어 온 괘불화이다. 비록 손상을 크게 입었으나, 다행스럽게도 諸존상의 주요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이 괘불화의 가치는 사용하지 않은 만큼 원래의 채색과 장황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17·18세기에 제작된 괘불들이 제작 이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 장황모습을 상실한 것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학술적 가치이다.

괘불의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1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우

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1788년 새롭게 제작된 괘불에 재사용 되었다. 따라서 이 괘불은 괘불과 더불어 복장유물 일습도 모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식 괘불의 완전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압도적인 크기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협시 등 중요 존상을 존격에 따라 상승감 있게 배치하고 사천왕상을 화면 사방에 두어 화면을 마무리 지어 짜임새 있는 구성력을 보여준다. 주존 석가여래를 다른 존상들보다 한걸음 앞에 돌출시켜 돋보이게 한 점은 마치 석가여래가 도량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듯한 극적 효과를 부여한 부분도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 권속으로 용왕과 용녀를 중요 권속으로 등장시켜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드러낸 점은 물론, 존격에 따라 육신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하였고, 사천왕상에서는 각기 다른 색과 음영을 강하게 베풀어 작자의 재치와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예술성도 높게 평가된다.

다만, 괘불의 복장유물은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사항에서 구분과 신분(보물 제2007호) 중 어느 것과 더 관련성이 깊은지 분명히 한 다음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으므로, 재조사후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18세기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해 22명의 화승들과 함께 1776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10미터가 넘는 대형화면에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을 함께 그렸다. 이 작품은 형상의 안정감과 상호의 원만함, 필선과 채색의 아름다움 등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희귀성·작품성 등에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 안료의 탈락과 화면 손상이 심하나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주요존상들은 잘 남아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리·보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지정 가치 있음)

1776년 남장사괘불도는 1788년에 조성된 남장사괘불도와 함께 한 사찰에서 10여년을 사이에 두고 제작된 괘불로 18세기 괘불 제작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1788년괘불도 조성 과정을 기록한 『佛事成功錄』을 통해 1776년의 괘불도가 기우제에 사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를 맞아 손상된 채로 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괘불도가 寺中이 아닌 장소에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불사에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實例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

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閨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수화승 有誠은 有性, 維誠, 唯性, 惟性, 有成 등으로 쓰이며 1755년부터 1808년의 불화 화기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 중 有誠으로 표기된 예가 가장 많다. 유성이 제작한 불화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성은 18세기 중후반에서 19세기초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경상도 불화승 任閑과 함께 참여한 기록이 있으며 현존작품을 기준으로 볼 때 評三이 주도한 불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그의 처일, 부일, 승운 등의 화사와도 작품을 함께 하였다.



(도129)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괘불도 비교

유성은 조선후기 활동한 화승으로 『雲門寺本末寺誌』에 ‘良工本寺有歲’이라는 간략한 기록이 전한다. 현존하는 작품은 약 20여점으로 1755년에서 1808년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의 불화들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유성이 단독으로 조성한 진영도가 6점 남아있어 유성의 작품 경향을 잘 알려주는데 암석을 배경으로 한 뛰어난 인물묘사와 치밀한 문양, 날카로운 필선 등에서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진영도에서 보이는 구도와 인물표현, 문양표현 등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중심화사인 임한의 영향도 보인다. 유성은 17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운사 지장보살도와 1772년 개심사 괘불도, 1777년 은해사 신중도를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고 있어 1776년의 남장사괘불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심사 영산회괘불도의 경우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우견편단의 옷을 걸치고 화면 중앙에 서 있는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남장사괘불도의 본존불과 자세는 물론이고 둥근 얼굴, 비대한 어깨, 유난히 길고 굽은 팔, 짧은 하체 등의 모습에서 유성의 특징이 보인다.

<표1> 유성작 불화목록 및 유성 한자 표기

	불화명	조성연대	수화승	유성표기
1	운문사 삼신불도	1755	任閑	有性
2	운양민속박물관 삼장보살도(지지도살도)	1755	任閑	有性
3	봉정사 환성당대선사지안진영	1766	有誠	단독조성
4	봉정사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1766	有誠	
5	봉정사 설봉당대선사사육진영	1766	有誠	
6	봉정사 영월당대선사웅진진영	1766	有誠	
7	봉정사 청허당대선사진영	1758	有歲	
8	봉정사 송운당대선사진영	1768	有歲	
9	모운사 지장보살도	1770추정	有誠	
10	서악사 석가모니불도	1770	富日	有誠
11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	有誠	
12	통도사 팔상도	1775	1.2.3相 ; 抱冠 4相 ; 有誠	
13	통도사 석가모니불도	1775	定聰	
14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76	有誠	
15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	1777	比丘 有誠	
16	쌍계사 삼세불도	1781	석가불 ; 勝允	維性
			아미타불 ; 評三	
17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勝允	維性
18	통도사 감로도	1786	評三	惟性
19	의령 아미타불도	1786	評三	惟性
20	옥천사 괘불도	1808	評三	唯性

1776년작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손상은 특히 초록색 안료가 칠해진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광배 등에서 박락과 탈락 등 화면 결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존을 비롯한 존상들의 얼굴부분과 다른 채색층에서는 그나마 손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화의 상태가 불완전한 측면이 아쉽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18세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 유성의 작품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화인 동시에 18세기 패불도의 제작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며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복장유물의 구성은 분책되어진 몇 종류의 불교서적·봉인된 후령통·유리가 납입되어 있는 복장낭과, 복장낭과 함께 걸었던 원형의 동경, 그리고 이들을 보관한 목제 보관함으로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이 복장유물은 복장낭의 경우 특히 야외의식용 대형 패불의 복장낭인만큼 현전하는 불화의 복장낭 중 보기 드문 대형의 복장낭으로 구성물들의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복장낭의 제작자, 보관함의 제작자대와 제작연대도 명확하다. 또한 잘 갖춰진 구성물과 더불어 복장낭의 제작기법이나 재질, 유려한 글씨체의 금박의 범자 등에서 패불과 더불어서 정성을 다한 종교의식물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복장물일괄유물은 현전하는 1776년과 1788년에 제작된 2점의 남장사 패불도 중 후령통의 기록과 1766년 패불도의 화기, 그리고 목제제작함의 제작연대로 미루어 보아 1776년의 패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상주 남장사 소장 복장유물은 복장낭과 그 속에 안립하였던 후령통, 복장낭과 함께 패불도에 달았던 원경, 이 복장유물을 보관한 목제보관함 등이 남아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유물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장사에서 1776년에 조성된 영산회패불도(구본)와 1788년에 제작된 영산회 패불도(신본) 중 구본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776년에 조성된 남장사 영산회 패불도와 함께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목제함에 보이는 묵서명을 통해 1776년 패불 조성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종이로 감싼 사각형의 후령통은 겉에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적은 朱書 띠지를 감아 봉했는데 띠지 안쪽 면에 ‘○晝基謹封’이라고 적은 묵서가 희미하게 보인다. 晝基는 구본 패불도 화기 연화질에서 증명을 맡았던 여러 스님들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龕山堂晝基 스님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복장낭을 보관했던 목제함의 덮개 안쪽면에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省學 振樞’ 라는 묵서명이 적혀 있어 목제함은 1783년에 省學과 振樞에 의해 제작되

있음을 알 수 있다. 省學과 振樞는 1776년 영산회괘불도 화기에 대시주자로 등장하고 있어 복장유물은 구분 괘불 조성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목제함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省學은 1788년 괘불도에도 대시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 남장사 불사를 완료하면서 그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의 「남장사괘불신화성기」 「괘불복장원문」 「유명교주지장대성신화성복장원문」 등에 의하면 성학스님은 1788년 남장사 불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입적한 이후였고 제자들이 스님을 기리기 위해 여러 불사를 행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상주 남장사에 전하는 복장유물 일체(복장낭, 후령통, 원경, 목제함)는 1776년에 제작된 남장사영산회괘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복장낭과 동경은 1776년 괘불도와 함께 제작된 것이고, 복장낭함은 1783년 복장낭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괘불도와 일괄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의결사항

- 보류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이 괘불은 乾隆 41년 丙申(1776년) 10월 20일 尙州 露岳山 南長寺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靈山會掛佛圖이다. 화면은 삼베 17폭을 바느질로 이어 붙여 대화면을 마련하였다. 그림의 제목은 화기에 “小靈山一位畫成”이라고 기록되어 본존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석가여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영산회’라는 명칭을 통해 대영산회 보다 권속을 축소하여 그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17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화기에 표기된 ‘영산회 괘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등장 인물의 수와 화기의 명칭과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화기의 영산회 표기사례

no	지정사항	명칭	시대	화기명칭	비고
1	국보 제299호	신원사노사나불괘불탱	1664	大靈山會幀	군도
2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	1673	大靈山教主尊像一軸	독존
3	보물 제1263호	수덕사 석가모니괘불탱	1673	靈山掛佛幀	군도
4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1673	靈山大會掛佛幀	군도
5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1688	靈山掛佛一會	군도
6	보물 제1608호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1702	靈山會圖一部	6존
7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1702	靈山會掛佛幀	7존
8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1705	靈山會掛佛一部	5존
9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도	1710	靈山會一部	군도
10	보물 제1267호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1728	靈山掛佛	7존
11	보물 제1269호	개암사 영산회 괘불탱	1749	靈山掛佛幀	7존
12	보물 제1419호	선암사 석가모니 괘불탱	1753	掛佛靈山教主釋迦牟尼佛	독존
13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도	1764	靈山掛佛幀	5존
14	보물 제1264호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	1772	大靈山掛佛幀	3존
15	경남유형 제299호	고성 옥천사 괘불	1808	大靈山會	5존
16	강원유형 제108호	삼척 영은사 괘불	1856	靈山幀畫	군도
17		남양주 흥국사 괘불	1858	大靈山掛佛幀一軸	3존

이 괘불은 입상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현보살, 가섭·아난존자, 용왕·용녀, 사천왕상, 시방제불을 위계질서에 맞게 배치한 영산회상괘불도이다. 제작 연대는 1776년이며, 제작에는 수화승 유성을 비롯한 23명의 화원들이 참여하였고, 용면질의 우두머리 화원을 繪首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23명의 화원이 참여한 만큼 대규모 인원의 화승들이 공력을 기울여 제작한 불화임을 짐작케 한다. 수화승 유성은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대략 1755년에서 1786년까지 활동을 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전반기는 당대의 대화승 任閑, 處一 등 선배 화승들과의 작업을 통해 화승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1766년 안

동 봉정사 영산회상도 제작 시점부터 수화승의 반열에 올라 독자적인 기량을 발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참여한 불화의 장르는 괘불도를 비롯하여 주요 여래도, 삼장보살도, 팔상도, 진영도, 신중도, 감로도 등 상·중·하단 불화 할 것 없이 전반에 걸쳐 있다. 그의 활동 지역은 충남 서산 개심사 괘불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경상도 지역 사찰에 봉안된 것으로, 그의 주된 활동지역은 경상도 지역, 그 중에서도 경북지역이 주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괘불은 『상주남장사불사성공록』에 따르면 “종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파 한지 한 해가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괘불은 관내 기우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괘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껏 말아둔 채로 전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손상으로 인하여 화면과 배접지는 산화되었고, 안료는 탈·박락 완연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조성이후 한차례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료와 장황 형식은 후대의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중앙에 입상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본존은 주위의 권속보다 한걸음 앞서 표현하여 원근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본존은 체구가 긴장하며, 둥글넓적한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작게 표현하였다. 머리의 외곽을 따라 경사가 급한 봉우리처럼 육계가 솟았으며, 육계의 정상에는 반타원형의 정상계주가 묘사되었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는 중앙계주를 표현하였고, 발제선의 중앙에는 맵시있게 머리 곁을 봉긋하게 모아 가르마를 타고, 그 아래로 ‘八’자형의 애교머리를 그렸다. 법의는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떡 벌어진 가슴에는 군의와 띠 자락이 드러나 있다. 대의 주문양은 연꽃을 중심으로 네 곳에서 소용돌이가 휘감아 돌고 이를 구름이 둥글게 감싼 ‘蓮花卷雲文’이 시문되었다. 대의 깃에는 길상문이, 군의의 깃에는 연화당초문을 각각 시문하였다. 무릎까지 축지인으로 길게 내린 오른손은 든중한 편이다. 머리의 양 측면에서 뻗어나온 五色光明은 천공을 휘감으며 시방제불을 떠받들었고, 중앙계주에서 흘러나온 오색은 작은 毘盧蔗那佛(化佛)을 떠받든 모양새다.

본존불의 어깨부근 좌우측에는 녹색의 두광을 갖춘 입상의 협시보살상이 상반신만 노출한 채 본존을 향해 합장하였는데, 이들은 보관을 쓰고 적색의 천의와 장신구를 걸쳤다. 보살상의 바로 위에는 가섭과 아난이 배치되었는데, 가섭은 육계가 불룩하게 솟은 머리 형태와 지권인처럼 수인을 결한 점이 특징이다. 다시 그 위로는 龍王과 龍女가 표현되었다. 용왕과 용녀는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일반 영산회상도가 아닌 괘불도에서 이들의 등장은 드물다. 이들이 등장하는 괘불로서는 1727년에 제작된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을 들 수 있는데, 미황사 괘불은 琢行 雪心 喜心 任閑 敏輝 就詳 明現 등이 함께 그린 것이다. 미황사 괘불은 화면 중앙에 축지인의 석가여래를 배치하고, 무릎 좌우측에 작게 용왕과 용녀를 협시처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남장사 영산회괘불도의 배치와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영산회괘불도의 권속의 일부로 등장시킨 점은 유성의 화풍에 영향을 미친 임한과의 관련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천왕상은 화면의 네 모퉁이에 배치하여 도량을 옹호하고 있다. 사천왕은 화면의 향 우측 상방부터 시계방향으로 琵琶, 寶劍, 龍과 如意珠, 寶塔의 지물을 들어 조선시대 일반적인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선은 위쪽 두 구는 오른쪽을, 아래쪽 두 구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호방한 필선을 바탕으로 한 대범하고 과장된 모습에서 강력한 분위기를 발현하고 있다. 표현 방식과 기법에서는 유성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불국사 사천왕 벽화와 매우 닮아있다.

또한 본존불의 중앙 계주에서 피어나는 오색서광 광배 위에 비로자나 화불이 표현된 도상과 변아와 회장에 불복장 관련 여러 가지 진언문을 배치한 장황 형식은 이 보다 12년 늦게 제작된 新本 남장사 영산회괘불도(1788년) 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사찰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된 두 본 괘불도의 도상과 장황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요소이다.

채색은 전통 불화에 사용되는 오방색과 이들을 혼합한 중간 색조를 적절히 선택하여 영산회상의 장면을 웅장하게 표현하였다. 문양은 번잡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베풀어졌고, 피부의 윤곽은 가늘고 섬세한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은 굵고 가는 다양한 색선을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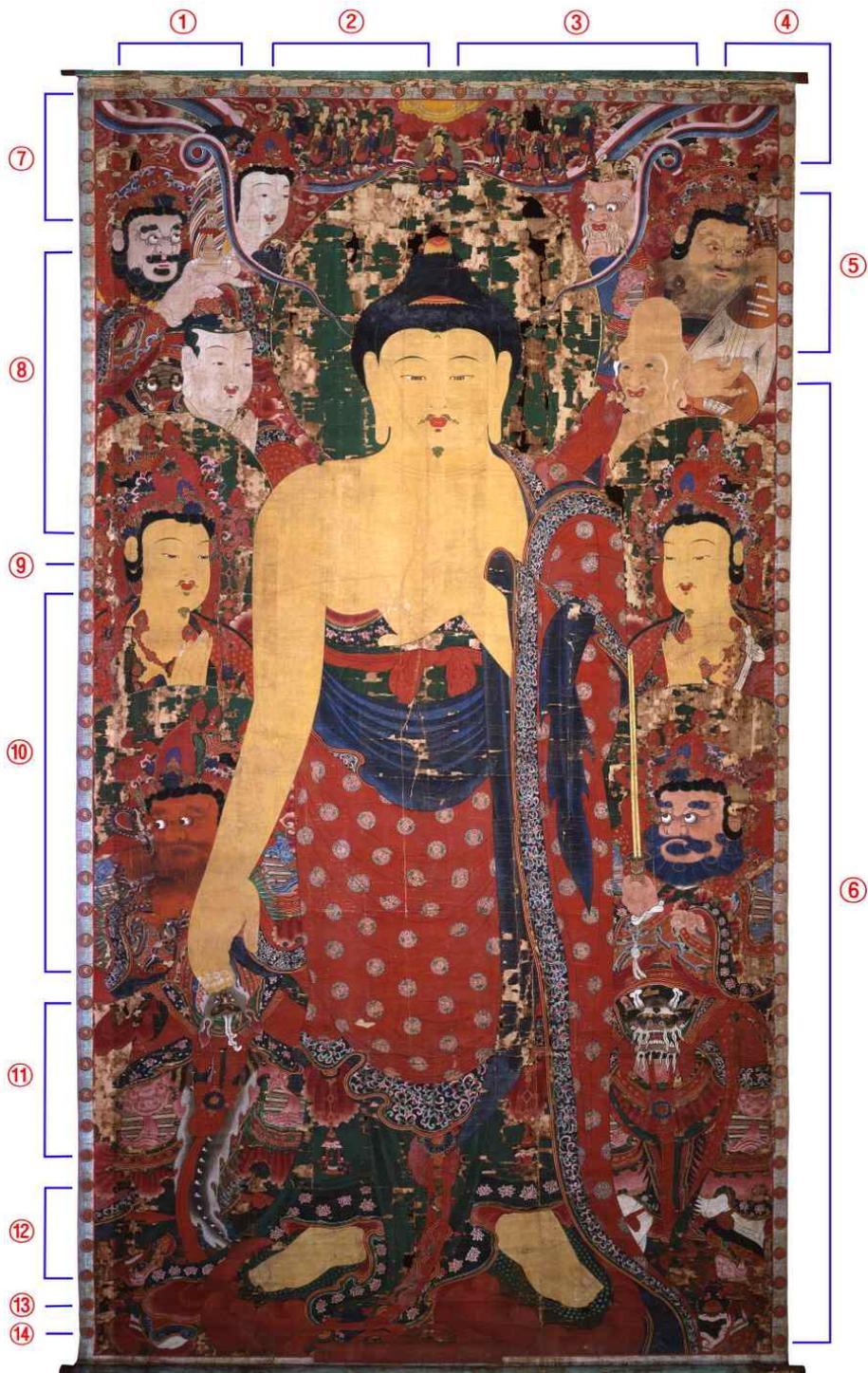
현재 괘불은 반달형의 상축과 원형이 하축이 그대로 달려 있고, 상축의 좌우측 두 곳에는 ‘圭形’의 낙영을 달아 늘어뜨렸고, 화면의 향 좌측에는 길이 115.5cm의 유소 1개가 달려있다. 이 유소는 남아 있는 복장주머니의 재질과 제작 방식이 유사하다. 변아와 회장에는 범자원문의 진언을 적었는데, 주로 불복장과 관련된 진언들이다. 이러한 진언은 이곳 외에도 안료가 박락되어 드러나 있는 초배지 곳곳에서도 확인 되므로, 바탕면 전체에도 복장과 관련된 다양한 진언들을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수화승 유성의 작품활동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1	삼장보살도	1755	견본채색	263.5x136.5	*은양민속박물관 소장 *3폭 중 지지보살 화기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琬, 彩淨, 義典, 曄雲, 普寬, 性贊, 卓悟, 若鵬, 致行, 旺玄, 太日
2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	1755	견본채색	466x522	首頭 任閑 畫員 處一, 性淸, 性澄, 鵬演, 就愚, 萬澄, 有性, 宇察, 最琬, 彩淨, 抱寬, 義全, 秀雲, 性贊, 卓悟, 致行, 若鵬, 國玄, 泰一
3	구미 대둔사 아미타여래도	1761	마본채색	299x281	畫師 處一, 有性, 采性, 知悅, 守衍
4	안동 봉정사 영산암 환성당지안진영도	1766	견본채색	120x83	良工 有誠
5	안동 봉정사 영산암 포월당초민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3.5x75.5	良工 有誠
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설봉당사육진영도	1766	견본채색	105x76	良工 有誠
7	안동 봉정사 영산암 청허당진영도	1768	견본채색	105x73.5	良工 有誠
8	경주 불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및 사천 왕벽화	1769	견본채색	498x447	*보물 제1797호 *塗金良工 尙淨, 碩岑, 淸益, 宇學, 抱寬, 德仁, 定安, 脫閨, 藏榮, 報恩, 圓敏, 最善, 桂觀, 慕欣, 有誠 *都畫師 智瞻, 次全, 幼禪, 哲印, 富一, 大演, 有祥,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9	안동 모운사 지장도	1770	견본채색	144x142	*경북 문화재자료 제4222호 *良工 有誠, 天性, 若朋, 有祥, 錦仁, 宇兼
10	예천 서약사 석가여래도	1770	마본채색	123x172	*경북 유형문화재 제380호 *金魚 富日, 有誠, 慧又, 快宗
11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	마본채색	921x553	*보물 제1264호 *畫師 有誠, 有倅, 性聰, 報恩, 尙欽, 富一, 守仁, 信日, 法筌, 錦仁, 義玄, 快宗
12	통도사 응진전 석가여래도	1775	견본채색	285x313	*良工 定聰, 有誠, 定坦, 富一, 守仁, 坦悟, 色一
13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1775	견본채색	233.5x151	*비람강생상 *良工 抱冠, 有誠
14	은혜사 기기암 신중도	1777	견본채색	124.3x121	*良工 有誠, 萬湜
15	하동 쌍계사 삼세불도	1781	견본채색	495x314.5	*석가여래도, 보물 제1364호 *施主 維性
16	하동 쌍계사 삼장보살도	1781	견본채색	197x363	*경남 유형 제384호 *金魚 勝允, 萬輝, 泓源, 智淳 *片手 平三, 端誨, 勝文, 咸湜, 國演, 維性, 出定, 國仁, 普信, 極贊, 察森, 斗贊, 巨奉, 戒卓, 月賢
17	구인사박물관 아미타여래도	1786	견본채색	215x240	*충북유형문화재 제210호 *畫師 評三 *片手 察敏, 惟性, 極贊, 幻永, 友心, 永○, 快性, 性○, ○○
18	수도사 감로도	1786	견본채색	189x204	*경남 유형 제418호, 통도사성보박물관 *畫師 平三, 有性, 性允 *片手 察敏, 極贊, 幻永, 友心, 快性, 影輝, 永宗

no	작품명	시대	재질	크기(cm)	비고
19	보경사 팔상도	18c			*설산수도상 *良工 聖明, 抱冠, 定聰, 壬坪, 有聖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에 쓰인 眞言의 위치와 내용>

번호	진언 명
1	출실지
2	육자대명왕진언
3	준제구자
4	비밀실지
5	입실지
6	항마진언
7	진심종자

번호	진언 명
8	열금강왕여래
9	람
10	발절라수진언
11	합장수진언
12	열금강왕여래
13	람
14	흙

<書記>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¹⁰²⁾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¹⁰³⁾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字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 ¹⁰⁴⁾ 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崑
大善	泰堅
曇裕	大善

102) '德'의 속자

103) '嚴'의 이체자

104) 글자가 탈락되었으나 '德'자가 기록되었음

宗悅 ¹⁰⁵⁾	曇裕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 ¹⁰⁶⁾	信贊
道鑑	施主兼 ¹⁰⁷⁾ 本寺秩
日嘗	文習
漢柱	太日
宠 ¹⁰⁸⁾ 曄	大悅
寬演	法蘭
腹藏 ¹⁰⁹⁾ 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丕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龔山堂斟基	道監
性月堂希倫	道寬
沖虛堂肯冊	亘三
南岳堂映晤	宗嘗
括虛堂擲 ¹¹⁰⁾ 如	海宗
如應堂就成	漢日
白華堂呂恢	普閑
秉法	緇悅
詠虛堂析誠	緇俊
持殿	宠曄
青岳堂大仁	碧楚
海機	元察

105) '悅'의 속자

106) '閑'의 이체자

107) '兼'의 이체자

108) '寵'의 이체자

109) '藏'의 이체자

110) '取'의 오기로 보임

誦呪秩	宠贅
道仁	善忍
快有	道令
棹綆	卓連
誠旻	雪淨
佳玉	唯察
天 ¹¹¹⁾	頓機
德俊	頓珠
位成	快察
道寬	尊信
體普	體行
解源	平淳
自詢	體玉
瑞希	快淨
尊輝	景弘
戒欽	快日
月珠	煥希
明悟	漢奎
印鑑	漢已
敬源	先察
處 ¹¹²⁾ 寬	平益
澗寬	萬澄
華希	景澄
豐演	煥信
龍眠秩	煥宇
繪首有誠	好信
會萬	取淑
聖朋	直敏
守密	達令
有晴	希俊
玆性	道輝
富一	法淳

111) '定'의 약자

112) '處'와 같은 자

永印	幻愚
信一	漢佑
靜坦	快信
觀淨	性天
竺涵	普日
守仁	等祐
竺軒	萬天
幻悟	普弘
道俊	萬贊
瑞弘	快淳
普仁	萬曄
色閏	普哲
喚鳳	景修
若禪	景有
德弘	平吾
戒印	快淨
供養 ¹¹³⁾ 主	普寬
如學	卓允
學岑	普雲
智鑑	俊益 ¹¹⁴⁾
良贊	法藏
法心	德行
瑞榮	大行
得念	取三
朋仁	守閑
寬坦	俊元
再雲	俊令
有眼	萬輝
致弘	
好澄	
萬訓	
鍾頭秩	

113) '養'의 속자

114) '益'의 약자

普閑
智擘
璟雲
平日
快念
喚攝¹¹⁵⁾
淨桶秩
覺淳
朗日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崑
都鑑秩
省學
希伯
化士秩
宗念
時仁

□

○ 현 상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 입상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협시보살과 사천왕 등 권속들을 양 옆에 배치한 구성이다. 목제의 상하축에 범자(梵字)를 포함한 그림 장황으로 되어 있으며, 낙영과 유소가 남아 있다. 화면 전체적으로 주존의 광배 등 녹청 부분이 심하게 박락되어 바탕천이 드러나 있으며, 상하축의 연결부분 역시 손상이 심하다. 또한 수해(水害)의 흔적이 확연하다. 드러난 바탕천에 붉은 색으로 쓴 다라니가 보인다.

화면 하단에 화기가 잘 남아있어 조성인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76년에 수화승 유성이 화승들을 이끌고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채색층과 배접층의 분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안료탈락과 화면이 분리되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 주존을 비롯한 각 존상들은 잘 남아있는 편이고 채색의 변색도 거의 없어 시급히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115) '攝'의 약자

수 있겠다.

○ 내용 및 특징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장황까지 포함하여 11미터가 넘는 대형 의식용 불화로, 주존은 우견편단에 오른팔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결하였다. 육계가 높이 솟아있으며 둥근 정상계주와 반달형의 중간계주를 갖추고 있다. 정상계주에서 피어오른 서기(瑞氣)에는 지권인을 한 좌상의 비로자나불을 표현하였고 그 양쪽에 타방불들을 배치하였다. 양옆에는 협시보살과 사천왕, 아난·가섭, 용왕 등이 자리하였다.

화기에 ‘小靈山一位’를 조성했다고 하여 주존이 석가모니임을 확실히하고 있다. 화기에는 이밖에도 제작연도(건륭 41년, 1776년)와 주요한 시주자였던 승려들, 제작자 등 불화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인원들을 기록하였다. 이 중 실제로 괘불을 제작한 이들은 총 23명의 화승으로, 18세기의 실력있는 화승인 유성(有誠)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유성은 1776년 이 괘불을 제작하기 4년 전인 1772년에 충남 개심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제1264호)를 제작할 때 역시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는데, 두 작품의 주존인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석가모니의 건장하게 드러난 어깨와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와 원만한 상호, 그리고 수인 및 복식은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을 확인시켜준다.

상주 남장사 <괘불도>는 안정된 밑그림 뿐 아니라 필선과 채색 등 세부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당시 화승 집단과 수화승 유성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불보살의 상호나 육신의 윤곽선은 강직하고 탄력있는 선으로 표현하였고, 사천왕은 그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수(肥瘦)가 있는 활력넘치는 선으로 호방한 상호와 윤곽선을 능숙하게 그려 제작자의 필력을 가늠하게 한다. 색조합이나 세부 문양들도 매우 아름다워 현전하는 괘불들 중에서도 단연 수작이라 할 수 있다.

1788년의 남장사 불사(佛事)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에는 1788년에 새로운 괘불을 조성하게 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766년에 제작된 상주 남장사 <괘불도>가 제작한지 10여년이 되었을 때 기우제를 위한 의식에서 비에 젖는 사건으로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새로운 괘불을 제작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상주 남장사 <괘불도>에는 물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얼룩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광배의 녹청 등 녹청 부분의 안료는 거의 탈락되었으며, 군데군데 다른 안료들도 탈락된데다 화면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안료가 탈락한 바탕천에 붉은 색으로 쓴 다라니가 군데군데 확인된다. 또한 범자를 넣어 그림상황으로 마무리하

였는데, 장황 가운데 상하측과 이어지는 부분의 손상이 매우 심하다. 다행히 주존인 석가모니불과 주요존상들의 상호와 육신부는 훼손이 덜해 하루라도 시급히 보존처리를 실시해 더 이상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다.

○ 문헌자료

『佛事成功錄』

『남장사 영산회괘불탱 -대형불화정밀보고서 17』,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7
조수연, 「화승 有誠作 眞影의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6

□

1) 현황 및 특징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가섭과 아난존자, 용왕과 용녀, 사천왕을 대칭으로 배치한 불화이다. 석가모니불의 원형 두광 위에는 연화좌에 앉아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을 화불 형태로 표현하고 그 좌우에 각각 그리고 5위씩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합장한 자세의 시방불을 표현했다. 화면 중앙에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서있는 석가모니불은 적색 연꽃을 딛고 서서 왼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내렸다. 머리 형태는 테두리만 나발에 우뚝 솟은 육계와 반원형의 중간 계주, 원형의 정상 계주를 표현했다. 용수염이 표현된 용왕의 얼굴에서 18세기 신중도에 표현된 용왕 도상을 떠올릴 수 있고 사천왕의 수염표현 등에서 세밀하고 정치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사천왕은 향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탑을 든 북방천왕, 비파를 든 지국천왕, 칼을 든 증장천왕, 용을 쥐고 있는 광목천왕을 배치하였다. 서방광목천왕의 육색을 다른 사천왕들과 비교했을 때 어둡게 표현하고 있어 기존 불화들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존과 두 협시보살의 육색은 밝고 환하게 표현한 반면 제자, 용왕과 용녀 등의 육색표현에 차이를 두는 등 존격에 따라 육색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불화 전체에 변화감을 주고 있다.

불화 전체에 표현된 색은 채도가 높은 주홍계열의 붉은 색이 돋보이는데 이는 본존불의 광배를 비롯하여 초록색 안료가 사용된 부분의 탈락이 심한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면 하부를 제외한 3면 변아에는 모두 104자의 梵字가 원문 안에 쓰여져 있다. 범자는 석록과 백록으로 구분한 원문 안에 진사를 바탕으로 칠하고 상부에 22자, 좌우측에 각각 41자씩 나누어 썼다. 원문의 전체 지름은 12.8~13.5cm이다. 범자는 부분적으로 결실되거나 탈색된 글자가 많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분석 결과 14종류의 진언을 조상경 보다는 의식집을 모본으로 해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¹¹⁶⁾



(도19)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1776)

괘불도 구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채색층 바로 아래 바탕층에도 범자를 써서 기록해놓았다는 점이다.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는 초록의 채색층이 박락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본존과 두 보살, 두 사천왕의 광배 부분의 초록색이 탈락된 자리에 보이는데, 이 외에도 초록으로 칠해진 화면상단 중앙의 비로자나불의 두광 등에도 나타나 있어 변아 부분 뿐만 아니라 화면의 바탕면 전체에도 범자 진언을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6) 상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出悉地, 六字大明王眞言, 准提九字, 秘密悉地를 썼다. 좌측은 入悉地和 降魔眞言을 적었는데, 항마진언의 마지막에는 두 글자를 함께 기록했다. 우측은 위에서 아래로 眞心種子, 列金剛王如來 10位와 '람'자, 跋折羅手眞言, 合掌手眞言, 列金剛王如來 4위, '람'자, '흠'자를 차례로 썼다.



(도136) 채색층 아래 바탕면에 드러난 범자

괘불도 뒷면은 18폭의 삼베를 이어 배접을 하였고 화면 좌우에는 길이 67cm, 너비 21.3cm의 낙영이 부착되어 있고 화면의 향좌측에는 길이 115.5cm의 유소 1개가 매어져 있다. 1788년 조성된 남장사괘불도 조사 당시 복장낭이 어느 괘불도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1766년에 조성된 괘불도의 낙영 재질과 문양이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남장사에 보관된 복장낭은 1776년 영산회괘불도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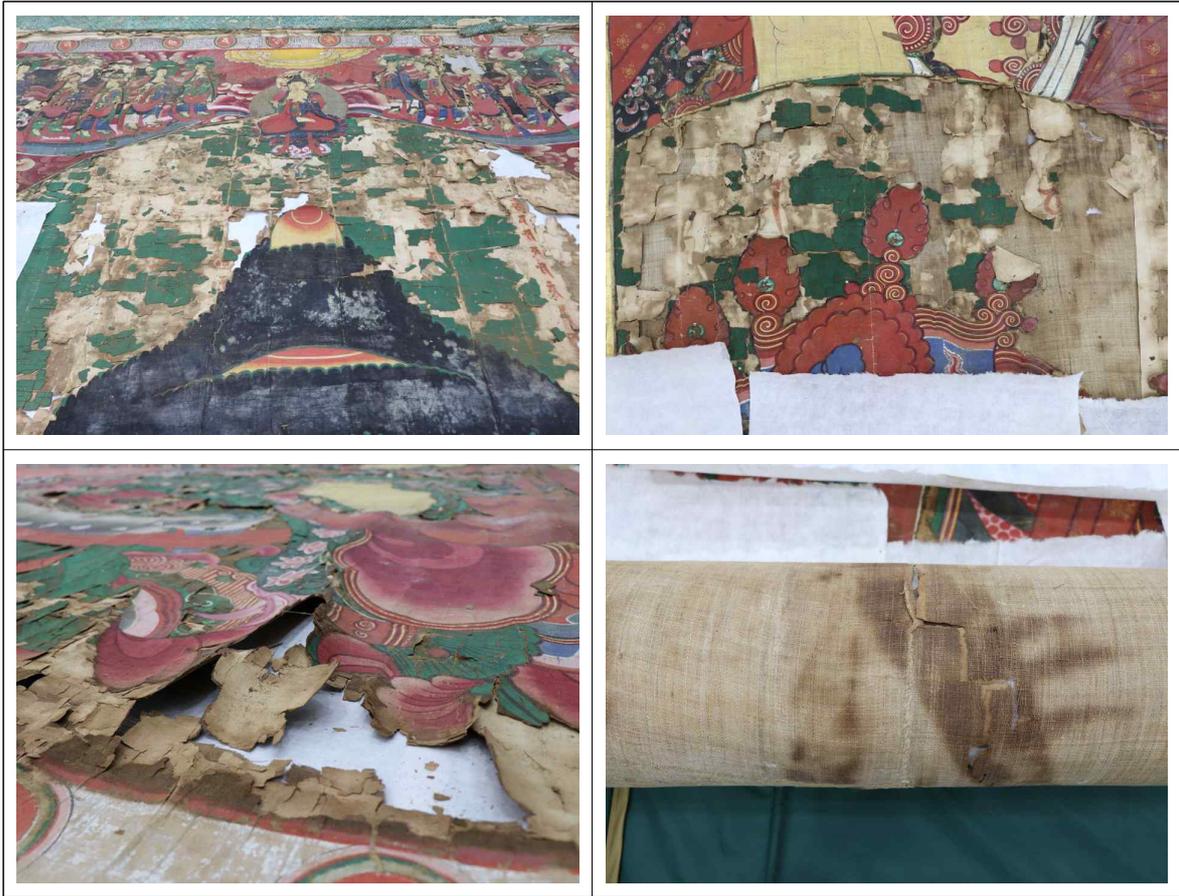


(도137) 남장사괘불도(1776)의 낙영, 유소, 복장낭

현재 괘불도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매우 심하다. 특히 초록색 안료의 박락으로 인한 화면 결실이 매우 심한데 석가모니불과 보살, 사천왕의 두광에서 두드러지며, 상부의 시방불과 비로자나불, 하부 사천왕의 갑주 등에서도 초록색 안료의 결실된 부분이 관찰된다. 이외에 상측 회장 부분도 가로로 결실되었다.

또한 바탕 마직물과 배접지는 열화 및 마모로 인해 부서지고 있으며, 조각난 화면 편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다. 이밖에 곰팡이 흔적과 변색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탈락과 박락이 심한편이나 다행인 것은 여래를 비롯

하여 주변 권속들의 상호 부분은 박락없이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138) 남장사괘불도(1776)의 손상 일부

2) 조성관련 특징

남장사괘불도는 건륭41년인 1776년에 제작된 불화이다. 1776년은 영조의 재위(1724~1776)가 끝나고 정조가 즉위한 해이다. 괘불도는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干戈息靜¹¹⁷⁾ 國泰民安’을 위해 1776년 10월 20일에 완성되었다. 제작에는 수화승 有誠을 중심으로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玆性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閨 喚鳳 若禪 德弘 戒印 등 20명이 넘는 화승들이 참여하였다.

현재 남장사에는 이 괘불도보다 12년 늦은 1788년에 제작된 또 다른 영산회괘불도가 전하는데, 1788년 불사를 완료하고 기록한 『佛事成功錄』에 1776년의 괘불도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117) 간과 : 창과 방패, 즉 전쟁, 식정 : 그치어 조용하게 되었다는 뜻

“중전의 괘불은 그려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랜 가뭄을 당해 성안으로 옮겨져 하늘에 비를 빌 때 덮개 막대 드리우는 것을 잊어버려 부처님의 몸이 비에 젖고 채색이 떨어져 주존과 그 밖의 불상들이 인간과 천상에서 우러르던 바 32상을 잃게 되어 참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던 모습이 남지 않게 되었으니, 절의 나이든 이나 젊은이들이 모두 애달파 한지 한 해가 지났다.118)



(도5)남장사영산회괘불도(1788)

위의 내용을 통해 1776년의 이 괘불도는 그려진지 10여년만인 약 1786년경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사찰이 아닌 성안으로 옮겨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비가 내렸는데 덮개를 씌우지 않아 비에 젖어 채색이 떨어졌고 큰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를 맞아 큰 손상을 입은 괘불을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寺中에서 새로이 불화를 제작할 때 훼손된 불화는 태우거나 매장을 하는데 이 경우는 훼손된 채 그대로 보관을 해왔다는 점에서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88년의 남장사영산회괘불도는 조선후기 대표 불화승인 尙謙의 주도하에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불화이다. 이 괘불도에는 4면의 변아에 梵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범자는 장황이 아닌 화면의 바탕 직물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괘불탱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1788년의 괘불도는 불사성공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한양)의 화사인 尙謙이 그렸다. 1776년 괘불도를 제작한지 12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고 이 때는 1776년 괘불도를 조성한 수화승 유성이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다시 제작에 나서지 않은 점이 의문이 남는다. 『佛事成功錄』의 연화질에 誦呪를 맡았던 승려중에 有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동

118) ...前掛佛畫來者 不過十餘載 而逢久旱 入城呼雨諸天 忘垂寶蓋之柳 全身蒙雨 彩像脫漏 主伴不具三十二相 人天所仰 固未存歸敬之糾 一寺老少 咸生悽愴者年矣 有老比丘省學 早寄於斯... (『佛事成功錄』 <南長寺掛佛新成聖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괘불탱』(2017), pp.174~179. 불사성공록 참조.

일인이라면 당시 다른 소임을 맡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776년 남장사괘불도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乾隆四拾壹年丙申々十月二十日
小靈山一位畫成于尙州露岳山南
長寺仍爲奉安仗此功德奉爲
干戈息靜
主上三殿下龍樓萬世
國泰民安

大施主秩	
白峯堂信嚴	
省學	幹事時僧統振樞
大允	首僧廣玉
宇淳	三綱三寶碩敏
鍊秋	掌務道占
守明	
良輝	山中老■秩
金性才	思運
姜貴世	致文
崔大甲	致軒
時坦	希伯
尙輝	省學
泰堅	宗豈
大善	泰堅
曇裕	大善
宗悅	曇裕
大悅	鍊秋
宇習	大允
尙雲	宗悅
普閑	信贊
道鑑	施主兼本寺秩
日豈	文習
漢柱	太日
宥曄	大悅
寬演	法蘭
腹藏金氏	怡現
腹藏宋氏	寬允
烏金 丕 夢	位策
金命吉	廣先
緣化秩	法善
證師秩	寬演
龔山堂對基	道監

性月堂希倫
沖虛堂肯冊
南岳堂暎晤
括虛堂擲如
如應堂就成
白華堂呂恢
秉法
詠虛堂析誠
持殿
青岳堂大仁
海機
誦呪秩
道仁
快有
棹綆
誠旻
佳玉
天芝
德俊
位成
道寬
體普
解源
自詢
瑞希
尊輝
戒欽
月珠
明悟
印鑑
敬源
處寬
澗寬
華希
豐演
龍眠秩
繪首有誠
會萬
聖朋
守密
有晴
玳性

道寬
亘三
宗嘗
海宗
漢日
普閑
緇悅
緇俊
宍曄
碧楚
元察
宍贅
善忍
道令
卓連
雪淨
唯察
頓機
頓珠
快察
尊信
體行
平淳
體玉
快淨
景弘
快日
煥希
漢奎
漢已
先察
平益
萬澄
景澄
煥信
煥宇
好信
取淑
直敏
達令
希俊
道輝

富一
永印
信一
靜坦
觀淨
竺涵
守仁
竺軒
幻悟
道俊
瑞弘
普仁
色閏
喚鳳
若禪
德弘
戒印
供養主
如學
學岑
智鑑
良貧
法心
瑞榮
得念
朋仁
寬坦
再雲
有眼
致弘
好澄
萬訓
鍾頭秩
普閑
智擘
璟雲
平日
快念
喚攝
淨桶秩
覺淳
朗日

法淳
幻愚
漢佑
快信
性天
普日
等祐
萬天
普弘
萬貧
快淳
萬擘
普哲
景修
景有
平吾
快淨
普寬
卓允
普雲
俊益
法藏
德行
大行
取三
守閑
俊元
俊令
萬輝

明松順和
別座秩
大允
日崙
都鑑秩
省學
希伯
化土秩
宗念
時仁

보완조사보고서



○ 현 상

복장낭은 상부의 홍색 덮개와 하부의 청색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5-6접 정도의 한지를 심지로 넣었다. 청색 주머니 하단 중앙에 색실 장식이 달려 있고, 홍색 덮개의 상단 중앙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 4개의 유소는 근래에 추가한 것이다. 복장낭의 겉면인 홍색과 청색의 천은 견직으로 보이며, 운보문으로 이루어졌다.(복장낭의 내부에 후령통과 지름 65미리의 유리,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가 분책되어져 납입되었다.: 『대형불화정밀조사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 괘불탱』, 2017)

복장낭의 상부 홍색 덮개에는 일괄로 보관 중인 동경을 걸었던 둥근 모양의 흔적이 확인하다. 복장낭의 앞면 중앙에는 세로로 상하 2자씩 총 4글자, 옴·아·흙·람의 금박으로 찍은 범자가 있다. 복장낭 뒷면은 하부의 청색 주머니 중앙부와 하부 2군데가 가로로 길게 헤어져 부분적으로 속의 한지가 드러나 보이므로 보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복장낭의 표면에는 누수 혹은 알 수 없는 원인의 오염과 변색 현상이 보이는데, 특히 뒷면의 변색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

후령통과 서적류, 유리가 납입된 복장낭은 동경과 함께 목제함에 보관되어 있으며, 목제함의 내부 바닥면 오른쪽에 세로로 목서가 기재되어 있어 이 보관함이 건륭48년인 1783년 5월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복장낭의 뒷면 하부 주머니 왼쪽 끝단에 세로로 ‘원침공덕원찰(願針功德元察)’이라고 금니로 적힌 내용과 상부 덮개 안쪽에 묵서로 쓰인 ‘작침원찰(作針元察)’의 내용으로 보아 복장낭의 제작자가 원찰이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복장낭에 납입된 개봉하지 않은 후령통은 종이로 감싸고, 주서가 적힌 띠지를 감아 봉했는데, 띠지 안쪽에 적은 묵서 ‘○燹基謹封’이라는 글씨가 드러나 보여 ‘두기’라는 승려가 봉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장사에는 1776년과 1788년에 제작된 2점의 괘불이 전하는데, 그 중 1776년의 괘불 화기에는 증사질(證師秩)에 7명이나 되는 승려가 기록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기재된 승려가 ‘농산당두기(龕山堂燹基)’이다. 1788년의 괘불 화기에는 ‘두기(燹基)’라는 승려가 없어 앞서 언급한 후령통을 봉인한 승려 ‘두기’가 1776년 제작 당시 증사로 참여한 큰 스님으로 추정된다. 또 복장낭의 겉면에 있는 금박의 유려한 범자의 글씨체 역시 1776년의 괘불도의 그림장황 부분에 쓰인 범자체와 유사성이 보인다. 따라서 1783년에 제작된 목제 보관함의 연대와 후령통의 봉인 기록, 1776년의 화기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남장사 복장유물 일괄은 1776년 제작 즈음 혹은 조금 지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788년의 괘불도 보다는 1776년 괘불도와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대형불화정밀조사보고서 17 남장사 영산회 괘불탱』(문화재청·사단법인 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사진]



□

○ 현상 및 특징

상주 남장사에는 1776년에 제작된 영산회괘불도(구본)와 1788년에 제작된 영산회괘불도(신본) 등 두 점의 괘불도와 복장낭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전하고 있다. 복장유물은 크게 복장낭과 그 속에 납입된 후령통, 동경, 목제보관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장낭(78×63cm)은 홍색 덮개와 청색 주머니, 부속 장식물로 이루어져 있다. 홍색

의 주머니 덮개는 그 위에 동경(지름37.7cm)을 올려 보관하여 해당 부분은 주변보다 색상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주머니와 덮개는 서로 다른 운보문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내부는 5~6겹 정도를 배접한 한지를 심지로 넣어 덮개와 주머니 양쪽 끝과 중앙을 바느질하여 연결하였다. 청색주머니의 뒷부분은 비단이 닳아 한지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군데군데 얼룩이 확인된다. 복장낭의 앞면에는 범어 음, 아, 흙, 람을 금박으로 찍었는데 일부는 표면이 박락되어 접착제의 검은색이 드러난 부분도 있다. 뒷면 주머니부분 좌측에는 ‘願針功德元察’을 금니로 적었다. 홍색 덮개 부분 안쪽 배접 한지면에는 ‘作針元察’이라는 글씨가 묵서로 적혀 있다.

복장낭에는 分冊된 『妙法蓮華經』,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候鈴筒, 지름 6.5cm의 유리가 들어 있었다. 분책된 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후령통(가로 22.2, 세로 15.1, 두께 9.2cm)은 개봉하지 않아 내부의 납입물을 알 수 없지만 두꺼운 종이로 감싸고 겉면에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朱書로 적은 띠지를 감아 봉하였다. 또한 겉면에 ‘南面’이라는 목서가 있으며, 띠지 안쪽 면에 ‘○晝基謹封’이라고 적은 목서가 비취 보인다.

銅鏡(지름 37.7cm)은 복장낭과 함께 괘불도에 달았던 것으로, 형태는 원형이다. 앞면은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사물이 비추어지게 했으며, 뒷면에는 外區와 內區를 구획하고 중앙에 꼭지(鈕)를 배치했다. 내구 안에는 81개의 화문과 6개의 단권單圈에 범자를 돈을새김 했다.

복장낭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목제함도 전하고 있는데 전체 크기는 폭 79.0×73.7cm, 높이 17.7cm, 두께 1.2cm이다. 현재 바탕은 옷칠로 마감되었으며, 덮개 안쪽 면에는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목서가 있어 1783년, 省學 振樞가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남장사 괘불도는 괘불의 복장유물을 안립한 복장주머니도 조성당시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고 있어 중요하다. 복장낭은 전체크기가 세로 67.4cm 가로 66.0cm로 산모양의 뚜껑과 타원형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낭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끈을 내어 걸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 쪽에는 비단색실로 만든 수술이 달려 있다. 바탕 재질은 견이며, 안쪽에는 종이로 뽀뽀하게 배접하여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복장낭의 앞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로 ‘옴·아·흠·람·“ 사방주를 네 글자를 금박으로 찍었다. 뒷면 좌측 끝에는 ‘願針功德元察“이라고 금니로 적었고, 윗부분의 안쪽에도 ‘作針元察’이라는 목서가 있어 元察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사성공록』에는 元察이 圓察로 나오지만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그는 1788년 불사매 化主 소임을 맡았다. 따라서 이 괘불 복장낭은 괘불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장낭에는 분책된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후령통, 유리편 등이 납입되었다. 분책된 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사각형으로 겉에는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적은 朱書 띠지를 감아 봉했다. 띠지 안쪽 면에는 ‘○旃基謹封이라고 적은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후령통의 표면에는 남면이라고 목서하여 정면을 표시하였다. 후령통의 크기는 세로 15.1cm, 가로 22.2cm, 두께 9.2cm이다.



그림 48 복장낭



그림 49 복장낭 명문1

그림 50 복장낭 명문2



그림 51 복장내 납입 복장유물

4. 복장낭 보관함



그림 49 복장낭 보관함



그림 50
복장낭 보
관함 명문

상자모양으로 여러 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각 면이 만나는 가장자리를 나무못과 국수형 거멸감자이로 잡고 네면은 모를 죽였다. 상자의 정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다. 전체 크기는 폭 79.0×73.7cm, 높이 17.7cm, 두께 1.2cm이다. 상자의 내부에는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목서가 있어 1783년이라는 제작시기와 省學 振樞라는 제작자를 알 수 있다.



그림 51 복장 동경

5. 동경

복장낭 앞 쪽에 매달았던 동경이다. 형태는 원형이며 앞면은 매끈하게 처리하였고, 뒷면은 꼭지 중심에 두고 내구와 외구로 구획하였다. 내구에는 81개의 화문과 6개의 범자원문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크기는 전체 지름 37.7cm, 두께는 0.61cm이다.

15.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가. 검토사항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에 의거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2.2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7.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건 3점
- 규 격 : ① 투구 : 총높이 15.6cm, 좌우 너비 28.4cm, 전후 너비 28.4cm
② 갑옷 : 전체 높이 40.6cm, 전동부 높이 34.7cm, 좌우너비 49.6cm, 전후 너비 26.5cm
- 재 질 : 철
- 형 식 : 투구와 어깨가리개, 판갑옷으로 구성된 무구(武具)
- 조성연대 : 5세기 후반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고령 지산동 32호 고분은 1978년 계명대박물관에서 발굴한 수혈식 석곽으로서 2019년 보물 제2018호로 지정된 금동관을 비롯하여 큰 고리칼 등이 공반 출토된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대가야를 다스린 지배층의 무덤이다. 석곽 내부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한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살구모양의 투구[충각부주]와 깃가리개 및 대금계판갑옷의 갑주 형식은 삼국시대 고분 중 처음으로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함께 출토된 유물에 의해 5-6세기 대가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와 같은 투구[충각부주]와 갑옷[대금계판갑]은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영남지역과 전라도 및 충청도지역에서 30여 점이 출토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발굴되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갑주는 일본에서는 600여 점이 출토되어 이 갑주를 비롯한 한반도 출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계갑주’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등 그 제작지에 대해서 한반도 제작설과 일본 제작설로 양분되는 등 학술적 논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갑주의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전 시기에 가야지역에서 제작된 종장판갑과 대금계판갑은 기술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출토 이후 현재 철제의 산화와 부식

이 계속 지속되어 보존상태가 심각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충각부주와 깃가리개 및 대금계판갑 등 갑옷 일괄은 한반도에서 발굴에 의해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에서 처음으로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나, 현재까지 제작지를 둘러싼 학술적 논쟁이 있고 가야를 대표하는 형식의 투구와 갑옷이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 1)이 갑옷일괄은 사적79호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32호분 주실에서 출토되었는데, 투구, 어깨가리개, 몸통갑옷이 일괄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 고분은 주실과 순장곽 1기로 이루어진 수혈식고분이다.
- 2)투구는 충각부주(衝角付冑)라 부르는 형태로 좁고 긴 철판을 아래위로 이어 붙이고 위에 주걱모양의 뚜껑을 덮어 모자모양을 만들었다. 앞이 뾰족하여 복숭아씨모양을 하고 있다. 뒤쪽에는 3매의 목가리개 철판이 부착되어 있다.
- 3)어깨가리개는 목이 닿는 부위의 면을 호선으로 재단한 후 가장자리를 구부려 세운 철판 2매를 가죽 끈으로 꿰매어 연결하였으나 현재는 2매가 따로 떨어져 있다.
- 4)갑옷몸통은 긴장방형 철판3매를 상하로 연결하여 못으로 고정시키고, 하단에는 지판보다 폭이 넓은 철판 3매를 못으로 고정된 도련판이 있다. 좌우판의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긴 철판을 못으로 고정된 쇠판이 있다. 몸통 뒤 상단은 둥근 형태이다.
- 5)규모는 투구의 높이 15.6cm, 앞뒤 너비 28.4cm, 좌우 너비 28.4cm, 갑옷의 전체 높이가 40.6cm. 앞섶 높이 34.7cm, 좌우너비 49.6cm, 전후 너비 26.5cm
- 6)이 갑옷의 특징은 복숭아씨 모양의 투구와 어깨가리개, 철판갑옷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로서, 대가야의 대표적인 철제 갑옷과 투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철의 보존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고, 전시를 위해 보존 처리 및 복원이 다수 진행된 상태이다. 한편, 제작지의 논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학계의 이견이 크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작품이라, 과연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철제 갑옷을 가야의 대표적인 보물로 지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은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써 무덤 구조는 수혈식석곽이다. 석곽 내부에서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며, 삼국시대 고분에서 충각부주·대금계관갑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주목받았다. 대금계관갑은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영남지역과 전라도·충청도지역, 그리고 일본열도에서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대금계관갑은 한반도에서는 30여 점 확인되었고, 일본열도에서는 600여점 출토된 걸로 추산된다. 충각부주와 대금계관갑의 제작지를 둘러싸고 한반도 제작설과 일본열도 제작설로 양분되어 있다. 한반도에서 확인된 대금계관갑은 한반도 각지에 분포하여 중심지가 존재하지 않고, 앞 시기의 종장관갑과 기술적·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일본열도에는 근기에 분포 중심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토 수량이 한반도의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현상들을 고려할 때 충각부주와 대금계관갑의 제작지는 일본열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충각부주와 대금계관갑 등 갑옷 일괄은 한반도에서 처음 확인된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출토된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작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고, 가야의 무장구를 대표하는 투구와 갑옷이 아니므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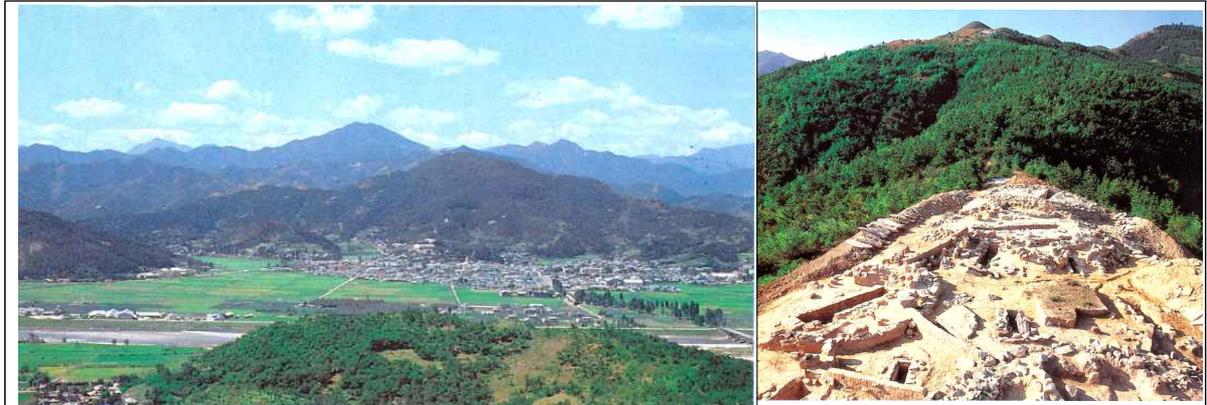
		
<p>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주, 정면</p>	<p>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주, 측면</p>	<p>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주, 뒷면</p>

○ 현 상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갑옷은 철로 제작했고 투구와 목가리개 및 갑옷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구는 폭이 좁고 긴 철판 4매를 위와 아래에 붙이고 그 위에 주걱모양의 철판으로 덮어, 살구모양으로 앞이 튀어나와 충각부주(衝角附冑) 형식이라는 불리고 좌우 양쪽에 횡대(橫帶)가 달려 있다. 갑옷의 경우 긴 띠 모양 [橫長] 철판을 연결한 횡장판갑(橫長板甲)의 형식으로서 목과 어깨를 보호하는 깃가리개[襟甲], 쇠골부터 가슴부위를 보호하는 쇠골가리개(鎖骨甲),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甲]로 구성되어, 횡장판갑의 형식 중 가장 완성된 구조를 보인다. 이중 깃가리개는 철판 3매로 목 부분을 보호하도록 넓은 철판을 구부려 부착하여 독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몸통을 이루는 갑옷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의 전동부와 등 뒤쪽의 후동부의 3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7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철판은 머리 폭이 10mm인 쇠못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고 있다. 개폐는 오른쪽 옆구리로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충각부주의 투구와 횡장판갑 형식의 갑옷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흔히 ‘왜계 갑옷[矮系甲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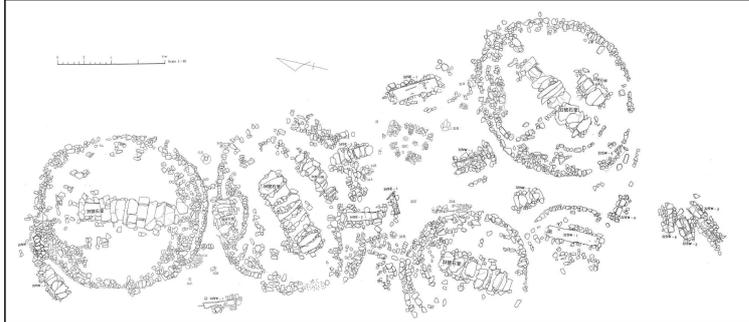
○ 출토 및 보존 현황

1978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고령 지산동 32호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고령 지산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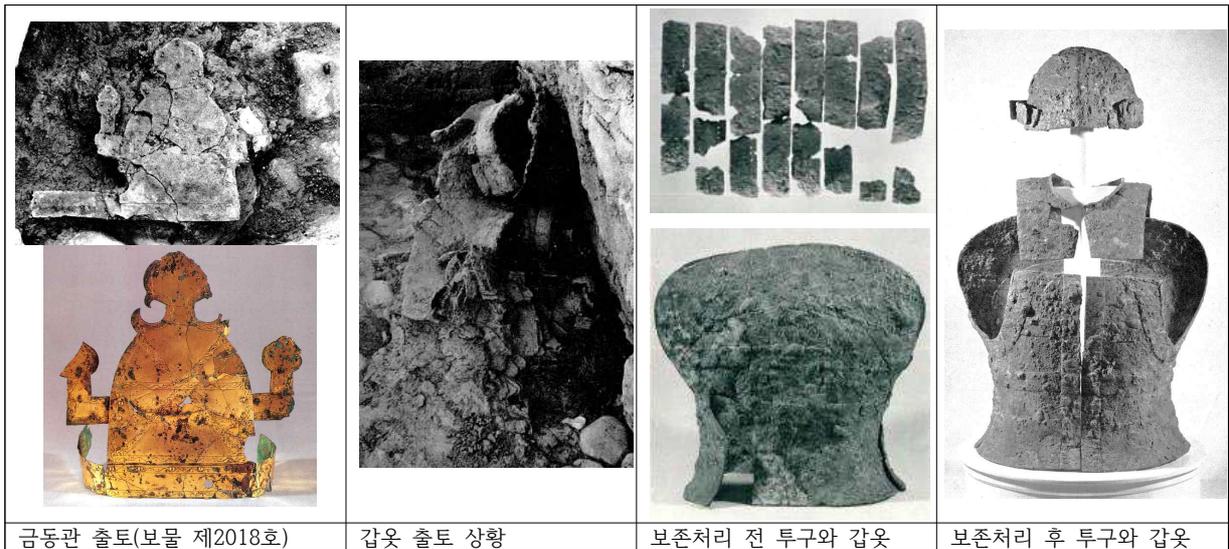
지산동 고분군 발굴 현장



지산동 32-35호분 및 주변 석곽 평면도



고령 지산동 32호분 발굴 현장



금동관 출토(보물 제2018호)

갑옷 출토 상황

보존처리 전 투구와 갑옷

보존처리 후 투구와 갑옷

이 고분은 할석으로 축조한 수혈식 석곽분이며 주곽과 순장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곽은 가늘고 긴 석실 바닥에는 자갈을 깔되 목관을 놓았고 목관 안에서 환두대도와 장도를 찬 주인공이 동북침으로 누웠으며 목관 밖에서는 궁시와 창 같은 무기들이, 머리 말에는 장경호와 그릇 받침을 비롯한 각종 토기와 함께 묘주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투구와 갑옷을 비롯한 각종 무구(武具)와 말갖춤[馬具] 및 금동관

(2019년 보물 제2018호로 지정)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유물에 의해 본 무덤은 5세기 후반에 이 지역, 대가야를 지배하던 계층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투구와 갑옷이 비교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출토 당시 철제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살구 모양의 충각 부주형 투구는 이마를 보호하는 복판의 끝부분은 파손 결실되어 있다. 횡장판갑형 갑옷 중 깃가리개와 몸판은 부분적으로 파손 결실되어 수지로 복원하였고, 몸판 중 후동부의 좌측 지판과 대금이 결실되어 수지로 복원되어 있다. 이처럼 출토 이후 보존처리 및 복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제 유물의 보존은 쉽지 않아 지속적으로 철의 산화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조사대상인 철제 유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밀폐된 유리장에 특수 가스를 넣어 보관 및 전시하고 상태이다. 이에 유물을 실측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꺼내서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는 투구와 어깨가리개 및 판갑옷 등 갑옷 일괄이 출토되었다.

우선 투구는 평면 형태가 살구모양으로 이마를 가리는 쪽이 살짝 튀어나왔다고 하여 ‘충각부주’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투구 중앙부의 위쪽에서 이마를 가리는 곳으로 밥 주걱모양의 철판[복판]이 있고, 그 아래와 옆으로 긴 철판을 2매를 돌린 후, 아래 위의 철판 사이에 또 다른 철판을 대고 못을 박아 연결하였다. 투구의 뒷부분, 즉 목을 가리기 위해 반원형의 철판 여러 매를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아래위로 유동성이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판형태가 삼각판, 세장방향 지판, 횡신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판을 가죽끈이나 못으로 연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각판철 충각부주, 삼각판병유 충각부주, 횡신판 충각부주가 있다.

이처럼 살구 모양에 투구 앞면이 튀어나오고 밥주걱모양의 복판이 있는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투구와 유사한 사례는 김해 죽곡리 94호분, 부산 연산동 M3호분, 함양 상백리 호생원, 신안 안좌도 배널리 3호분, 고흥 야막 고분, 부산 오륜대 고분에서 출토되거나 지표 수습된 바 있다. 이들 투구는 5세기에서 6세기 까지 대부분 판갑과 같이 출토되지만 가야지역에서는 단독으로 부장되는 경우도 있다.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이 많지만 최근에는 영산강 유역의 해안지방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일부도 확인된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어깨가리개



김해 죽곡릭 94호분 어깨가리개

마지막으로 판갑옷은 몸통의 뼈대인 철판을 횡장형으로 만든 3매의 지판을 상·중·하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좁고 긴 형태의 대판 2매를 대고 못을 박아 연결하였다. 판갑의 앞쪽 상단부에 ‘厂’자 모양의 철판인 진동판을 지판 위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판갑의 하단부에는 지판보다 폭이 넓은 철판 3매를 지판에 못으로 고정한다. 좌우의 진동부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긴 철판 1매를 못으로 고정한다. 후동부의 맨 위쪽을 이루는 압부판은 둥근 형태이다. 갑옷을 입고 벗을 때 여는 개폐장치는 우측 옆구리에 위치한다.

지산동 32호분 출토 판갑옷의 경우 지판의 형태가 횡장형으로서 횡장판대금계 판갑으로 불린다.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 횡장판판갑은 압부판이 둥근 형태이고, 전체 7단 구성이다. 철판을 연결 고정한 못의 머리 폭이 10mm로 크고, 사용된 못의 수가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가장 늦은 형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대금계판갑’은 고고학계에서는 ‘왜계(矮系)판갑’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 고유의 판갑 형식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근래에 고고학적 발굴로 이러한 종류의 판갑이 한반도에서도 비교적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학계의 해석이나 명칭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가야에서 많이 확인되나, 최근에는 영산강 유역의 해안 및 충청도에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 이와 같은 판갑옷이 발굴되어 이것을 일본 왜와의 교류에 의한 흔적으로 일본의 것이 수입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이것을 당시 대가야에서 제작할 가능성에 대한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고려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횡장판갑은 대금계판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형식이다. 따라서 지판의 형태나 구조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장방판갑과 삼각판갑에 보이는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형식의 것은 한반도에서는 총 9점이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합천 옥전 28호분, 음성 망이산성,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이 있다.

		
음성 말이산성	합천 옥전 28호분	울산 하삼정 115호분, 신라

횡장판갑은 연결한 못의 숫자와 못머리의 크기, 그리고 배치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못 머리의 크기가 커지고 지판과 지판을 연결하는 못의 숫자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출토 횡장판갑의 못 머리 크기는 대개 7~8mm이며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옷의 못머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10mm에 해당한다.

근래 한반도 각지의 여러 고분에서 이러한 대금계판갑이 한반도에서 낙동강 하류를 포함하여 서남해안 일대의 해안가 등 주로 해안지역에 분포한다. 이곳은 가야, 신라, 백제의 고지로 각국은 다양한 목적으로 왜와 접촉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교섭과 교류의 상징적인 유물로서 왜계갑주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과연 대금계갑주가 일본산인지, 왜계갑주라는 명칭 등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박물관(1981), 『高靈 池山洞古墳群-32~35號墳·周邊石槨墓-』
국립김해박물관(2015), 『갑주, 전사의 상징』
김혁중(2011), 「한반도 출토 왜계(矮系 甲冑)의 분포와 의미」, 『중앙고고연구』 제8호. 계통
장경숙(2007), 「외래계 갑옷과 투구(外來系 甲冑)」, 『4-6세기 가야,신라고분출토의 외래계 문물』. 제6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홍보식(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기원후 3-6세기 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4.

○ 기 타

고령 지산동 32호분 투구·깃가리개[襟甲]·관갑옷 등의 갑옷 일괄은 1978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명대박물관에서 발굴한 고령 지산동고분군 중에서 출토되었고, 국립대구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됨



○ 현 상

투구(충각부주)는 좁고 긴 철판을 아래위로 이어 붙이고 위에 주걱모양의 뚜껑을 덮어 모자모양을 만들었다. 앞이 뾰족하여 복숭아씨 모양을 하고 있다. 뒤쪽에는 3매의 목가리개 철판이 부착되어 있다. 어깨가리개는 부분적으로 파손 결실되어 복원되었다. 갑옷은 오른쪽 옆구리가 트여있어 입고 벗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갑옷 몸통의 일부는 복원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이 갑옷 일괄은 고령 지산동 32호분 주곽에서 이미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과 함께 출토되었다. 갑옷 철판이 아래에 투구가 위에 겹쳐져 출토되었다. 투구의 뒷부분, 즉 목을 가리기 위해 반원형의 철판 여러 매를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아래위로 유동성이 있도록 만들었다. 어깨가리개는 목이 닿는 부위의 면을 호선으로 재단한 후 가장자리를 구부려 세운 철판 2매를 가죽 끈으로 꿰매어 연결하였다. 갑옷몸통은 장방형철판을 쇠못으로 연결하였고, 좌우의 전동부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긴 철판 1매를 못으로 고정한 쇠 판이 있다. 몸통 뒤 상단은 둥근 형태이다.

○ 문헌자료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高靈 池山洞古墳群-32~35號墳·周邊石槨墓-』

□



도 1.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옷 일괄. 앞면.



도 2. 지산동 32호분 출토 갑옷 일괄. 뒷면.

○ 형 식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철제 갑옷과 투구는 일본 열도에서 크게 유행한 왜계 갑옷으로 알려진 형식이다. 투구는 투구의 평면 형태가 살구 모양이며, 투구의 앞부분이 삐죽하게 튀어나온 형태를 가진 충각부주(衝角附冑) 형식으로, 좌우 양측에 횡대가 달린 점이 특징이다. 갑옷은 대금계 판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횡장판갑(橫長板甲) 형식으로, 긴 띠 모양의 횡장 철판을 연결해서 만든 것이다. 대금계 판갑 중에서 가장 완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뒷부분의 위쪽 횡장 철판이 크고 완만한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도 1, 2). 또한 목과 어깨를 보호하는 짧은 가리개가 넓은 철판을 구부려서 만든 것도 독특한 예에 해당한다. 대체로 이러한 충각부주와 횡장판갑 형식의 갑옷들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형식에 해당한다. 지산동 32호분 출토품과 같은 횡장판갑은 현재 국내에서 9점이 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지산동 32호분은 판갑을 연결한 못머리가 가장 큰 10mm 크기에 해당해서,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조성연대

갑옷이 출토된 고령 지산동 32호분의 축조 시기를 고려해 볼 때, 대가야시대 5세

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현 상

1978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고령 지산동 32호분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할석으로 축조한 수혈식 석곽분으로, 주곽과 순장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갑옷은 주곽 내에서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에는 철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갑옷으로 알려졌지만, 출토된 이후로 철이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존이 까다롭고 매년 방식을 위한 보존처리가 시행되고 있다. 전시를 위해서 복원된 상태이지만, 철제품이라는 특성 상 그다지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특수 가스를 넣어서 밀폐시키 유리장에 넣어서 보관 및 전시하고 있으므로, 꺼내거나 운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가야의 철제 갑옷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완호한 상태로 출토된 대표적인 철제 갑옷으로, 대가야계 갑옷을 대표하는 갑옷이다. 그러나, 유사한 형식의 갑옷들이 일본 열도 내에서 다수 출토 및 연구되면서, 왜계 갑옷으로 알려져왔기 때문에 제작지와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특히 일본 학계에서는 왜계 갑옷의 가야 고분 출토에 대해서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갑옷들을 왜계 갑옷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 제작하여 대가야에 하사(혹은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대가야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형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체로 가야 고고학 전공자들은 일본 수입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국적 및 해석 문제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갑옷을 대가야의 대표적인 갑옷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가야 문화를 대표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문헌자료

김종철, 1981, 『고령 지산동고분군 32-35호분 · 주변석곽묘』, 계명대학교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015,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대가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국립김해박물관.

□

○ 현 상

투구는 4매의 폭이 좁고 긴 철판을 아래위로 붙이고, 그 위에 주걱모양의 복판을

닿았다. 이마를 보호하는 복판의 끝부분이 파손 결실되었다. 3매의 목가리개 철판이 수착되어 있다. 어깨가리개는 목을 보호하는 금갑(襟甲)과 쇠골부위를 보호하는 쇠골갑(鎖骨甲), 팔을 보호하는 견갑(肩甲)으로 구성되었다. 금갑과 쇠골갑은 부분적으로 파손 결실되어 수지 복원되었다. 판갑은 좌·우 전동부와 후동부의 3부분이고, 7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각 철판은 머리 폭이 10mm인 쇠못으로 연결 고정하였다. 개폐는 우측 옆구리로 하였다. 후동부의 좌측 지판과 대금이 결실되었고, 수지로 복원되었다.



사진 1.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 투구 어깨가리개, 판갑의 앞면과 측면, 뒷면 모습



사진 2. 복원하기 전의 판갑 모습



사진 3. 충각부주 목가리개 지판

○ 내용 및 특징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투구·어깨가리개[견갑]·관갑옷 등 갑옷 일괄이 출토되었다. 투구는 평면 형태가 살구모양으로 이마를 가리는 쪽이 튀어나왔다. 투구 중앙부의 위쪽에서 이마를 가리는 곳으로 밥 주걱모양의 철판[복판]이 있고, 그 아래와 옆으로 긴 철판을 2매를 돌린 후, 아래 위의 철판 사이에 또 다른 철판을 대고 못을 박아 연결하였다. 투구의 뒷부분, 즉 목을 가리기 위해 반원형의 철판 여러 매를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아래위로 유동성이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투구를 충각부주(衝角付冑)라 한다.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에서 출토한 유사한 충각부주의 사례는 김해 죽곡리 94호, 부산 연산동 M3호, 오륜대, 함양 상백리 호생원, 신안 안좌도 배널리 3호, 고흥 야막 등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어깨가리개는 어깨와 쇄골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목이 닿는 부위의 면을 호선으로 재단한 후 가장자리를 구부려 세운 철판 2매를 가죽끈으로 꿰매고, 목이 닿는 반대측에는 팔을 보호하기 위해 'C'자 모양 철판 6~7매를 가죽끈을 이용해 아래위로 연결하였다.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품과 같은 사례로는 김해 죽곡리 94호, 거제 장목, 부산 북천동 2호, 112호, 고흥 길두리 안동 등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위의 무덤들에서 출토한 어깨가리개는 일본의 특징적인 갑옷인 대금계판갑 혹은 비늘갑옷의 부속구로 알려져 있다.

관갑옷은 몸통의 뼈대인 철판을 횡장형으로 만든 3매의 지판을 상·중·하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 좁고 긴 형태의 대판 2매를 대고 못을 박아 연결하였다. 관갑의 앞쪽 상단부에 'ㄱ'자 모양의 철판인 진동판을 지판 위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관갑의 하단부에는 지판보다 폭이 넓은 철판 3매를 지판에 못으로 고정한 도련판이 있다. 좌우의 전동부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긴 철판 1매를 못으로 고정한 쏘판이 있다. 후동부의 맨 위쪽을 이루는 압부판은 둥근 형태이다. 갑옷을 입고 벗을 때 여는 개폐장치는 우측 옆구리에 위치한다.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 관갑은 지판의 형태가 횡장형으로서 횡장판대금계판갑으로 불린다. 지산동 32호 무덤 출토 횡장판관갑은 압부판이 둥근 형태이고, 전체 7단 구성이다. 철판을 연결 고정한 못의 머리 폭이 10mm로 크고, 사용된 못의 수가 적은 점 등을 근거로 가장 늦은 형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 문헌자료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高靈 池山洞古墳群-32~35號墳·周邊石槨墓-』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 기 타

고령 지산동 32호분 투구·어깨가리개[견갑]·관갑옷 등 갑옷 일괄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조사(1978. 8~10)에서 출토되었고, 국립대구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문화재임

16.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 (金海 大成洞 二號墳 出土 鐵製甲冑)

가. 검토사항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에 의거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8.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金海 大成洞 二號墳 出土 鐵製甲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전체 높이 66.0cm, 좌우 너비 40.0cm, 전후 너비 31.0cm
- 재 질 : 철
- 형 식 : 종장판갑의 무구(武具)
- 조성연대 : 4세기 후반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갑옷(앞면과 뒷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 1) 대성동고분군은 3-4세기 금관가야 최고 지배층의 공동묘역이다. 2호분은 대형 목곽묘로서 대성동 고분군 내에서 위계가 높은 무덤이다. 목곽 내부 서벽에 접한 지점에서 철제 종장판 판갑이 1점 출토되었다.
- 2) 이 갑옷은 출토지가 분명하며, 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에 부장되었으며, 가야 고유의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 3) 그러나 장시간 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 부식이 진행되어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보존 처리된 현재의 모습이 원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수복된 부분이 많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결점이다. 아울러 갑옷의 일부(목가리개, 측경판 등)가 누락된 상태이며 세트를 이루었을 투구가 없는 점 등도 결점이다.
- 4) 역사적 가치, 제작기술의 수준이 높음과 장식성 등에서 중요한 유물이지만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 갑옷은 4세기의 가야 갑옷의 제작기술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국가 성립기 가야를 둘러싼 싸움에 대비한 금관가야 지배세력들의 존재모습을 유추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비록 부식이

심하고 측경판, 투구, 목가리개 등 1벌을 갖추지 않은 편이지만, 발굴 당시에는 상태가 좋아 가야 지역의 전형적인 종장판갑 형식의 갑옷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편이었다. 가슴 앞판에 고사리문양과 목 뒤쪽에 두 마리의 새가 맞닿은 독특한 형태의 철제 문양판이 장식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독특한 토속 신앙인 조령신앙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어 조형적 가치도 있다.

이처럼 이 철제 갑옷은 대성동 2호분이라는 발굴경위가 확실하고 출토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앞판에 고사리문양과 뒷판의 목가리개 쪽에 새머리가 장식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부식이 심하여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결실 부위를 복원 수리한 것이 많다는 흠결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갑옷은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 2호분 목곽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 2) 이 갑옷은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옷이며, 뒷판위에 목뒤를 가리는 경갑을 못으로 고정된 특징이 있는 갑옷이다. 그러나 파손이 너무 심하고 대부분 복원된 것으로 원형을 찾기 어렵다.
- 3) 갑옷 앞판의 좌우에 고사리문양이 있고, 뒷판에는 새 머리가 서로를 등지는 모양의 철판을 붙였다.
- 4) 갑옷의 규모는 전체 높이 66.0cm. 좌우 너비 40.0cm. 전후 너비 31.0cm이다.
- 5) 이 갑옷은 앞판에 고사리문양이 장식되었으며, 목가리개가 갑옷 뒷판의 상단에 고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새머리가 장식되는 특징이 있으나, 부식이 심하고 결실 부분이 많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 갑옷으로, 가야 지역의 전형적인 종장판갑 형식의 갑옷이다. 목 뒤쪽에 두 마리의 새가 맞닿은 독특한 형태의 철제 문양판이 장식되어 있어서, 금관가야 지역의 독특한 토속 신앙인 조령신앙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유명한 작품으로서,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복원 수리가 많이 된 상태이므로, 보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갑옷은 4세기의 가야 갑옷의 제작기술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국가 성립기 가야를 둘러싼 싸움에 대비한 지배세

력들의 존재모습을 유추할 수 자료이지만,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측경판, 투구, 목가리개 등 1벌을 갖추지 않고, 또 유사한 자료가 상당 수 확보되어 있는 등 그 희소성이 낮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현 상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옷과 목뒤를 가리는 경갑이 갑옷에 고정되어 있다. 갑옷 앞판의 좌우에 고사리문양이 있고, 뒤판에는 새 머리가 서로를 등지는 모양의 철판을 붙였다.

○ 내용 및 특징

금관가야의 왕족 묘역인 김해 대성동 2호분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인근의 가야의 숲 유적에서 목관묘가 발전하다가 대성동 구릉으로 묘역이 이동하면서 목곽묘로 발전하게 되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왕족과 최고 귀족이 매장된 대형 목곽묘로 발전하게 된다. 2호묘는 구릉의 동쪽 최정상부에 위치하며 4세기 대에 축조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850cm, 너비 480cm, 깊이 184cm 이상으로 대형이다. 묘광의 바닥에는 판석을 전면에 깔아서 시상으로 삼았으며 그 위에서 확인되는 목곽은 길이 570cm, 너비 330cm 정도이다. 심한 도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장품이 확인되었는데 서쪽 단벽에 접하여 철제 갑주가 출토되었다. 이 갑옷은 종장판 판갑에 속한다. 횡장판이나 삼각판이 아닌 종장판으로 구성된 점, 가죽끈이 아닌 리벳으로 결합된 점 등은 왜계 갑옷과 다른 가야 갑주문화의 고유한 특징이다. 앞부분에는 고사리 모양, 목 뒷 부분에는 새 1쌍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얇은 철판을 덧붙임으로써 표현하였다.

○ 문헌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한국고고학전문사진 -고분편-』
慶星大學校博物館, 2010 『金海 大成洞古墳群』 IV.

○ 사진



□

○ 현 상

김해 대성동 2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은 철판을 두드려 만든 종장판갑 형식의 갑옷이다. 총 지판의 수는 13매로 우전동부 4매, 좌전동부 4매, 후동부 5매로 구성되어 있다. 철판은 뒷길판, 진동판, 도련판, 목 뒤쪽판[後頸板]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깨에는 측경판을 꽂기 위한 홈은 표시되어 있으나 측경판은 없다. 가슴 앞 부분에 해당되는 좌·우 전동부의 양쪽에는 고사리문양이 장식되어 있고, 목 뒤쪽판 뒷면에는 2마리의 새가 서로를 등지고 맞대어 있는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판갑을 이루는 철판들은 쇠못으로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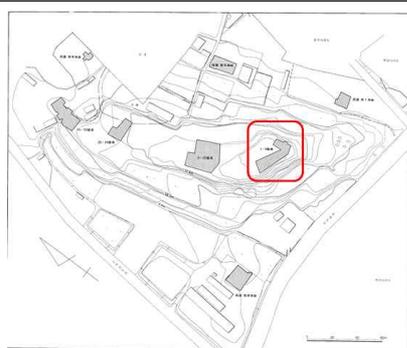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판갑 앞면과 뒷면

○ 출토 현황 및 보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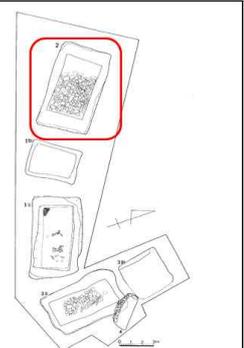
1990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 대한 1차 발굴조사를 했다. 이 때 김해 대성동 2호분은 구릉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다른 분묘들은 중복되는데 비해,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다. 바닥은 할석 위에 목곽을 놓았고, 목관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흔적에 의해 길이 570cm, 너비 330cm 였다. 유물의 부장품은 도굴의 피해를 입어 원형을 잃었으나, 서쪽 단벽에서 철제 갑옷류가 출토되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현황



김해 대성동 고분군 1-4호 배치현황



대성동 2호분 위치



김해 대성동 2호분 발굴 조사 당시 목곽분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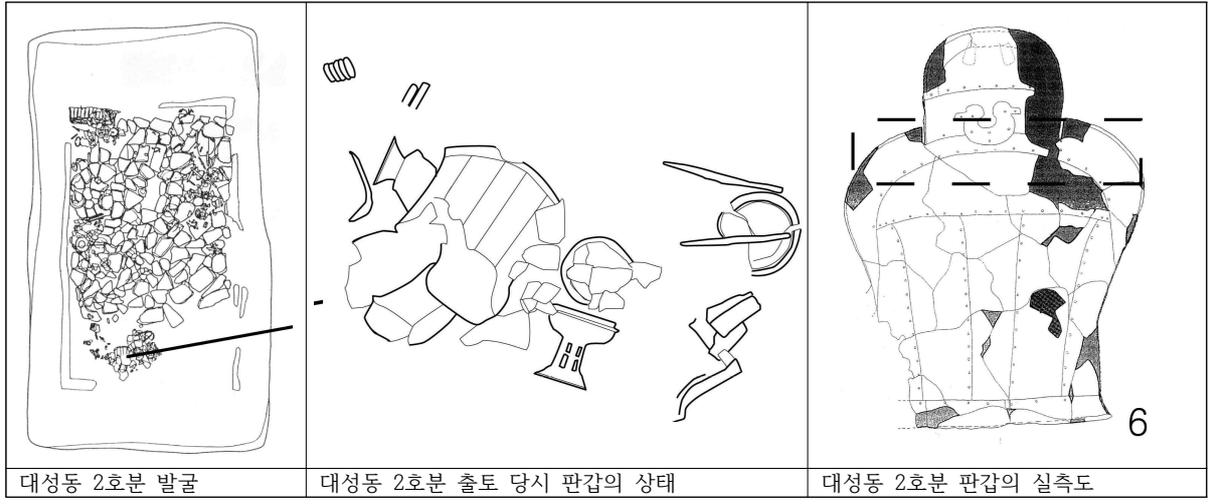
김해 대성동 2호분 판갑의 출토상태

대성동 2호분 목곽 내부에서는 철제 갑옷이 출토되었는데, 당시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 중에서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이었다. 현재는 복원 수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예컨대 우전동부는 결실이 많이 되었고, 수지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형태 자체가 찌그러진 상태로 복원이 되어 매우 약하고 형태도 다소 완전하지 못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된 금관가야시대를 대표하는 철제 갑옷이다. 이 갑옷은 세로로 긴 철판 매를 옆으로 철판 끝을 중첩시켜 못으로 고정하였고, 가슴 앞쪽의 전동부 위쪽에는 고사리문양의 철판인 진동판을 못으로 고정한 종장판갑이다.



후동부에는 호선 모양의 뒷길판을 못으로 고정하였다. 후동부의 뒷길판 위쪽에는 ‘∩’모양의 철판을 못으로 고정하여 목을 보호하는 후경판(後頸板)을 달았다. 이 뒷 목가리개 판의 뒷면 아래쪽에는 새 머리 모양을 하고 서로를 등지는 형태의 모습을 철판으로 오려 붙여 장식하였다. 가야 유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새 문양이 종종 출토되고 있다. 이렇게 쇠갑옷[鐵甲]에 새를 장식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병진조에 보면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큰

새의 깃털로 장사지내는데, 그 뜻은 죽은 자가 날아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야의 조령신앙(鳥靈信仰)으로 알려진 토속 신앙과 이 갑옷이 관계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김해 대성동 2호분이나 부산 북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된 종장관갑의 새는 각각 고대판과 진동판 사이, 깃판의 뒤쪽에서 확인된다. 수많은 무늬 중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선사시대 이래로 끝을 알 수 없는 하늘과 그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알 수 없는 동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령신앙이라 불리는 토속신앙에서 비롯된 관념으로 풍요를 상징하고 조상을 대변하는, 때로는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운반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새에게 부여하여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믿음은 농경의례와 맞물려 재생, 부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새무늬 외에도 고사리무늬 또는 소용돌이무늬라고도 부르는 장식이 있는데, 깃판, 진동판이나 동체부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고사리무늬는 깃판의 뒤쪽에 부착되거나 전후동 지판의 위쪽에 부착되는 차이를 보여준다.

a	b	c	d	
✳	<p>북천동 86호B</p>	<p>대성동 2호</p>	<p>북천동 10호</p>	

	<table border="1"> <tr> <td>축경판 장식</td> <td>동체부 장식</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복천동 69호 복천동 86호 양동리 167호 </td> <td> 대성동 2호 </td> </tr> </table>	축경판 장식	동체부 장식			복천동 69호 복천동 86호 양동리 167호	대성동 2호
	축경판 장식	동체부 장식					
복천동 69호 복천동 86호 양동리 167호	대성동 2호						
진동판의 형태와 문양 : a-진동판 없는 것. b-진동판에 문양 없는 것 c-전동 부에 문양 있는 것 d-후동부에 문양 있는 것	종장판갑에 나타나는 장식문양(김혁 중, 2008)						

고사리무늬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 외에 전세계적으로 원시문양의 하나인데 태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새무늬의 관념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사리무늬는 함안 지역에서 유행하는 미늘쇠에서도 확인되며, 고사리모양의 미늘은 점차 새무늬로 변화하는 등의 연속적인 장식성을 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나 고사리무늬를 갑옷에 부가한 것은 갑옷을 입은 자의 현실적 권위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믿음이나 벽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장식이 더해진 갑옷의 경우 일반 갑옷을 입은 자와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이 갑옷은 1990년 경성대박물관에서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1차 조사의 2호 무덤의 목곽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상태이다.

○ 참고 문헌

경성대학교 박물관(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I - 개보』.
 慶星大學校博物館(2010), 『金海 大成洞古墳群』 IV
 국립김해박물관(2015), 『갑주, 전사의 상징』
 김혁중(2008), 「영남지방 4-5세기 종장판갑의 지역성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정식(2003), 「가야, 신라의 종장판갑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광섭(2003),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판갑의 의의-오리문양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훈(2012), 「삼국시대 종장판갑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현 상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옷과 목뒤를 가리는 경갑이 갑옷에 고정되어 있다. 갑옷 앞판의 좌우에 고사리문양이 있고, 뒤판에는 새 머리가 서로를 등지는 모양의 철판을 붙였다.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2호분 목곽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세로로 긴 철판을 못으로 고정하고, 가슴 앞쪽의 위쪽에 고사리문양의 철판인 진동판을 못으로 고정한 종장판갑이다. 그리고 뒤판 상단에는 둥근철판을 못으로 고정한 뒷목가리개를 부착하고, 아래쪽에는 서로 등지는 모양의 새 머리모양을 장식하였다.

○ 문헌자료

慶星大學校博物館 2010, 『金海 大成洞古墳群』 IV.

□

○ 형 식

김해 대성동 2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으로 철판을 두드려서 만든 종장판갑 형식의 갑옷이다. 어깨에는 측경판을 꽂기 위한 홈이 있으나 측경판은 확인되지 않으며, 목 뒤쪽으로 높게 올라온 철판이 특징적이다(도 1, 2). 가슴 앞부분에는 고사리문으로 장식된 철판이 양쪽을 장식하고 있으며, 목 뒤쪽 판에는 두 마리의 새가 등을 맞대고 있는 쌍조문의 철판이 장식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도 3). 김해 지역의 가야 갑옷 중에는 고사리 모양이나 새 모양의 철판을 가슴 앞부분이나 목 부분에 장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체로 금도 2. 김해 대성동 2호분 철제 갑옷. 뒷면. 관가야계 갑옷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 문양은 오리 문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양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김해 대성동 2호분 철제 갑옷. 뒷면. 관가야계 갑옷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 문양은 오리 문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양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 조성연대

갑옷이 출토된 김해 대성동 2호분은 목곽묘로, 금관가야 4세기 후반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갑옷의 제작 시기도 역시 그 즈음으로 추정된다.

○ 현 상

1990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대성동 고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으로, 현재는 복원 수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형태 자체가 찌그러진 상태로 복원이 되어 매우 약하고 형태도 다소 완전하지 못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도 3.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철제 갑옷. 뒷면 세부. 쌍조문 철관 장식.

금관가야의 발굴된 철제 갑옷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서, 뒷면에 두 마리의 새가 맞대고 있는 독특한 문양이 장식된 철제 갑옷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야 유적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새 문양이 종종 출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는 조령신앙(鳥靈信仰)으로 알려진 토속 신앙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새의 부리 형태로 보아 오리로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새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이 있다기 보다는 추상화된 새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야 문화의 토속 신앙적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조된 갑옷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 중에서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이긴 하다.

○ 문헌자료

경성대학교 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I - 개보』, 부산: 경성대학교 박물관.
오광섭, 2003,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관갑의 의의」,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국립김해박물관.



○ 현 상

관갑을 이루는 총 지판의 수는 13매로 우전동부 4매, 좌전동부 4매, 후동부 5매로 구성되었으며, 우전동부는 결실이 많이 되었고, 수지로 복원되었다. 첩판은 뒷길판, 진동판, 도련판, 후경판으로 구성되었고, 측경판은 없다. 좌·우전동부에는 고사리문양이 있고, 후경판 뒷면에는 새 머리가 서로를 등지는 모양의 첩판을 붙였다. 관갑을 이루는 첩판들은 쇠못으로 연결고정하였다.

○ 내용 및 특징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갑옷은 세로로 긴 첩판 매를 옆으로 첩판 끝을 중첩시켜 못으로 고정하고, 가슴 앞쪽의 전동부 위쪽에 고사리문양의 첩판인 진동판을 못으로 고정한 종장관갑이다. 후동부에는 호선 모양의 뒷길판을 못으로 고정하였다. 후동부의 뒷길판 위쪽에는 ‘∩’모양의 첩판을 못으로 고정하여 목을 보호하는 후경판(고대판)을 달았다. 이 후경판 뒷면 아래쪽에는 새 머리모양을 하고 서로를 등지는 형태의 첩판을 붙여 장식하였다. 후경판의 좌우에 해당하는 뒷길판에 측경판(깃판)을 꽂기 위한 홈이 있으나 측경판은 확인되지 않았다. 측경판은 유기질제이거나 부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 관갑 앞면과 뒷면

○ 문헌자료

慶星大學校博物館 2010, 『金海 大成洞古墳群』 IV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갑주, 전사의 상징』

○ 기 타

이 갑옷은 김해 대성동고분군 제1차 조사(1990. 6~8월)의 2호 무덤에서 목곽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문화재임.